

차 례

【제1부 제1 분과 자유발표】

이현희(안양대)	『조양반서(造洋飯書)』의 어휘 연구.....	1
박동근(대진대)	토론	18
김슬옹(인하대)	<훈민정음> 해례본의 초성자, 중성자 다중 분류 맥락과 의미.....	19
김정호(건국대)	토론	35

【제1부 제2 분과 자유발표】

양세희(고려대)	원리 중심의 국어 규범 교육 방안 모색.....	36
오현아(강원대)	토론	49
신호철(청주대)	<언어와 매체> 성취기준의 통합적 배분 방안 연구.....	52
윤구희(효문중)	토론	68

【제2부 특강】

홍종선(고려대)	국어 문법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70
----------	------------------------	----

【제3부 주제발표】

이동석(교원대)	국어 음운사의 연구 성과와 과제.....	83
안병섭(고려대)	토론	100
황선엽(서울대)	한국어 어휘사 연구의 현재와 미래.....	102
김양진(경희대)	토론	125
허재영(단국대)	국어사 시대 구분과 20세기 전반기의 문법 변화.....	126
이승희(상명대)	토론	142

【제4부 제4 분과 자유발표】

김병건(건국대)	신어 형성 방식 유형.....	144
윤혜영(한라대)	토론	158
정수현(건국대)	<번역소학>, <소학언해> 비교 연구.....	159
안신혜(송담대)	토론	171
고경민(단국대)	근현대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의 총체적 접근과 분석.....	173
김승환(상명대)	토론	193

【제4부 제5 분과 자유발표】

정대현(협성대)	한국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법 모색.....	194
강남옥(경인교대)	토론	203
배현대(경기대)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글 맞춤법 교육 방안 연구.....	205
신희성(고려대)	토론	215
정서영(상명대)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한 언어 지원 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 -중국, 일본, 독일, 호주, 한국 대학을 중심으로-.....	216
이소영(건국대)	토론	228

제1부 <제1 분과 자유발표>

『조양반서(造洋飯書)』의 어휘 연구

이현희(안양대)

< 차례 >

1. 들어가기
2. 서지사항 및 선행연구
3. 구성 및 체제
4. 『조양반서』의 표기와 어휘상 특징
5. 마무리

1. 들어가기

『조양반서(造洋飯書)』는 1899년(광무3년) Underwood가 번역한 서양 요리책이다. 현재 서강대학교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본고는 디지털한글박물관에 영인되어 있는 서강대학교 도서관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대 후기 표기법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것과 함께 서양 요리법에 관한 책이므로 ‘카피’, ‘차콜레이트’, ‘쏘쨌쨌’ 등 재미있는 어휘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양 요리의 중국어판을 한국어로 바꾼 것이어서 중국어를 그대로 번역한 경우도 있고 영어를 음역한 것이나 의역한 것 등 다양한 번역의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조양반서』의 구성과 표기법, 어휘 등을 살펴보고 이후 근대 후기 다른 문헌들과 함께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양음식 만드느칙 [주방규례]

숙슈 되는 자| 세가지 일이 잇는지라 맛당히 맛음에 돌지니 첫지닌 각식 그릇들과 음식 물건들을 각각 잘 간슈 햐야 착란치 아니 햐게 흘거시오 돌지닌 시간을 살펴서 무슴 일을 햐되 흘새에 어지럽고 황망 햐야 쥬의가 업게 햐지 아니 흘거시오 셋지닌 각식 그릇들을 쓸고 씨스며 마르고 정햐게 흘지니 음식을 다 먹은후에 맛당히 씻고 닥가셔 본자리에 갖다 돌지라 ...

2. 서지사항 및 선행연구

『조양반서』의 서지사항에 대한 것은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소장고서 해제에 잘 정리되어 있다.¹⁾ 앞뒤 표지와 서지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http://library.sogang.ac.kr/search/detail/MONOLD000000001028>

서지사항 요약 (서강대 로올라콜렉션 소장도서 해제 중)

Mrs. Crawford 著, 원두우元杜尤(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역. 신식활자본. [Seoul, Korea], [Independent Printing Office], [1899].

1책. 有界, 14行 35字 내외, 크기 22.0×14.0cm.

表題: 조양반서

…〈조양반서〉는 크로포드 부인의 중국어판을 언더우드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1899년에 서울에서 간행한 책인 것이다. 이때 “INDEPENDENT PRINTING OFFICE”는 〈조양반서〉에 한글, 한자, 영문 활자가 사용된 점과 언더우드와 개신교 선교사였음을 고려하면 감리교 선교부가 배재학당에 설치한 삼문출판사三文出版社(Tri-lingual Press)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어판 〈造洋飯書〉는 1852년부터 중국에 와 있던 미국의 침례교 선교사 크로포드(Tarleton Perry Crawford, 高丕第, 1821-1902)의 부인(Martha Foster Crawford, 1830-1909)이 편역하여 1866년에 상해의 미화서관美華書館(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에서 신식활자로 간행한 책이다. 이후 1885년, 1899년, 1909년에도 간행되어 서울대 규장각에 1885년판이, 중국 광둥성의 중산도서관中山圖書館에 1909년판이 소장되어 있다. 언더우드와 번역의 저본으로 삼은 중국어판은 1885년판으로 추정되며, 중국어판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언더우드의 한국어 선생이면서 〈한영자전〉의 편찬을 도왔던 송덕조宋德祚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대현)

이 외에도 『조양반서』에 대한 연구물로는 백두현(2008)이 있으나 이 외 연구 논문은 찾기 어렵다.2) 『조양반서』의 표지나 색인, 간행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백두현(2008) "언더우드와 번역한 서양음식조리서 <조양반서> 연구", 한국문학언어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2008년 1월 11일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pp1-47. 발표자가 과문하여 이 논문을 구하여 볼 수 없었다. 이후에 반드시 확인하고자 한다.

3. 구성 및 체제

원두우(Underwood)가 서문(Preface)을 통해 밝힌 것처럼 『조양반서』는 271개의 조리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각각 유사한 음식이나 조리법을 기준으로 16개로 묶여있다. 특히 책의 뒷부분에 조리법의 영문명과 번호 등이 색인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어 PREFACE가 나오는 구성이다.

(1) 『조양반서』의 체제

-쥬방규례

-탕(6), 칭선(10), 고기 쓰리느법(41), 알(4), 소탕(5), [나물(17)], 신 실과(8), [당식(32)], 찜(6), 면피(4), 푸딩(22), 단국(11), 석긴종류(46) [밀떡종류(10)], 우유떡종류(36), 여러가지 석긴종류(24)

-FOREIGN COOKERY. INDEX

-PREFACE.

(2) 『조양반서』와 『Foreign Cookery in Chinese』의 분류명 비교

KOREAN	탕	칭선	고기 쓰리느법	알	소탕	[나물]	신 실과	[당식]
CHINESE	탕湯	어魚	육肉	단蛋	소탕小湯	채菜	산과酸果	당식糖食
KOREAN	찜	면피	푸딩	단국	석긴종류	[밀떡종류]	우유떡종류	여러 가지 석긴종류
CHINESE	배排	면피麵皮	박정樸定	첨탕恬湯	잡류雜類	만두饅頭	병餅	잡류雜類

(1)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 271개의 조리법은 다시 16개로 분류되는데, 이 중 ‘푸딩’이나 ‘당식’, ‘우유떡종류’, ‘밀떡종류’ 등 빵이나 디저트와 관련된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안대현(서강대 해제)에 따르면 Crawford 부인의 『Foreign Cookery in Chinese』에는 『조양반서』에는 목차가 권두에 나오며 이 둘이 같다고 하였다.³⁾ 대부분의 것이 같지만 ‘육肉’의 경우 조리 방법이 포함된 ‘고기 쓰리느법’으로 분류명이 되어 있다. 한자의 의미가 풀이된 경우도 있는데, ‘酸果’를 ‘신 실과’로 ‘雜類’를 ‘석긴종류’로 ‘恬湯’을 ‘단국’ 등으로 쓰고 있다. 한편 원어의 발음을 차용한 경우도 있는데, ‘푸딩’의 경우 중국어와 상관없이 음역하였다.

한편 각 분류명에 부연설명이 되어 있는 예도 있다.

(2) 분류명에 대한 부연 설명

가. 탕 탕을 만드는 고기는 연한 거스로 하고 너무 기름진 거스로 하지 아니 흘지니 고기맛을 쓰려니라하면 불을 늦게 찌고 급히 찌지말며 반찜 쓰릴때에 소곰을 넣고 쓰릴때에 반드시 씻기와 거품을 버리고 흰 사탕을 조금 누르게 복가서 우혜 더하면 그 맛이 아름답온지라 령슈로 써 흥상 쓰리기를 머무지 아니 흘지니 만일 리일에 탕을 먹으라하면 오늘 문져 만드렷다가 리일 두 번 데우논 거시 당일에 만든것보다 도쿄 쓰릴때에 물을 더 하는거시 반드시 쓸는 물을 쓰고 령슈나 거렁흔 물은 쓰지 안느니라

나. 신 실과 신 실과 문드는 그릇은 쇠 그릇으로 하지 안코 사기 그릇으로 하느니라

다. 면피 (밀가루 반죽 훈것)

라. 푸딩 (전 병과긋고 증편과 곱흔것이라)⁴⁾

3) 『Foreign Cookery in Chinese』의 목차는 주방조례廚房條例-탕湯-어魚-육肉-단蛋-소탕小湯-채菜-산과酸果-당식糖食-배排-면피麵皮-박정樸定-첨탕恬湯-잡류雜類-만두饅頭-병餅-잡류雜類 등이다.(안대현)

4) 띄어쓰기는 원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가)는 탕에 사용되는 고기의 조건과 불을 조절하는 방법, 소금(소곰)이나 설탕(사탕), 냉수(령슈) 등을 쓰는 방법, 데우거나 물을 더할 때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서양요리 뿐 아니라 모든 고기로 국물을 낼 때 적용된다. 역시 (2나)도 신 실과의 요리에서 유의할 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2다)와 (2라)는 이와 다르게 괄호 안에 들어 있으면서 분류명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전병은 지져서, 증편은 발효시켜 찌서 만드는 떡이다. 현재 푸딩은 찌서 만드는 방법과 차갑게 얼려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조양반서』의 경우 찌거나 부쳐서 만드는 푸딩에 대해서만 설명되어 있다.

(3) 각 종류별 조리법 및 영문 색인⁵⁾

분류명	번호	제목(요리명)	영문 색인	분류명	번호	제목(요리명)	영문 색인
탕	1	육탕	Soup, Beef	탕	137	건포도 푸딩	Pudding, Rasin
	2	계탕	Soup, Cherokee		138	자도 푸딩	Pudding, Plum
	3	두탕	Soup, Pet		139	능금 증병	Apple, Dumpling
	4	치탕	Soup, Vegetable		140	불난서 푸딩	Pudding, French
	5	홍탕	Soup, Brown Gravy		141	쌀뜨린 푸딩	Pudding, Rice, Boiled
	6	조기탕	Soup, Oyster		142	옥수수 가루 쓰린 푸딩	Pudding, Indian
싱선	7	싱선 복그늘법	Fish Chowder ⁶⁾		143	쓰린 푸딩	Pudding, Boiled
	8	싱선 지지늘법	Fish to fry		144	감조 푸딩	Pudding, Potatoes
	9	싱선 쓰리늘법	Fish to boil		145	커스타드 푸딩	Pudding, Custard
	10	싱선을 굽는법	Fish to broil		146	만두(밀가루 썩이라) 푸딩	Pudding, Bread
	11	싱선 찌늘법	Fish, to bake		147	능금 커스타드	Custard, Apple
	12	조기 찌늘법	O y s t e r Scollopel(?)		148	옥수수 푸딩	Pudding, Sweet corn
	13	조기 지지늘법	Oyster to fry		149	세고 푸딩	Pudding, Sago ⁷⁾
	14	조기 쓰리늘법	Oyster to stew		150	아로 우룻 (연근 가루 혹은 갈분 가루 일흠이라) 푸딩	P u d d i n g , Arrowroot
	15	조기썩법	Oyster Fritters		151	타피오카 푸딩	Pudding, Tapioca
	16	조기 찜법	Oyster omelette		152	덕국 퍼푸쓰 (퍼푸쓰는 부키논뜻이라)	Puffs, German
고기 쓰리늘법	17		Meat to fry	153	푸리터쓰 (기름에 지진과조일흠)	Fritters ⁸⁾	
	18		Meat to broil	154	밀썩 푸리터쓰	Fritters Spanish	
	19		Beef, to bake	155	전병	Cake, Pan	
	20	소 고기를 불에 쏘이늘법	Beef, to roast	단국	156	단국	Sauce, Butter
	21	소 염통찌늘법	Beef Heart, to roast		157	단국 돌지법	Sauce, Pudding
	22	소 간	Beef Liver		158	단국셋지법	Sauce, Pudding
	23	소 갈비 굽늘법	Beef, Kidney		159	단장	Sauce, Hard(?)
	24	소 고기 조각	Beef Steak, to broil		160	계란 커스타드	Custard, Egg

5) 디지털한글박물관에 영인된 『조양반서』의 경우 흐리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또 4, 10, 13, 16장은 누락되어 있어 전체 조리법을 모두 알기 어려웠다. 다만 권말에 있는 Index와 함께 비교하여 빈칸의 번호를 채웠고, 분류명의 경우 서강대 로올라도서관 해제(안대현)를 비교하여 채울 수 있었다. 이후 '(?)'로 처리된 부분은 영인 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25	소 고기 조각 지지는법	Beef Steak, to fry	161	어름영권 커스타드	Custard, Ice cream
26	소 고기찜	Beef Steak, Pie	162	어름영권 커스타드 돌지법	Custard, Ice cream No.2
27	소 다리 저리는 법	Beef, Smoked to Frizzle	163	어름영권 물실과	Fruits, Iced
28	소 고기 곱 하는 법	Beef, a la mode	164	우유장	Cream for fruits
29	소 고기와 감자 찌는법	Beef Potatoes, to bake	165	칼노퐁 루쓰	Charlotte Russe ⁹⁾
30	향 우육	Beef, to collar or spice	166	플넘머리 (감주와 곱흔것)	Flummery ¹⁰⁾
31	소 고기 당그는 법	Beef, Salt, to boil	167	영기떡	Cakes, Jelly
32	소고기 조금 소흔법	Beef Hash ¹¹⁾	168	굴장	Cream, orange or lemon
33	양의 고기 조금 초 하는법	Beef, Mutton Hash	169	밀가루 덩심	Cake, Rice griddle Blanc Mange ¹²⁾ of flour
34	고기떡	Meat Balls	170	사탕엿	Candy, Sugar for
35	양의 갈비	Mutton, Chops(?)	171	엿실과	Fruits, Candied
36	양의 다리 쓰리는 법	Mutton, Leg of, to boil	172	엿으로 꾸민탑	Oramental Pyramid
37	양의 고기 찌는 법	Mutton, to bake	173	옴밀넛썩폴니	Omelette Souffle
38	양의 고기 불에 쪄는법	Mutton, to roast	174	썰니쌈 (젓술이라)	Syllabub ¹³⁾
39	양의 고기찜	Mutton, Pie	175	썩섬	Floating Island
40	도야지 삼키 찌는법	Pig, to roast	176	쓰린 커스타드	Custard, Boiled
41	도야지 간	Pig, Liver	177	썩 커스타드	Custard, Baked
42	도야지 고기 찌는법	Pork, to bake	178	가루술밧	
43	도야지 고기 굽는 법	Pork Steak, to broil	179	감주술밧	
44	저육 감주	Pork, Potatoes	180	썩술밧	
45	향기로운 고기 떡	Sausage	181	단단흔술밧	
46	화퇴 (불에 그스린 고기)	Ham	182	가루술밧으로 하는 밀떡	Bread, Brewer's yeast
47	화퇴육 굽는법	Ham to Broil	183	썩는 술밧으로 하는 밀떡	Bread, of hop yeast
48	뚝과 오리과 거위와 덧뚝 (이 뚝은 외국에서 나는 뚝)을 찌는 법	Duck, to bake Goose, to bake Turkey, to bake	184	쏘다 밀떡	Bread, Sodas
49	뚝과 오리과 거위와 덧뚝을 쪄는법	Duck, to roast Goose, to roast Turkey, to roast	185	기울밀떡	Bread, Graham (통밀)
50			186	감주밀떡	Bread, potatoes
51		Chicken, to fry	187	단밀떡	Rusk
52		Chicken, Pie	188	법국 적은밀떡	French Twists
53		Chicken, to stew	189	짜고적은 밀떡	
54		Chicken, to boil Chicken, to	190	쏘다떡	

석긴종류

			broil				
	55		Rice and fowl		191	신우유떡	
	56	토끼 불에 쪄 는법	Hare, to roast		192	신밀떡으로 만드 는 적은떡	
	57	커리	Curry		193	모밀가루떡	Cakes, Buckwheat
알	58	계란쌈	Ham, Omelette		194	메밀가루 썩돌지 법	Cakes, Buckwheat No.2
	59	슈란 쪄는법	Eggs, Poached		195	밀기울떡	Cakes, Unbolted flour
	60	계란죽	Egg Nog		196	밥[으]로 혼 적은 떡	
	61	계란 볶는법	Eggs, Scrambled		197	술밋 와폴쓰	Waffles, Yeast
소 탕	62	우유 기름 소탕 법	Drawn Butter ¹⁴⁾		198	술밋업는 와폴쓰	Waffles, Plain
	63	각식 고기 소탕	Gravy, Meat		199	밥와폴쓰	Waffles, Rice
	64	화퇴 소탕	Gravy, Ham		200	밀가루떡	Cakes, Breakfast
	65	누른 소탕	Gravy, Brown		201	적은 조각으로 혼 밀떡	Cakes, Flour drop
	66	계란국	Sauce, for Fish and Salad (?)		202	신 우유 옥수수떡	Cakes, Sour milk, corn
나 물	67		Celery, Essence of.		203	옥수수 가루 머핀 쓰	Muffins, India
	68		T o m a t o , Ketchup		204	밀가루 머핀쓰	Muffins, Wheat
	69		Sauce, Mint		205	옥수수떡	Bread, Indian meal
	70		Vegetables, to boil		206	쉴닐런	Sally Lunn ¹⁵⁾
	71		Turnips ¹⁶⁾		207	우유겍질떡	Cakes, Cream, Tea
	72		Beets (?)		208	조각떡	
	73		Squash		209	포포떡	Wafers ¹⁷⁾ (?) Cakes, Flannel (?)
	74	히트 팟 종류	Beans and Peas		210	스카썬로 와폴쓰	Puffs, Scarborough (?)
	75	묵은 팟 종류	Pork and Beans		211	우유겍질 적은떡	Cakes, Cream
	76	가지 지지는법	Egg Plant, to fry		212	크럼펫쓰로얄	Crumpets, Royal
	77	일년감	Tomatoes		213	초가집떡	Cake, Cottage
	78	일년 감 쪄는법	Tomatoes, to bake, etc.		214	둥근떡	Cake, Round
	79	옥수수쌀	Succotash ¹⁸⁾		-	계란떡	Cake, Sponge
	80	옥수수 쌀 쪄는 법	Sweet corn, to bake		215	돈과 꺾치 만드 는 시양떡	Ginger Nuts
	81	감주	Potatoes		216	시양떡	Cake, Ginger
신 실 과	82	감주 조각	Potatoes to slice	우 유 떡 종 류	217	서양스냅쓰 (스 냅 쓰는과주일홈)	Ginger Snaps
	83	감주 지지는법	Potatoes to fry		218	물겍품 꺾힌싱강떡	Cake, Ginger Sponge
	84	남 감주 (맛이 돌고 외꺾치 긴 것)	Potatoes, Sweet		219	시깃과 꺾한떡	Cake, Feather
	85	신외	Pickled, Cucumber		220	씨더떡	Cake, Cider
	86	신고초	Pickled, Peppers		221	우유겍질떡	Cake, Cream
	87		Pickled, Peaches		222	썬라이튼떡	Cake, Brighton ¹⁹⁾
	88		Pickled, Onions		223	썬우넛쓰	Doughnuts
	89		P i c k l e d ,		224	산썬우떡	Dough Hills

		Tomatoes				
	90	Pickled, Tomatoes green		225	차떡	Cakes, Tea Crullers Chicken,2
	91	Pickled, Cherries		226	우유겉질떡	
	92	Fruits, Spiced		227	찌넛논떡	Cakes, Drop
당식	93	사탕 복스 Preserved Peaches		228	로푸떡	Cake, Loaf ²⁰⁾
	94	술 복스 Brandy Peaches		229	잔떡	Cake, Cup
	95	살구와 오미 Preserved Apricots and Prunes		230	술떡	Cake, Wine
	96	비 Preserved Pears		231	불란서떡	Cakes, French
	97	꽃붉은 능금 Preserved Apples		232	검은떡	Cake, Black, or Fruit
	98	슈박 겉질 Preserved Watermelon rind		233	금떡	Cake, Golden
	99	귤 Preserved Oranges		234	은떡	Cake, Silver
	100	능금 씨넛법 Apple, to roast (?)		235	클울너쓰	
	101	능금 쓰리넛법 Apple, to stew		236	리몬떡 (리몬은귤즙이라)	Cake, Lemon
	102	능금 실 Apple, Dessert		237	리몬떡	Cakes, Lemon
	103	능금 장 Apple, Butter		238	실과즙 영귤떡	Cake, Jelly
	104	복스 오미 외얏 각종 실과 믹른 것 Fruits, Dried		239	사탕씨러드른것	Sugar Drops
	105	능금즙 영귤것 Jelly, Apple		240	뺨쓰	Buns ²¹⁾
	106	포도즙 영귤것 Jelly, Grape		241	원청돈떡	Cake, Washington
	107	복스 마마레이드 (복스 조림 허넛법) Marmalade, Peach		242	일년포도떡	Cakes, Victoria
	108	능금 마마레이드 (능금 조림 허넛것) Marmalade, Apple		243	머빌쓰	Mervells(?)
	109	파인애플 (비종류라) 무마레드 (조림이라) Marmalade, Pineapple		244	씨뿔쓰	Jumbles ²²⁾
	110	귤 마마레이드 (귤 조림이라) Marmalade, Orange		245	와퍼쓰 (조각씩일흠) Wafers, No.2	
	111	모과 즙 영귤것 Jelly, Quince		246	향기론지료떡	Cake, Spice
	112	귤즙 [귤즙⇒표기 오류] 영귤것 Jelly, Orange		247	언것긋치허넛떡	Cake, Frosting for
113	양 치즙 영귤것 (양치넛 칭션을 고아 아교 긋치 몬돈 거시라) Jelly, Isinglass ²³⁾	여러가지 석귤종류	248	싱강술	Beer, Ginger	
114	서양 치즙 영귤것 (야교 긋흔 것이라) Jelly, Prepared Gelatine		249	귤탕	Orange Sherbet	
115	타피오카 (서양 실과 종류라 즙 영귤것) Jelly, Tapioca		250	가삼편	Sham Champagne ²⁴⁾	
116	세고 즙 영귤것 Jelly, Sago		251	카피(차일흠)	Coffee	
117	양치 덤심 Blanc Mange ²⁵⁾		252	계란차	Egg Tea, or	

						Coffee
	118	소 족집 영기것 (족편 꺾힌것)	Jelly, Calf's foot	253	능금차	Apple, Tea
	119	적은 으희 들의 썸	Pie, Little Boy's	254	술 휘이 (휘이논우 유즙이라)	Wine, Whey ²⁶⁾
	120	능금썸	Pie, Apple	255	멀드 (가입흐논뜻 이라) 술	Mulled Wine ²⁷⁾
	121	익은 실과썸	Pie, Ripe fruit	256	차콜레이트 (차만 드논것일흠이라)	Chocolate
	122	살구썸	Pie, Apricot	257	닭나물	Chicken, Salad
	123	루뽀이란 실과 (대항 종류)	Pie, Rhubarb ²⁸⁾	258	잉도봉흐논법	Canned Cherries
썸	124	남 감즈썸	Pie, Sweet Potato	259	살구 봉흐논법	Canned Apricots
	125	남 감즈 조각썸	Pie, Sweet Potato, Sliced	260	복스 봉흐논법	Canned Peaches
	126	신 능금썸	Tarts, Apples	261	[제목없음]	Canned Plums, Grapes, etc.
	127	신 복스썸	Tarts, Peach	262	살구와 익은 복스 봉흐논법	Canned Apricots ²⁹⁾ and Peaches
	128	영법썸	Pie, Anglais Francais(?)	263	일년감 봉흐논법	Canned Tomatoes
	129	호박썸	Pie, Pumpkins	264	우육과 저육 화퇴 를 저리논법	Meat to pickle
면피	130	면피 몬드논법	Pastry for pies	265	화퇴 만드논법	Ham to cure
	131	면피 부크케 흐 논법	Paste, Puff	266	소혀고기 훈흐논법	Tongues and Beef, to smoke
	132	감즈 면피법	Pastry Potatoes	267	쏘썰쥬	Sausage, Bologna
	133	면피 썸하논법	Pastry Pie	268	전웃 싸논법	Washing Flannels
푸딩	134	밥푸딩	Pudding, Rice	269	웃싸논 비누 만드 논법	Washing Soap, to make
	135	눈 방울	Snow Balls	270	얼골 씻논 향괴비 누 만드논법	Toilet Soap, to make
	136	픽닉 (밧게 나 가 쇼창으로 놀 며 먹는 음식 일흠이라) 푸딩	Pudding, Picnic	271	연흐 옥슈슈 두논 법	Sweet corn, to Dry

- 6) 조개, 새우, 게, 생선류를 끓여 크래커를 곁들여 내는 수프. 주로 점심에 먹으며, 대표적인 것은 대합조개를 사용한 클램 차우더이다. 어패류를 주재료로 하여 만든 수프의 일종인데, 조리법이 발전하면서 근래에는 건더기가 많아져 걸쭉한 간식 같은 인상을 주게 되었다. (조리용어사전, 2007. 8. 27., 광문각)
- 7) 사과 야자나무에서 나오는 쌀알 모양의 흰 전분. 흔히 우유와 섞어 디저트를 만들 때 씀
- 8) (과일·고기·야채) 튀김. 걸쭉한 반죽에 저민 음식을 결합시키거나 걸쭉한 반죽을 입혀 튀긴 것.
- 9) 샤를로트 휘스. 레이디 핑거를 깔은 주형에 바바리안 크림을 채운 것.



- 10)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유행한 전분을 베이스로 한 부드러운 디저트 푸딩.
- 11) 다진 고기 요리
- 12) 블라망주 또는 블랑망제. 우유에 과일향을 넣고 젤리처럼 만들어 차게 먹는 디저트의 일종. 전분, 우유, 설탕과 바닐라 향을 첨가한 푸딩.
- 13) 와인 크림(크림에 포도주, 설탕, 과일 주스 등을 넣어 거품이 일도록 재빨리 휘저어 차게 먹는 디저트)
- 14) 드라운 버터. 드라운 버터(drawn butter)는 소스를 만들기 위해 녹인 버터를 말한다. 버터를 약한 불에 천천히 녹여 물을 증발시켜 유지방을 분리한 다음에 이를 걸러서 쓰는 것으로 뜨거운 열에도 빨리 타지 않으며 냄새도 덜 난다. (두산백과)
- 15) 샐리런 (구워서 바로 먹는 달고 알팍한 과자빵)
- 16) 순무

4. 『조양반서』의 표기와 어휘상 특징

4.1. 표기상 특징

『조양반서』는 현대국어의 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띄어쓰기가 단어 단위로 되어 있고 조리 법이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이 비슷하여 쉽게 읽을 수 있다. 근대 후기의 문헌이기 때문에 ‘ㆍ’나 스제 합용병서의 사용 등이 특징으로 보인다. 또한 받침 ‘ㅅ’이나 격음과 관련된 중철 표기, ‘ㅣ’모음 동화 등도 볼 수 있다.

(4) 61. 데륙십일 계란 복그논법○

문저 번철을 정히 말니고 기롭을 (도야지 기롭이나 혹 우유 기롭이나 다 쓰느니라) 부어 쓰리며 계란을 찢파려 저어서 기롭 속에 넛코 소곰을 조금 너으며 슈가락으로 젓다가 익으면 먹느니라

(4)는 『조양반서』 조리법 기술의 대표적인 형식이다. 재료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조리 방식과 함께 기술하면서 요리의 지속적인 과정을 차례대로 기술한다. 모든 요리의 번호는 아리비아 숫자와 고유어 숫자를 함께 쓰고 요리의 이름을 제목으로 소개한 뒤 구분을 위해 ‘○’를 붙인다. 괄호 외 다른 문장부호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권말에 영문에는 마침표를 사용하였다.

표기상 특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띄어쓰기이다. 단어를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는 일관성 있게 띄어쓰기가 유지되고 있다. 일부 관형어와 의존명사, 본용언-보조용언을 붙여 쓰거나 ‘하다’를 앞의 명사와 띄어 쓰는 것 등이 현대국어와 다르다.

-
- 17) 웨이퍼스. 밀가루·설탕을 주재료로 하고 팽화제를 가한 상당히 가벼운 과자. 부재료로 우유, 난황, 향료, 소금 등을 첨가하여 묽은 재료를 그물코가 있는 2장의 철판에 끼워 굽는다.
 - 18) 옥수수 콩 요리(옥수수와 콩을 섞어 함께 끓인 것)
 - 19) 영국 남부 도시 이름
 - 20) 로프 케이크. 막대 케이크 또는 파운드 케이크
 - 21) 번즈. 건포도를 넣고 계란칠을 하여 구운 소형 빵. 본고장은 영국이고 바스(bath) 번즈, 첼시 번즈, 핫크로스 번즈가 유명하다. 이것이 미국에 전해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었고 지금의 스위트 롤이나 커피케이크 형태로 되었다. (식품과학기술대사전, 2008. 4. 10., 광일문화사)
 - 22) 페스트리 같은 쿠키. 중세 이후 영국에서 해외로 퍼지게 되었다. 땅콩, 밀가루, 계란, 설탕, 바닐라, 아니스, 캐러웨이 씨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드는데 보통 링이나 둥근 모양으로 만든다.
 - 23) 물고기의 부레를 수세 건조한 것. 최상의 것은 철갑상어의 부레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대구 등의 부레도 쓰인다. 부레를 수세 후 건조한 것을 물에 담가 연화시켜 얇은 외막을 벗겨 피막부분을 제거하고 적당한 모양으로 잘라 일광에 쬐어 표백한 부레풀은 압을 걸어 박편으로 한다. 부레풀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고 백색무취이다. 이것을 물과 함께 삶으면 양질의 젤라틴이 얻어진다. 부레 풀(식품과학기술대사전, 2008. 4. 10., 광일문화사)
 - 24) Champagne [sham-PAHN-yah] 파리 북동쪽에 위치한 지방. 세계적으로 유명한 샴페인을 만드는 곳. 샴파뉴 지방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만 샴파뉴라 부를 수 있다.
 - 25) 블라망주, 우유를 갈분·우무로 굳힌 과자
 - 26) 유장(乳漿: 젓 성분에서 단백질과 지방 성분을 빼고 남은 맑은 액체)
 - 27) 설탕, 향료, 달걀노른자 등을 넣어 데운 와인이나 맥주
 - 28) 루바브. 식용 대황.
마디풀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 잎은 심장 모양이고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이다. 꽃은 여름에 옅은 노란색으로 피고, 잎자루는 신맛이 나고 향기가 있어 젤리나 잼을 만든다.



- 29) 살구

(5) 띄어쓰기

가. 거/것: 커리 문드논 거시 엇던 고기 던지 다 흐되(57), 낫씻논것과 그릇씻논것과 문지 닥논 세 가지 슈건(쥬방규례), 익은 것은 살구 봉흐논법과 꺄치 흐고 선거순 잉도 봉 흐논법과 꺄치 흐느 나라(260), 탕을 만드논 고기는 연흔 거스로 흐고(탕), 무거운 돌노 놀넛다가 식은후 뵈로 쨌거술 벗기고(30)

나. 단위: 쥬기 흐근을 쓸논물 흐근에 너엇다가(6), 계란 두기와 우유 반근과 사탕 조곰과(102), 우유 기름 반잔과 계란 흐기를 석거셔 비속에 넛고(40), 고야 부퀸 가루 석잔에 우유기름 네슈가락과 계란 세기와 사탕 흐잔을 너셔 석그고(204), 우유 기름 녀량중과(62)

다. 기타: 불을 녹게 쨌고 급히 쨌지말며(탕), 더울새에 술밧 흐잔과 소곰 반슈가락을 너셔(189), 법 국 적은밀떡(188), 쑤 누룩 흐좁에 물 두잔을 부어 쓰린후에(178), 거위와 뵈뵈을 쑤이논법(49), 익힌계란 여뵈기와(257), 사탕을 너으면 쓰를새에 너으라(263), 무른곳에 거러 두면(265),

라. 흐다: 흥상 조심 흐야(24), 연 흐게 흐고(25), 쓰린 물을 고기와 평근 흐게 부어 두엇다가(65), 소곰 국을 시험 흐라면(85), 식거든 봉 흐느나라(96), 밀가루로 반죽 흐야(119)

의존명사 후행하는 조사에 따라 ‘거’와 ‘것’ 두 가지로 쓰이는데, 대체로는 앞말에 붙여 쓰지만 띄어서 쓴 경우도 간혹 나타난다. ‘거/것’과 같이 1음절 의존명사들의 경우 대체로 붙여 쓰는 경향을 보이는데, (5나) 단위와 관련된 의존명사인 ‘술, 근, 잔, 기, 량중’ 등은 거의 앞말에 붙여서 쓴다.³⁰⁾ 이 외에도 ‘곳, 새, 후, 법’ 등의 1음절 명사나 일부 명사들에서도 붙여 쓴 경우가 있다. 현대국어에서 ‘흐다’는 보통 선행 명사에 결합하여 쓰이는데, (5라)의 경우처럼 문헌 내에서 대체로 일관성 있게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같은 단어나 구문에서도 띄어쓰기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띄어쓰기 규범이 정리되지 않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비교적 정연하게 띄어쓰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¹⁾

다음으로 ‘스’계 합용병서로 통일된 경음 표기를 볼 수 있다. 경음 중 ‘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경우 ‘시, 시, 시, 시’로 표기된다.³²⁾ (6다)의 ‘뚝겍게’ 정도에 예외가 보인다. 특히 원어를 음차할 경우 경음표기를 살려 현대 외래어표기법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6) 스계 합용병서 표기

가. 정향과 파싯헤 합흐야(19), 조기떡법(15), 쑤 감즈를 익혀셔(81), 루뵈이란 실과(123), 그물을 밧쳐 쑤기를 부린후(6), 스카쓰로 와풀쓰(210), 쑤라이톤떡(222), 산쑤우떡(224), 쑤쓰(240), 쑤쑤쓰(244)

나. 그릇 밧과 엽헤 다 싯고(85), 쓰린 커스타드(167), 불씨여 더웁게 흐후에(14), 불 우에 노와 쑤쑤

30) 후행하는 조사가 모음으로 시작할 경우 대체로 연결되지만 분철된 경우도 소수 나타난다.

<예> 아교 꺄흐것이라(114), 복스 무른 것이나(124), 증편과 꺄흐것이라(푸딩), 옥과 가루 흐기 간것을 넛느 나라, 불 힘이 디과 흐것을 쓰지 말고(23), 향기론것을 구미디로 넛코(85), 실과 무른것을 정히 쑤셔(104), 익은 후에 뵈흔것을 벗시고(120), 흐기 간 것을(158), 밀가루 석근것을 너셔(160), 계란 흰즈 두기 저은 것을(174), 사탕즙 영근것을 조곰 너셔(175), 더운 우유 반잔에 탄것을 너어(219), 사탕연것을 쑤셔(247)

31) 예를 들어 ‘밀떡’의 경우 전체 25회 나오는데, 그 중 ‘적은밀떡, 신밀떡, 단밀떡’ 정도의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식어와 띄어쓰기 되어 있다. ‘흐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여서 대부분은 선행 명사와 띄어쓰기 하지만 아래와 같이 붙여쓰기 한 경우도 있다.

<예> 오목흐게 웅덩이를 만든후에(152), 쑤흐는 그릇에(160), 병에 넛코 봉흐느나라(179), 되고 질기를 알마치흐고(183)

32) 김무림(2004:227-229)에 따르면 합용병서 표기는 근대 17, 18, 19세기를 거치면서 ‘시/시→시, 시/시→시, 시→시’로 간소화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1899년 문헌인 『조양반서』의 경우에도 스계로 모두 통일되어 나타나고 있다.

ㅎ계 ㅎ면(85), 소곰을 뿌려 지지늑나라(83), 화덕에 너셔 씨늑나라(182)
 다. 만두 가루를 똑겁게 덩허(12), 옥슈슈쌀(79), 정히 씨슨 찹쌀을(135), 조각으로 씨러 지저 먹고,
 영기논 틀에 쏘앗다가, 잉도면 물에 씨셔 담으되(121), 덕국 퍼푸쓰(152), 푸리터쓰(153), 칼노티
 루쓰(166), 찔니법(174), 쏘다씩(199), 술밋 와폴쓰(197), 밀가루 머핀쓰(204), 크럼펫쓰로얄(212),
 서양스넵쓰(217), 쏘썰쥐(267)

격음의 경우 일종의 중철 표기로 ‘평음-ㅎ’ 표기가 나타난다. 이는 용언과 체언에 두루 나타
 난다.³³⁾ 이를 일종의 중철 표기로 볼 수 있겠다.

(7) 격음 표기 : ‘평음-ㅎ’ 표기

가. 평음-ㅎ 표기 : 흥당무 몇조각을 동의에 갖으로 담고(31), 전 모양과 꺾치 잘 문드러셔 붉은 불
 압 해 거러셔 쏘이되(49), 무거운 거스로 놀너 외가 밋헤 ㄱ르안게 아흐리를 당것다가(85), 그릇
 밋과 엽헤 다 쌀고(85), 벳헤 쏘이고 슈박 겁질이 익어 무르지 안케 ㅎ라(98), 자조 져어서 솟헤
 붓지 안케 ㅎ늑니(263), 그릇 밋과 엽으로 나물 입스귀를 펴고(85), 밀가루 반죽헌 조각으로 덩허
 며(122)

나. ‘받침 ㅅ-ㅈ’ 표기 : 소 고기 굽는 법과 꺾치[같이](25), 네 드리는 구브려 몸에 붓치고[붙이
 고](56), 불에 쏘여 빗치[빛이] 누르케 ㅎ늑나라(56), 시험 ㅎ야 좇치[좇지] 아니 ㅎ면(105), 그릇치
 [그렇지] 아니 ㅎ면(131), 빗치[빛이] 희게 ㅎ고(159), 우유기름 ㄹ량중을 흰빛치[흰빛이] 되게 석
 근후(234), 사탕을 ㄴ치[냉지] 안키도 ㅎ늑니(263), 서로 ㄷ치[닿지] 아니 ㅎ계 ㅎ야(265)

(7가)에서 앞말의 받침이 ‘앞, 옆, 곁, 별, 밑, 덩다’ 등 ‘ㅍ’과 ‘ㅌ’일 때 받침이 ‘ㅂ’이나 ‘ㅅ’
 으로 표기되고 후행하는 조사나 어미에 ‘ㅎ’이 덧생긴다. 즉 격음의 자질을 나눠 표기한 것인데,
 이와 조금 다르게 구개음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표기도 함께 나타난다. (7나)의 경우 받침이
 ‘ㅈ’, ‘ㅎ’인 경우들로 이때는 후행하는 자음이 ‘ㅈ’으로 나타난다. 이때 선행하는 받침이 모두
 ‘ㅅ’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외에도 받침에서 ‘[ㄷ]’ 소리가 날 경우 ‘ㅅ’으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ㄷ~ㅅ’ 혼기에서 ‘ㅅ’ 표기로 통일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언의 활용에서도 표기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8)에서 받침이 ‘ㅎ’인 ‘널다’와 ‘놓다’
 의 경우 표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용언 어간으로 ‘너/넛-’, ‘노/놏-’의 두 가지가 모두 쓰인
 것으로 받침 ‘ㅎ’이 후행 어미에 얹혀 실현되기도 하지만 일정하지 않다. 모음 어미가 올 경우
 ‘ㅎ’이 탈락하는데, ‘널-어’의 경우 ‘너허’의 예가 4번 정도 나타난다. ‘널다’의 사용이 400번 이
 상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8다)의 ‘두꺾다’는 ‘뚫게/뚫게’의 형태로 척도명사 ‘두
 꺾’로 쓰인다.

(8) 널다

가. 널다: 너허/너어/너어셔/너엇다가/너셔/너코/너며/너은/너으며/너으되 , 넛코/넛고/넛커나/넛
 늑나라/넛키도/넛치/넛논/넛던지

나. 놓다: 노와/노아/노코/노으며/퍼노은/노앗다가, 놏고/놏코/놏되/놏늑나라/드려놏코

다. 두꺾다: 똑겁게/뚫거오면/뚫게/뚫게

33) 김무림(2004:236-237)에서는 이에 대해 엄밀하게 중철 표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철 표기의 범주에 포함
 하여 설명하고 있다. ‘결턱셔(동국신속 효자 2-39), 잡핼(동국신속 효자 1-13)’는 ‘평음-격음’ 표기, ‘꺾히(동
 국신속 효자 2-69), 갑흘 보(鞞, 왜어유해 하-40)’은 ‘평음-ㅎ’ 표기로 보았다. 『조양반셔』에 나타난 격음 표
 기는 이 중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의존명사의 용법이 특이한데, 주로 현대국어의 ‘한 술, 두 술, 한 큰술, 한 작은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슈가락’을 쓴다. 또 액체의 양을 셀 때는 ‘잔’을 쓰고 무게로는 ‘근’을, 길이로는 ‘치’(반치 듯계식)를, 개수로는 ‘기’를 쓴다. 이들은 거의 앞말에 붙여서 쓰인다. 특이한 것은 시간과 관련된 것인데, 현대국어에서 ‘한 시간 동안’이라고 쓸 경우 『조양반서』에서는 ‘한시 동안, 반시 동안, 삼스시 동안’으로 쓴다. 분(分)과 관련해서는 ‘십오분 동안’으로 쓴다. 분량과 관련해서도 ‘분(分)’을 쓰는데, ‘사탕물 삼분에 술 이분 너라’ 등과 같이 쓴다.³⁴⁾

4.2. 어휘상 특징

서양 요리는 시간에 따라 차리는 음식의 종류와 방법이 다양하고 주로 오븐을 사용하는 요리가 발달되어 있다. 소금, 후추, 버터 등을 기본 조미료로 쓰고 향신료나 포도주를 함께 사용한다. 저녁식사의 경우 수프-주요리(생선 또는 고기요리)-샐러드-빵-후식 등으로 구성된다.³⁵⁾ 앞서 (2)와 비교해 보면 『조양반서』 역시 서양 요리를 소개하는 책이므로 이와 유사한 차례를 보인다.³⁶⁾

우선 수프에 해당하는 ‘탕’이 먼저 나오고 주요리에 해당하는 ‘싱선, 고기 쓰리논법, 알’ 등이 나온다. 이어 ‘소탕’은 소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요리에 곁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나물’로 되어 있는 음식은 주로 팔, 감자, 옥수수 등을 재료로 하는 것으로 보아 주요리와 함께 먹는 것으로 보인다. ‘신실과’는 피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이, 후추, 복숭아, 토마토, 양파, 체리 등 다양한 재료를 초절임한다. ‘당식’부터는 디저트로 보이는데, 파이나 타르트에 해당하는 ‘썸’, 페이스 트리에 해당하는 ‘면피’, 주로 따뜻한 푸딩인 ‘푸딩’, 커스터드와 커스터드를 이용한 케이크 등을 포함한 ‘단국’, 여러 가지 술밋이나 밀떡, 우유떡, 머핀 등이 섞인 ‘석긴종류’, 다양한 케이크에 해당하는 ‘우유떡종류’, 커피나 술 등 여러 가지가 섞인 ‘여러가지 석근종류’ 등이 있다. 이처럼 목차가 서양 요리의 순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조양반서』에 사용된 어휘를 재료/도구/요리 명사, 수식 형용사/부사 등 품사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재료/도구/요리 명사

재료나 요리가 서양에서 들어온 것일 경우 ‘일흠(이름)’이라 하여 부연 설명을 한 경우가 있다.

(9) ‘일흠’ 부연 설명

쇼다 (약일흠) 를 쯔 너허(3), 자게 (외국일흠은 슈치) 큰 슈가락으로 아흠과(45), 쏘다 (약 일흠니라)(132), 찬 각스티 (외국 약념 일흠)를덥느니라(134), 픽닉 (밧게 나가 쇼창으로 놀며 먹는 음식 일흠이라)(136), 아로 우룻 (연근 가루 혹 갈분 가루 일흠이라)(150), 푸리터쓰 (기름에지진과즈일흠)(153), 술밋 와폴쓰○(와폴쓰논모진씩일흠이라) (197), 서양스넵쓰 (스넵쓰논과즈일흠)(217), 와퍼

34) 구문의 특징은 해당 조리법에 사용되는 재료와 그 재료를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 한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여 이번에는 발표하지 않는다.

35) 네이버 두산백과 ‘서양요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1233&cid=40942&categoryId=32140>

36) 『음식디미방』의 경우 목차가 면병류, 어육류, 주국방문, 식초 담그는 법을 되어 있는데(백두현, 2006) 한상에 모든 음식을 차려 놓고 먹는 우리의 경우보다 분류가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빈과장, 포도장, 산소장, 키비사(?), 당식(사탕과 실과를 조려 문든것), 각스티 (외국 약념 일흠)(?), 옥과 가루, 자계(외국일흠은 슈치), 꿀, 굴 물, 향긋론 나물, 씨더(능급줍이라), 싱강/시양, 일년감장(토마토장-케첩), 등/등줍, 굴피가루, 약념, 아룻 우룻(?)

다. 곡식관련: 밀가루/복근 밀가루, 마른 팻, 녹말, 쌀, 세고, 메밀가루, 술밧, 밀기울, 흑쌀가루

(11나)는 요리에 따라 추가되는 ‘약념(양념)’으로 주로 향신료와 소스 등에 해당된다. 향신 열매의 가루나 고기국물이나 과일의 즙을 베이스로 하여 끓여서 만든 소스 등을 양념으로 사용한다. 한편 곡식의 가루도 양념처럼 사용되는데 밀가루처럼 빵이나 케이크, 과자를 만들 때 쓰이기도 하지만 소스를 만들거나 고기 등에 발라서 사용하기도 한다. ‘술밧(술밀)’은 술의 원료가 되는 누룩으로 지은 밥 또는 누룩으로 보이는데, ‘가루술밧, 감즈술밧, 단단훈술밧, 쥐논술밧, 신술밧’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밀떡’이나 ‘모밀가루떡’, ‘술밧 와풀쓰’, ‘밀가루 머핀쓰’, ‘짚닐런’, ‘크럼펫쓰로얄’, ‘뜨우넛쓰’, ‘로푸떡’ 등 다양한 케이크나 과자를 만든다.

요리의 재료에 해당하는 어휘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많이 쓰이는 재료로 우유와 계란이 있다. 특히 계란은 ‘노른즈’와 ‘흰즈’를 ‘논호아’ 쓰라고 지시하고 있으며 재료에 섞거나 바르는 데 쓰인다. 우유는 그 자체로도 쓰이지만 ‘우유 기름’, 즉 ‘버터’의 형태로 많이 쓰이고 ‘우유 겁질’은 우유의 단백질을 모은 치즈 정도로 보인다.³⁹⁾

(12) 재료

가. 유제품: 우유 겁질, 우유 기름, 닭알, 계란 노른 즈와 흰즈

나. 채소: 흥당무, 파, 파썩리, 파 가루, 파 쏘, 무, 미느리, 감즈/왜감즈/남 감즈/쥬션 감즈/양국 감즈⁴⁰⁾, 루쌈

다. 과일: 건포도, 타피오카, 자도, 포도, 일년포도, 오미, 잉도, 풋실과, 살구, 능금, 굴, 일년 감, 비, 복스, 자도, 모과, 파인애플 (비 종류라)

라. 육류: 소 압드리 썩, 쥬기(oyster), 도야지 삭기, 저육, 가족(가족), 덧툼, 닭알(계란), 도야지 창즈

(12나)는 채소, (12다)는 과일, (12라)는 육류에 해당하는 어휘를 보인 것인데 이 외에도 다양한 재료가 사용된다. 특히 ‘쥬기’의 경우 영문 색인에 ‘clam’이나 ‘shellfish’가 아니라 굴에 해당하는 ‘oyster’로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고기와 곁들여 먹는 감자의 경우 조선 감자와 왜 감자, 서양감자를 구분하여 쓰고 있고, 파 역시 뿌리, 가루, 꽃 등 다양한 부분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 재료나 양념은 아니지만 요리와 관련된 몇 가지 어휘가 나타난다.

(13) 기타

가. 찌기/찌기, 거품/겁품/겁품, 반죽, 덩이, 쥬각, 죽, 된죽,

나. 향향[홍콩], 불난셔[프랑스], 덕국[독일]

다. 썰는 물, 령슈, 거렁흔 물

요리의 중간 단계에 끓이거나 삶을 경우 찌거기나 거품이 생길 수 있는데 표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또 직접 가열하기 이전 단계를 ‘된죽과 꺷치 흐라’ 등과 같이 어떤 상태로 만들도

39) 정확히 ‘우유 겁질’이 ‘치즈’인 것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우유 겁질이 쓰인 요리, ‘계란쌈’(오믈렛omelette)에 치즈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본다. 이후 확인이 좀더 필요하다.

40) (큰 감즈 논 양국 감즈니 만일 쥬션 감즈면 열 여섯기를 쓰느니라)(144)

록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13나)와 같이 나라 이름이 들어간 요리도 있고 불과 마찬가지로 물 역시 (13다)처럼 다양하게 용도에 맞춰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수식 형용사/부사

형용사나 부사는 재료의 상태를 표현하거나 요리의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주로 사용된다. 특히 탕의 맛을 설명하면서 ‘맛있다’나 ‘좋다’가 아니라 ‘그 맛이 아름답온지라’로 표현한 것이 특이하다. 또 색깔을 이용해서도 요리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사탕엿’을 만드는 방법에서 ‘무론 무슴 엿이던지 다 이법과 꺾치 만들되 무슴 향기 물이던지 넉코 혹 길고 둥굴고 모 지게 만들어도 쏘 흥 더워서 푸르고 붉고 쫄지빚과 남빚을 넉느니라(170)’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몇 가지 대표적인 수식 표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두껍다’

가. 만두 가루를 똑겁게 덩허

나. 만일 듯거오면 일각 안동에[동안에⇒인쇄오류] 흥근을 쏘이고 만일 얇으면 조금 속히 흘거시오

다. 써러셔 쟈각을 문들되 반치 듯게식 되게 흥야

라. 쏘 물을 부어 독거워 지게 써셔 단 국과 꺾치 먹느니라(145)

마. 정히 씨슨 찹쌀을 오피 독게즘 편 후에(135)

(15) ‘연하다’

가. 고기논 연흔 거스로 흥고 너무 기롭진 거스로

나. 살지고 연흔 둥

다. 팻 염을고 연흔디로

라. 무슴 밀씩을 만들던지 연흥소록 도흔거시니 너모 단단케 흥지말지니라(186)

(16) ‘덥다’

가. 불씨여 더웁게 흥후에

나. 조기가 더웁기를 기다려

다. 불이 만일 너모 더우면

라. 계탕은 탕그릇에 담아서 더웁게 먹을지니라

(17) ‘뜨듯하다/따뜻하다’

가. 쏘뜻흔 물에 흥루 밤을 당것다가

나. 적은 불 우에 노와 쏘뜻 흥게 흥면

다. 쏘뜻흔 우유 흥근에(188)

주로 ‘두껍다’로 표기되고 ‘듯게/독게’ 등으로 쓰여 ‘두께’(척도명사)의 역할도 한다. ‘똑겁게’에서 각자병서 표기가 1번 나온다. 이어 ‘연하다’의 경우 주로 재료의 상태를 수식하는 데 사용된다. 특이한 것은 (16)의 ‘덥다’인데 ‘뜨겁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한편 비슷한 의미로 ‘쏘뜻하다’가 쓰이는데 ‘따뜻하다/뜨듯하다’로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⁴¹⁾ 한편 썰기

41) ‘덥다’와 ‘뜨겁다’의 구분, ‘따뜻하다’와 ‘뜨듯하다’의 구분이 음식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좀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뜨거운 국물’과 ‘더운 국물’을 모두 쓸 수 있지만 ‘뜨거운 물’, ‘뜨듯한 물’, ‘따뜻한 물’, ‘더운 물’ 간에는 온도의 차이가 있다.

의 방법 중 깍둑썰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바둑 (긋치)’ 썰기로 표현하고 있다.

(18) ‘바둑 (긋치)’

- 가. 저린 고기 겹질을 바둑 쪽 긋치 써러 너으되
- 나. 호박 죽을 그우에 바둑 만큼식 썰여 냐고
- 다. 칼노 가죽을 예워 베이되 바둑 조각 모양으로 하고

(19) ‘너그럽다’

- 가. 뵈로 녀으렵게 쓰셔 물에 녀코 쓰리되(141)
- 나. 여러긋지 석근 죽을 쏓고 녀으렵게 쏓여 미야 두시 동안을 쓰려셔(142)

‘너으렵다’의 ㅂ 불규칙 형태(녀으러오-)로 중세국어에 ‘舒展 성품 녀으러온 이 <한청 6:13>’의 예가 있다. 여기서는 성품이 너그럽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재료를 주머니나 베에 넣었을 때 너무 꼭 하지 말고 여유롭게 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평균’이나 ‘시험’, ‘예비’ 등이 ‘하다’와 함께 쓰인 경우인데, 이때 모두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 ‘평균하다’ 동사의 의미는 ‘여러 개의 값을 평균을 내다’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같은 정도의 분량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비 하다’의 경우는 미리 준비하라는 의미로, ‘시험 하야’는 요리의 중간에 요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검사한다는 의미가 크다.

(20) ‘평균 하다’, ‘시험 하다’, ‘예비 하다’

- 가. 국물과 찻이 평균 하야 써느니라
- 나. 먹을재에 짜로 밥을 예비 하야 이거술 밥에 부어 먹느니라(커리)
- 다. 식은 후에 시험 하야 쏓치 아니 하면 두번 쓰려 겹품을 부리고
- 라. 물을 조금 더붓고 쓰를재에 물에다 시험으로 썰르 썰려 보아
- 마. 소곰 국을 시험 하라면 감즈나 계란을 너셔 ㄱ르 안고 쓰지 아니 하기쓰지

5. 마무리

이번 발표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조리 동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못하였다. 음식이 서양 요리이므로 주로 서양 조리 방법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사용되었다. 제목에 조리 방법을 나타내는 어휘가 그대로 쓰인 경우도 있고 설명의 제일 끝부분은 ‘만드느니라/만드느니라’, ‘하느니라’, ‘먹느니라’ 등으로 끝난다. 실제로 동사들을 연이어 쓰기도 하는데, ‘렁슈에 너셔 문질너 닥근 후에’, ‘도흔 포도를 가려 손으로 문기셔 뵈 견디에 녀코 즈을 짜느니’, ‘(거피하야삶으라)(186)’처럼 조리의 순서에 따라 동사가 거듭하여 나온다. 또한 요리의 분류에 따라 사용되는 동사들이 비슷한데, 탕은 ‘쓰리다, (물을) 붓다, 집어내다, 담다, 당그다, 부리다, 익히다’, 생선은 ‘복그다, 지지다, 쓰리다, 굽다, 찌다, 고다(고아서), 말나다, (기름을) 바르다’, 고기는 ‘찌다, (불에) 쏘이다(쪄다), 굽다, 지지다, 저리다, 곰 하다, 쇼 하다, 쓰리다’, 소탕은 ‘쓰리다, 복그다, 지지다, 찌다, 거르다(걸너), 무르다(무른)’ 등의 동사가 쓰인다.

다음으로 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요리서들과의 비교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조선 요리서의 대표격인 『음식디미방』이나 이후 『朝鮮無雙 新式料理製法』(1930), 『우리음식』(1948), 『四季

의 『朝鮮料理』(1946), 『朝鮮料理製法』(1943) 등과의 비교도 의미가 있겠다. 표기법과 관련하여 근대 후기 다른 문헌들과의 비교도 필요하다.

■ 참고 문헌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김정남 (2011), 한국어 요리 동사의 낱말발. 한국어 의미학, 34, 77-107.

이선영(2014), 중세국어 조리동사와 그 의미, 한국어 의미학 46, 303-330.

백두현(2006), 『음식디미방 주해』, 글누림.

백두현(2001), 『음식디미방』[규곤시의방]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연구, 영남학 창간호, 249-280.

이광호(2000), 음식디미방의 분류 체계와 어휘 특성, 문학과 언어 제22집, 1-26.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4. 옛말과 이두(1992), 어문각

■ 토 론

“『조양반서(造洋飯書)』의 어휘 연구”에 대한 토론문

박동근(대진대)

이 연구는 국어사 연구에서 많이 소개되지 않은 음식조리서인 **조양반서**에 대한 연구로, 구성과 표기법, 어휘 등을 살펴 근대 후기 한국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익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종류별 조리법 및 영문 색인을 아주 꼼꼼히 작성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성격상 논쟁적인 질문보다는 내용상 몇 가지 궁금한 점(혹은 앞으로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4.1에서 **조양반서**는 표기상 현대국어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띄어쓰기에서는 명사와 ‘하다’를 띄어쓰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한글의 규범적인 표기나 띄어쓰기가 정착된 시기가 아니므로 표기나 띄어쓰기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과도기적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양반서**의 역자인 언더우드는 **대한영영한자전**(1890), **대한영문법**(1890)을 표낸 바 있습니다. **조양반서**에서 보이는 표기나 띄어쓰기의 특징이 언더우드의 다른 사전이나 한그 저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표기인지 혹시 확인이 가능하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다른 한글 조리서와 달리 **조양반서** 번역본이라는 점에서 어휘 사용의 특징을 이해할 부분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특히 탕의 맛을 설명하면서 ‘맛있다’나 ‘좋다’가 아니라 ‘그 맛이 아름답온지라’로 표현한 것이 특이하다”고 지적하였는데, 현대어의 관점에서 이런 음식 맛과 ‘아름답다’라는 서술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근대 후기 사용했던 표현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지만 번역상의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직역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아름답다’가 당시 맛을 표현하는 형용사로 가능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직역의 결과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cf. 美麗的味道)

셋째, (16)의 “조기가 더웁기를 기드려”같은 예에서 ‘덥다’가 지금의 ‘뜨겁다’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았는데, 20세기 초 이광수의 **떡정**에도 이와 같은 사용이 보입니다. - “영치의 뺨은 불덩어리와같이 덥다.” -

넷째, 조금 조심스러운 지적이긴 하지만 **조양반서** 저자는 서강대나 디지털한글박물관의 해제에 따르면 선교사 Horace Grant Underwoo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인터넷 검색 정보에 따르면 **조양반서** 저자가 언더우드의 부인인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조양반서**에서 저자가 언더우드의 한글명인 ‘원두우 저술’이라고만 되어 있어 남편인지 부인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릴리스 언더우드는 최초의 영한 번역소설인 <턴로력명>을 번역하기도 하여, 남성이 굳이 요리 조리서를 번역한 것도 저자를 의심케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초성자, 중성자 다중 분류 맥락과 의미

김슬옹(인하대)

<차 례>

1. 머리말
2. 초성자 분류의 맥락과 의미
3. 중성자 분류의 맥락과 의미
4. 논의
5. 결론

1. 머리말

이 글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난 초성자와 중성자의 다양한 분류 맥락과 의미를 살피고 더 나아가 이러한 분류 체계를 도표와 그림으로 어떻게 도식화할 것인가를 다룬 것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초성자와 중성자는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그 양상과 의미는 달라진다.

이 논문의 핵심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례본에 근거한 창제 원리와 정신을 보여주는 분류 체계를 밝히고 제시한다. 해례본 내용을 흔히 전달과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표로 제시한다. 매우 바람직한 전략이지만 해례본 자체에 표가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

둘째, 분류 체계에 따른 용어 설정을 정확히 한다. 분류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분석적 체계를 전제로 하거나 목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은 분류 대상에 대한 관점이자 분류의 의미를 드러내준다. ‘기준’은 흔히 특정 용어와 그 용어의 개념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기준 용어 설정은 분류의 의미를 좌우한다.

이러한 분류에서 먼저 기본 28자에 대한 기본 체계에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28자에 대한 철학적, 천문학적 배경이 두루 연구되었지만 1차적인 기본자로서의 글꼴을 확정한 것이다.

28자를 바탕으로 확장된 글자로 나아가는 과정과 맥락이 해례본에 정확히 기술되었는데 이런 분류 전략을 표 구조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 보자는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초성자와 중성자로 나눠 전체 흐름을 먼저 해례본 구조도와 함께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않고 있다. 필자는 한글문화연대 후원으로 2016년부터 일반 시민 강좌를 개설하여 현재 3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례본 관련 2차 문헌들이나 교과서에서 설정한 기본 분류가 해례본의 내용이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2. 초성자 분류의 맥락과 의미

초성자 분류는 크게 보면 ‘예의’에서의 분류와 제자해에서의 제자 원리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예의에서의 분류는 기본적으로는 제자 원리에 따른 분류가 전제 되어 있다.

1) ‘예의’에서의 1차 분류

초성자의 1차 분류는 흔히 예의편이라 부르는 ‘정음편’에서 이루어졌다.

-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並書. 如虬字初發聲 [정음1ㄱ:7-정음1ㄴ:1_어제예의]¹⁾
- ㅋ. 牙音. 如快字初發聲 [정음1ㄴ:2_어제예의]
- ㆁ. 牙音. 如業字初發聲 [정음1ㄴ:3_어제예의]
- ㄷ. 舌音. 如斗字初發聲, 並書. 如覃字初發聲 [정음1ㄴ:4-5_어제예의]
- ㅌ. 舌音. 如吞字初發聲 [정음1ㄴ:6_어제예의]
- ㄴ. 舌音. 如那字初發聲 [정음1ㄴ:7_어제예의]
- ㅂ. 唇音. 如譬字初發聲, 並書. 如步字初發聲 [정음2ㄱ:1-2_어제예의]
- ㅃ. 唇音. 如漂字初發聲 [정음2ㄱ:3_어제예의]
- ㅍ. 唇音. 如彌字初發聲 [정음2ㄱ:4_어제예의]
- ㅈ. 齒音. 如卽字初發聲, 並書. 如慈字初發聲 [정음2ㄱ:5-6_어제예의]
- ㅊ. 齒音. 如侵字初發聲 [정음2ㄱ:7_어제예의]
- ㄷ. 齒音. 如戍字初發聲, 並書. 如邪字初發聲 [정음2ㄴ:1-2_어제예의]
- ㄹ. 喉音. 如挹字初發聲 [정음2ㄴ:3_어제예의]
- ㅎ. 喉音. 如虛字初發聲, 並書. 如洪字初發聲 [정음2ㄴ:4-5_어제예의]
- ㅇ. 喉音. 如欲字初發聲 [정음2ㄴ:6_어제예의]
- ㄷ. 半舌音. 如間字初發聲 [정음2ㄴ:7_어제예의]
- ㄸ. 半齒音. 如穰字初發聲 [정음3ㄱ:1_어제예의]

위 분류는 세종이 직접 제시한 최초 분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루 알려진 대로 세종은 1443년 12월에 간략한 소책자 형식의 정음본(예의본)을 완성하고 여기에 정음해례를 첨부해 1446년에 해례본을 발간했다.²⁾ 그렇다면 1443년의 정음본을 1446년 해례본에서 수록한 셈인데 실제 정음본과 해례본의 정음편이 같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일반적인 책 편집과 교정 과정으로 본다면 약간의 수정은 있었을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세종이 주관하여 편집 집필한 것이

1) 병서자는 행을 달리하였지만 기본자 28자의 위상을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선행절에 합쳐 편집하였다.
 2) ‘예의’라는 용어는 세종실록 1443년 12월 30일자 사건 기록(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于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과 1446년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서에서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정음해례27ㄴ:4-6.정인지서]”라고 ‘-예의-’라고 한 것에 유래한 것임을 홍기문(1946: 65-66)에서 밝힌 바 있다.

(2) ㄱ木之成質, ㅋ木之盛[°]長, ㆁ木之老壯, 故至此乃皆取象於牙也. [정음해례4ㄱ:5-7_제자해]

각자병서자 가운데 ‘oo’는 다음과 같이 합자해에서 “**괴여**爲我愛人而**괴여**爲人愛我 [정음해례21ㄱ:5-8_합자해] (“**괴여**”는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뜻이지만 “**괴여**”는 ‘남에게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뜻이 되며)와 같이 용례로만 나온다.

[표 2] 각자병서자 갈래

갈래	각자 병서자
아음	ㄱ
설음	ㅋ
순음	ㆁ
치음	ㆁ, ㆁ
후음	ㅎ(oo) *oo: 사용 예로만 나옴

정음편의 분류는 훈민정음 기본자가 28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음편 분류의 의미는 정음본이 처음 공개된 1443년 12월 실록 기록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 (3)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世宗莊憲大王實錄卷第一百二終(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언 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한자에 관한 것과 우리말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 (4)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정음해례28ㄱ:1-2_정인지서(스물여덟 자로써 전환이 무궁하여,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

(3)의 실록 기록에서 드러난 28자의 핵심 가치를 그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4)의 해례본 정인지서 기록이다. 28자가 기본이 돼서 수많은 글자가 생성되지만 무척 간결하고 어떤 뜻고 다 담아 자세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서자 6자는 수의성을 띠기는 하지만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28자의 위상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글자를 나열할 경우 병서자는 괄호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병서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23자로 나찬연(2012: 69)와 같은 도표([표 3])가 생성될 것이다. 이러한 표구조는 해례본 서술 차례와 일치하는 긍정성이 있으나 기본 28자를 확정짓고 보여주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표 4]와 같이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괄호 속 한자는 해례본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략이라면 당연히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다음 해례본 초성해 ‘快, 蚘’의 한자음 표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해례본에서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엄격히 따르지 않았다.

快字初聲是ㄱ, ㅋ與ㄴ而爲·꺄. [정음해례15ㄱ:1_초성해]

蚪字初聲是ㄱ, ㄱ與ㄷ而爲ㄱ. [정음해례15 ㄱ:1-2_초성해]

1459년에 나오는 월인석보 속 언해본에서 동국정운식 한자음대로 표기 되어 있어 흔히 [표 3]처럼 제시하는 것이 관습화되었다. 해례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런 예시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 물론 박창원(2005)에서처럼 “那(나; 낭)”와 같이 병기할 수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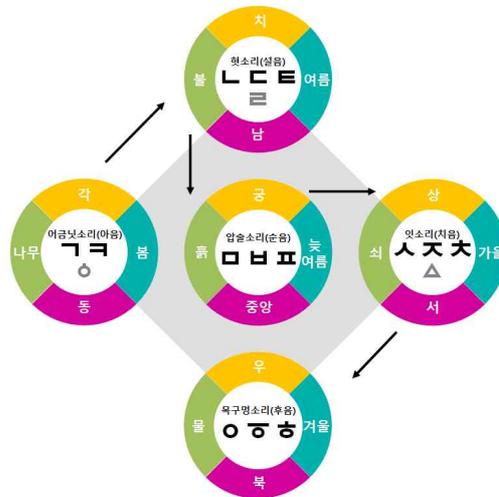
[표 3] 초성 23글자의 모양과 소리(나찬연, 2012: 69쪽)

	전청(全淸)	전탁(全濁)	차청(次淸)	불청불탁(不淸不濁)
아음(牙音)	ㄱ(君, 군)	ㄱ(蚪, 궁)	ㅋ(快, 썩)	ㅇ(業, 업)
설음(舌音)	ㄷ(斗, 둡)	ㅌ(覃, 탐)	ㅌ(呑, 툐)	ㄴ(那, 낭)
순음(脣音)	ㅂ(淸, 뵡)	ㅃ(步, 뵃)	ㅍ(漂, 표)	ㅁ(彌, 밌)
치음(齒音)	ㅈ(卽, 즉)	ㅉ(慈, 쯤)	ㅊ(侵, 침)	
후음(喉音)	ㅅ(戌, 슌)	ㅆ(邪, 샹)	ㅎ(虛, 헝)	ㅇ(欲, 욱)
반설음(半舌音)				ㄹ(閭, 령)
반치음(半齒音)				ㄷ(穰, 상)

[표 4] 초성 17자와 각자병서 6자의 글꼴과 발음

갈래	초성 기본자			병서자
	전청(全淸)	차청(次淸)	불청불탁(不淸不濁)	전탁(全濁)
아음(牙音)	ㄱ(君, 군)	ㅋ(快, 썩)	ㅇ(業, 업)	ㄱ(蚪, 궁)
설음(舌音)	ㄷ(斗, 둡)	ㅌ(呑, 툐)	ㄴ(那, 낭)	ㅌ(覃, 탐)
순음(脣音)	ㅂ(淸, 뵡)	ㅍ(漂, 표)	ㅁ(彌, 밌)	ㅃ(步, 뵃)
치음(齒音)	ㅈ(卽, 즉)	ㅊ(侵, 침)		ㅉ(慈, 쯤)
후음(喉音)	ㅅ(戌, 슌)	ㅎ(虛, 헝)	ㅇ(欲, 욱)	ㅆ(邪, 샹)
반설음(半舌音)			ㄹ(閭, 령)	
반치음(半齒音)			ㄷ(穰, 상)	

‘전청, 차청, 불청불탁, 전탁’이란 용어는 정음편에 나오지 않지만 ‘정음해례’에 준해 분류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제자 원리보다 소리 성질을 1차적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는 제자해에서 5음 체계와 같은 오행 순서에 따랐음을 밝혔다. 소리 성질을 먼저 고려하였으므로 반설음과 반치음은 따로 설명하고 있다. 제자해 설명을 근거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오행’에 따른 초성 배열 재구성도

용자례에서의 초성 분류는 예의에서의 초성자 분류 전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전탁자를 배제하였고 나머지 분류 체계는 그대로다. 다만 기본자는 아니지만 사용 빈도가 있는 ‘빙’만 추가되었다.

[표 5] 용자례에서의 초성자 순서와 낱말 용례

소리특성 조음점	초성 기본자			운용자
	전청	차청	불청불탁	전청
아음	ㄱ	ㅋ	ㅇ	
	감(柿), 굴(蘆)	우케(未春稻), 콩(大豆)	러울(獺), 서애(流漸)	
설음	ㄷ	ㅌ	ㄴ	
	뒤(茅), 담(牆)	고티(繭), 두텁(蟾蜍)	노로(獐), 남(猿)	
순음	ㅂ	ㅍ	ㅁ	빙 사빙(蝦), 드빙(瓠)
	볼(臂), 벌(蜂)	파(葱), 꿀(蠅)	외(山), 마(薯蕷)	
치음	ㅈ	ㅊ		
	자(尺), 조히(紙)	체(籠), 채(鞭)		
	손(手), 심(島)			
후음		ㅎ	ㅇ	
		부형(鵠鷗), 힘(筋)	비육(鷄雛), 부얌(蛇)	
반설음			ㄹ	
			무뤼(雹), 어름(氷)	
반치음			△	
			아수(弟), 너시(鵝)	

초성해에서는 아음에 한해 구체적인 분류를 하고 나머지에 그에 준해 따른다고 언급만 했다.

(5) 如牙音君字初聲是ㄱ, ㄱ與ㄷ而爲ㄱ. [정음해례14L:7-8_초성해]

快字初聲是ㅋ, ㅋ與ㅌ而爲ㅋ. [정음해례15ㄱ:1_초성해]

蚪字初聲是ㄲ, ㄲ與ㅈ而爲ㄲ. [정음해례15ㄱ:1-2_초성해]

業字初聲是ㅇ, ㅇ與ㅈ而爲ㅇ之類. [정음해례15ㄱ:2-3_초성해]

(6) 舌之斗吞覃那, 脣之擊漂步彌, 齒之即侵慈戍, 喉之搥虛洪欲, 半舌半齒之間穰, 皆倣此. [정음해례15ㄱ:3-6_초성해]

곧 아음만 (5)처럼 상세하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6)과 같이 한자 대표음으로 음가 예만 들어 놓았다.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우므로 (6)만 음토와 표시 음가를 대괄호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음은 현대음으로 표시했다.

舌之斗[ㄷ]吞[ㅌ]覃[ㄲ]那[ㄴ], 脣之擊[ㅍ]漂[ㅍ]步[ㅍ]彌[ㅍ], 齒之即[ㄷ]侵[ㅌ]慈[ㅌ]戍[ㅌ]
설 지 두 탄 담 나 순 지 뽕 표 보 미 치 지 즉 침 자 술

邪[ㅌ], 喉之搥[ㅇ]虛[ㅎ]洪[ㅎ]欲[ㅇ], 半舌半齒之間[ㄹ]穰[ㄹ], 皆倣此니라.
사 후 지 음 허 홍 욱 반 설 반 치 지 려 양 개 방 차

그러므로 그러한 표면 예시에 따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예의에서와는 달리 ‘전청-차청-전탁-불청불탁’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ㄱ ㅋ ㄲ ㅇ / (ㄷ ㅌ ㄲ ㄴ / ㅍ ㅍ ㅍ ㅍ / ㅌ ㅌ ㅌ ㅌ / ㅇ ㅎ ㅎ ㅇ / ㄹ ㄹ)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은 괄호 안에 넣었다. 예의와 비교하면 전탁과 차청의 위치만 다르다.

2) 제자해 분류와 의미

제자해에서는 먼저 상형기본자를 설명하고 가획자와 이체자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상형기본자인 “ㄱ ㄴ ㄷ ㅌ ㅇ”를 무엇으로 부르느냐가 문제다. 기존 관례대로 ‘기본자’라 부를 경우 초성 기본자 17자와 혼동이 된다. 그래서 필자는 김슬옹(2011)에서 ‘원형자’라는 말을 썼으나 ‘원형’이라는 말이 모호해서 쓰지 않기로 했다. 그렇다고 나찬연(2012)에서처럼 ‘상형자’라고 할 경우 나머지 가획자와 이체자는 상형자가 아닌 것으로 오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해례본에서는 이른바 이체자 ‘ㄹ, ㄹ’조차 상형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가획자 또한 상형자로 보아야 한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상형의 정도차 또는 상형의 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상형기본자’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ㄱ ㄴ ㄷ ㅌ ㅇ / ㅋ ㄲ ㄴ ㅍ ㅍ ㅍ ㅍ ㅌ ㅌ ㅌ ㅌ / ㅇ ㅎ ㅎ ㅇ / ㄹ ㄹ

다음으로 그간 관습적으로 분류해온 [표 6]와 같은 분류표의 문제는 이체자가 가획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거나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표 6] 초성 17자 일반 분류표

갈래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아음	ㄱ	ㅋ	ㅇ
설음	ㄴ	ㄷ ㅌ	ㄹ(반설음)
순음	ㅁ	ㅂ ㅃ	
치음	ㅅ	ㅈ ㅉ	ㅊ(반치음)
후음	ㅇ	ㅎ ㅎ	

[표 7] 초성 17자 기본 분류표

갈래	상형기본자	가획자	
		일반 가획자	이체 가획자
아음	ㄱ	ㅋ	ㅇ
설음	ㄴ	ㄷ ㅌ	ㄹ(반설음)
순음	ㅁ	ㅂ ㅃ	
치음	ㅅ	ㅈ ㅉ	ㅊ(반치음)
후음	ㅇ	ㅎ ㅎ	

따라서 이체자 분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관련 기술은 다음과 같다.

- (7) ㄴ而ㄷ, ㄷ而ㅌ, ㅁ而ㅂ, ㅂ而ㅃ, ㅅ而ㅈ, ㅈ而ㅉ, ㅇ而ㅎ, ㅎ而ㅎ. 其因聲加畫之義皆同, 而唯 ㅎ 爲異. [정음해례1ㄴ:7-정음해례2ㄱ:1-2_제자해](ㄴ에서 ㄷ, ㄷ에서 ㅌ, ㅁ에서 ㅂ, ㅂ에서 ㅃ, ㅅ에서 ㅈ, ㅈ에서 ㅉ, ㅇ에서 ㅎ, ㅎ에서 ㅎ이 됨도 그 소리로 말미암아 획을 더한 뜻은 같으나, 오직 ㅎ만은 다르다.)
- (8) 半舌音ㄹ, 半齒音ㅊ,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 [정음해례2ㄱ:2-4_제자해](반혓소리글자 ㄹ, 반잇소리글자 ㅊ도 또한 혀와 이의 모양을 본떴으나, 그 짜임새를 달리해서 만들었기에 획을 더한 뜻은 없다.)

정우영(2016: 65)에서는 ‘이체’에 대한 모든 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반설음 ㄹ와 반치음 ㅊ도 또한(ㄹ는) 혀[舌], (ㅊ는) 이齒]의 모양을 본떴으나, 그(=ㄹ, ㅊ음의) ‘체=본성(本性)’이(각각 ㄷ-ㅌ, ㅈ-ㅉ의) 달라서 여기(=ㄹ, ㅊ음)에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한 이치’[가획지의]가 없다(=들어있지 않다.)”라고 최종 해석형 번역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동일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ㅎ’자도 이체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해석과 번역에 동의하므로 ‘ㅎ, ㄹ, ㅊ’를 이체자로 분류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곧 ㅎ는 획을 더하여 만들었지만 상형기본자를 후음에서 가져왔으므로 같은 계열의 가획자와는 달리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세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고 ‘ㄹ, ㅊ’은 각각 혀와 이를 상형한 것에 바탕을 두고 상형기본자에 획을 더했지만 그 짜임새가 다르므로 가획한 뜻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표 6]과 같은 체계에서는 이체자는 가획자 아닌 것으로 오해를 준다는 점이다. 결국 이 세 자는 가획은 맞지만 다른 가획자와 원리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곧 일반 가획자는 획이 한 획씩 더해짐에 따라 소리가 더 세지거나 강해지는데 ‘ㅅ’보다 한 획 더 가획한 ‘ㅊ’는 더 약한 울림소리이고 ‘ㄹ’은 같은 울림소리인 ‘ㄴ’에서 가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두 획이 많은

데다가 반설음으로서의 소리 특성도 다르므로 짜임새를 달리한 것이다.³⁾ 곧 ‘짜임새’라는 말은 박지홍(1988)에서의 ‘체계’나 ‘구조’와 기본 뜻은 같지만 그 체계나 구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함의하는 말이다. ‘ㅇ’ 또한 가획 이전의 상형기본자를 아음 계열이 아닌 후음 계열에서 가져왔으므로 가획의 일반 원리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역시 짜임새를 달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체자를 가획자 범주 안에 넣되 기존의 가획자를 ‘일반 가획자’로 기존의 이체자를 ‘이체 가획자’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이밖에 초성자로서의 합용병서자는 15세기에서 ‘ㅂ-’계열 2자 합용병서 4자, 3자 합용병서 2자, ‘ㅅ-’ 계열 4자 모두 10자가 쓰였으나 해례본에서는 밑줄 그은 ‘ㅂ-’ 계열 세 자와 ‘ㅅ-’ 계열 한 자만 나온다.

(9) 가. ㅂ, ㅅ, ㅈ, ㅊ(ㅂ爲隻 [정음해례21ㄱ:3-5_합자해])

나. ㅅ(ㅅ爲隙之類 [정음해례21ㄱ:3-5_합자해]), ㅈ(爲酉時之類. [정음해례21ㄴ:2-4_합자해])

(10) ㅅ, ㅈ, ㅊ(如諺語ㅅ爲地 [정음해례21ㄱ:3-5_합자해]), ㅈ

위아래로 이어쓰는 연서는 “ㄴ, ㄹ”가 나오는데 ‘ㄴ’은 설명과 용례로 ‘ㄹ’ 설명으로만 다음과 나온다.

(11) 가. ○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 [정음3ㄴ:6-7_어제예예 (○을 입술소리 아래 이어 쓰면 입술가벼운소리(唇輕音)가 된다.)

나. ○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者，以輕音唇乍合而喉聲多也。 [정음해례4ㄴ:3-5_제자해(○을 입술소리 아래에 이어 쓰면 곧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가 되는 것은 가벼운 소리는 입술이 잠깐 합쳐지면서 목구멍소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12) 若欲備用，則依唇輕例，○連書ㄴ下，爲半舌輕音，舌乍附上腭。 [정음해례22ㄴ:7-8_합자해(그러나 만약 갖추어 쓰고자 한다면 입술가벼운소리[순경음 ㄴ]의 예에 따라 ‘○’을 ‘ㄴ’ 아래 이어 쓰면 반혀가벼운소리[반설경음 ㄹ]가 되니, 혀를 살짝 윗잇몸에 댄다.)

이상 분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운용자 갈래

병서			합용병서		연서
갈래	각자병서	두 자	세 자		
아음	ㄱ				
설음	ㄷ			(ㄹ)	
순음	ㅁ	ㅂ	ㅂ, ㅅ	ㄴ	
치음	ㅌ, ㅍ	ㅅ			
후음	ㅇ(oo)				
6자(7자) *oo: 사용 예로만 나옴		6자		1자(2자, 설명으로만)	
병서 12자(13자)				연서 2자	

* ()는 해례본에서 실제 설명이나 표기, 음가예로 등장하지 않은 경우

3) 필자가 김슬옹(2015: 141)에서 ‘이체’를 “짜임새가 다르다”고 번역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곧 ‘體’를 역동적인 구조 과정을 반영하는 짜임새로 보아 ‘이체’를 “짜임새를 달리한다”는 의미로 번역하였다.

3. 중성자 분류의 맥락과 의미

1) 기본자 분류와 의미

중성 기본자 11자의 차례는 어디서든 처음 예의 방식 그대로 ‘상형기본자-초출자-재출자’ 순으로 되어 있다.

· 一 | / ㄴ ㄷ ㄹ / ㅁ ㅂ ㅅ

- . 如呑字中聲 [정음3ㄱ:3_어제예의]
- 一 . 如卽字中聲 [정음3ㄱ:3_어제예의]
- | . 如侵字中聲 [정음3ㄱ:4_어제예의]
- ㄴ . 如洪字中聲 [정음3ㄱ:5_어제예의]
- ㄷ . 如覃字中聲 [정음3ㄱ:6_어제예의]
- ㄹ . 如君字中聲 [정음3ㄱ:7_어제예의]
- ㅁ . 如業字中聲 [정음3ㄴ:1_어제예의]
- ㅂ . 如欲字中聲 [정음3ㄴ:2_어제예의]
- ㅅ . 如穰字中聲 [정음3ㄴ:3_어제예의]
- ㅈ . 如戍字中聲 [정음3ㄴ:4_어제예의]
- ㅊ . 如警字中聲 [정음3ㄴ:5_어제예의]

[표 9]. 중성 11글자의 모양과 소리(나찬연, 2012: 72쪽)

	상형자			초출자				재출자			
글꼴	•	一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글자의 소리	呑(吞)	卽(卽)	侵(侵)	洪(洪)	覃(覃)	君(君)	業(業)	欲(欲)	穰(穰)	戍(戍)	警(警)

[표 10] 중성 기본자 글꼴과 예시

갈래	음양	글꼴	발음과 예
상형기본자	양	•	呑(吞)
	음	一	卽(卽)
	양음		侵(侵)
초출자	양	ㄴ	洪(洪)
		ㄷ	覃(覃)
	음	ㄹ	君(君)
재출자	양	ㅁ	業(業)
		ㅂ	欲(欲)
	음	ㅅ	穰(穰)
		ㅈ	戍(戍)
		ㅊ	警(警)

중성 기본자에서 ‘丨’는 그동안 양성과 음성도 아닌 ‘중간’의 의미를 부여하여 ‘중성’이라고 일컬어 왔으나 해례본에 그런 용어가 나오지도 않고 ‘중성’이란 말이 해례본 설명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양음’으로 일컫기로 한다. 다만 ‘중성’이란 용어가 굳어진 관습을 고려하여 괄호로 처리하였다. ‘양음’으로 일컫은 근거는 다음과 같다.

動者, 天也. 靜者, 地也. [정음해례8기:4-5_제자해(움직이는 것은 하늘이요, 머무는 것은 땅이다.)
兼乎動靜者, 人也. [정음해례8기:5_제자해(움직임과 멈춤을 겸한 것은 사람이다.)

곧 ‘丨’는 사람을 상형한 글자인데 ‘사람’은 양성인 하늘과 음성인 땅을 겸한다고 하였다. 중성 기본자 11자를 ‘음/양’을 기준으로 통합 분류할 때는 상형기본자와 합성자 사이를 띄어 그려야 한다. 그냥 합칠 경우 합성자가 ‘·, —’만을 합성한 것처럼 보여 초출자와 재출자가 ‘천지인’ 세 자를 합성해서 만들었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

[표 11] 중성 기본자 11자 음양 분류표(A안)

상형기본자		합성자	
		초출자	재출자
양성	·	☰	☷
음성	—	☱	☲
양음성 (중성)	丨		
3자		4자	4자

[표 12] 중성 기본자 11자 음양 분류표(B안)

상형기본자		합성자	
		초출자	재출자
양성	·	☰	☷
음성	—	☱	☲
양음성	丨		
3자		4자	4자

초출자와 재출자를 ‘합성자’로 명명한 것은 다음과 같이 해례본에서 ‘습而成(합이성)’라고 표현한데서 따온 것이다.

☰與·同而口齶, 其形則·與—습而成, 取天地初交之義也. [정음해례5기:2-4_제자해(☰는·와 같으나 입을 오므리며 그 모양이·가—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사귀는 뜻이다.)

2) 합용자 분류에 대하여

일단 중성 기본자 11자를 응용하여 두 자 이상 합친 글자를 어떻게 부를까가 문제다. 합용자는 제자해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중성해에서만 나온다. ‘합용(合用)’이란 말은 다음 예에서 보듯 해례본에서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 모두 적용하였다.

初聲合用則並書，終聲同。 [정음3L:7] [정음4ㄱ:1_어제예의](초성자를 합쳐서 쓰려면 나란히 쓰라, 종성자도 (초성자와) 마찬가지로이다.)

二字合用者，**ㄱ**與**丨**同出於**ㄱ**，故合而爲**ㄱ**。 [정음해례16ㄱ:5-6_중성해](두 글자를 합쳐 쓸 때는 **ㄱ**와 **丨**가 다 같이 **ㄱ**에서 나왔으므로 합하여 **ㄱ**가 된다.)

이러한 설명에서 보면 같은 계열의 초출자끼리, 재출자끼리 합친 글자를 ‘동출합용자’라고 부르면 된다.

다음으로는 중성해에서 중성 기본자 11자와 ‘丨’와 어울린 합용자 10자를 제시하고 있다.

一字中聲之與丨相合者卅，**이 너 리 리 리 리 씨 씨 씨 씨**是也。 [정음해례16L:2-4_중성해](한 글자로 된 중성자가丨와 서로 어울린 것이 열이니 “**이 너 리 리 리 리 씨 씨 씨 씨**”가 그것이다.)

이를 ‘중성 기본자와丨의 합용자’라고 부르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두 글자로 된 중성자와丨합용자를 설명하고 있다.

二字中聲之與丨相合者四，**새 제 빼 꺾**也。 [정음해례16L:4-5_중성해](중현12] 두 글자로 된 중성자가丨와 서로 어울린 것은 넷이니 “**새 제 빼 꺾**”가 그것이다.)

이 글자들은 동출합용자와丨의 합용이므로 ‘동출합용자와丨의 합용자’라고 부르기로 한다. 결국丨합용자는 중성 기본자와의 합용자와 동출합용자와의 합용 두 갈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출합용자도 두 자 합용자이므로 [표 13]과 같은 입체 분류가 이루어진다. 중성해 설명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특이丨합용자를 설명하고 있다.

• **一起丨聲**，於國語無用。 [정음해례22L:8_합자해] [정음해례23ㄱ:1_합자해](**ㄱ**가丨에서 시작되는 소리는 나라말에 쓰이지 않는다.)

兒童之言，邊野之語，或有之，當合二字而用，如**기기**之類。 [정음해례23ㄱ:1-3_합자해](그러나 아이들 말이나 변두리 시골말에는 드물게 있으니 마땅히 두 글자를 합하여 나타내려 할 때에는 “**기기**” 따위와 같이 쓴다.)

[표 13] 합용자(합용 중성자) 분류

2자 합용자		3자 합용자	
동출합용자		합용자	
		중성 기본자와 의 합용자	동출합용자와 의 합용자
양성	ㅍㅍ	이 ㅣ ㅣ ㅣ ㅣ	ㅍㅍ
음성	ㅍㅍ	이 ㅣ ㅣ ㅣ ㅣ	ㅍㅍ
		* 특이 합용자(! !)	
4자		10자(12자)	4자
18자(특이 합용자 포함 20자)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기존의 관습적인 15세기 초성자, 중성자 분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분류는 분류의 기본 원칙을 일부 어겨 비합리적 요소가 생겨 해례본 정신에 어긋난다. 《훈민정음》 해례본 교육을 위해 해례본의 분류 문제와 양상을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과와 대안을 제시한다.

- 1) 상형의 바탕이 되는 초성자 5자와 중성자 3자 명칭은 각각 ‘기본자’라 부르기보다 ‘상형기본자’라고 불러야 한다.
- 2) 초성자에서 가획자와 이체자를 배타적으로 분류하지 말고 이체자를 가획자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가획자는 일반 가획자로 이체자는 이체 가획자로 하위 분류해야 한다.
- 3) 초성자, 중성자 분류에 쓰이는 한자음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 4) 초성자, 중성자 전체 분류에서 해례본만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기본 원칙이 필요하며 언해본은 부차적으로 고려한다.
- 5) 초성자에서 상형기본자 외 글자는 ‘운용자’로, 중성자에서 상형기본자외 8자는 ‘합성자’로 그 외 확장 글자는 ‘합용자’로 부른다.
- 6) 실제 분류 결과와 대안 제시는 다음 종합표 대신한다.

[표 14]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초성자 갈래

기본자		운용자				
상형기본자		가획자		병서		연서
		일반 가획자	이체 가획자	각자병서	합용병서	
					두자	세자
아음	ㄱ	ㅋ	ㅇ	ㄱ		
설음	ㄴ	ㄷ ㅌ	ㄹ	ㄴ		(ㄴ)
순음	ㄹ	ㅂ ㅃ		ㅂ	ㅂㅅ	ㅂㅅ, ㅂㅆ
치음	ㅅ	ㅈ ㅊ	ㅊ	ㅅ, ㅆ	ㅅㅅ	
후음	ㅇ	ㅁ ㅎ		ㅁ(oo)		

5자	9자	3자	6자(7자) *oo: 사용 예로만 나옴	6자	1자(2자, 설명으로만)
기본 초성자 17자			병서 12자(13자)		연서 2자
초성 23자(24자, oo 포함)				7(8)	
30자(32자)					
* 언해본: 다쁘니라, 둘, 쓰느니라					

[표 15] 훈민정음 해례본에서의 중성자 갈래

기본자(기본 중성자)		합용자(합용 중성자)			
		두 자 상합자		세 자 상합자	
상형기본자	합성자		동출합 용자	합용자	
	초출자	재출자		기본 중성자와 의 합용자	동출합용자와 의 합용자
양성	·	ㅁ ㅂ	ㅃ ㅅ	ㅆ ㅈ	ㅊ ㅊ
음성	ㅡ	ㅁ ㅅ	ㅆ ㅈ	ㅊ ㅊ	ㅊ ㅊ
양음성		* 특이 합용자(! !)			
3자	4자	4자	4자	10자	4자
기본 중성자 11자			18자		
29자 / 31자(특이 합용자 ! ! 포함)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편(2008), 『말기 쉽게 풀어 쓴 훈민정음법 생각의나무』.
- 간송미술문화재단 편(2015), 『해례本正音법 교보문고』.
- 강신항(1974.1995 : 증보판), 『해례本正音법문고본』, 신구문화사.
- 권재선(1994), 『바로잡은 한글 - 국문자론 - 법 우골탑』.
- 김석득(2009), 『특리말 연구사법 태학사』.
- 김석득(2011), 『최소의 최대 생성의 끈 이론 : 한글의 우리 있음과 국제화에 관련하여』, 『민문논총법』 21. 서울여자대 인문과학연구소. 5-33쪽.
- 김슬옹 역음(2015), 『훈민정음(언문·한글) 논저·자료 문헌 목록법 역락』.
- 김슬옹(2011),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법 지식산업사』.
- 김슬옹(2014), 『세종의 '정음 문자관'의 맥락 연구』, 『한말연구법』 35. 한말연구학회. 5-45쪽.
- 김주원(2013), 『훈민정음법 민음사』.
- 나찬연(2012), 『훈민정음의 이해법 월인』.

- 리의도(1984), 훈민정음의 중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ㅅ**한글법186. 한글학회. 151-172쪽.
- 문효근(2015), **ㅅ**훈민정음 제자원리법 경진.
- 박지홍(1988), 국역 훈민정음. 신상순·이돈주·이환목 편(1988). **ㅅ**훈민정음의 이해법 한신문화사.
- 박창원(2005), **ㅅ**훈민정음법 신구문화사.
- 방종현(1946), **ㅅ**原本解釋) 훈민정음법 진학출판협회.
- 백두현(2012), 융합성의 관점에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ㅅ**어문론총법57. 한국문학언어학회. 115-156쪽.
- 섭보매(聶寶梅, 2016), **ㅅ**훈민정음법] 역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운숙·이달원(2010), 음양오행 원리로 만든 한자와 한글. <왜 周易이고 孔子인가?>. 경연학당. 21-47쪽.
- 이현희 외(2014), **ㅅ**訓民正音”의 한 이해법 역락.
- 임용기(1999), 이른바 이체자 ‘ㅇ. ㄹ. ㄷ’의 제자방법에 대한 반성. **ㅅ**재국어생활법9-4. 161-167쪽.
- 임용기(2016), 『훈민정음』의 우리말 음절짜임새와 초성·중성·종성의 자질체계. <2016년 훈민정음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훈민정음 연구의 깊이와 외연>. 훈민정음학회·국립한글박물관. 3-32쪽.
- 장윤희(2013), 訓民正音 制字原理의 位階性과 異體. **ㅅ**韓語文研究법 158. 韓國語文教育硏究會. 37-56쪽.
- 정우영(2016), 훈민정음 초성 제자원리의 ‘이체자(異體字)’ 관련 문제점 분석. **ㅅ**韓國語學법 80집. 국어학회. 35-75쪽.
- 최현배(1942.1982 : 고친판), **ㅅ**한글갈법 정음문화사.
- 홍기문(1946), **ㅅ**ㅅ音發達史법상.하 합본. 서울신문사 출판국.
- 홍기문 원저/이상규 주해(2016), **ㅅ**증보정음발달사법 역락.

▣ 토 론

“<훈민정음> 해례본의 초성자, 중성자 다중 분류 맥락과 의미”에 대한 토론문

김정호(건국대)

오랜 시간 훈민정음의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그 의미와 가치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 온 김슬옹 선생님의 또 다른 성과를 보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이 글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난 초성자와 중성자의 다양한 분류 맥락과 의미를 살피고 더 나아가 이러한 분류 체계를 도표와 그림으로 어떻게 도식화할 것인가를 다룬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논문의 의미와 내용에 동의합니다만 논문을 읽으며 들었던 두 가지 의문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1) 이 논문의 첫째 목표는 ‘해례본에 근거한 창제 원리와 정신을 보여주는 분류 체계’를 밝히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4>의 기본자 28자와 병서자를 구분하여 제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제자해에서 소리의 청탁에 관한 제시 순서는 ‘전청-차청-전탁-불청불탁’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와 관련하여 어떤 소리를 제자의 시작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ㄴ ㄹ ㅇ 其聲最不勵 故次序雖在於後 而象形制字則爲之始.

불청불탁의 ‘ㄴ, ㄹ, ㅇ’은 순서가 뒤에 있으나 소리가 작으므로 제자의 시작으로 삼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자와 병서자를 구분하는 것과 소리의 청탁에 관한 훈민정음의 설명 사이에서 김슬옹 선생님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2) <표7>에서는 ‘ㅇ, ㄹ, ㄴ’의 세 글자를 이체가획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ㅇ’과 ‘ㄹ, ㄴ’는 서로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자해에서 ‘ㄹ, ㄴ’는 혀와 이의 모양을 상형하여 만들었지만 가획한 뜻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ㅇ’에 관해서는 청탁의 분류 뒤에 그것이 다른 이유를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唯牙之ㅇ 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ㅇ相似 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 今亦取象於喉 而不爲牙音制字之始’

이 설명이 ‘其因聲加畫之義皆同, 而唯ㅇ爲異’의 이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체자를 분류함에 있어서도 ‘ㄹ, ㄴ’과는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선생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제1부 <제2 분과 자유발표>

원리 중심의 국어 규범 교육 방안 모색

양세희(고려대)

< 차례 >

- 1. 머리말
- 2. 국어 규범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 3. 원리 중심의 국어 규범 교육 방안
- 4. 맺음말

1. 머리말

국어 규범 교육은 학습자가 어문 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국어를 사용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어문 규정을 모국어 화자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 여러 조사 결과들(민현식, 1995; 박덕유, 1998; 박덕유, 2003, 이관규 외, 2010; 김종철 외, 2014)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 국어에 대한 규범을 익혀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국어 규범 교육이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초기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 맞춤법이나 표기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국어 규범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내용의 빈약성 또는 체계성의 결여 등을 이유로 비판받았으며, 문법을 체계적으로 심화 학습할 수 있는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6차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일정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¹⁾

교육의 목적이 반드시 교육의 효용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문 규정이 국민들의 문자 생활을 쉽고 편리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61.8%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양명희, 2005:11)는 언중들의 실제 언어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어 규범 교육의 목적과 불일치하므로 그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어 규범 교육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리 중심’의 국어 규범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원리 중심의 국어 규범 교육은 민현식(2008), 구본관(2008), 구본관·신명선(2011), 이영호(2011), 강보선(2013) 등에서 주장된 바 있다.²⁾ 그러나 본고에서는 ‘국

1) 고등학교 ‘문법’ 대단원으로서 설정된 것은 6차 교과서부터이기 때문이다.

2) 위호정(1999ㄱ)에서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밝히고 그 원리를 다시 위호정(1999ㄴ)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원리 중심의 국어 규범 교육의 선도적인 논의라 할 만하다. 그러나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

어 규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문법 교육의 내용 체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원리 중심의 국어 규범 교육을 모색해 볼 것이다. 이 방안은 현 국어 규범 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과 맞춤법 및 어휘 교육 등의 실증 연구 사례를 근거로 삼아 타당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2. 국어 규범 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2.1. 국어 규범 교육의 현황

국어 규범 교육의 실태는 교육과정을 통해 개괄할 수 있다.³⁾ 1차부터 3차 교육과정 시기는 초등학교에서는 국어과의 목표나 언어 경험 요소로서 표기법이나 문장 부호 등을 기술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기초적인 언어 능력으로서 발음이나 어법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어학에 관한 내용으로서 정서법을 신고 있다. 4차 교육과정 시기부터는 국어 규범 교육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문법(언어)' 영역이 설정되어 국어 규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한글 자모 및 발음과 표기에 관하여 학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중학교에서는 국어 규범 교육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5차 교육과정도 동일하다. 이 시기까지는 국어 규범 교육이 발음이나 표기에 한정되면서 초보적인 수준의 교육으로서 다루어졌다고 자칫 판단할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표준어와 맞춤법을 교육 내용으로서 담고 있어 국어 규범 교육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국어과의 내용 체계가 '본질, 원리, 실제'로 구성되면서 6차 교육과정 시기는 국어 규범 교육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할 만하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맞춤법 이외에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교육 내용으로서 수용하게 되었으며 표준어로 말하려는 태도 또는 어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는 태도 등이 제시되면서 사용이나 태도 측면으로까지 국어 규범 교육이 확대되었다. 7차 교육과정 역시 국어 규범 교육이 국어의 '실제'의 영역에서 체계화되면서 국어 규범은 학습자의 언어생활과의 더욱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2007 교육과정 시기부터는 국어 규범 교육이 '지식'의 영역에서도 위치하게 된 것이 이전 교육과정과의 큰 차이점이다. 이는 국어 규범 교육을 특징짓는 데 있어서 관점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또한 10학년에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성취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하다. 2007 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이 빠져 있지만, 2011 교육과정은 모든 학년군에서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이 배치되어 있다. 2007 교육과정에 비해 2011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규범 교육이 보다 강화되었고 교육 내용의 계열성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2011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의 교육

라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시키는 합리주의적 방법과 표기를 암기시켜 사용하게 하는 경험주의적 방법이 각각 다르게 선택될 수 있다는 관점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원리 중심으로 맞춤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논의들과는 차별점이 있다.

3)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맞춤법 교육 실태를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민현식(2008)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맞춤법 교육이 빈약할뿐더러 체계적이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면 “글씨를 바르게 써 봅시다.”라는 서체 활동이 많고 혼동어 사례에 대한 학습 활동이 일부 다루어지고 있는 정도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규범 교육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학교 역시 체계성이 부족하며 고등학교 『국어』에서는 어휘 교육과 연계된 맞춤법 교육이 전무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과정들보다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2011 중등 교육과정보다 맞춤법을 더 배우는 셈이다. 한편, 국어 규범 교육이 '지식'의 영역에 포함되었지만 지식을 가르치는 방식에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규범 규범에 대한 원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기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에서는 실제 국어 자료를 탐구하고 활용하면서도 국어 규범 원리에 대한 학습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⁴⁾

2015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이 다시 공통 교육과정에 포함되면서 국어 규범 교육의 내용은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다. 모든 학교급에 고루 배치되면서 계열성을 확보한 듯하지만 정작 초등학교에서 국어 규범 교육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1) 2015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에서의 국어 규범 교육의 내용 체계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1~3학년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발음과 표기 어휘 사용 문장·담화의 사용 	발음·표기, 어휘, 문장·담화 등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어 능력을 기르고 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 낱말의 소리와 표기 문장과 문장 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낱말 분류와 국어사전 활용 높임법과 언어 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에 따른 낱말의 의미 관용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어휘의 체계와 양상의 활용 한글의 창제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밑줄은 필자)

4) <2007 교육과정>

2-문법-(2) 자주 사용하는 낱말의 바른 표기를 지도하면서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한글 맞춤법이 있음을 소개하되, 그 원리나 특징 등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지 말고 표기와 소리가 다른 낱말을 정확하게 표기하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한다.

10-문법-(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규범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국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필요도 있다.(밑줄은 필자)

<2011 교육과정>

[3-4학년군]

(1) 소리대로 표기되는 낱말과 그렇지 않은 낱말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표기와 발음이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점과 낱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기도 하고 맞춤법에 맞게 적어 보기도 하는 활동을 하면서 낱말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한글 맞춤법의 제3장(소리에 관한 것),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여러 사례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중1-3학년군]

(3) 어문 규범의 제정 목적과 기본 원리를 파악하면 세부 조항들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주요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를 중요한 조항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규범을 벗어난 국어 사용의 사례를 찾아 바르게 고쳐 보는 활동을 하게 하되, 어문 규범을 알고 준수하는 것이 더 자유롭고 교양 있는 언어생활을 영위하는 길임을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한다. 아울러 남북의 한글 맞춤법에서 차이점을 간략히 알아보고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밑줄은 필자)

(2) 2015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에서의 국어 규범 교육의 성취 기준

[초등학교 1~2학년]

[2국04-01]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

[2국04-02]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읽고 쓴다.

[2국04-03] 문장에 따라 알맞은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

[중학교 1~3학년]

[9국04-03]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고등학교 1학년]

[10국04-04]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2015 교육과정 역시 초등학교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나 규범의 원리를 가르치도록 않도록 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조항에 대한 원리를 조금씩 노출해 가다가 고등학교에서 원리에 대한 학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3) 2015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에서의 국어 규범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초등학교 1~2학년]

소리와 표기의 관계에 대해 지도할 때에는 소리와 표기가 같은 낱말,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 두 가지 모두를 다루도록 하고, 교수·학습의 초기에는 발음이나 표기가 지나치게 어려운 낱말이나 글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낱말을 피하도록 한다.

[중학교 1~3학년]

단어의 발음과 표기를 지도할 때에는 표준 발음법 같은 어문 규정과 관련하여 지도하되, 어문 규정 전체를 단편적 지식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여러 조항 중 설명이 필요한 일부 조항만을 선택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습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적용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고등학교 1학년]

한글 맞춤법을 지도할 때에는 한글 맞춤법 규정 모두를 암기식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원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평소 국어사전이나 한글 맞춤법 규정 등을 잘 활용하여 정확한 언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에서는 ‘국어의 탐구와 활용’ 부분에서 (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국어의 규범은 언어 사용에서 지켜야 할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정확성을 요구하지만 구어와 문어, 문학어와 일상어, 표준어와 방언,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 등에서 사용의 적절성 수준이 다르다(교육부, 2015:112)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4) 2015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의 국어 규범 교육의 성취 기준

[12연매02-11]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은 달라져 왔다. 초기에는 중학교급까지는 기초적인 국어 능력의 요소로서 간주되었으나 국어의 ‘실제’ 측면에서 다루어지다가 근래에는 국어의 ‘지식’으로서 그 영역을 확고히 하고 있다. 4대 어문 규정의 내용들을 모두 포괄하게 되면서 국어 규범 교육의 빈약성을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분명 국어 규범 교육의 위상은 높아져 가고 있다. 아래의 (5)는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의 범위와 위계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요약한 것이다.

(5) 국어 규범 교육의 위계성의 변화

교육과정 학년	7차 교육과정	2007 교육과정	2011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1	한글 자모	소리와 표기의 관계 문장 부호	한글 자모 문장 부호	한글 자모 소리와 표기의 관계 문장 부호 어법에 맞는 표기
2	한글 자모	표준 발음 정확한 표기		
3			소리와 표기의 관계	
4		표준어와 방언	맞춤법	
5	표준어와 방언		발음과 표기	
6	표준 발음		띄어쓰기	
7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8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 법	
9	남북한 언어 차이 맞춤법		남북한 맞춤법 차이	
10		외래어 표기법과 국 어의 로마자 표기법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11	맞춤법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 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 법 남북한 표기 차이	국어의 규범에 대한 정확성, 적절성, 창 의성
12		문장 부호 문장의 오용 표준 화법		

2015 교육과정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심화 과정인 ‘언어와 매체’에서는 사용 맥락에 따라 국어 규범의 적절성이나 창의성이 더 요구되거나 덜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점이 국어 규범 교육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국어 규범 교육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보여준 것인지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교과서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 규범 교육을 어느 학년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다.

2.2. 국어 규범 교육의 문제점

문법은 언어활동에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저 지식 체계(교육과학기술부, 2011:124)로서, 문법 교육에서는 이 문법 지식이 국어 사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즉 언어활동에 어떻게 전이되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과업이다. 국어 규범이 ‘실제’의 영역에 위치했을 때나 ‘지식’의 영역에 자리했을 때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연계성은 비단 지식과 실제, 탐구와 적용, 태도의 영역 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식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일정한 지식은 이후의 지식과 연결되어 차후에 학습하게 될 지식의 배경지식이 되어야 하며 이들은 통합되어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에서 저장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언어의 사회성이 은어나 유행어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명사의 개념을 알아야 명사절을 안은문장을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국어 규범 역시 언어의 특성이나 국어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상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 나열된 지식들로 인하여 지식의 부담 가중을 불러올 뿐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국어 규범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서울시 소재 중학교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먼저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이 ‘지식’과 ‘실제’의 영역 중 무엇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이 학습자의 실제 언어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는가를 물었으며, 국어 규범 교육 내용과 다른 문법 교육 내용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관점을 달리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예비 국어 교사인 서울시 소재 국어교육과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Likert 총합평정법(method of summated rating)을 사용하여 5단계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다.

(6) 국어 규범 교육 내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1.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이 해당되는 영역					
	① 지식	② 실제			
중학생	85명	15명			
대학생	27명	3명			

2. 실제 언어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여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중학생	2명	32명	45명	11명	10명
대학생	5명	9명	12명	2명	2명

3. 다른 문법 교육 내용과의 연관성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중학생	3명	13명	38명	17명	29명
대학생	2명	7명	12명	3명	6명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을 대부분의 학생들은 품사나 문장 성분 등의 다른 문법 교육 내용과 같이 지식의 영역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 언어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중학생들은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보다 더 많았다. 대학생들의 경우 문법 교육 또는 규범 교육의 목적이나 의의에 대하여 듣고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다. 다른 문법 교육 내용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식을 총체적으로 조직화할 줄 아는 대학생들은 긍정적인 답변이 적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중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더욱 많았다.

설문 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은 현행 국어 규범 교육의 내용을 지식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문법 교육 내용과의 연관성을 지각하지 못하므로 현재 학습하고 있는 국어 규범 교육의 내용은 다른 문법 교육 내용에 병렬적으로 이어지는 지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볼 수 있으며, 어문 규범을 학습함으로써 학습자가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게 한다는 국어 규범 교육의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채 실제와 단절된 지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지식 이해의 부담 가중, 언어의 특성 및 국어 구조에 대한 이해와 연계되지 못한 어문 규범 지식이라는 문제점 외에 위계성도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어문 규정들을 설명하는 내용에는 문법 단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만일 그러한 지식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왜?’에 대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 암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초등학교 규범 교육은 초보적인 문법 지식 수준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반복된 연습을 통해 규정을 익히게 하고 있다. 중학생에게는 약간의 원리를 제시하고 고등학교에서야 원리를 온전히 제시하고 있는 현행의 방식이라면 국어 규범 교육은 암기의 방식 혹은 공통 교육과정 마지막 학년에서야 원리를 가르치게 되는 두 가지 대안밖에 없을 것이다. 지식은 교수학적 변환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지식의 형태로 바꾸어 제시할 수 있다. 게다가 발달 단계에 따라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수준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생에게는 반복된 연습의 형태로만 학습하게 하는 방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언어의 특성에 대한 이해, 국어 구조에 대한 이해,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가 항목별로 병치된 방식은 국어 규범 교육의 계열성 내지 위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어 규범 교육의 교수 학습의 변화 이전에 국어 규범 교육의 체계 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어 규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문법 교육의 내용 체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원리 중심의 국어 규범 교육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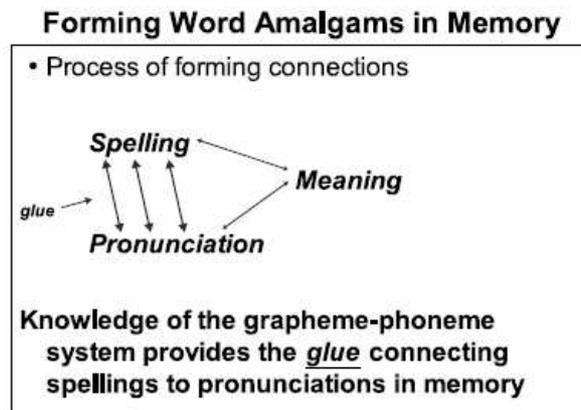
3. 원리 중심의 국어 규범 교육 방안

3.1. 원리 중심 국어 규범 교육의 방향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어 규범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규범 교육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규범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은 문식성(literacy)을 높이기 위해서뿐 아니라 규범을 철저히 익힘으로써 오히려 이를 넘어서서 창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이기도 하다(구본관, 2008:196). 그런데 단순히 양적 확대는 학습자에게 지식의 부담만을 줄 뿐이다. 따라서 규범 교육의 위계성을 세워야 한다. 학습자의 낮은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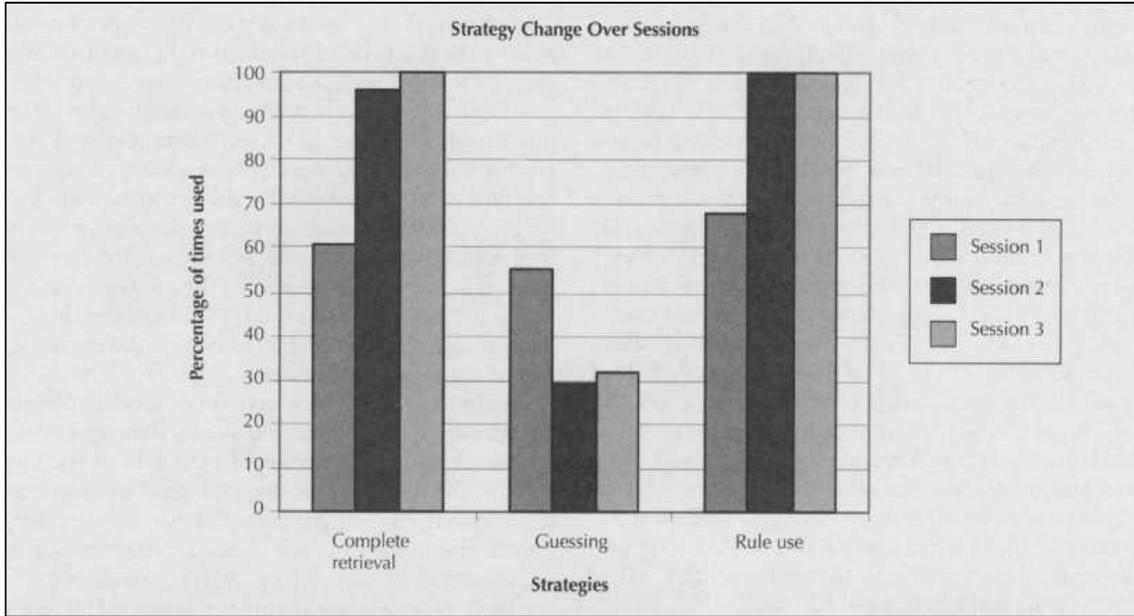
령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심화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종적으로 위계성을 두었다면 횡적으로는 다른 문법 교육 내용과 상호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어 규범 교육은 원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규범 교육의 중요성과 원리 중심 규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다음 두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Ehri & Rosenthal(2007)에 의하면, 철자법 지식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어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 이를 마태 효과(Matthew effect)라 한다. <그림 1>은 기억 속에서 단어의 발음과 의미가 철자법이 함께 형성되는 결합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억 속에서 규칙적인 철자법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발음이 문자에 연결되어 형성되는 결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독자가 기억 속에서 단어를 저장할 때 지식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자가 낯선 단어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해독하는 전략을 적용하게 된다.



<그림 1> 기억 속에서 단어의 발음과 의미가 철자법의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
(Ehri & Rosenthal, 2007:392)

Sharp, Sinatra & Reynolds(2008)은 철자법 지식의 발달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발음 중심 철자교수법을 사용하는 교실에서 실험 기간이 지속될수록 어떤 전략들이 증가하고 줄어드는지 (overlapping waves)를 조사하였다. 그 전략으로는 회상하기, 음성학적 또는 형태론적으로 추측하기, 소리 내어 읽어보기, 철자법 지식에 의해 규칙 사용하기, 익숙한 글자와 비교하여 유추해보기, 교실에 쓰인 글자를 보고 따라해 보기, 일반적인 패턴을 사용하기 등이 있다. 이 중 회상하기와 추측하기, 규칙 사용하기에 대한 사용 비율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우리가 규범 교육과 연관시킬 만한 것으로서 규칙 사용하기를 주목할 수 있는데, 학습자들은 수업이 진행될수록 그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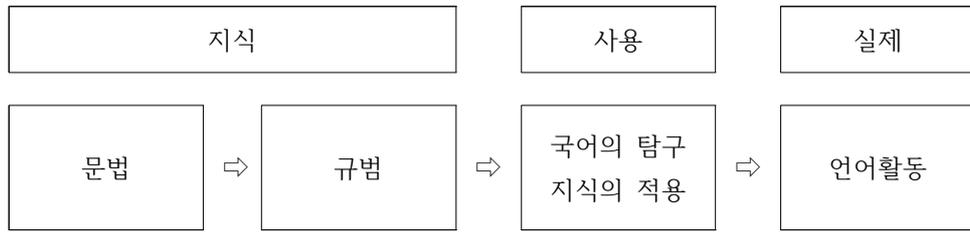
<그림 2> 각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이 사용한 철자법 전략들 시간 비율
(Sharp, Sinatra, Reynolds, 2008:218)

원리 중심의 국어 규범 교육은 규칙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 학습자는 곧 실제 언어생활에 직면해서도 규칙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지식이 실제에 전이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어 규범 지식의 원리는 무엇인가. 어문 규정의 조항들이 바로 원리가 되지 않는다. 국어 규범 지식의 원리는 다른 문법 교육 내용과의 융합을 통해 도출된다.⁵⁾ 현행의 규범 지식의 형태로는 다른 문법 지식과 융합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어 규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함으로써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어 규범 지식에는 한글 자모,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장 부호, 띄어쓰기 등 한글 낱자, 단어 수준, 그리고 발음과 표기에 한정되어 있다. 문법 교육과 규범 교육의 관계는 어떠한가. 문법 교육은 규범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문법이 언어에 내재해 있는 원리와 규칙이라면 국어 규범은 글을 읽고 쓰는 데 준거가 되는 규칙이다. 문법이 언어활동에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저 지식 체계라면 국어 규범은 기저 지식이 언어활동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변환되는 지식 체계이다. 문법이 명제적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이라면 국어 규범은 수행적 지식(performative knowledge)인 것이다. 그러므로 문법 교육은 다음과 같이 체계화될 수 있다.

5) 국어 규범 교육이 다른 문법 교육 내용과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호정(1999)과 민현식(2008)에서도 주장된 바 있다. 그러나 위호정(1999)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주지 않았고, 국어 규범의 원리에 대한 시각 또한 본고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물론 한글 맞춤법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원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민현식(2008)에서는 국어 규범 교육이 다른 문법 교육 내용이 상호 연계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어 규범 지식과 다른 문법 지식은 규범 교육과 범주 교육이라는 각기 다른 카테고리(문화 교육 영역까지 더하면 세 개의 영역을 제시하였다)에 있다는 점에서 문법 교육과 규범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시각이 본고와는 차이가 있다.
2011 교육과정에 따른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는 음운의 변동과 표준 발음을 연계하여 보여주고 있다.

(7) 문법 교육의 실행 과정



‘국어 규범’을 확장한다면 단어 수준을 넘어서서 문장, 담화 수준으로까지, 발음과 표기를 넘어서서 문장 쓰거나 말하기와 글쓰기로까지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확장된 국어 규범의 범위는 각 단위에 따라 다음의 내용들로 구성된다.

(8) 국어 규범의 범위

음운	단어	문장	담화
표준 발음	한글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띄어쓰기	문장의 호응 의미가 명확한 문장 (중의문, 성분 생략 등) 문장 부호	표준 화법

범위를 도식화하기 위해 언어 단위별로 제시하였고 담화 수준을 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어 규범 지식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운용되고 전략적으로 사용되며, 실제 언어생활에서 학습자는 담화 차원에서 의사소통하는, 즉 담화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언어생활을 하기 때문에 국어 규범 지식은 사실상 음운, 단어, 문장, 담화로 나뉘어 활용되지는 않는다.⁶⁾

위와 같이 국어 규범의 범위가 확장되면 국어 구조에 대한 지식에 발음과 표기, 어휘 수준의 규범 지식이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어 구조에 대한 지식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국어 규범 지식으로 변환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이들 지식은 서로 융합되는 양상이 된다. 다음 절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해 보겠다.⁷⁾

6) 예를 들어 간판의 단어나 문장의 맞춤법을 고치는 활동을 할 때 ‘간판’이라는 문자 사용 환경은 이미 상황 맥락을 담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맞춤법을 틀려서는 안 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춤법에 따라 틀린 단어나 문장을 바르게 고쳐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문법 교육에서는 분석 단위로서 담화를 배경으로 하여 다른 문법 단위들은 전경화되어 학습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7) 언어의 특성에 대한 지식은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알게 되는 지식의 형태가 아니라 읽고 듣고 활동하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인지구조에 배경지식으로서 안착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 그러므로 언어의 특성과 관련된 지식과 국어 규범 지식과의 관계는 논외로 한다.

3.2. 원리 중심 국어 규범 교육의 구체화

먼저 확장된 국어 규범 지식이 어떻게 국어 구조에 대한 지식과 융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 융합 및 변환의 양상은 (9)와 같다. (8)에서 언급하였지만 국어 규범 지식은 담화 차원에서 작용하므로 (9)의 ‘국어의 특성, 음운, 단어, 문장’은 담화 차원에서 학습되는 것이다. 국어 규범 지식은 국어 구조 지식과 긴밀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원리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어 구조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 규범 지식은 원리 위에 서게 된다. 어문 규정 조항들을 단순히 제시하는 교수 학습 방식이 아니라 문법 지식의 배경 위에서 규범 지식을 논리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9) 국어 구조 지식과 국어 규범 지식의 융합 및 변환 양상

	국어 구조 지식	국어 규범 지식		
국어의 특성	언어 단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총칙		
	한글 자모	한글 자모		
음운	음운 체계		한글 맞춤법 소리에 관한 것	한글 맞춤법 형태에 관한 것
	음운 변동	표준 발음법		
단어	형태소			
	단어 형성법	띄어쓰기		
	품사			
	어휘의 유형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개념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단어의 의미	준말,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표준 화법(유의어이지만 상황에 맞는 어휘 선택)		
문장	문장 성분	문장의 호응	의미가 명확한 문장 (중의문, 성분 생략 등)	
	문장의 구조			
	문법 요소	문장 부호 표준 화법		

이러한 융합은 문법 지식의 위계화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되기도 한다.⁸⁾ 가령 한글 맞춤법 중 소리에 관한 것은 음운 차원의 지식과 단어 차원의 지식과 맞물려 있다.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는 맞춤법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운 체계와 구개음화, 접미사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학습의 순서를 예상해 본다면, 형태소와 단어 형성법을 배운 후에 이 맞춤법 규정을 이해하고 그 이후에 음운 체계와 구개음화를 배우게 될 것이다.

(어문 규정 조항들 배분)

8) 학습의 위계화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 학습 내용의 논리적 순서, 텍스트의 난이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중 학습 내용의 논리적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맺음말

7차 교육과정 이후로 국어와 국어 활동, 문학의 본질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문법’ 학습은 언어 현상의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강조하고, 학습한 지식을 국어 사용 실제에 적용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국어 규범 교육은 국어과 목표에 부합하는 방법을 취하기에 좋은 영역 중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어 규범 교육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 내용이 매우 빈약하게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대로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며, 국어 규범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학습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규범 교육에 대한 강화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원리를 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국어 규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국어 규범을 재개념화하면 국어 규범 지식이 국어 구조에 대한 지식과 융합하는 양상을 지니게 된다. 국어 구조에 대한 지식과 융합한 규범 지식은 원리 중심으로 가르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융합 속에서 문법 지식이 국어 규범 지식으로 변환되면 실제 국어 생활에 전이될 수 있다. 원리 중심의 국어 규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리 중심의 규범 지식의 위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증적 연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여러 실증적 연구가 규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 보강재(補強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교육부(1997),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인적자원부(2007), 중학교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
- 구본관(2008), 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27, 한국어교육학회, 195-232쪽.
- 구본관·신명선(2011),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61-297쪽.
- 김종철 외(2014), 국민의 국어능력 조사 결과 분석, 국어교육연구 3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9-73쪽.
- 문화관광부(2012), 국어 어문 규정집,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민현식(1995), 국어 오용 어법의 예방적 지도법 연구(1), 국어교육 89, 한국어교육학회, 251-295쪽.

- 민현식(1996), 국어 오용 어법의 예방적 지도법 연구(2), 국어교육 91, 한국어교육학회, 1-60쪽.
-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 민현식(2008), 한글 맞춤법 교육의 체계화 방안: 문법 교육과 맞춤법 교육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 국어교육연구 2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7-75쪽.
- 박덕유(1998), 국어 어문규정의 인지 실태와 그 문제점, 국어교육 97, 한국어교육학회, 137-162쪽.
- 박덕유(2003), 국어 어문규정의 인지 실태와 교육의 필요성, 새국어교육 66, 한국국어교육학회, 13-33쪽.
- 양명희(200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위호정(1999ㄱ),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학연구 9, 국어교육학회, 235-255쪽.
- 위호정(1999ㄴ),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성어문학 18,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37-60쪽.
- 이관규 외(2010), 어문 규범의 단계별 교재 개발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이관규.신호철(2011), 국어 어문 규범 교재의 성격과 어휘 선정 원리, 문법교육 14, 한국문법교육학회, 39-71쪽.
- 이승왕.이병운(2010), 초등학교 국어과 맞춤법 교육의 체계화, 한국초등국어교육 4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306-334쪽.
- 이영호(2011), 맞춤법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초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239-265쪽.
-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5), 개정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주세형.신호철(2011), 국어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의 재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급의 위계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85-111쪽.
- 최경봉(2006),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335-363쪽.
- Ann C. Sharp, Gale M. Sinatra, Ralph E. Reynolds(2008),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Orthographic Knowledge: A Microgenetic Perspective, Reading Research Quarterly, 43(3), pp.206-226.
- Linnea C. Ehri, Julie Rosenthal(2007), Spellings of Words: A Neglected Facilitator of Vocabulary Learning,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39(4), pp.389-409.

■ 토 론

“원리 중심의 국어 규범 교육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문

오현아(강원대)

선생님께서서는 ‘어문 규정이 국민들의 문자 생활을 쉽고 편리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61.8%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양명희, 2005:11)(논문, 1쪽)’를 바탕으로 ‘규범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어 규범 교육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리 중심’의 국어 규범 교육을 제안하고자 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국어 규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문법 교육의 내용 체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원리 중심의 국어 규범 교육을 모색”하고, “이 방안은 현 국어 규범 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과 맞춤법 및 어휘 교육 등의 실증 연구 사례를 근거로 삼아 타당성을 더하고자 함(논문, 2쪽)”을 밝히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동학의 입장에서 제가 잘 알지 못하여 설명을 청해 듣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1) 선생님께서서는 2장에서 현행 국어 규범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범 교육의 문제점으로 다음을 들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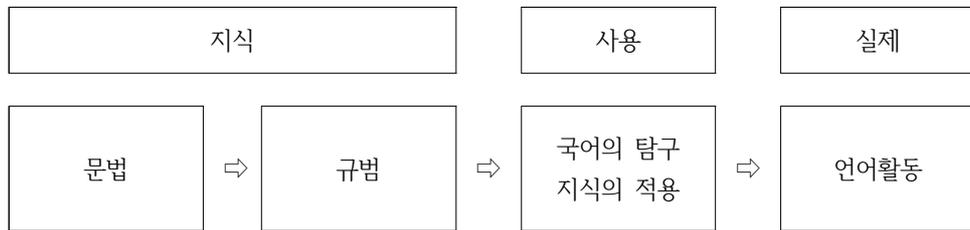
지식 이해의 부담 가중, 언어의 특성 및 국어 구조에 대한 이해와 연계되지 못한 어문 규범 지식이라는 문제점 외에 위계성도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어문 규정들을 설명하는 내용에는 문법 단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만일 그러한 지식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왜?’에 대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 암기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초등학교 규범 교육은 초보적인 문법 지식 수준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반복된 연습을 통해 규정을 익히게 하고 있다. 중학생에게는 약간의 원리를 제시하고 고등학교에서야 원리를 온전히 제시하고 있는 현행의 방식이라면 국어 규범 교육은 암기의 방식 혹은 공통 교육과정 마지막 학년에서야 원리를 가르치게 되는 두 가지 대안밖에 없을 것이다. 지식은 교수학적 변환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지식의 형태로 바꾸어 제시할 수 있다. 게다가 발달 단계에 따라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수준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생에게는 반복된 연습의 형태로만 학습하게 하는 방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언어의 특성에 대한 이해, 국어 구조에 대한 이해,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가 항목별로 병치된 방식은 국어 규범 교육의 계열성 내지 위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논문 7쪽)

(1)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에게 원리에 대한 설명이 동반된 규범 교육 내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 그리고 규범 교육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고등학교에 이르러서야 원리를 온전히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이는 학습 난이도를 고려해 학습자들의 실제 언어생활의 예문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들의 탐구 학습 과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요?(규범 교육 내용 체계와 실제 교수 학습 현장에서 그것이 다루어지는 방식의 문제는 차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싶어 여쭙습니다.)

2) 선생님께서는 문법 교육의 실행 과정으로 다음의 도표를 제시(논문, 10쪽)해 주고 계신데, 이는 최근의 문법 교육 연구 흐름, 최근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문법 교육 내용’, ‘문법 지식’, ‘문법 탐구 경험’을 바라보는 관점과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문법 교육에서는 문법 교육 내용이 실제 학습자의 언어생활과 긴밀한 연관을 맺는 것으로 문법 지식의 획득 과정 속에서 학습자의 문법 탐구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 논의들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학습자의 실제 언어생활과 유리되어 공고한 체계를 갖춘 형태로서의 문법 지식을 상정하는 것이지요? 도표 상으로는 그런 오해가 빚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여쭙습니다.



3) 선생님께서는 ‘국어 구조 지식과 국어 규범 지식의 융합 및 변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발표집, 48쪽)해 주시고 계십니다.

(9) 국어 구조 지식과 국어 규범 지식의 융합 및 변환 양상

	국어 구조 지식	국어 규범 지식		
국어의 특성	언어 단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총칙		
	한글 자모	한글 자모		
음운	음운 체계		한글 맞춤법 소리에 관한 것	한글 맞춤법 형태에 관한 것
	음운 변동	표준 발음법		
단어	형태소			
	단어 형성법	띄어쓰기		
	품사			
	어휘의 유형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개념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단어의 의미	준말,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표준 화법(유의어이지만 상황에 맞는 어휘 선택)		

문장	문장 성분	문장의 호응	의미가 명확한 문장 (중의문, 성분 생략 등)
	문장의 구조		
	문법 요소	문장 부호 표준 화법	

그리고 ‘국어 규범 지식은 국어 구조 지식과 긴밀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원리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어 구조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 규범 지식은 원리 위에 서게 된다. 어문 규정 조항들을 단순히 제시하는 교수 학습 방식이 아니라 문법 지식의 배경 위에서 규범 지식을 논리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논문, 10-11쪽)’이고, ‘이러한 융합은 문법 지식의 위계화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되기도 함(논문, 11쪽)’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1) 국어 규범 지식은 선생님 말씀처럼 국어 구조 지식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교과서 내용 체계가 구성되어야 함을 언급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융합은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모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요?

(2) 선생님께서는 ‘원리 중심 국어 규범 교육의 구체화’를 도모하고 계신데, ‘원리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어 구조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 규범 지식은 원리 위에 서게 된다.’는 위 언급은 ‘국어 규범 교육 내용 구성 원리’가 국어 구조 지식의 원리, 위 표에서 제시되는 ‘국어의 특성, 음운, 단어, 문장’ 등의 언어 특성에서부터 언어 단위에 따른 문법 교육 내용 제시 방식과 동일한 원리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끝으로, 학습자의 실제 언어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어 규범 교육 내용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천착하고 계신 발표자 선생님의 논의에 제 우문들로 이 연구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오독한 부분은 없는지 염려하면서 이상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언어와 매체> 성취 기준의 통합적 배분 방안 연구

신호철(청주대)

<차 례 >

1. 머리말
2.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분석
3. 성취기준의 통합적 배분 방안
4.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참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은 2007년 이후 급변하는 사회 현상보다도 신속하게 변모해 왔다. 이러한 변모는 2007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12년 학령기 동안 거쳐야 할 교육과정이 과연 몇 개나 될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의문 속에서 2015년도에 또 다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완성하였다.

교육 공동체에서는 후속 조치로 또 다시 교과서 개발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것은 새롭게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교육철학과 시대정신 등 교육과정에 숨은 뜻을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 개발에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순서는 없지만 교육과정이 완성된 이후 대상 교과서의 필자 선정에 이어 단원 구성 체제를 완성하고 그에 맞춰 해당 성취기준을 배분하고 제재 선정과 학습 활동 등에 대한 내용 집필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교과서 제작 출판사와 저작자들만의 기밀 사항으로 그 모습은 완성된 최종 상태로만 세상에 선보이게 된다. 그래서 그 작업 과정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교과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새롭게 탄생한 ‘언어와 매체’ 과목의 교과서 역시 개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개발에 있어 문법 영역과 매체 언어 영역을 통합적으로 구성한다는 전제 아래 두 영역의 성취기준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배분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2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언어와 매체’ 과목 성취기준 분석을 통해 새롭게 바뀐 특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 개발에서 필요한 성취기준 배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언어와 매체’ 과목은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문법과 매체 언어 영역이 결합된 또 하나의 ‘그

렌델(Grendel)¹⁾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이 교과서를 개발할 때 두 영역을 단독적으로 교과서로 구성할 것인지, 이전 <독서와 문법> 교과서와 같이 병렬식 통합으로 구색을 맞추는 것인지, 두 영역의 화학적 통합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보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분석

2.1. '내용 체계' 구성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전면 개정이어서 국어과에서도 여러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선택 과목의 변화, 과목 설정의 변화, 문법 명칭의 변화, 교육과정 문서 체제의 변화 등 여러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있다.²⁾ 이 가운데 '내용 체계' 제시 방식도 큰 변화가 있었다. 각 교과마다 특성을 고려하여 체제를 구성하였던 기존의 틀을 깨고 공통의 내용 체계 표를 제시하였다. 곧 내용 체계 표는 '영역-핵심 개념-일반화된 지식-내용 요소-기능'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내용 체계 제시 방식이었던 '실제-지식-기능-태도'의 순으로 제시되었던 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³⁾ 이를 2011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 과목의 내용 체계 표와 상호 대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⁴⁾

(1) 2011·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언어와 매체'의 내용 체계 표 비교

가. 2011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내용 체계 표

독서와 언어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의 본질 • 언어의 본질
국어 구조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구성 원리 • 독서의 방법
독서의 실제와 국어 자료의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와 국어 생활 • 국어 자료의 탐구 • 독서의 가치와 성찰

1) '그렌델(Grendel)'은 **뵘**에오울프(Beowulf)에 등장하는 괴물이다. Polette, Keith (2008:xi)에서는 문법(Grammar)을 "Beowulf's Grendel"에 비유하고 있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창원 외(2015가, 나), 서영진(2015), 구분관(2016) 등에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3) '지식-기능-태도'의 범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영역'의 하위 범주로 '본질-탐구와 활동-태도'의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4) '언어와 매체'와 비교 대상으로 이전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을 비교하는 이유는 본고의 기본 대상이 '문법'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 내용 체계 표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언어와 매체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인간 매체와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문화를 반영하는 기호 체계이며, 국어는 세계 속에서 주요 언어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매체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소통 방식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국어의 특성 국어의 위상 매체의 유형 매체 소통의 특성 	
국어의 탐구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운·단어·문장·담화 국어 자료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의 체계로 구성된다. 국어 구조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발음, 단어와 문장의 정확한 사용, 담화의 효과적인 구성에 활용된다. 다양한 국어 자료에 대한 이해는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자료를 생산하는 데 활용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운의 체계와 변동 품사와 단어의 특성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의미 관계와 어휘 사용 문장의 짜임과 활용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담화의 특성과 국어생활 시대·사회에 따른 국어 자료 매체·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 국어의 규범과 국어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 발견하기 맥락 이해·활용하기 자료 수집·분석하기 자료 활용하기 지식 구성하기 지식 적용하기 내용 구성하기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 매체 전자 매체 대중 매체 복합 양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 언어는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 다양한 기호가 함께 어우러져 의미를 만들어 내는 복합 양식의 특성을 지닌다. 매체 언어에 대한 이해는 인간관계 형성 및 정보 사회와 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다양한 매체 자료에 대한 이해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데 활용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의 소통 방식 매체 자료의 수용 매체 자료의 생산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매체의 영향력과 가치 매체 문화의 향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전달하기 비평하기 성찰하기 소통하기 점검·조정하기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생활 매체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국어생활과 매체 언어생활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때 국어 능력과 매체 언어 능력이 효과적으로 신장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생활 성찰 매체 언어생활 성찰 언어와 매체 문화의 발전 	

(1)의 (가)와 (나)를 표면적으로만 보아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변화된 모습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 내용 체계 표는 <독서와 문법> 교과서를 구성하는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⁵⁾ 곧 (1가)의 내용 체계 표를 보면 처음과 끝은 독서와 문법을 통합하여 체계 표를 만들었고, 중간 부분은 '국어의 구조',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이라 하여 문법 영역과 독서 영역을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구성 체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6개 출판사에서 개발한 <독서와 문법> 중 5개 교과서가 이 구성 체제를 따르고, 하나의 교과서만이 첫 단원 부분

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호철(2016)에서 논의되었다.

만 통합한 구성 체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저간(這間)의 사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언어와 매체’ 과목의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에도 참고 대상이 된다. (1나)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언어와 매체’ 내용 체계 표를 보면 ‘영역’의 하위 범주는 ‘언어와 매체의 본질’, ‘국어의 탐구와 활용’,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와 매체의 본질’은 문법 영역과 매체 영역의 통합 범주이고, ‘국어의 탐구와 활용’은 문법 영역이고,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은 매체 영역이며,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는 문법 영역과 매체 영역의 통합 범주이다.

이러한 내용 체계의 구성은 2011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 과목의 내용 체계 구성과 동일하다. 곧 교육과정상의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내용 성취기준’이나 ‘내용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구분 체계는 ‘독서와 문법’과 ‘언어와 매체’가 동일한 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현재 교육과정에서 가능한 통합의 현실태(現實態)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2. ‘성취기준’ 구성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영역’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하위 요소로 ‘(가) 학습 요소’, ‘(나) 성취기준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은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간략히 기술하였던 것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성취기준에 대해 해설을 첨가하지 않고 일부만 해설을 기술하였다. 신설된 조항이나 범위를 정해 줄 필요가 있는 조항, 교육과정 독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조항 등에 대해서만 해설을 첨가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가 각 성취기준마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과서 집필자, 교사 등 교육과정의 주요 독자들이 해당 성취기준을 활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의 성취기준에 대한 ‘교육 내용-교수·학습 방법-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관성 있는 교육의 과정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의 범위를 제한하여 학습량을 감축시키는 용도로도 이용된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구본관, 2016:124).

교육과정 문서에 성취기준은 ‘내용 체계’의 구성 방식에 따라 ‘영역’별로 구별하여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2011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과 ‘언어와 매체’의 성취기준만을 떼어 비교·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2011·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언어와 매체’의 성취기준 비교

가. 2011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내용 성취기준

번호	내용 성취기준	영역
1	사회적 소통 및 지식 창출 행위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한다.	독서
2	독해의 원리, 과정, 방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독서
3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탐구하고 이해한다.	문법
4	언어가 갖는 특성인 기호성, 규칙성, 창조성, 사회성, 역사성을 탐구하고 이해한다.	문법

5	음성, 음운의 세계를 탐구하고 올바르게 발음 생활을 한다.	문법
6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고 올바르게 발음하며 표기하는 생활을 한다.	문법
7	품사 분류를 통해서 개별 단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문법
8	단어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탐구한다.	문법
9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을 이해하고 국어 생활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문법
10	단어의 의미 관계와 의미 변화의 양상을 탐구하고 이해한다.	문법
11	문장의 짜임을 탐구하여 이해하고 정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문법
12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문법 요소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한다.	문법
13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하도록 한다.	문법
14	담화에서 지시, 대용, 접속 표현의 기능과 효과를 이해한다.	문법
15	글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글의 담화적 특성을 판단하며 읽는 능력을 기른다.	독서
16	글의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 전개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며 읽는다.	독서
17	글의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독서
18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독서
19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	독서
20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그 내용을 감상하며 읽는다.	독서
21	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독서
22	동일한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독서
23	시대에 따라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가 달랐음을 알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구성하며 글을 읽는다.	독서
24	지역별 문화의 특성이 글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글을 읽는다.	독서
25	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독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읽는다.	독서
26	국어 자료를 읽고 국어의 변천을 탐구한다.	문법
27	선인들의 삶을 통하여 국어 수난과 발전의 역사를 이해한다.	문법
28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문법
29	세계 속의 한국어 위상을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문법
30	사회적 공동체의 독서 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교감하며 글을 읽고 삶을 성찰한다.	독서
31	다매체 사회에서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독서에 관한 정보를 얻고 활용한다.	독서
32	자신의 독서 이력을 성찰하고 독서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독서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 성취기준

번호	구분	성취기준	영역
1	[12언매01-01]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문법
2	[12언매01-02]	국어의 특성과 세계 속에서의 국어의 위상을 이해한다.	문법
3	[12언매01-03]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	매체
4	[12언매01-04]	현대 사회의 소통 현상과 관련하여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매체
5	[12언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	문법
6	[12언매02-02]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성을 탐구한다.	문법
7	[12언매02-03]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문법
8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	문법
9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문법
10	[12언매02-06]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실제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문법

11	[12언매02-07]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탐구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어생활을 한다.	문법
12	[12언매02-08]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문법
13	[12언매02-09]	다양한 사회에서의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문법
14	[12언매02-10]	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문법
15	[12언매02-11]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	문법
16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	매체
17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매체
18	[12언매03-03]	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매체
19	[12언매03-04]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한다.	매체
20	[12언매03-05]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매체
21	[12언매03-06]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매체
22	[12언매04-01]	자신의 국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문법
23	[12언매04-02]	자신의 매체 언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매체
24	[12언매04-03]	현대 사회에서 언어와 매체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통합

(2가)와 (2나)를 비교하면 성취기준 숫자에서 확연히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서와 문법’의 성취기준 수는 32개임에 비해 ‘언어와 매체’는 24개이다. 이는 학습량의 감축이라는 교육과정 개정 지침을 따른 현실이다.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 수만 놓고 비교한다면 표면적으로 16개에서 14개로 감소하여 성취기준 2개가 줄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법 교육의 주요 내용인 음운, 단어, 문장의 성취기준을 대폭 감소하고 국어의 자료와 관련된 성취기준을 4개나 신설하였음을 고려한다면 문법 영역의 핵심적인 내용 중 상당수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 성취기준 중에서 또 다른 특징이 통합 성취기준을 첨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과목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정작 교육 내용에서는 독립된 병행 나열에 그치고 있었다. 내용 체계 기술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쪽 통합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의 성취기준에서는 비록 1개에 지나지 않지만, 두 영역의 통합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2나-24)의 “[12언매04-03] 현대 사회에서 언어와 매체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태도’ 범주의 성취기준으로 문법과 매체 언어의 가치 이해와 함께 국어 문화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내용의 성취기준이다.

이러한 성취기준도 역시 진정한 통합의 실천을 이룩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길을 열었다는 데에 가치를 가질 만하다. 이러한 통합 성취기준을 통해 교과서 개발자의 역할은 통합적 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진정한 통합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3. 성취기준의 통합적 배분 방안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은 교육 내용의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주요 학습 요소와 교육 내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척도가 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있어 성취기준 배분에 앞서 단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언어와 매체’ 과목이 통합을 기본 전제로 탄생한 과목이기 때문에 단원 구성을 통합적으로 구성한다는 기반 아래에서 성취기준을 배분한다.

통합의 방식을 두 가지로 상정한다. 하나는 기존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통합 구성 방식과 ‘언어와 매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제시 방식에 제시된 통합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문법 중심의 통합 구성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문법’과 ‘매체’를 비교할 때 ‘문법’ 과목에 대한 비중이 ‘매체’ 과목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매체는 국어과에서 교수·학습의 도구로 많이 활용되어 오던 것이었다. 즉 교육적 수단이었던 것이 시대적 생활 변화 속에서 매체가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목으로서의 자격을 얻은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 내용면으로나 국어과의 교육적·학문적 전통성으로나 사고력 신장의 기여 측면으로나 문법 영역의 역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전자의 통합 방식을 ‘부분 통합 방식’이라 하고, 후자의 방식을 ‘완전 통합 방식’이라 한다. 이러한 통합 방식에 근거하여 각 통합 방식에 대한 성취기준 배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⁶⁾

3.1. 부분 통합 방식의 성취기준 배분안

부분 통합 방식은 첫 대단원과 마지막 대단원만 두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현행 <독서와 문법> 교과서 6개 중 5개가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언어와 매체> 교과서도 이러한 부분 통합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

(3) 부분 통합 방식의 대단원 구성안

대단원		내용 요소	비고
I	언어와 매체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국어의 특성 국어의 위상 매체의 유형 매체 소통의 특성 	문법(2) 매체(2) 통합
II	국어의 탐구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운의 체계와 변동 품사와 단어의 특성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의미 관계와 어휘 사용 	문법(11) 단독

6) 국어과의 통합 교과서 <독서와 문법>에 대한 통합 방식에 따른 유형은 신호철(2016)에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신호철(2016)에서 분류한 방식을 따르며 통합 방식에 따른 대단원 구성안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짜임과 활용 •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 담화의 특성과 국어생활 • 시대에 따른 국어 자료 • 사회에 따른 국어 자료 • 매체·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 • 국어의 규범과 국어생활 	
Ⅲ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의 소통 방식 • 매체 자료의 수용 • 매체 자료의 생산 •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 매체의 영향력과 가치 • 매체 문화의 향유 	매체(6) 단독
Ⅳ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생활 성찰 • 매체 언어생활 성찰 • 언어와 매체 문화의 발전 	문법(1) 매체(1) 통합(1)

(3)에 제시한 부분 통합 방식의 대단원 구성안을 보면 제Ⅰ 단원과 제Ⅳ 단원에 언어와 매체의 ‘본질’과 ‘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아 두 영역을 통합하였다. 제Ⅱ 단원은 ‘국어의 탐구와 활용’으로 문법 영역 단독으로 구성하는 단원을, 제Ⅲ 단원은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으로 매체 영역 단독으로 구성하는 단독 단원으로 단원 체제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부분 통합 방식으로 단원을 구성하여 각 단원에 성취기준을 배분해 보면 다음 (4)와 같다.

(4) 부분 통합 방식의 성취기준 배분안

대단원		소단원	성취기준
Ⅰ	언어와 매체의 본질	1. 언어와 국어	[12언매01-01]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12언매01-02] 국어의 특성과 세계 속에서의 국어의 위상을 이해한다.
		2. 의사소통과 매체	[12언매01-03]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 [12언매01-04] 현대 사회의 소통 현상과 관련하여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Ⅱ	국어의 탐구와 활용	1. 음운과 국어생활	[12언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에 대해 탐구한다.
		2. 단어와 국어생활	[12언매02-02]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성을 탐구한다. [12언매02-03]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
			3. 문장과 국어생활

			[12언매02-06]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실제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4. 담화와 국어생활	[12언매02-07]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탐구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어생활을 한다.
		5. 국어 자료와 규범	[12언매02-08]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피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12언매02-09] 다양한 사회에서의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12언매02-10] 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12언매02-11]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	
Ⅲ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1. 매체의 특성과 가치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 [12언매03-05]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2. 매체의 수용과 생산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12언매03-03] 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3. 매체의 표현과 문화	[12언매03-04]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한다. [12언매03-06]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Ⅳ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1. 국어생활의 성찰	[12언매04-01] 자신의 국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12언매04-02] 자신의 매체 언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2. 언어와 매체 문화의 발전	[12언매04-03] 현대 사회에서 언어와 매체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4)는 부분 통합 방식의 대단원 구성에 소단원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성취기준을 배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언어와 매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의 ‘영역’별로 구분한 것으로 성취기준 배분도 교육과정에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래서 4개의 대단원과 12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소단원을 구분할 때 (4)에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을 통합한 것이 차이가 날 뿐이다. ‘Ⅱ. 국어의 탐구와 활용 - 5. 국어 자료와 규범’에서 ‘국어 자료’와 ‘국어 규범’을 하나의 소단원을 통합하였다. 각 성취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국어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국어 규범 역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Ⅳ.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단원에는 ‘1. 국어생활의 성찰, 2. 언어와 매체 문화의 발전’ 소단원을 두었다. ‘1. 국어생활의 성찰’에는 문법과 매체 언어 성취기준을 각각 넣었으며, ‘2. 언어와 매체 문화의 발전’은 문법과 매체 언어의 통합 성취기준을 그대로 넣었다.

(4)와 같이 성취기준을 배분한 기본 원칙은 먼저 내용적 응집성(cohesion)을 적용하고, 다음

으로 주제적 공통성을 적용하고, 세 번째로 소재의 공통성 기준을 적용하였다. ‘IV.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단원의 ‘1. 국어생활의 성찰’과 ‘2. 언어와 매체 문화의 발전’ 소단원이 주제적 공통성 기준으로 성취기준을 배분한 것이고, ‘II. 국어의 탐구와 활용’의 ‘5. 국어 자료와 규범’이 ‘국어 자료’라는 소재의 공통성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나머지는 내용적 공통성 기준을 적용하여 성취기준을 배분한 것이다.

3.2. 완전 통합 방식의 성취기준 배분안

완전 통합 방식은 두 영역을 통합하여 교과서 전체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언어와 매체> 교과서는 문법 영역 중심으로 개발할 것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 통합의 중심은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에 두고 관련성 있는 매체 언어 성취기준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배분한다. 우선 완전 통합 방식의 대단원 구성안은 다음 (5)와 같다.

(5) 완전 통합 방식의 대단원 구성안

대단원		내용 요소	비고
I	언어와 매체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국어의 특성 국어의 위상 매체의 유형 매체 소통의 특성 	문법(2) 매체(2) 통합
II	음운과 매체의 탐구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운의 체계와 변동 매체의 소통 방식 	문법(1) 매체(1) 통합
III	단어와 매체의 탐구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사와 단어의 특성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의미 관계와 어휘 사용 매체 자료의 수용 	문법(3) 매체(1) 통합
IV	문장과 매체의 탐구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장의 짜임과 활용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매체 자료의 생산 	문법(2) 매체(1) 통합
V	담화와 매체의 탐구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화의 특성과 국어생활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문법(1) 매체(1) 통합
VI	국어 규범과 매체의 탐구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의 규범과 국어생활 매체의 영향력과 가치 	문법(1) 매체(1) 통합
VII	국어 자료와 매체의 탐구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대에 따른 국어 자료 사회에 따른 국어 자료 매체·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 매체 문화의 향유 	문법(3) 매체(1) 통합
VIII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생활 성찰 매체 언어생활 성찰 언어와 매체 문화의 발전 	문법(1) 매체(1) 통합(1)

(5)에 제시한 완전 통합 방식의 대단원 구성안을 살펴보면, 제 I 단원과 제Ⅷ단원은 부분 통합 구성 방식의 대단원 구성과 동일하다. 나머지 단원은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를 중심으로 대단원을 나열하였다. 그래서 총 8개 대단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대단원의 수가 한 학기에 학습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다.⁷⁾ 그러나 일단은 문법에서 중요한 개념은 언어 단위가기 때문에 언어 단위를 중심으로 대단원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매체 영역의 내용을 결합하여 대단원을 구성한 것이다. 이 대단원 구성에 성취기준을 배분하면 다음 (6)과 같다.

(6) 완전 통합 방식의 성취기준 배분안

	대단원명	소단원	성취기준
I	언어와 매체의 본질	1. 언어와 국어	[12언매01-01]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12언매01-02] 국어의 특성과 세계 속에서의 국어의 위상을 이해한다.
		2. 매체와 소통	[12언매01-03]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 [12언매01-04] 현대 사회의 소통 현상과 관련하여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II	음운과 매체의 탐구와 활용	1. 음운의 체계와 매체의 특성	[12언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 에 대해 탐구한다.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
		2. 음운의 변동과 매체의 유통	[12언매02-01]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음운의 체계와 변동 에 대해 탐구한다. [12언매03-01]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
III	단어와 매체의 탐구와 활용	1. 단어의 품사와 매체의 관점	[12언매02-02] 실제 국어생활을 바탕으로 품사에 따른 개별 단어의 특성을 탐구한다.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2. 단어의 형성과 매체의 가치	[12언매02-03]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3. 어휘의 의미와 매체의 수용	[12언매02-04] 단어의 의미 관계를 탐구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에 활용한다.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IV	문장과 매체의 탐구와 활용	1. 문장의 짜임과 매체의 소통(맥락)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12언매03-03] 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2. 문법 요소와 매체의 생산	[12언매02-06]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실제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12언매03-03] 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7) 이를 수정·보완한다면, 음운 단원과 단어 단원을 묶고, 문장 단원과 담화 단원을 묶고, 국어 규범과 국어 자료를 묶어 총 5개 대단원 체제로 갈 수 있다.

V	담화와 매체의 탐구와 활용	1. 담화의 개념과 매체의 표현	[12언매02-07]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탐구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어생활을 한다. [12언매03-04]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한다.
		2. 담화의 특성과 매체의 향유	[12언매02-07]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탐구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어생활을 한다. [12언매03-04]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한다.
VI	국어 규범과 매체의 탐구와 활용	1. 국어 규범의 정확성과 매체의 영향	[12언매02-11]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 [12언매03-05]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2. 국어 규범의 적절성과 매체의 활용	[12언매02-11]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국어 규범을 이해하고 정확성, 적절성, 창의성을 갖춘 국어생활을 한다. [12언매03-05]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VII	국어 자료와 매체의 탐구와 활용	1. 시대 자료와 매체 문화	[12언매02-08]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12언매03-06]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2. 사회 자료와 매체 문화	[12언매02-09] 다양한 사회에서의 국어 자료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12언매03-06]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3. 갈래 자료와 매체 문화	[12언매02-10] 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12언매03-06]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VIII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1. 국어생활의 성찰	[12언매04-01] 자신의 국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12언매04-02] 자신의 매체 언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2. 언어와 매체의 발전	[12언매04-03] 현대 사회에서 언어와 매체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6)에서 제 I 단원과 제 VIII 단원은 부분 통합 구성 방식의 대단원 구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성취 기준 역시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II 단원에서 VI 단원까지 언어 단위와 국어 규범을 중심으로 하는 단원의 성취기준 배분은 중복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단원은 문법 영역과 매체 언어 영역에 대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II 단원 ‘음운과 매체의 탐구와 활용’에서는 성취기준이 2개이기 때문에 이들의 학습 요소를 각각 2개로 나누어 소단원을 구성하였다. 음운의 체계와 변동을 각각의 소단원으로 구분하였고, 매체의 특성에 따른 정보 구성과 유통 방식을 각각 구분하였다. 음운의 체계와 변동과 매체의 특성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으나 기본적으로 음운은 언어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언어를 구성하는 기본이 되고, 매체의 특성이라 함은 매체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양자의 기본적 특성에 연관성을 두고 통합하였다.

III 단원 ‘단어와 매체의 탐구와 활용’에서는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은 3개이고, 매체 언어 영역

의 성취기준이 1개이기 때문에, 매체 언어 영역의 성취기준을 학습 요소 3개로 나누어 소단원에 배분하였다. 곧 ‘매체의 다양한 관점, 가치, 매체 자료의 수용’ 구분하여 각 소단원에 배열하였다. ‘품사’와 ‘매체의 다양한 관점’의 통합 근거는 ‘다양한 관점’에 두었다. 곧 품사 분류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매체의 다양한 관점에 연관성을 두어 하나의 소단원으로 통합하였다. ‘단어의 형성’과 ‘매체의 가치’의 통합 근거로는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사멸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가치에 대한 이해로 접근하면서 매체의 가치를 함께 기술할 수 있다는 ‘가치’의 관점에 두었다. ‘단어의 의미 관계와 어휘 사용’과 ‘매체 자료의 수용’은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어휘를 사용한다는 측면과 매체 자료에 대한 이해적 접근으로 수용하는 자세의 측면에 강조점을 두어 ‘사용과 수용’의 관점에 두었다.

IV단원 ‘문장과 매체의 탐구와 활용’에서는 문법 영역 성취기준 2개 매체 언어 영역 성취기준 1개이기 때문에 매체 언어 영역 성취기준을 2개의 학습 요소로 나누어 소단원에 배분하였다. 곧 ‘문장의 짜임과 적절한 상황에 맞는 문장 사용’과 ‘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소단원으로 구성하고, ‘문법 요소의 이해와 국어생활에 사용하는 것’과 ‘다양한 매체 자료 생산’을 통합하여 하나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 그 통합 근거는 ‘문장 구성에 대한 탐구로 실제 국어 생활에 사용한다’는 개념과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는 데에 두었다. 곧 본질에 대한 탐구와 고려를 바탕으로 한 사용과 생산이라는 연관성에 통합의 근거를 둔 것으로 ‘탐구와 사용’의 관점이다.

V단원 ‘담화와 매체의 탐구와 활용’에서는 성취기준이 각각 1개씩이어서 II단원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성취기준을 2개의 학습 요소로 나누어 각 소단원으로 배분하였다. 곧 ‘담화의 개념’과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소단원으로 묶고, ‘담화의 특성’과 ‘매체 언어의 심미적 가치’를 통합하여 또 하나의 소단원으로 묶었다. 이들의 통합적 연관성은 사실 괴리가 있다. 하지만 담화가 언어 단위 중 가장 큰 단위이자 완성체로서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과 그 심미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향유라는 매체 언어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담화와 묶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겠다.

VI단원 ‘국어 규범과 매체의 탐구와 활용’에서도 역시 영역별 성취기준이 각각 1개씩이다. 따라서 이들도 2개의 학습 요소로 나누어 각 소단원에 배분하였다. 국어 규범의 경우 정확성과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각 소단원에 배분하였고, 매체 영역의 성취기준은 구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를 ‘인간관계’와 ‘사회생활’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통합하였다.

이상의 완전 통합 방식의 대단원 구성에서 성취기준 배분을 하였는데, 우선 문법 영역과 매체 언어 영역의 성취기준을 하나의 소단원 성취기준으로 통합하는 기준은 부분 통합 방식의 성취기준 배분안의 통합 기준과 유사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내용적인 응집성과 주제적인 공통성, 소재적인 공통성의 기준으로 두 이질적인 영역의 성취기준을 통합하였다.

4. 맺음말

이제까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성취기준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 그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우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언어와 매체’ 과목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 대한 구성과 제시 방식에 대하여 2011 개정 교육과정 ‘독서와 문법’ 과목과 비교해 보았다. ‘언어와 매체’ 과목의 내용 체계 구성은 ‘독서와 문법’의 내용 체계 구성보다 상당히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내용 체계의 ‘영역’ 범주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 구성 제시 방식과 ‘언어와 매체’ 과목의 통합적 성격을 반영하여 통합 교과서 개발에서 교육 내용 배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취기준을 배분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단원 구성 방식을 부분 통합과 완전 통합 방식으로 전제하고 그에 대한 성취기준 배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분 통합 방식에서의 성취기준 배분은 4개 대단원에서 처음과 끝 대단원만 통합적으로 배분하고 2, 3단원은 문법 영역, 매체 언어 영역의 성취기준을 나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완전 통합 방식에서의 성취기준 배분은 8개 대단원 구성에서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매체 언어 영역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통합하였다. 성취기준 배분도 문법 영역 성취기준을 배열하고, 내용적 응집성, 주제적 공통성, 소재적 공통성의 연관성을 근거로 매체 언어 영역의 성취기준을 나누어 배분하였다.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11),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구본관(2016), 2015 교육과정 문법 영역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연구』51-1, 국어교육학회, 89-133.
- 김동욱(2014),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과 체제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2011 고등 『국어 I, II』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56, 청람어문교육학회, 7-36.
- 김억조(2013),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교과서 “문법” 영역 내용 제시 순서 고찰, 『한민족어문학』4, 한민족어문학회, 191-218.
- 김창원 외(2014), 『문법』이과 통합형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법 교육부
- 김창원 외(2015가),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국어과 교육과정-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창원 외(2015나),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국어과 교육과정-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혜영(2015),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통합교육의 성격, 『국어교육연구』9, 국어교육학회, 149-178.
- 남민우·최숙기(2012),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의 적합성 조사 연구, 『국어교육』37, 한국어교육학회, 327-351.
- 민현식·이지선·이지은·조진수(2016), 국어 문법 교재 개발의 이론과 실제-2009 개정 국어 교과서에 구현된 문법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3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311~351쪽.
- 박영목 외(2011),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I법 천재교육.
- 박영목 외(2013),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법 천재교육.
- 박영목 외(2013),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법 천재교육.
- 박영민(2014), 2015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방안-중학교 통합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방안, 『청람어문교육』51, 청람어문교육학회, 65~80쪽.
- 박영민·최숙기(2006),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과서 단원 개발을 위한 연구, 『청람어문교육』4, 청람어문교육학회, 67~84쪽.
- 서영진(2013),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성취 기준의 진술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6, 국어교육학회, 415-450.
- 서영진(2015),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공통 교육과정 국어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56, 청람어문교육학회, 67-106.
- 서현석(2012), 국어 교과서 통합 단원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48,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87~112쪽.
- 송현정(2002), 국어지식 영역의 교과서 제시 방식에 관한 분석: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국어과

- 를 중심으로, 『특국어교육』109, 한국어교육학회, 111~146쪽.
- 신현재(2011), 국어 교육의 발전을 담보할 국어 교과서관-열린 교과서관”의 국어교육학적 의미와 국어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 『청람어문교육』44, 청람어문교육학회, 7~21쪽.
- 신호철(2016), <언어와 매체>의 단원 구성 방안 연구, 『문법 교육』8, 한국문법교육학회, 103-134.
- 안부영(2014), 통합형 국어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통합 강도 검토 -읽기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교육과정연구』3,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115-137.
- 윤여탁 외(2007), 매체언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연구, 『특국어교육연구』1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45~68쪽.
- 윤여탁 외(2011),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 II 법』(주)미래엔.
- 윤여탁 외(2013),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법』(주)미래엔.
- 이관규 외(2013),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법 비상교육』.
- 이관규(2011), 통합적 국어교육의 가치와 독서와 문법, 『특국어교과교육연구』8, 국어교과교육학회, 91~118쪽.
- 이남호 외(2011),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 II 법 비상교육』.
- 이도영 외(2013),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법 창비』.
- 이삼형 외(2011),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 II 법』(주)지학사.
- 이삼형 외(2013),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법』(주)지학사.
- 이상구(2007), 국어 교과서 단원 설계의 방향-장르 중심 접근법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35, 청람어문교육학회, 51~81쪽.
- 이현숙 · 강현석(2013), Bloom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에 기초한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3-4,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305-325.
- 장윤희(2006), 문법 내용의 국어 교과서 구현 방안 연구, 『특국어교육』20, 『특국어교육』120, 한국어교육학회, 325~356쪽.
- 정은아(2013), 국어과 교과서 단원의 통합 방식 연구, 『특국어교육연구』53, 국어교육학회, 57~84쪽.
- 최속기(2014), 2015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방안 - 2015 문,이과 통합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방안 탐색, 『청람어문교육』1, 청람어문교육학회, 81-119.
- 한철우 외(2013),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법』(주)교학사.
- 한철우(2007), 사회적 상호작용 단원 구성 방향 고찰, 『교원교육』23-4,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1~19쪽.
- Polette, Keith(2008), Teaching Grammar through Writing, Pearson Education.

■ 토 론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성취 기준 배분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윤구희(효문중)

2015 국가수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큰 변화 중 하나는 고등학교 문법 영역의 교과서가 <독서와 문법>에서 <언어와 매체>로 바뀐 것이다. 연구자의 말처럼 교육과정의 의도와는 달리 ‘독서’와 ‘문법’의 결합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언어(문법)’와 ‘매체’의 결합은 <독서와 문법>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연구자의 논의는 시의 적절하고 학계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연구자의 논의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묻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 교과서 집필 지침, 교과서 집필, 교과서 채택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 지침이 이상적인 모습이라면 교과서 집필과 교과서 채택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과서로 구현된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교육과정이 이상만 추구하고 교과서가 이를 추종할 경우에는 채택과정에서 외면 받고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실행될 것이다. 성취기준 배분 과정에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거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을 알고 싶다.

둘째, ‘독서’와 ‘매체’의 결합 또는 통합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다. 실제로 ‘매체’라는 교과 또는 영역이 도입이 시도되었다가 실제 실행되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고, 현실의 변화 추이와는 달리 학교 현장의 인식 정도와 학계의 학문적 성숙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와 달리 ‘언어(문법)’의 경우는 오랜 역사와 학문적 성숙도가 비교되지 않을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과목 명칭과는 달리 설익은 ‘매체’관련 이론과 표면적으로는 매체와의 관련성을 말하지만 문법 위주의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이것은 연구자가 말하는 ‘병렬식’, ‘통합(완전(6)·부분(4))식’ 모두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매체는 수단이나 자료 수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쳐 교육과정의 의도(‘언어와 매체’ 내용 체계)와는 거리가 있어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성취기준 배분의 원칙이다. 연구자는 배분의 기본 원칙으로 ‘내용적 응집성’, ‘주제적 공통성’, ‘소재적 공통성’을 제시했다. 우선 원칙 선정의 기준과 순위는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에 궁금하다. 실제 대단원 구성과 성취기준 배분의 순서는 교육과정의 체계가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하고 작은 범위 내에서 교과서 집필자와 편집자 등의 고민이 반영된다. 그 과정에서 학문적 체계와 관습적인 내용이 반영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문법적인 내용은 ‘언어의 본질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 - 규범 - 국어사'의 체계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또한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의 요구, 학교의 수업 현실, 대입 시험 등의 요소가 반영되기도 한다. 그리고 성취기준 사이의 위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발달과 앞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선수학습의 내용, 학습이 난이도, 학문적 위계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시도되는 '언어(문법)'과 '매체'의 결합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우려도 크다. 문서화된 교육과정의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 학교현장의 실행을 함께 담아야 하는 교과서는 그만큼 큰 부담과 어려움을 지니게 된다. 학습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으로 성취기준을 줄이고 핵심성취기준과 교육과정, 교과서 재구성 등의 용어로 이를 방어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학습 내용의 전체적인 양은 큰 차이가 없거나 늘어날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대한 연구자의 통합 방식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훌륭한 탄생을 기원하며 부족한 논의를 마친다.

제2부 <특 강>

국어 문법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홍종선(고려대)

< 차 례 >

1. 머리말
2. 국어사와 국어 문법사
3. 국어 문법사 연구의 성과
4. 국어 문법사 연구의 과제
5. 마무리

1. 머리말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국어 연구에서 국어사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라는 것이 곧 역사적으로 현재이므로, 현대 국어는 역사적 현대의 국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현재’의 중요성은, 오늘날 국어의 여러 가지 언어 현상을 설명할 때에 그 결정적인 단초를 역사성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국어 문법사 연구가 시작된 지 100년을 지난다. 국어 음운사 연구가 19세기 말부터 주시경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면, 1920년대 초 일본인들이 주도하면서 시작되었던 우리말 문법의 역사적 연구는, 1940년대 역사 문법 시기를 맞고 광복 직후에도 국어 음운사 연구와 더불어 국어 연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졌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이후 구조주의 언어학이나 생성문법이 국어학계에 이론적인 기반이 되어 20세기 후반에 이르도록 현대 국어학이 국어 연구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국어사 연구는 꾸준히 이어오고 20세기 말부터 좀더 활발하고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1세기 동안 이루어진 국어사 연구의 성과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국어사 전체는 너무 범위가 커서 그 가운데 문법사 부문을 위주로 논의한다. 문법사라고 해도 그 연구 범위가 고대 국어부터 현대 국어에 이르는 긴 기간이고 문법론의 하위 영역도 많아, 세부적인 논의나 예를 들지 못하고 전반적인 개관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국어 문법사’라고 하면 원래 국어 문법의 역사적인 변천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연구를 가리키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전의 어느 특정 시기 국어의 문법을 단면적으로 또는 공시적으로 살핀 연구도 포함하기로 한다. 우리의 국어사 연구는 오히려 이러한 성과물이 대다수이다.

연구 내용을 언급할 때에도 국어사의 하위 구분을 언급하는 제2장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연구자나 연구 논저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이론적인 국어학에서는 선편을 잡거나 중

추적인 원리를 내보인 주요 연구를 꼽을 수 있지만, 국어 문법사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각기 특정한 언어 현상을 조사하여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성과가 대체로 한정적이다. 따라서 주제별로 연구물들을 들기로 하면 논저의 수가 무척 많아져서 거칠게 둘러보는 짧은 연구사 서술 안에 이들을 다 수용하기 어렵다. 간혹 선편을 잡은 큰 연구물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자칫 이 논의에서 언급된 논저가 각자 그 주제에서 그 나름대로 기여를 한 수많은 연구물 가운데 지나치게 도드라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연구된 성과에만 유의하기로 하는데, 연구물의 자세한 서지 사항은 참고문헌에 나온 연구사 논저들에서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어사와 국어 문법사: 시대 구분

국어 문법사는 국어사의 하위 분야이다. 국어사에는 문법사 외에도 음운사, 의미사, 어휘사 등 여러 분야들이 더 있다. 이들의 상하위 연구 영역 간에는 서로 연구 성과를 주고받는 일들이 매우 많고, 자매들 간에도 정보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시기별로도 상하위 시대 간에 연구 내용이 공유되는 정보의 활용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각 시대의 각 연구 부문은 골고루 함께 연구 성과를 축적해 가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국어 문법사에서는 시기별로 분야별로 연구의 균형있는 축적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언어 자료의 편중이나 학계의 연구 분위기 등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체로 중세 국어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고, 최근엔 구결 자료 등이 많이 발굴되어 고대 국어에 관한 조명이 활발하다. 그러나 근대 국어 등 그 밖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많지 않은 듯하다.

국어 문법사도 국어사의 일부분으로 음운사나 의미사 등과 더불어 함께 연구하며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어사는 이들 하위 영역들의 연구가 통합 축적되면서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어사의 시대 구분 역시 음운사와 문법사 및 어휘사 등 여러 하위 영역의 시대 구분이 먼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이들이 전체 국어사의 체계성 속에서 통합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영역에서의 시대 구분은 거의 진행되어 있지 못한 채 전체의 틀인 국어사의 시대 구분만이 여러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어사에서 설정한 국어의 통시적 시대 구분은 대체로 ‘고대 국어, 중세 국어(전기, 후기), 근대 국어’로 나누는 3분법에 ‘현대 국어’를 더하는 견해가 우세한데, 각 시대의 명칭과 범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상고 국어, 중고 국어, 중기 국어, 최근세 국어’ 등의 용어들은 각기 시기 설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고대 국어를 언제부터로 잡을 것인가는 국어사 기술을 언제부터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삼한 시대나 그 이전 시기에도 국어는 존재하였겠지만 이 시기의 국어에 대해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언어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그러므로 국어사 기술은, 금석문, 죽간, 문서 등 약간의 언어 자료가 현재 전하고 언어와 관련하는 사소한 기록이나 볼 수 있는 삼국 시대를 넘어서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보다도 학계에서 보인 견해 차이는 고대 국어의 하한선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 대개는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분기점을 각각 고려 말과 조선 초에 두었으나 이에는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왕조의 교체에 너무 의지한다는 비판이

있다.¹⁾ 최근에는 구결 연구의 성과에 기대어 고대 국어의 하한선을 13세기까지로 보는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음독 구결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를 고대 국어로 보는 것이다.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경계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임진란을 들고 있어 일치한다. 현대 국어는 1894년의 갑오경장부터로 보거나 단순히 20세기부터라고 말하기도 한다. 각 연구자들의 시대 구분 견해를 보자.

일찍이 하야육량(1955)에서는 ‘고대조선어(∼훈민정음 창제), 중기조선어(훈민정음 창제∼임진란), 근세조선어(임진란∼갑오경장), 현대조선어(갑오경장∼현재)로 구분하였다. 이기문(1961)에서는 국어의 역사를 ‘고대국어(신라어; 7세기 후반∼9세기), 전기중세국어(고려; 10세기∼14세기), 후기중세국어(조선 전기; 15세기∼16세기), 근대국어(조선 후기; 17세기∼19세기), 현대국어(20세기 초∼현재)’로 나누었는데, 이러한 시대 구분은 국어사 연구자 대부분에게 일반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김형규(1962)에서는 ‘상고어(신라시대), 중고어(고려시대), 중기어(이조 전기), 근대어(이조 후기), 현대어(갑오경장 이후)’로 잡아, 이기문(1962)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홍윤표(1995)에서는 ‘고대국어(∼9세기말: 삼국, 통일신라시대), 중세국어(전기: 10세기∼14세기말(고려시대), 후기: 15세기∼16세기말), 근대국어(전기: 17세기∼18세기 중반, 후기: 18세기 중반 이후∼19세기말), 현대 국어(20세기초∼현재)’로 나누었다.

그러나 박병채(1989)에서는 ‘고대국어(전기:∼1103년, 후기: 1103년∼1443년), 중기국어(1443년∼1598년), 근대국어(1598년∼1894년), 현대국어(1894년∼)’로 설정하여 이전 연구와는 좀 다른 견해를 보였다. 김동소(1998)에서는 ‘고대 한국어(5세기 초∼13세기 말), 중세 한국어(14세기 초∼17세기 말), 근대 한국어(18세기 초∼)’로 분류하고, 김무림(2004)에서는 ‘고대 국어(전기: 삼국 및 통일신라(10세기 이전), 후기: 고려의 초기 및 중기(10∼13세기), 중세 국어: 고려 후기 및 조선 초기, 중기(14∼16세기), 근대 국어 : 조선 중기 및 후기(17∼19세기), 현대 국어 : 조선 말기 이후(20세기 이후)’로 나누었다.

북한에서도 국어사 연구가 진행되면서 시대 구분이 이루어졌다. 김영황(1978, 1989)에서는 ‘고대노예소유국가시기(고조선, 부여, 진국), 봉건국가분립시기(3국), 통일봉건국가시기(고려∼16세기), 봉건사회붕괴시기(17세기∼19세기 중반), 부르주아민족운동시기(19세기 후반∼)’로 나누었다. 우선 각 시기의 명칭에서부터 사회 체제적인 성격이 드러나듯이,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 사회·정치적인 성격이 무척 짙게 개입되어 있다. 류렬(1990∼2005)은 ‘고대(기원전 1000년 경∼기원전 3세기), 중세전기(기원전 3세기∼10세기 초), 중세중기(10세기 초∼16세기: 전기(10세기 초∼14세기), 후기(15세기∼16세기)), 중세후기(17세기 초∼1866년), 근대(1866년∼1925년), 현대(1926년∼: 전기(1926년∼1945년), 후기(1945년∼)’로 나누었다. 이들은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 사회·정치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하였다. 중국에서 나온 안병호(1983)은 이기문(1961)과 같다.

국어 문법사에서의 시대 구분도 국어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홍종선(2005)에서는 삼국의 언어와 통일 신라 시대의 언어를 나눌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언어 자료가 너무 영성하여 신라 말까지를 ‘고대 국어’로 잡는다고 하였다. 이어 언어의 중심권이 동남부에서 중부로 옮겨져 문법 현상에서도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고려 초부터를 ‘중고 국어’라 하여 고대

1)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술할 때에 왕조사든 사회사든 모두 정치사나 경제사적인 요소는 중시하지만 문화사적인 내용은 거의 배제되어 있는 듯하다. 국어사 역시 한국사를 기술할 때에 어떠한 정보 요인으로 특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어사가 정치나 사회 등의 변화를 직접적인 요인으로 삼기보다 국어 그 자체의 변화를 서술해야하는 전문 영역임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국어와 구별하였다.²⁾ 그러나 현재 전하는 향가나 이두문 그리고 석독 구결의 표기나 표현에서 고대 국어와 중고 국어를 분별하기 어려워, 이 두 시기를 잠정적으로 ‘고대 국어’로 설정할 수도 있다. 13세기 후반 음독 구결이 나타나는 시기부터를 ‘중세 국어’로 잡았는데, 비록 문자 표기의 차이이지만 음독 구결에는 석독 구결과 문법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석독 구결에는 보수적인 표기 방식으로 이전에 이미 변화되었지만 반영하지 못한 내용들이 적지 않았겠지만, 오늘날 접할 수 있는 언어 자료에 근거하여 변화형이 드러난 음독 구결에서부터 새로운 시기를 설정하게 된다.³⁾ 중세 국어는 훈민정음 반포를 경계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근대 국어가 임진란 이후부터인 것은 국어사 전체에서 공통되며 문법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대 국어를 막연히 20세기 이후부터라고 하는 견해가 많지만, 이미 갑오경장 때에 ‘국어’ 의식을 가지고 국어의 표기와 표현에 관해 새로운 시도가 많았고 또한 그에 따른 성과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를 ‘현대 국어’로 한다. 다만 현대 국어 안에서도 개화기와 일제 시기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말에는 차이가 많으므로 그 하위를 각각 나누어야 좋을 것이다.

3. 국어 문법사 연구의 성과

국어 문법사 연구는 주제에 따라서 연구의 양과 깊이를 달리하며, 시기에 따라 주로 관심을 갖는 주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일찍이 1920년대 일본인에 의해 향가 등 고전 시가를 해석하기 위해 고대 국어나 중세 국어의 문법을 언급하면서 국어 문법사 연구는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 때에는 당시 우리말의 기본적인 문법 체계를 찾기 위한 노력이 위주가 되어 국어사 연구는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지만, 서구와 일본에서 들어온 역사 문법의 영향을 받아 1940년대 들어서는 국어사 연구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는 1930년대에 이르러 현대 국어 문법 연구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었고, 그러한 진척된 성과를 바탕으로 국어 연구가 국어사 영역에도 확대되는 성격이기도 하다.

1950년대에는 좀더 본격적인 국어 문법사 연구가 나타난다. 높임법, 시제와 서법 그리고 조어법, 선어말 어미, 격조사 등에 대해서도 고찰이 이어졌다. 1950년대 후반에는 구조주의의 영향으로 중세 국어를 대상으로 형태소를 분석하고 문법소의 기능을 고찰하는 연구도 있었다. 1960년대에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어사나 중세 국어 문법론 저술도 나타나고, 겸양법 ‘-습-’과 선어말 어미 ‘-오/우-’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연구의 깊이를 더하였다.

1970년대에 현대 국어의 연구에서는 생성 문법의 영향을 받아 통사론을 중심으로 구결의 생성 절차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국어 문법사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거의 없이 전통적인

2) 고대 국어와 구별되는 중고 국어의 문법적 특징으로 몇 가지를 들어 본다. 고대 국어에서는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있었지만 중고 국어에 와서 ‘-습-’으로 나타나는 객체 높임이 더하며, 상대 높임의 화제도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선어말 어미들 가운데 어말 어미로 재구조화하는 현상들도 나타난다. 가령 확인법의 서법 어미 ‘-거-’가 ‘-거든, -거늘, -거나’ 등으로 쓰인다. 부정법(否定法)이나 사동 표현에서 장형이 나타나 세력을 갖기 시작한다. 이 밖에도 각종 조사와 활용 어미의 종류가 늘어나고 접사 목록이 증가한다.

3) 이는 매우 편의적인 시대 구분이기도 하다. 음독 구결에 나타난 문법 현상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이전 시기에 이루어져 현실 언어에서는 사용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표기에 나타나지 않은 문법 내용을 이전 시기의 언어 모습이 투사적으로 표기된 석독 구결이나 이두 및 향찰에서 오늘날 파악하는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아, 표기에 나타난 새로운 문법 현상을 근거하여 음독 구결부터 새로운 시기를 잡는 것이다. 이 역시 잠정적인 성격을 갖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역사 언어학과 구조주의적 연구 방법에 따라 형태론적인 연구가 심화하면서 계속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비해 문법론의 여러 주제들이 다양하게 연구 내용으로 확대되었다. 15세기의 문법에만 머무르던 연구가 16세기나 근대 국어로도 조금씩이나마 넓혀진 것 역시 커다란 진전이라 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는 일부 세밀한 주제들을 좀더 깊이 있게 고찰한 성과도 있었지만 차차 표기 문헌을 대상으로 한 고대 국어 연구가 활성화한 시기이다. 1970년대 후반에 발견된 석독 구결은 이후 고대 국어의 문법 연구를 촉진하여, 이제까지 영성하였던 고대 국어 문법에 조금이나마 체계성을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구결 연구의 성과를 근거로 향가는 물론 이두의 연구도 좀더 정밀해질 수 있었고, 이들이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며 훈민정음 이전의 문법을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이제 문법사 연구는 중세 국어와 고대 국어가 함께 나아가며 여기에 근대 국어나 개화기 국어에 대한 연구가 일부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 동안의 국어사 연구에 크게 기여한 요인으로 국어사 자료 코퍼스의 구축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국어사 연구는 연구 대상 자료의 성격상 접근이 극히 제한적이고 1990년대까지 성행하였던 영인본 출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출판사나 연구소에서 출간한 영인본은 국어사 연구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연구자가 늘어나고 연구 환경이 바뀌면서 전산화 자료의 효용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국어사 자료의 전산화가 진행되어 왔다. 초기에는 주로 텍스트 파일로 입력한 자료들을 공유하였는데, 여기에는 연구자 개인이나 연구소 그리고 세종 계획에서의 기여가 매우 높았다. 근래에는 이미지 파일이 대량으로 구축되어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제 국어 문법사의 연구 성과를 내용별로 간략히 살피기로 한다. 먼저 국어사를 전면적으로 고찰하면서 이 가운데 문법사도 언급한 저술들을 보고,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나누어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개화기 국어에 관한 연구를 순차적으로 개관한다. 시대 구분은 앞에서 언급한 홍종선(2005)에 따른다.

고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에 이르기까지(또는 최소한 근대 국어까지)의 국어 문법사만을 다룬 저술은 아직 없다. 국어사 전체를 다루는 가운데 문법사 내용이 있으므로 그러한 저술을 들면 이기문(1961, 2006), 김형규(1962), 최범훈(1985), 박병채(1989), 국립국어연구원(1996-1999), 이철수(1989), 김무림(2004)와 북에서 나온 김영항(1978, 1989), 류렬(1990-2005), 중국에서 나온 안병호(1983) 정도이다. 이전의 특정한 시기를 대상으로 문법론 전체를 체계화한 저술에는 중세 국어에 고영근(1987, 1996), 허웅(1975), 안병희·이광호(1990) 등이 있고, 근대 국어에 이광호(2004), 개화기에 김형철(1997)이 있다. 이들에서 문법론은 대개 형태론적 고찰이 위주가 되어 있는데, 권재일(1998)은 중세 국어 이후의 통사 체계의 변천을 주제별로 다루었다.

국어사 연구를 하기 위해선 언어 자료들을 찾고 그들을 필요한 주제에 따라 또는 종합적으로 고찰하게 된다. 그 동안 이러한 국어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핀 연구도 다수 있었다. 향가는 양주동(1943), 김완진(1980)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가 잇따랐고, 「계림유사」에 강신항(1984) 등이 있다. 「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가」의 연구 및 해석에는 매우 여러 저술들이 있다. 이 밖에 「동국정운」, 「훈몽자해」, 「두시언해」 등 중세 국어의 문헌들을 고찰한 연구서들이 있으며, 근대 국어 시기 문헌의 연구로는 홍윤표(1994) 등이 있다.

3.1. 형태론 연구

고대 국어의 문법 연구는 차자 자료에 의하게 된다. 일찍이 이두와 향찰의 우리말 차자를 통하여 고대 국어의 문법을 단편적으로 살핀 연구가 192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 이 분야의 연구는 부진하다가 1970년대 「구역인왕경」을 시작으로 석독 구결이 발견되면서 고대 국어의 문법에서도 체계성을 세우는 등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대 국어의 격조사와 보조사의 목록이나 기능은 이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지명, 인명 등에서 또는 향가의 연구에서 초기부터 밝혀졌지만, 동사의 활용 어미들은 석독 구결의 연구에서 많은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문법사 연구도 주로 형태론적인 접근이어서 이 분야에 깊고 많은 연구 결과를 내고 있다.

고대 국어에서 단어 형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지만 파생어의 접사에 대한 관심은 종종 나타났다. 때로는 터키어 등 알타어 제어와의 관련성도 고찰하였다. 중세 국어나 근대 국어의 파생과 합성에 관해서는 세밀한 고찰들이 있고, 특히 ‘-음’과 ‘-기’를 중심하는 명사 파생, 용언 파생의 ‘-ㅎ-’, 그리고 형용사 파생의 ‘-압/업-, -갓/겅-, -답-’ 등의 파생법 연구가 많이 논의되었다. 명사의 합성에 나타나는 사이시옷 문제나 동사의 비통사적 합성 등의 통시적인 연구도 조명이 많았던 주제이다.

ㄱ곡용어와 ㅎ중성 체언의 ‘ㄱ, ㅎ’를 체언의 말음으로 또는 곡용 때 개입하는 자음, 음운론적 이형태로 보는 연구도 있었다. 몇몇 개의 ㄱ곡용어와 100여 개의 ㅎ중성 체언 어휘의 목록은 거의 모두 정리되어 있다. 고대 국어에서 쓰이던 의존 명사 ‘다’를 비롯하여 중세 국어의 의존 명사 ‘드’와 ‘스’를 ‘원시추상명사’라 이름하고 그 용법을 살피고, ‘것’ 등 의존 명사들의 목록 체계와 기능을 고찰하면서 실사의 허사화 견해가 나왔다. 복수 표지 ‘-들ㅎ’과 ‘-내’의 차이도 조사되었다.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음소적 교체를 보이는 명사류는 쌍형 어간이나 특수 어간 교체 등으로 설명되었다. 더불어 동사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어간의 변이와 불규칙 활용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기저형을 찾거나 성조의 교체를 고찰하기도 했다. 격 표지의 실현 문제는 조사의 생략과 관련하여 국어학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고대 국어나 중세 국어에서도 격형의 생략이 많아 이에 관심을 보였다.

격조사는 문법사 연구에서 가장 많은 조명을 받은 대상이었다. 향가나 구결에서 고대 국어의 격조사의 형태를 찾았고, 중세 국어 이후 격조사의 형태 변화에도 관심을 가졌다. 주격 조사 ‘가’의 기원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왔고, ‘이/ㅣ/ϕ’의 분포도 조사되었다. 처격과 속격의 동일한 기원과 형태를 찾으며, ‘이/의’와 ‘叱(入)’의 차이를 밝히고, 이른바 ‘특이 처격’에도 관심을 보였다. ‘논, 도, 만’을 비롯하여 각각의 의미 기능을 보이는 보조사들이 조사되고, ‘으란, 이썬’이나 ‘틀조차, 로더브러’ 등 복합적인 보조사들 용법의 통시적 변화 양상에도 관심을 보였다. 알타어 제어와의 관련성 속에서 후치사 논의도 있었다.

선어말 어미는 주요 고찰 대상이 되었다. 고대 국어에서 ‘-거-’의 쓰임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 그 기능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중세 국어에서도 ‘-거/어-’의 의미를 ‘과거, 완료’나 ‘가상’으로 설정하는 견해를 보였고, 이들이 타동사 여부에 따라 ‘-어-’와 ‘-거-’로 분포되며 확인법을 나타냄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해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제 높임의 ‘-샤-’를 ‘-시--’의 이형태로 보거나 ‘-시-’에 ‘-오-’가 결합한 형태로 보는 논의가 있었지만, ‘-

오/우-'의 이형태로 '-아-'를 설정하여 '-시--아-'로 보기도 하였다. 선어말 어미 '-오/우-'에는 많은 관심이 있어 왔다. 초기에는 아어형(雅語形)이나 심리 주관적 행동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1인칭 활용 어미 또는 대상 활용 어미로 해석하는 인칭법과 주어의 의도를 나타낸다는 의도법 견해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연구의 깊이를 더하였다. 한편 관형사형에서 쓰이는 '-오/우-'는 이들과 분리하여 논의하였는데, 고대 국어부터 나타나 근대 국어에서 사라지는 '-오/우-'의 의미 기능도 아직 확실하게 파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어 잇-'과 '-게 하엿-'이 '-엇-'과 '-겻-'으로 축약하면서 의미 기능이 동작상에서 시제나 서법으로 변화하는 과정도 많은 고찰이 있었다.

고대 국어에서는 연결 어미를 충분히 찾지 못하다가 중세 국어에서는 목록 체계를 제대로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어미의 의미 기능은 앞으로 좀더 면밀하게 고찰해야 한다. 중세 국어 이전에는 '-아'가 매우 넓게 쓰이다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로 오면서 '-고'로 교체되는 과정과, '-니' 역시 중·근대 국어에서는 거의 서술형 어말 어미의 기능까지 하는 등 현대 국어에서보다 폭넓게 쓰이던 양상을 고찰하였다. '-ㄴ댄, -과디여, -오디, -거든' 등과 같은 결합형 어말 어미들에 대해서도 고찰이 많았다.

종결 어미는 고대 국어 이래 비교적 변화가 적지만 어미 목록이 고대 국어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종결 어미를 시대별로 또는 세기별로 체계적으로 연구한 성과들도 있었다. 설명형 '-라, -다, -이라, -이다'의 형성과 출현 조건 및 기능 등을 비교하고, 의문형 어미들과 첨사들을 체계화하였다. 전성 어미는 주로 명사형 '-옵/옵'과 '-기'에 관심을 보였는데, '-옵'에서 '-오/우-'의 동반과 '-기'의 출현 시기의 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을, -은'은 고대 국어에서 이미 관형사형 기능으로 전환을 시작하였고 이들 형태와 어말 어미와의 결합형들이 다수 사용되어 내려오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3.2. 통사론 연구

격 실현은 문장의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통시적으로 일부 동사들의 격 지배 양상이 변화함에 유의하여 기저형과 표면형과의 관계를 고찰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NP1이 NP2이 곧ㅎ-'와 'NP1이 NP2와 곧ㅎ-' 구문의 동의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개별 동사의 격 구조 변화는 동사들의 유형화에도 관련을 갖는다.

중세 국어의 의문법은 직접 의문과 간접 의문, 판정 의문과 내용 의문, 2인칭 의문, 수사 의문 등 의문 유형에 따라 복잡하지만 정연한 체계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졌고 중세 국어 이후의 변천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 밖에도 문장의 각 종결법 형태는 고대 국어부터 현대 국어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충실하게 조사되어 있다.

높임법도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지만 시대에 따라 상대 높임 화계 체계와 그 변천에 약간의 견해 차이들이 있다. 또한 객체 높임의 해석에서 이견들을 보며, '-습-'이 객체 존대 및 주체 겸양 또는 겸양법 등으로 이해되고, 16세기 이후 근대 국어를 지나면서 '-습-'이 갖는 기능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고찰이 이어지고 있다.

차자에서 시제나 서법과 관련하여 '去, 在, 臥, 乎, 內, 如' 등의 용법을 보았는데, 고대 국어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누-'는 중세 국어로 연결되지 않는다. 고대 국어 차

자 자료에서 ‘在’와 ‘去’는 다양한 용법을 보이고 있어 여러 고찰이 있었지만 아직 충분히 그 기능이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시제에는 ‘-느-’를 놓고 부정법 ‘-φ-’를 과거 시제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이는 ‘흐나라’에서 ‘-니-’를 원칙법이라는 서법 형태소로만 해석하려는 것인데, 중세 국어에서 ‘-니-’는 원칙법과 함께 과거 시제의 기능도 나타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하면 ‘-니-, -느-, -리-’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체계가 정연해지는 것이다.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 전기까지 국어의 시제는 서법 범주에 기대어 부가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후에 형성된 ‘-앗-’과 ‘-갯-’의 형성 과정과 기능이 ‘-느->-느-’와 함께 정립되는 과정 그리고 이와 함께 ‘-거/어-, -더-’ 등 서법과의 관계 등이 더 면밀하게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사동과 피동 표현은 통시적으로 변화가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나는 문법 범주이다. 단형 사동과 피동이 앞서고 각기 장형이 발달하였는데, 그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는 연구가 여러 편 있었다. 접미사에 의한 사동사와 피동사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출현 조건과 의미 특성을 고찰하였다.

부정 표현은 고대 국어에서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명사문 부정과 동사문 부정에 ‘안디’와 ‘안들’이 대응하며, 중세 국어에서 본격적으로 장형 부정 표현이 등장한다 이러한 부정문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며, 장형 부정문에서 부정소에 선행하는 용언의 어미 등에도 관심을 가졌다. 장형 부정 표현의 여러 형태들은 대체로 ‘NP+아니’의 구조로 요약되었다.

보조 용언 구문은 고대 국어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중세 국어에 와서 목록이 늘어나면서 현대 국어에서의 형태와 용법이 비슷해진다. ‘-아 잇-’과 ‘-고 잇-’의 용법 변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문법화 과정으로 이해되는 보조 용언들의 변천도 고찰되었다. 유표적인 표지가 없이 이루어지던 인용문이 18세기에 나타난 인용 보문소의 실현 양상도 관심 있게 조사되었다.

근대 국어 이전의 국어에서도 문장의 확대가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이들의 구성이 현대 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다만 중세 국어에서와 다른 고대 국어의 석독 구결문에서 보이는 나열 구문이나 인용성 표현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다.

4. 국어 문법사 연구의 과제

국어 문법사를 비롯하여 국어사 연구가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음을 보았다. 국어사 전체에 대한 저서도 여러 권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시대별로 국어를 체계화한 서술로, 각 시대의 공시적인 체계를 세운 국어학을 시대별로 켜켜이 이어서 쌓아놓은 성격이 짙다. 물론 이러한 국어사 저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국어사의 각 분야별로 통시적인 변화 과정과 내용을 고찰하는 국어사 저술도 필요하고, 문법사 내에서도 각 주제별로 역사적 변천을 꾀는 연구와 저술도 필요하다. 주제별 국어사 연구는 그 주제가 통시적으로 어떠한 인과 관계를 가지며 변천해 왔는가 하는 궤적을 잘 보여주며, 이는 언어 변화의 원리와 당위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하위 영역의 변천사들이 상위 분야에서 통합됨으로써 상위 영역의 변천사 구성을 탄탄하게 짤 수 있어, 중국에는 국어사 체계를 튼실하게 이루는 것이다. 현재 음운사 분야에서는 통시적인 고찰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법사에서는 아직 그러한 성과가 부족하다. 문법사 부문에서도 조사나 어미의 형태를 중심하는 고찰은 계속적으로 진척되어 왔지만 통사적인 접근은 너무나 미미하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역사 문법의 연구 방법론은 그러하

였지만, 앞으로는 문법 형태의 기능도 문장 구조 속에서 해석하는 통사적 시각을 가진 문법사 연구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시대별 연구이든 주제별 연구이든 대상 시기를 좀더 촘촘히 나누어 고찰하는 연구도 요구된다. 후기 중세 국어에서 15세기와 16세기가 나뉘는 연구가 다소 진전되어 있을 정도이며 그 외의 시대에서는 대개 전체가 한꺼번에 다루어지는 등 아직 연구의 시기별 세밀화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고대 국어에서는 언어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세밀화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대 국어는 중세 국어에서보다 더욱 세밀화한 시대 구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해선 시기별로 분화하여 당시의 용례를 총망라한 고어 사전이 간행되어야 한다. 「17세기 국어사전」이 좋은 예이다. 이 사전에서는 단어 단위로만 올림말을 삼았지만 접사와 어미도 올림말로 다루어야 한다. 이처럼 세기별 사전이 적어도 중세와 근대 및 개화기 국어에서 나와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고어 사전이 용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시기별로 달라진 용법을 보여주는 내용을 갖춘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국어사 특히 국어 문법사 연구에서도 언어 현상을 단순히 기술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언어 변화 현상에 대해 그 원인과 원리 등을 설명하고 관련되는 다른 현상들과 비교 논의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의 통시적 연구도 언어학이므로 단순히 자료를 제시하거나 현상을 그려내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설명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자료의 정밀한 조사나 해석 등을 등한히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지금까지의 국어 문법사 연구는 주로 현대 국어와 차이를 갖는 문법 내용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나 문법사 연구는 연구 대상의 시기나 주제에서 그 나름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 문법사 연구에는 고찰 시기보다 이전이나 이후 시기 또는 현대의 국어 문법과 다른 점을 비교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연구 대상 그 자체로서도 체계성을 세우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직까지 국어 문법사 연구에는 지역 방언에서의 체계나 변이 등에 대해선 거의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역의 전승 문헌 자료가 너무 적어 방언사를 구축하기 어렵고 또 이전 시대로 높이 올라가기가 어렵겠지만, 현전하는 방언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여 각 지역에 따르는 문법사 연구를 개발한다면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웃하는 방언들과의 비교를 통해 국어 전체의 문법사를 풍성하게 하고 풀기 어려운 언어 현상에 해결의 실마리를 주기도 한다. 국어사와 마찬가지로 국어 문법사도 각 지역의 방언 문법사들의 총체로 구성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국어사 가운데 가장 선대에 속하는 삼국 시대의 언어 자료의 발굴과 해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기의 언어 자료로 현전하는 것들이 워낙 희귀하여 발굴해 내기도 어렵지만, 최근 다양한 노력으로 금석, 죽간, 형걸, 가죽, 고문서 등이 한두 점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원래 기록의 양도 적고 오랜 세월 속에서 부식 마멸되어 형태를 알기도 어렵지만 아주 작은 편린에서도 소중한 언어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언어 자료들이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도록 그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 구결 자료가 잇달아 발견되면서 고대 국어의 문법을 상당 부분 체계화하는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체계에는 중세 국어의 문법과 체계상 또는 형태상 거리가 멀거나 통시적

인 연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고대 국어의 선어말 어미 가운데 어말 어미로도 쓰이거나, 어말 어미들도 종결과 연결 및 전성 어미에서 통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중세 국어에선 거의 없는 용법이다. 이러한 해석은 아직 고대 국어에 대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이거나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와의 연결 과정을 충분히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가령 ‘-겨-’[ㄱ, 在]는 고대 국어에서 매우 다양한 기능으로 해석되는데, 중세 국어에서는 단절되어 있는 내용이 많다. 면밀한 연구로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를 잘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향가에서 ‘音如’(口다)로만 표기되고 구결문에서는 ‘ㄱ(音吐)/로스’ ‘ㄱ{應}ㅅㅅ/흠스 ㅎ느셔’ 등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15세기의 훈민정음 문헌에 ‘주거 뵈음스다’<성종판 삼강행실도 충신 6b>와 연결된다.

앞으로 음독 구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석독 구결 등 여러 차자 표기 문법과 15세기 훈민정음 표기 문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고대 국어 연구자도 중·근대 국어에 대한 지식을 충실히 쌓고, 중·근대 국어 연구자도 차자 문헌의 국어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한다. 또한 차자 문법 연구자와 중세 이후 문법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등 상호 정보 교환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대 국어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연구가 대폭 활성화해야 한다. 근대 국어는 현대 국어의 바로 앞에 놓이는, 현대 국어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의 바로 앞의 모습을 보이는 시기의 우리말이다. 따라서 현대 국어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언어 현상의 기층을 이루거나 원인 제공의 단초를 간직할 가능성이 높은 언어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어학계에서는 대체로 근대 국어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중간에 놓이는 언어 정도의 인식과 관심을 보여 왔다. 완성도 높은 언어 자료가 갑자기 다량으로 나타나는 중세 국어는 충분히 관심을 끌만 하다. 그리하여 국어사라고 하면 으레 중세 국어를 대상으로 하다가⁴⁾ 최근에 구결을 중심으로 고대 국어로도 일부 관심이 옮겨간 정황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근대 국어는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의문법, 선어말 어미 ‘-오/우-’,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 시제와 동작상 및 서법 등에 대해서 그 변화 추이와 다양한 변이 등을 충실하게 연구하는 성과가 아직 매우 빈약하다. 그러나 근대 국어 시기에 나온 언어 자료 가운데에는 구어적 표현이나 지역 방언 등이 잘 나타나거나 또는 특정한 분야의 언어를 보여주는 문헌 등 다양한 언어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국어의 여러 영역을 잘 보여주는 언어 자료를 가진 근대 국어야말로, 우리말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세 국어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 할 연구 대상이다.

개화기 시대 국어에 대해서도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개화기의 국어에 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 외래 어휘의 수용이나 표기 및 문체에 관심을 보이는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문체 역시 국한문의 표기 문제와 어미 활용형 등 극히 일부의 내용 연구만 반복되고 있다. 당시의 파생과 합성, 격 실현, 시제, 높임법, 피·사동, 문장의 확대 등 연구 주제를 다양하게 개척하고, 문체 변화도 여러 가지 변인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총체적으로 고찰하여 활발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의 국어 역시 별로 연구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의 우리말은 국어사에서 현대 국어에서도 제외되어 있다시피 하다. 비록 국어에서 공용어 단계로 강등되었지만 당

4) 중세 국어에서도 16세기는 소홀하고 주로 15세기를 다루고 있다.

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한 우리말이었으므로 국어 연구에서 소외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개화기와 같이 국어사와 현대 국어의 중간에 어정쩡하게 놓였다는 이유로 두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부터는 많지는 않지만 구어 자료 특히 음성 자료도 한정적으로 남아 오늘날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구어도 연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관심을 가져 왔던 문어의 연구를 넘어 이제 구어에도 대폭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현대 국어의 구어가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해 왔는가를 깊이 있고 다양하게 연구해야 한다. 이 때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일제 강점기의 언어이다.

광복 직후 또는 1950-1960년대의 국어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1970년대 이후에는 국어학 연구가 매우 활발하여 당시의 국어를 분석 고찰하는 연구가 여러 부면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 즉 광복 직후의 국어는 연구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거의 없다. 국어사에서 ‘현대 국어’는 1900년을 전후하는 시기부터로 잡고 있지만, 현대 국어학에서의 연구는 거의가 ‘현재의 국어’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일제 강점기나 광복 직후의 우리말은 어떠한 국어학자들에게도 관심 밖의 대상이었다. 오늘 현재에 바로 앞서는 5·60년 동안의 우리말을 이렇게 방기한 것은 올바른 현대 국어 연구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1950-60년대가 20여 년이므로 그냥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에 가깝다. 오늘 바로 직전의 20-30년은 몇 세기 전에선 백 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대 국어학 연구자라면 적어도 현대 국어 내에서의 역사에도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충실히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시기의 국어를 연구한 성과가 많이 축적되어야 한다.

문법사 연구에서 나타나는 편중 현상은 시기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나 내용에서도 보인다. 대개 현대 국어와 차이가 많은 문법 현상들이 일차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기 쉽다. 높임법, 선어말어미 ‘-오/우-’, 시제와 동작상 및 서법, 부정 표현, 의문문 정도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⁵⁾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주제의 폭을 조금씩 넓히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서 각 시대별로 문법론이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국어사 연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국어 자료이다. 오늘날의 언어 직관이 적용되지 않는 이전 시기의 국어를 연구하기 위해선 해당 시기에 나온 국어 관련 자료 특히 국어 직접 자료가 필수적이다. 현재 적지 않은 국어사 자료가 발굴되어 있지만 현전 자료가 영성한 시기도 많다. 특히 훈민정음 이전의 차자 자료는 현전 수량이 많이 없다. 최근에 석독 구결이 해독되면서 고대 국어 문법 연구에 엄청나게 기여한 것을 보면 자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앞으로 구결과 이두 등 고대 국어 자료의 더 많은 발굴을 기대한다. 중세 국어나 근대 국어 그리고 개화기나 일제 강점기의 국어사 자료도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음성 녹음이 가능했던 20세기 이후의 음성 자료를 발굴하는 작업이 전면적으로 필요하다.⁶⁾

발굴한 국어사 자료는 유용하게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 이른바 전자 말뭉치로 전산화하여 배포하는 것인데, 텍스트 파일일 경우 정확하게 전사되어야 한다. 요즘엔 이미지 파일이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많은 자료가 이처럼 전산화 과정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연구 여건을 좋게 하고 있지만 아직 텍스트 파일은 오류가 너무 많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5) 이들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는 것이 이들의 문법 현상이 충분히 밝혀졌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6) 비록 국어사 측면은 아니었지만 정창관(2009)에 의해 발굴된 1900년을 전후하는 우리말 음원의 발굴은 매우 커다란 값을 갖는다. 그는 1896년, 1917년 등에 실린더로 녹취한 음원을 어렵게 찾아내어 시디 음반으로 복원 배포하였다. 20세기 초·전반의 음원은 앞으로 더욱 많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력 자료들은 오류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용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⁷⁾ 새로운 자료도 계속 입력을 해야 한다. 텍스트 파일과 이미지 파일 코퍼스는 각기 장점과 유용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둘 다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비용과 인력을 매우 많이 요구하므로 국어연구원을 비롯하여 연구 정책 기관에서 계획적으로 활발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음성 자료의 전산화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다. 음성 자료의 전산 처리를 위한 방법론이나 체계 등에 관하여 개인을 넘어서 다수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첩되는 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5. 마무리

현대 국어의 연구에서 문법론이 연구의 중심을 이루며 양적으로도 대다수인데 비하여 국어사 연구에서는 문법사 연구의 비중은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1940년대 이후 국어 문법사 연구는 국어학계 한편에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어져 왔고, 그 연구 성과 역시 내실을 거두었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는 고대 국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어사 안에서도 문법사의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어사 연구가 그렇듯이 국어 문법사에서도 중세 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고, 연구 주제에도 편중이 있다. 근대 국어나 개화기 이후의 국어에도 전면적인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다.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문법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연구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근래에 문법사 현상들을 치밀하게 분석 고찰하여 설명력을 높인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어 연구 발전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강복수(1972), **ㅌ국어문법사연구법** 형설출판사.
 강신항(1984), **ㅌ예림유사 [고려방언] 연구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고영근(1987)(1996), **ㅌ표준중세국어문법론법** 탑출판사/집문당.
 고영금(1983), **ㅌ국어문법의 연구법** 탑출판사.
 국립국어연구원(1996-1999), **ㅌ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법1-4**. 국립국어연구원.
 권재일(1998), **ㅌ한국어 문법사법** 박이정.
 권재일(2016), 북한의 국어문법사 연구에 대하여, **ㅌ한글법311**. 한글학회.
 김동소(1998), **ㅌ한국어 변천사법** 형설출판사.
 김무림(2004), **ㅌ국어의 역사법** 한국문화사.
 김영황(1978)(1989), **ㅌ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법**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완진(1981), **ㅌ향가해독연구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7) 예를 들어 언해 자료들도 언해문 외에 한문 원문을 함께 입력하여 사용자들이 바로 대조하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형규(1962), **ㅊ**국어사연구법 일조각.

김형철(1997), **ㅊ**회화기 국어연구법 경남대학교 출판부.

남광우(1960)(1984), **ㅊ**어사전법 일조각.

류 렬(1990~2005), **ㅊ**조선말력사법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박병채(1989), **ㅊ**국어발달사법 세영사.

배대온(2003), **ㅊ**역대 이두사전법 형설출판사.

송향근(1996), 남한과 북한의 국어사연구에 대한 고찰, **ㅊ**한국어학법4. 249-278쪽. 한국어학회.

안병호(1983), **ㅊ**조선어발달사법 료녕인민출판사.

안병희(1964), 문법사: 한국어발달사(중). **ㅊ**한국문화사대계법.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안병희 · 이광호(1990), **ㅊ**중세국어문법론법 학연사.

양주동(1943)(1987), **ㅊ**가 연구법 박문출판사/일조각.

유창돈(1964), **ㅊ**이조어사전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광호(2004), **ㅊ**근대국어문법론법 태학사.

이기문(1961)(1972), **ㅊ**국어사개설법 민중서관/태학사.

이승녕(1981), **ㅊ**중세국어문법법 을유문화사.

이승욱(1973), **ㅊ**국어문법체계의 사적연구법 일조각.

이승욱(1977), **ㅊ**국어형태사 연구법 태학사.

이철수(1984)(2001), **ㅊ**한국어사법 삼일당/인하대출판부.

이현희(1989), 국어 문법사 연구 30년(1959-1989), **ㅊ**국어학법19. 291-351쪽. 국어학회.

임용기 외(2006), **ㅊ**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법 태학사.

장지영 · 장세경(1976), **ㅊ**이두사전법 정음사.

정창관(2009), 한민족최초의 녹음-우리가 찾아와야할 6개의 에디슨 원통형 실린더 음반-, **ㅊ**한국음반학법19. 165-170쪽. 한국고음반학회.

최범훈(1981), **ㅊ**중세한국어문법론법 이우출판사.

최범훈(1985), **ㅊ**한국어발달사법 통문관.

허 응(1975), **ㅊ**우리옛말본법 샘문화사.

허 응(1989), **ㅊ**6세기 우리 옛말본법 샘문화사.

홍운표(1994), **ㅊ**근대국어연구법 태학사.

홍운표(1995), 국어사 시대구분의 문제점과 문법사적 측면에서 본 시대구분, **ㅊ**국어학법 25. 319-333쪽. 국어학회.

홍운표 외(1995) **ㅊ**7세기 국어사전법상(하), 태학사

홍종선(1992), 문법사 연구, **ㅊ**국어학연구백년사법II(고영근 외 편). 515-528쪽. 일조각.

홍종선(2005), 국어 문법사의 시대 구분, **ㅊ**한국어학법29. 285-308쪽, 한국어학회.

황선엽 외(2009), **ㅊ**석독구결사전법 박문사.

하야육랑(河野六郎)(1955), **ㅊ**세계言語概說(下)법 東京: 研究社.

제3부 <제3 분과 주제발표>

국어 음운사의 연구 성과와 과제

이동석(교원대)

< 차례 >

1. 서론
2. 국어 음운사의 쟁점
 - 2.1. 평음·격음·경음의 대립
 - 2.2. 유무성 대립
 - 2.3. 치음
 - 2.4. 자음군
 - 2.5. 종성의 불파와 외파
3. 결론

1. 서론

우리말의 역사를 아는 것은 현대국어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서도 학문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우리말의 역사와 관련하여 때로는 공시적인 관점에서, 때로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본고는 이 중 음운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그동안 음운사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고는 음운 중에서도 자음에 한정하여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국어의 역사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시대 구분이다. 시대 구분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국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문법의 한 분야만을 보느냐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도 있다. 본고는 우리말을 음운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시대 구분 또한 음운의 차원에서 다루게 된다.

학자에 따라 음운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만, 대개 훈민정음 창제를 전후로 음운론적인 특성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자료는 차자 표기 자료로서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 차자 표기의 특징이 적어도 음운론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국어를 고대국어로 보고 15세기와 16세기의 조선 전기의 국어를 중세국어, 17세기부터의 국어를 근대국어로 구분하고자 한다.

2. 국어 음운사의 쟁점

김무림(2004:51)는 자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쟁점으로 다루었다.

- (1) 경음 계열의 성립 여부
- 격음 계열의 성립 여부
- 순경음 ‘ㄹ[β]’ 및 반치음 ‘ㄷ[z]’의 성립 여부
- 유음 ‘ㄹ’의 음가
- 마찰음 ‘ㅎ[h]’과 파찰음 ‘ㅈ[ts]’의 음소 여부

본고는 위의 사항에다가 종성의 음가 문제까지 포함하여 ‘평음·격음·경음의 대립, 유무성 대립, 치음, 자음군, 종성의 불파와 외파’라는 다섯 가지 쟁점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1. 평음·격음·경음의 대립

우리말 파열음의 특징은 평음, 격음, 경음이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언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말의 특성으로서 이러한 삼지적 상관속이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는 국어 음운사의 여러 쟁점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음운사 연구에서는 우리말에서 격음과 경음이 음소로서 변별성을 가지게 된 시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다. 훈민정음 체계에 평음, 격음, 경음을 위한 문자가 별도로 존재하고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문헌에서 이들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표기된 점을 보면,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 세 음이 체계적으로 대립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대국어 시기에는 이러한 삼지적 상관속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박병채(1971)은 대립 관계 없이 무성무기음의 단일 체계였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기문(1961:52), 성백인(1978)은 유기음 계열과 무기음 계열만이 대립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경음과 격음의 발생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2.1.1. 경음의 발달

고대국어의 음운 체계에 경음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인다. 그 근거 중의 하나가 우리말의 한자음 초성에 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박병채, 1971, 김무림, 1998:11, 김무림, 2004:51)¹⁾. 한자를 수용할 당시 우리말에 경음이 존재했다면, 다시 말해 고대국어의 음운 체계에 경음이 존재했다면 한자음 초성에 경음이 존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한자음 초성에 경음이 없다는 사실이 고대국어 음운 체계에 경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추정의 결정적인 단서인지는 확실치 않다. 중국의 상고음이나 중고음에 우리말의 경음에 해당하는 성모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 한자음의 초성에 경음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²⁾. 즉, 고대국어에 경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중국의 한자음에

1) 김무림(1998:11, 2004:51)은 ‘氏, 雙, 喫’의 조선 한자음은 각각 ‘시, 쌍/상, 킅’으로, 이들의 발음이 지금처럼 ‘씨, 쌍, 킅’이 된 것은 근대국어 이후의 일이라고 하였다.

경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한국 한자음에 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므로 한자음만을 가지고 경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경음의 발생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어중에서 자음끼리 결합하면서 경음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경음이 어중에서 먼저 발생하여 어두로 확산되면서 음소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기문(1961:52)은 어중에서 전후음의 관계로 경음이 발음되었을 것으로 보았으며, 김무림(1998:11)은 ‘국비[국뻬], 짓고[진꼬]’와 같은 결합적 음운 과정을 통해 경음이 음소화된 것으로 보고, 장애음의 불파음화를 경음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특히 마찰음의 불파음화가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변별적 음운 기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음의 음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박병채(1971)은 후두파열음이 무성무기음의 후두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고대국어의 자음으로 후두파열음 [ʔ]가 존재한다고 보았다³⁾.

반면 Ramstedt(1939:6)와 김형규(1962a)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짧은 모음이 탈락하면서 자음군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경음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았다. Ramstedt(1939:6)는 중세국어의 ‘뽏[女息], 씨[種子], 띠다[剝]’ 등이 각각 알타이 제어의 ‘patala, fisihe, faharambi’ 등과 대응 관계를 이루는 점을 근거로 삼았으며, 김형규(1962a)는 다음과 같이 차자표기를 통해 중세국어의 ‘뽏’이 고대국어 시기에 ‘*스블/수블’로 재구되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2) 或云角干 或云角榮 或云舒發翰 或云舒弗邯 <三國史記 38 職官上>
宜位酒多 在伊滄之上 酒多 後云角干 <三國史記 1 祇摩尼師今>

그런데 경음의 발달을 모음 탈락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중간 단계인 자음군을 음운론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뒤를 따른다. 물론 전자의 입장에서도 불파음화의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음운론적으로 자음군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뒤를 따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본 장에서는 전자와 후자의 내용 자체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ㄱ. 桑葉叱分喫破爲遣 <養蠶經驗撮要 1:5>
右事叱段 君臣名分亦 如天地設恒教事是良尔 <尙書都官敗文>
ㄱ'. 崔埶矣段 賤母所生是在亦中 <尙書都官敗文>
ㄴ. 白米曰 漢菩薩 <鷄林類事>
女兒曰 寶姐 亦曰 召育曹兒 <鷄林類事>

(3ㄱ)의 ‘叱分’과 ‘叱段’은 각각 중세국어의 ‘썸’과 ‘썸’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叱’은 원

2) 현대 중국어의 무기음이 성조 등에 따라 우리에게 경음 또는 평음으로 들리듯이 중국 상고음이나 중고음의 불송기음(不送氣音, 무기음) 중 일부가 고대인들의 귀에 경음으로 들렸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한자음에 경음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고대국어의 음운 체계에 경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3) 박병채(1971)은 고대국어의 원형에서 후두파열음 [ʔ]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중세국어의 자음 체계에도 후두파열음이 음소로 존재했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첫째, ‘ㅎ’이 훈민정음 17자에 포함된 점, 둘째, 고대국어에서 중세국어에 이르는 통시적인 음운 변화를 설명하고 음운론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데 후두파열음 [ʔ]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ㅎ’은 당시의 표기상 우리말 음소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래 관형격 조사에 해당한다. ‘叱段’의 경우에는 ‘矣段’과 교체 관계에 있으며, 이때 ‘叱’과 ‘矣’는 각각 관형격 조사 ‘스’와 ‘이/의’에 대응된다.

중세국어 사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경음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렇다면 이미 중세국어 이전에 마찰음의 불파음화에 따른 경음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불파음화에 의해 경음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3L)의 ‘菩薩’과 ‘寶姐’은 각각 중세국어의 ‘ㅍ’과 ‘ㅍ’에 대응되는 단어로서, 중세국어 사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해서는 자음군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이들이 현대국어에서는 [s'al], [t'al]과 같이 경음으로 실현되므로, 결과적으로 모음 탈락에 의해 경음이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음은 불파음화와 모음 탈락에 의해 모두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1.2. 유기음의 발달

고대국어에 유기음이 음소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둘로 나뉜다. 이기문(1961:51) 등은 고대국어에 유기음이 음소로 존재했다고 보는 반면 박병채(1971) 등은 고대국어에 유기음이 음소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

- (4) 居柒夫 或云荒宗 <三國史記 44 列傳 4>
東萊郡 本居柒山郡 <三國史記 34 地理 1>
厭齠 或作異次 或云異處 方音之別也 譯云厭也 <三國遺事 3 原宗興法>
佛體 <普賢十願歌>

이기문(1961:51)은 고대국어에서 유기음의 존재를 확신케 하는 예가 적다고 지적하면서도 [荒], [萊]를 의미하는 ‘居柒’에서 ‘柒’의 성모가 유기음이라는 점, ‘異次’, ‘異處’가 중세국어의 ‘읏-[困, 倦]’에 대응되는 점, ‘보현십원가’에 ‘佛體’가 여러 번 사용된 점을 들어 고대국어에 유기음이 존재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박병채(1971)은 위의 예에서 사용된 ‘柒, 次, 處, 體’의 성모가 유기음인 것은 맞지만 유독 중고한음의 치음에서만 차청음이 유기음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을 뿐, 아음에서는 차청음이 유기음으로 대응되는 예가 전혀 없으며 설음에서는 오히려 차청음이 평음으로 대응되는 예가 많고 순음은 중간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대국어의 음운 체계에서 유기음을 음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박병채(1971)은 이러한 계열별 차이가 오히려 통시적인 유기음화의 진행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4)에 대한 반례로 다음과 같은 예들을 제시하였다.

- (5) 淸州縣 本薩買縣 <三國史記 34 地理 1>
漆隄縣 本漆吐縣 <三國史記 34 地理 1>
高丘縣 本仇火縣 或云高近 <三國史記 34 地理 1>
大城郡 本仇刀城 <三國史記 34 地理 1>

박병채(1971)은 위의 예에서 각각 ‘차-/찰-[寒]’과 ‘크-[高], [大]’에 대응되는 ‘薩’과 ‘仇’의 성모가 유기음이 아닌 무기음이라는 점, ‘질-[泥]’에 대응되는 ‘漆’의 성모가 무기음이 아니라 유기

음이라는 점, ‘터ᄃ[基]’에 대응되는 한자 중 ‘刀’는 무기음이고 ‘吐’는 유기음이라는 점 등을 들어 처음 계열에서도 중고한음의 차청음이 무기음과 유기음으로 혼란을 보인다고 보았다.

그런데 (5)의 예에서 ‘薩’과 ‘刀’의 혼독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크-’에 대응될 것으로 생각되는 ‘크’나 ‘쿠’가 한자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예들이 고대국어에 유기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병채(1971)은 고대국어 음소로 /h/를 인정하고 파열음과 /h/가 결합하여 유기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유명사 표기의 한계로 인해 유기음을 고대국어의 음소로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고대국어의 음운 체계에서 유기음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할 정도의 적극적인 증거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중세국어의 음운 체계에 유기음이 존재하는 만큼 고대국어의 어느 단계에 유기음이 음소로 존재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자료의 시기적인 공백이 큰 탓에 정치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유기음이 일반적으로 파열음과 /h/의 결합에 의해 발생했다고 본다면 유기음의 발생 시기 역시 평파열음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경음의 발생이 그러하듯 유기음의 발생도 평파열음화 현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2.2. 유무성 대립

현대국어의 자음은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나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우리말에도 유성음이 음소로서 존재했다는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되었으며, 한국어가 알타이어에 속한다고 전제했을 때 일반적으로 유무성 대립이 존재하는 알타이어의 특성이 한국어에 실현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이상역, 1987).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이상역(1987)은 무성 자음은 후속 모음의 음조를 높이고 유성 자음은 후속 모음의 음조를 낮춘다는 Hyman(1978)의 논의를 토대로 원시국어에 유무성 대립이 있었는지를 계통론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판별하고자 하였다. 만주어의 어두 유성 자음과 중세국어의 어두 (무성) 자음이 대응 관계를 보이는 어휘들을 선정하여 이들 어휘의 첫음절 성조를 조사한 것인데, 만약 이들 어휘의 쌍이 동계어라면 해당 중세국어 어휘의 어두 자음은 만주어 어휘와 마찬가지로 이전 시기에 유성 자음이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자음이 포함된 어두 음절은 Hyman(1978)의 논의에 따라 평성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30개의 어휘를 선정하여 첫음절의 성조를 조사한 결과 예상과 같이 첫음절이 평성인 어휘는 23개였고 나머지 7개의 어휘는 첫음절이 거성 또는 상성이었다.

이상역(1987)은 만주어의 어두 무성 자음과 중세국어의 어두 (무성) 자음이 대응 관계를 보이는 어휘의 첫음절 성조도 조사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이들이 동계어라면 해당 중세국어 어휘의 어두 자음은 이전 시기에 무성 자음이었을 것이므로 이들이 포함된 첫음절의 성조가 거성일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첫음절의 성조가 거성인 예는 13개뿐이고, 평성인 예가 29개, 상성인 예가 8개로서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 이에 이상역(1987)은 원시국어에 유무성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법론은 알타이 동계설, 성조발생설 등 여러 가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대국어 및 원시국어에 대한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고적인 방법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처럼 고대국어 및 그 이전 시기의 국어에 유무성 대립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데, 이 때문에 박병채(1971)은 우리말이 알타이어에 속한다면 성(聲)의 유무에 의한 대립 관계가 적어도 원시국어에서 이미 소멸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박창원(1996a)는 15세기 이전의 국어를 대상으로 이와는 대조적인 주장을 펼친다. 박창원(1996a)는 다음과 같이 불규칙 활용 용언 어간 뒤에는 사동 접미사로 ‘-이-’가 결합하고 규칙 활용 어간 뒤에는 ‘-히-’나 ‘-기-’가 결합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유무성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보아 중세국어 이전에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이 있었다고 보았다.

(6) 가. 불규칙 활용

- ㄷ 불규칙 활용: 길이더신, 들이디, 들이디
- ㅂ 불규칙 활용: 누이며, 더러비느다, 어두이디
- ㅅ 불규칙 활용: 낯여, 옷이리라, 짚유려

나. 규칙 활용

- ㄷ 규칙 활용: 고티시니, 구티시니, 무털씨
- ㅂ 규칙 활용: 구표미, 너피실씨, 자피여
- ㅅ 규칙 활용: 밧기시면, 밧기샤, 밧기면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는 순수 음운적인 것이 아니라 형태음소적인 교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순전하게 음운론적인 특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위의 예들을 분석해 보면, 활용의 불규칙성 여부를 떠나 어간 말 자음이 유성음일 때는 사동 접미사로 ‘-이-’가 선택되고 어간 말 자음이 무성음일 때는 사동 접미사로 ‘-히-’나 ‘-기-’가 선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간 말음이 비음에 해당하는 ‘신다, 굶다’ 등의 사동형은 ‘신기다, 굶기다’로서 어간 말음이 유성음임에도 불구하고 사동 접미사로 ‘-기-’가 선택되기 때문에 사동 접미사의 선택 조건이 유무성 대립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⁴⁾.

우리말의 유무성 대립에 대한 논란은 중세국어까지도 이어진다. 중세국어의 유성 자음으로 흔히 논의되는 것들은 바로 ‘ㄹ, ㄷ, ㅁ’이다. 이들은 각각 양순유성마찰음 /β/, 치경유성마찰음 /z/, 후두유성마찰음 /h/의 음가를 갖는 것으로 언급된다. 이들은 모두 유성마찰음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도 음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ㄹ’의 경우 그 음가를 양순유성마찰음 /β/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河野六郎(1935), 이송녕(1948:26, 1954), 박병채(1957), 유창돈(1958:83), 허용(1957:124), 이기문(1961:103), 이송녕(1961:17) 등) ‘ㄹ’이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못한 점, ‘ㄹ’이 거의 대부분 형태소 결합 환경에서 표기된 점, ‘ㄹ’이 최소대립쌍을 이루지 못하는 점 등 ‘ㄹ’을 음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많이 있다.

4) 박창원(1996a)는 ‘노기다’가 ‘눅기다’가 되지 않은 것은 결합 당시에 경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눅-’에 ‘-기-’가 결합하더라도 경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기다’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사동 접미사 ‘-이-’는 ‘-기-’에서 /ㄱ/가 탈락한 어형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 굳이 ‘-기-’가 선택된다고 볼 당위성도 없다. ‘고티다(곧-+히-+다), 구피다(굽-+히-+다)’와 같이 어간 말 자음이 파열음일 때 사동 접미사로 ‘-히-’가 선택된 것을 보면, ‘눅다’의 경우에도 사동 접미사로 ‘-기-’보다는 ‘-히-’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눅다’의 사동사가 ‘노기다’인 것을 보면, 경음이 존재하지 않아 ‘*눅기다’가 ‘노기다’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에 小倉進平(1923), 유응호(1946), 김형규(1948), 小倉進平(1953), 김형규(1955), 장향실(2003), 이동석(2004) 등은 ‘빙’의 음가를 /w/로 보았으며, 남광우(1959), 김용태(1961), 유창돈(1961), 서정범(1964), 럼종률(1992), 김동소(1996), 조규태(1998), 정우영(1999) 등은 ‘빙’을 [b]와 [w]의 절충적 표기로 보았다.

가장 최근에는 이동석(2013a, 2013b)에서 ‘쉽- + -이’가 ‘수비’로 표기되는 현상과 ‘새우’의 어원적인 분석을 통해 ‘빙’이 기저의 /p/가 [w]로 약화되거나 탈락하는 현상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표기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동석(2013a, 2013b)는 ‘쉽- + -이’가 ‘쉬비’보다는 ‘수비’로 실현되는 현상을 어간의 활음 /j/가 어미의 모음 /i/를 만나 탈락하는 현상으로서 규정하고 ‘빙’이 [β]나 [Φ]와 같은 자음의 음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며 이때의 ‘빙’은 음가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동석(2013a, 2013b)는 [鯪]의 의미를 가진 ‘사비, 사이, 새비’ 계열의 어휘와 ‘새요, 사유, 사유’ 계열의 어휘를 통해 이들의 공통 어근을 “*쌩”으로 설정하고 ‘빙’의 음가를 [β]나 [Φ]와 같은 자음으로 볼 때는 이들의 파생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며 이때 ‘빙’이 역시 음가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예다가 ‘치빅, 더빅’과 같은 활용형에서 ‘빙’의 음가를 지금과 같은 [w]로 본다면 ‘빙’은 유성음이라기보다는 기저의 /p/가 [w]로 약화되거나 탈락하는 현상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음가를 치경유성마찰음 /z/로 본다(허웅. 1957:131, 이기문. 1961:105, 김석득. 1965, 강진식. 1975, 김용경. 1975:39 등). 그러나 남광우(1959), 서정범(1964), 김동소(1996) 등은 ‘△’을 ‘ㅅ’ 유지 어형과 ‘ㅅ’ 탈락 어형을 절충하기 위한 인위적인 문자로 보았다. 또한 강길운(1992:313)은 ‘△’을 치경-경구개유성마찰음 /ʒ/로 보고 그 변이음으로 [z]를 인정하였으며, 前間恭作(1909:25)는 ‘△’의 음가를 중국 日母의 초성 /r/에 가까운 /j/로, 장석(2016a, 2016b)은 접근음 /j/로 보았다.

주지하다시피 ‘△’은 15세기 한자음의 日母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박병채(1971), 조운성(1998), 장석(2014) 등은 日母의 한자음이 [j]를 거쳐 탈락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15세기에 日母의 한자음이 /j/와 관련이 있다면, 고유어에 사용된 ‘△’ 역시 치경유성마찰음 /z/보다는 /j/에 가까운 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ㅇ’에 대해서는 음가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지만(허웅(1957:158), 이성구(1985:131)), 성대진동음(이극로. 1932, 문효근. 1978), 후두자음 /ʔ/(이기문. 1961:110), 후두유성마찰음 [h](정인승. 1940, 강진식. 1975), 후두유성지속음 [ʃ](서영석. 1981) 등 ‘ㅇ’의 음가를 인정하는 견해도 다수 있다.

(7) ㄱ. 몰애, 놀애

- ㄴ. 달아(다ㄹ- + -아), 올라(오ㄹ- + -아)
- ㄷ. 살오(알- + -고), 살어늘(살- + -거늘)
- ㄹ. 붓아(부ㅅ- + -아), 굶어(그ㅅ- + -어)
- ㄻ. 앓이(아ㅅ + -이), 었이(여ㅅ + -이)

특히 위와 같이 분철 표기에 사용된 ‘ㅇ’의 음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둘로 나뉜다. 이기문(1962), 강진식(1975) 등은 /k/가 유성음 사이에서 /g/가 되었다가 다시 [h]로 약화되었다고 보고 ‘ㅇ’의 음가를 후두유성마찰음 [h]으로 본다. 그러나 김완진(1964), 박창원(1996b), 김동소(1996), 차재은(2003), 강신항(2009:47) 등은 분철 표기에 사용된 ‘ㅇ’의 음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차재은(2003)은 [g]는 연구개유성파열음이고 [h]는 성문유성마찰음으로 서로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이 달라 음성적 유사성이 없으며, [h]는 /h/의 이음이기 때문에 ‘ㅇ’의 음가가 [h]이 될 수 없다며 ‘ㅇ’의 음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사실 이러한 불균형은 ‘ㅇ’뿐만 아니라 ‘ㆁ’에서도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유성 자음이라고 언급되는 ‘ㆁ’, ‘ㄷ’, ‘ㅅ’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세국어 자음의 유무성 대립 관계

문자	음가	유형		유형	음가	문자
ㆁ	β	양순유성마찰음	↔	양순무성마찰음	\varnothing	-
ㅇ	h	후두유성마찰음		후두무성마찰음	h	ㅎ
ㄷ	z	치경유성마찰음		치경무성마찰음	s	ㅅ

만약에 중세국어에 유무성 대립이 있었고 ‘ㆁ’이 양순유성마찰음 / β /, ‘ㅇ’이 후두유성마찰음 /h/, ‘ㄷ’이 치경유성마찰음 /z/로서 유성자음에 속한다면 이에 대응되는 무성자음은 양순무성마찰음 / \varnothing /, 후두유성마찰음 /h/, 치경무성마찰음 /s/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양순무성마찰음 / \varnothing /가 없으며 ‘ㆁ’은 형태론적으로 볼 때 거의 양순무성파열음 /p/에서 유래한 음을 표기하고 있어 유무성 대립 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후두유성마찰음이라 언급되는 ‘ㅇ’은 유무성 대립쌍이 ‘ㅎ’이 되어야 할 텐데, 실제로는 형태론적으로 ‘ㅎ’이 아닌 ‘ㄱ’과 관련이 있다.

오직 치경유성마찰음으로 언급되는 ‘ㄷ’만이 치경무성마찰음 ‘ㅅ’과 대립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세국어 문헌에서 ‘한숨’과 ‘한숨’처럼 ‘ㅅ’과 ‘ㄷ’이 교체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연 ‘ㅅ’과 ‘ㄷ’이 음소 차원에서 유무성 대립 관계에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고대국어는 물론 중세국어에서도 우리말 자음이 유무성 대립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2.3. 치음

현대국어의 자음 체계에서 ‘ㅅ, ㅆ’는 치경마찰음에 속하고 ‘ㅈ, ㅊ, ㅍ’는 경구개파찰음에 속한다. 이 두 부류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서 모두 차이를 보이는데, 고대국어 시기에는 이 두 부류가 구별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병선(1985b), 정철주(1995) 등은 고대국어 시기에 파찰음이 음소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8) 比自火縣 一云比斯伐 <三國史記 地理志 1>
嘉壽縣 本加主火縣 <三國史記 地理志 1>

현대국어 한자음으로는 ‘自’와 ‘斯’의 초성, ‘主’와 ‘壽’의 초성이 서로 다른데, 위의 고유명사 표기에서는 이들이 교체 관계에 있어 마치 당시에는 치경마찰음과 경구개파열음이 변별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외에도 ‘仇史郡’와 ‘屈自郡’, ‘未祖’와 ‘未炤/未召’, ‘李純’과 ‘李俊’ 등 많은 예에서 ‘ㅅ’과 ‘ㅈ’이 교체되는 모습을 보인다(정철주, 1995).

(9) 王氏扶餘氏 號於羅瑕 民呼鞮吉支 夏言並王也 <周書 百濟>
 十四曰吉士 或云稽知 或云吉次 <三國史記 38 職官上>

그런데 이병선(1985b)는 위의 예에서 ‘吉支’, ‘吉士’, ‘稽知’, ‘吉次’를 각각 /*kiti/, /*kisi/, /*kəti/, /*kitsi/로 재구하고, ‘吉次’는 ‘吉支’ 또는 ‘稽知’의 /t/가 파찰음화한 것으로 보았다. 이 외에도 이병선(1985b)는 여러 예를 통해 /t/ > /ts/ > /s/의 변화를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 때 /ts/는 지금과 같은 구개음으로 보지 않고 치경음으로 보았다. 이는 중세국어에서 ‘ㅈ’이 ‘ㅅ’과 같은 치음으로 분류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10) 장[龕度] ~ 장[醬], 저[自] ~ 저[筋], 초[醋] ~ 초[燭]

위의 예와 같이 중세국어에서는 ‘ㅈ, ㅊ’가 /jV/와 /V/ 앞에서 구별되어 표기되었는데, ‘ㅈ, ㅊ’가 현대국어와 같은 경구개파찰음일 때는 이러한 변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세국어의 ‘ㅈ, ㅊ, ㅉ’는 경구개음이 아닌 치경음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김석득, 1965, 이기문, 1972a:130, 김용경, 1975:50, 김무림, 2004:146).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라면 고대국어 시기에는 마찰음과 파찰음의 구별이 없었고, 중세국어 시기에는 마찰음과 파찰음이 변별되기는 했으나 마찰음과 파찰음의 조음 위치가 동일하게 치경이었고,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 파찰음의 조음 위치가 치경에서 경구개로 이동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창원(1996a)는 치두음(齒頭音)에서 전청, 차청, 전탁, 우차청(又次淸), 우차탁(又次濁) 등이 서로 혼기되는 예가 없고 중국의 치두 전탁음이 한국한자음에서 ‘ㅈ’에 규칙적으로 대응하고 중국어의 정치 2등 전탁음이 한국한자음에서 ‘ㅅ’으로 규칙적으로 대응하는 점 등을 근거로 고대국어 시기에 최소 5개의 치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사실 고대국어에 ‘ㅅ’계와 ‘ㅈ’계의 구별이 없었다면 한국한자음에 ‘ㅅ’계와 ‘ㅈ’계의 구별이 존재하는 점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한자음 수입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음이 후대에 체계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박병채(1979)는 기층의 차이로 해결하고자 했다. 치두음이 ‘ㅈ’계열로 반영되는 것은 절운계의 북방 중원음을 반영한 것이지만, 정치음이 ‘ㅅ’계열로 반영되는 것은 강동음 및 당나라 중엽 서북 중국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한자음이 과연 기층을 달리하여 형성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박창원, 1996a). 한국한자음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한자음이 시간 차를 두고 체계적인 대립 관계를 이루며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면 고유명사 표기에서 발견되는 치음 계열의 혼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8)의 이표기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比自火’과

연쇄에서 첫 자음이 외파되지 않고 다음 자음이 발음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우민섭(1988:88) 등은 ㄴ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자음군이 아닌 경음으로 추정한다.

(11ㄴ)과 같이 형태소 결합 시에 ‘ㄴ’이 첨가되는 예들은 후부 요소의 어두 자음이 중세국어 문헌에서 ㄴ계 합용병서로 표기되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ㄴ계 합용병서가 자음군으로 발음되었다는 증거로 삼는다(김윤경. 1935, 김형규. 1955:141, 허웅. 1957:147, 이기문. 1972a:131).

그러나 이동석(2004, 2008)은 이들 단어가 12세기 이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만약 합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모음이 탈락했다면 (11ㄴ)의 예들을 자음군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13) ㄱ. /tco/ + /psʌl/ → [tco.p.s'ʌl]
 ㄴ. /tco/ + /*pʌsʌl/ → /tco.pʌsʌl/ → [tco.p.s'ʌl]

일반적으로는 (13ㄱ)과 같이 모음 탈락에 의해 자음군이 이루어진 후 합성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지만, (13ㄴ)과 같이 합성이 먼저 일어난 후 다음 단계에서 모음이 탈락할 경우에는 자음군이 발음으로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동석(2000)은 합성어 ‘츄쌀’을 통해 ㄴ계 합용병서의 자음군이 아닌 경음으로 보았다. 이 단어는 ‘츄’와 ‘쌀’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한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ㄹ’의 탈락은 ‘ㄴ, ㄷ, ㅅ, ㅈ, (△)’과 이들의 격음, 경음 앞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쌀’의 발음을 자음군을 가진 [psʌl]로 보면 ‘츄쌀’에서 ‘ㄹ’이 탈락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쌀’의 발음을 경음인 [s'ʌl]로 보면 다른 예들에 비추어 ‘ㄹ’의 탈락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ㄴ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경음으로 보게 되면 ㄱ계 합용병서와의 차별성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서정범(1964)는 당시에 평음과 경음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경음을 원음인 평음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ㄴ’을 병기한 것으로 보았다. 평음과 대응 관계가 없는 경음은 ㄱ계 합용병서로 표기하고, 평음과 경음 또는 평음과 격음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ㄴ계 합용병서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이동석(2004)은 당시에 ‘좁쌀, 볍씨’와 같이 합성어 내부에 ‘ㄴ’이 삽입되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어와 아무런 변화도 수반하지 않는 합성어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자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경음은 ㄴ계 합용병서로, 후자와 같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경음은 ㄱ계 합용병서로 구별하여 표기했던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말의 역사에서 자음군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관점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2.5. 종성의 불파와 외파

일반적으로 고대국어의 음절말 자음은 현대국어처럼 불파되지 않고 외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이기문. 1961:53, 권재선. 1973). 구체적으로 강신항(1990)은 13세기 자료인 **통감약구급방**에서 종성의 /p/, /k/, /tɕ/, /s/, /z/, /m/, /n/, /l/ 등을 각각 ‘邑’, ‘只’, ‘次’, ‘次/叱/之’, ‘兒’, ‘音’, ‘隱’, ‘乙/勿’ 등의 말음첨기자를 동원하여 표현하고 12세기 자료인 **통계림유사**에서 /tɕ/를 ‘翹’로 말음첨기한 점을 들어 이들 자음이 외파된 것으로 보았다. 권재선(1973)은 다음의

예를 통해 음절말 자음이 외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14) 關英井 一作 娥利英井 <三國遺事 1 紀異 新羅始祖 赫居世王>
豐州 本高勾麗 仇乙縣 一云 屈遷 <高麗史 58 志12>
尙陵夫里郡 一云 竹樹夫里 一云 仁夫里仁 <三國史記 37>

그러나 말음 첨기자가 외파음을 표현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말음 첨기가 필수적인 기제가 아니라 수의적인 기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倭理(*여리)’, ‘舊理(*녀리)’와 같이 어말 음절을 첨기한 예도 있기 때문에 말음 첨기의 기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고유명사 표기에 사용된 한자음의 종성 대응 관계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천소영(1983), 이병선(1985a) 등은 우리말이 원래 개음절어였던 것으로 보았다. 천소영(1983)은 우리말 어휘를 일본어 및 알타이 제어와 비교하여 우리말의 어휘가 대부분 개음절어였을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어말 모음이 탈락하면서 지금과 같이 다양한 종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천소영(1983)과 이병선(1985a)는 설내입성운미(舌內入聲韻尾) /t/가 한국한자음에서 종성 ‘ㄹ’로 대응되는 현상을 개음절어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천소영(1983)은 설내입성운미(舌內入聲韻尾) /t/가 우리말의 ‘ㄹ’에 대응되는 것은 개음절어로서 음절말 종성 /t/를 기피하는 음운론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보았고, 이병선(1985a)는 설내입성운미(舌內入聲韻尾) /t/를 수용할 때 ‘Vt’를 ‘VtV’로 받아들였다가 이후 ‘VtV > VdV > VrV > VI’의 과정을 거쳐 중국의 설내입성운미가 한국 한자음에서는 ‘ㄹ’로 대응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한자음의 종성이 생성되었다면 특정 한자음에만 종성이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VCV’ 구성에서 특정 한자음에서만 어말 모음이 탈락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고유어의 경우에도 어말자음군의 형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내포한다. 어말 모음 탈락에 의해 어말 자음군이 형성되려면 ‘CVCCV’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이미 두 번째의 ‘C’가 종성의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어말 모음 탈락에 의해 형성된 어말 자음들이 외파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한국어가 개음절어였다는 가설을 종성의 외파와 연결시키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앞서 경음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불파음화 현상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불파음화 현상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경음 형성 시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일반적으로 고대국어 시기에는 모든 종성이 외파되었다가 중세국어로 오면서 불파음화를 겪게 되고 중세국어에서 ‘ㅅ’이 가장 마지막까지 외파되었다가 곧 불파음으로 합류하게 되었다고 본다. 중세국어에서 ‘ㅅ’이 외파되었다는 근거로 대개 다음의 8종성법 규정을 제시한다.

- (15) 그러나 ‘ㄱ, ㅎ, ㄷ, ㄴ, ㅂ, ㅁ, ㅅ, ㄹ’의 여덟 자로 족히 사용할 수 있다. ‘빛꽃[梨花]’, ‘엿의 갖[狐皮]’은 ‘ㅅ’ 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ㅅ’ 자만 쓴다. (然ㄱㅎㄷㄴ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如빛꽃爲梨花。엿의갓爲狐皮。而ㅅ字可以通用。故只用ㅅ字。) <훈민정음 해례 종성해>

그러나 동일한 <훈민정음법>의 종성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청불탁자를 제외한 전청자, 차청자,

전탁자가 음절말에서 입성에 해당한다고 밝혀 ‘ㅅ’이 불파되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입성은 촉급한 소리로서 불파음을 말하며, ‘ㅅ’은 전청자에 속하므로 촉급한 소리, 즉 불파음이 된다.

(16) 소리에는 느리고 빠름의 차이가 있어, 평성, 상성, 거성은 그 종성이 입성의 촉급함과 같지 않다. 불청불탁자는 그 소리가 세지 않으므로 음절 말에 사용하면 평성, 거성, 상성에 해당한다. 전청자, 차청자, 전탁자는 그 소리가 세므로 음절 말에 사용하면 입성에 해당한다. ‘ㅇㄴㅇㅇㄹ
ㅁ’ 여섯 자는 평성, 상성, 거성의 종성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종성이 된다. (聲有緩急之殊。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不清不濁之字。其聲不厲。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全清次清全濁之字。其聲爲厲。故用於終則宜於入。所以ㅇㄴㅇㅇㄹㅁ六字爲平上去聲之終。而餘皆爲入聲之終也。) <훈민정음 해례 종성해>

종성해에서 다음과 같이 완급의 대립을 언급하며 종성에서 ‘ㅅ’이 빠르게 끝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17) 오음의 느리고 빠름은 또한 각각 대립을 이룬다. 아음의 ‘ㅇ’과 ‘ㄱ’이 대립을 이루어 ‘ㅇ’을 급하게 소리 내면 변하여 ‘ㄱ’이 되어 빠르고 ‘ㄱ’을 천천히 소리 내면 변하여 ‘ㅇ’이 되어 느리다. 설음의 ‘ㄴ, ㄷ’, 순음의 ‘ㄹ, ㅂ’, 치음의 ‘ㅅ, ㅈ’, 후음의 ‘ㅇ, ㅎ’에서 느리고 빠름의 대립이 서로 대립되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五音之緩急。亦各自爲對。如牙之ㅇ與ㄱ爲對。而ㅇ促呼則變爲ㄱ而急。ㄱ舒出則變爲ㅇ而緩。舌之ㄴㄷ。脣之ㄹㅂ。齒之ㅅㅈ。喉之ㅇㅎ。其緩急相對。亦猶是也。) <훈민정음 해례 종성해>

이에 8종성법을 통해 ‘ㅅ’과 ‘ㄷ’을 구별하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종성 ‘ㅅ’과 ‘ㄷ’이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t]로 발음되어 변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지춘수(1964), 럽종률·김영환(1982:64), 최세화(1986), 이은정(1986), 김무림(2004:128) 등은 종성 ‘ㅅ’과 ‘ㄷ’의 음가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구별하게 된 원인이 계열별로 입성자를 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쫘다’의 활용형인 ‘쫘- + -줍- -아’가 중세 문헌에서 ‘쫘ㅈㅂ’, ‘쫘ㅈㅂ’, ‘쫘ㅈㅂ’로 혼기되는 양상을 보면 역시 ‘ㅅ’이 외파되었다기보다는 불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음절 말에서 ‘ㅅ’이 ‘ㅅ’과 ‘ㄷ’으로 교체 표기되었다는 것은 곧 음절 말에서 ‘ㅅ’과 ‘ㄷ’이 변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종성 ‘ㅅ’의 음가가 [s]가 아니라 [t]라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지춘수, 1992, 김무림, 2004:129).

아울러 김무림(1998:12)은 종성 ‘ㅅ’과 초성 ‘ㄱ’이 ‘ㅅ’으로 표기된 점과 ㅅ뽕비어천가법에 다양한 사잇소리 표기가 사용된 점 등을 통해 이미 15세기에 마찰음이 불파음화되었다고 보았다.

국어 음운사에서 종성 ‘ㄹ’의 발음에 대한 논의도 빼 놓을 수 없다. 현대국어와는 달리 음절 말의 ‘ㄹ’이 외파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기문(1961:52)은 차자표기에서 /*l/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기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尸’의 음가를 /*r/로 보고 고대국어에서 종성 /r/과 /l/이 변별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박병채(1971)는 어두와 어중의 발음은 [r], 어말의 발음은 [l]로 보고 이들이 한 음소 /r/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종성 ‘ㄹ’의 외파 문제는 중세국어로까지 이어진다. 최근의 견해로는 소신애(2008)이 있다. 소신애(2008)은 20세기 초 육진 방언의 받침 ‘ㄹ’이 ‘r’로 전사된 점, ‘뭉고, 훑’과 같이 ㄹ계 접받침이 음절 말에 온전하게 표기된 점 등을 근거로 중세국어 종성 ‘ㄹ’의 음가를 탄설음 [r]로 보았다.

그러나 육진 방언의 음운론적인 특성이 중세국어와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중세국어의 겹받침 표기는 ‘앉고(앉- + -고), 읊디(읊- + -디), 낫[釣], 녃[魂], 샓[芽], 값[價]’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므로 겹받침 표기가 되었다고 해서 두 받침이 모두 외파되거나 적어도 첫 받침이 외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기준대로라면 ‘녃’과 ‘값’에서 각각 ‘ㄱ’과 ‘ㅂ’이 외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ㄹ’ 역시 고대국어 및 중세국어에서 외파음으로 발음되었는지가 아직 불분명하다.

3. 결론

지금까지 국어 자음을 중심으로 음운사의 여러 논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국어 음운사의 쟁점을 ‘평음·격음·경음의 대립, 유무성 대립, 치음, 자음군, 종성의 불파와 외파’ 등으로 분류하여 이들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평음·격음·경음의 삼지적 대립과 관련해서는 고대국어 시기에 이러한 삼지적 상관속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음은 종성의 불파음화와 어중 모음의 탈락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음의 형성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기음의 형성 역시 불파음화와 관련이 있을 듯하나 자료의 한계상 정확하게 유기음의 발생 시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유무성 대립과 관련해서는 고대국어에 유무성 대립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며 중세국어에서 유성음으로 언급되는 ‘ㄴ, ㄷ, ㄹ’에 대해서 구체적인 음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대립 관계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에 유무성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치음의 경우에는 고대국어에 파찰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한자음에 ‘ㅅ’계와 ‘ㅆ’계가 구별되어 있고 자료를 통해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현재로서는 고대국어에 파찰음이 존재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자음군의 경우 대개 ㄴ계 합용병서를 자음군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나, ㄷㄹ선관역어법¹⁾ 자료나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볼 때 역시 자음군이 명확하게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종성의 외파와 관련해서도 고대국어에서는 종성이 외파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고 중세국어의 ‘ㅅ’과 ‘ㄹ’이 외파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고대국어의 경우에는 자료만을 가지고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중세국어의 ‘ㅅ’과 ‘ㄹ’의 경우에는 오히려 불파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강길운(1992), ㄷㄹ민정음과 음운체계법 형설출판사.
 강신항(1990), 고대국어의 음절말자음에 대하여, ㄷㄹ동문화연구법2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7-28쪽.
 강신항(2009), ㄷㄹ민정음 창제와 연구사법 경진.

- 강진식(1975), 「훈민정음 자모체계의 연구-제자해를 중심으로-」, **ㅌ국어국문학연구법** 2, 원광대 국문과, 43-79쪽.
- 권재선(1973), 고대국어의 한자 운미음에 대한 고찰, **ㅌ어문학법** 29, 한국어문학회, 1-18쪽.
- 김동소(1996), 중세 한국어의 종합적 연구-표기법과 음운 체계-, **ㅌ한글법** 231, 한글학회, 5-42쪽.
- 김무림(1998), 고대 국어 음운, **ㅌ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법 국립국어연구원, 7-39쪽.
- 김무림(2004), **ㅌ국어의 역사법** 한국문화사.
- 김석득(1965), 「소실자운(Graphemes)고 -중세 ㅏ · ㅑ · ㅓ · ㅕ 을 중심으로-」, **ㅌ인문과학법** 13,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67-96쪽.
- 김용경(1975), **ㅌ국어학** 논집법 형설출판사.
- 김용태(1961), **ㅌ음발달 및 소실의 시대에 대한 시론법** 마산대학문학회.
- 김완진(1964), 중세국어 이중모음의 음운론적 해석에 대하여, **ㅌ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법 4, 대한민국학술원, 49-66쪽. (김완진(1971)에 재수록)
- 김완진(1971), **ㅌ국어음운체계의 연구법** 일조각.
- 김완진(1977), 향가의 어학적 연구의 기준, **ㅌ언어와 언어학법** 5,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31-39쪽.
- 김윤경(1935), 훈민정음에 나타난 철자법 규정, **ㅌ한글법** 27, 한글학회, 420-423쪽.
- 김주필(2009), 근대국어 음운론의 쟁점, **ㅌ국어사연구법** 9, 국어사학회, 69-122쪽.
- 김형규(1948), **ㅌ음고**, **ㅌ조선교육법** 2-7, 조선교육연구회, 59-67쪽.
- 김형규(1955), **ㅌ국어사 -국어사 급 국어학사법** 백영사.
- 김형규(1962a), 국어 어휘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형규(1962b)에 재수록)
- 김형규(1962b), **ㅌ국어사연구법** 서울: 일조각.
- 남광우(1959), **ㅌ음고**, **ㅌ논문집법** 4, 중앙대, 115-140쪽. (남광우(1962)에 재수록)
- 남광우(1961), 「:웃브니 :웃브리 :웃빅」 연구, **ㅌ국어국문학법** 24, 국어국문학회, 22-28쪽.
- 남광우(1962), **ㅌ국어학** 논문집법 일우사.
- 남풍현(1992), 고문서의 이두 해독 -柳璈功臣錄券을 중심으로-, **ㅌ정신문화연구법** 15, 정신문화연구원, 93-108쪽.
- 렴종률·김영향(1982), **ㅌ훈민정음**에 대하여법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렴종률(1992), **ㅌ조선말력사문법법**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1. 역락)
- 문효근(1978), 훈민정음의 ‘ㅇ’과 ‘ㅍ’ 음가에 관한 몇 가지 문제, **ㅌ한글법** 162, 한글학회, 111-141쪽.
- 박병채(1957), 파열음고 -훈민정음 창제의 음성학적 고찰-, **ㅌ국어국문학법** 17, 국어국문학회, 77-93쪽.
- 박병채(1971), 고대국어의 음운체계 재구시론 -국어한자음의 분석을 중심으로-, **ㅌ민족문화연구법** 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55-97쪽.
- 박병채(1979), 고대 국어의 자음 음소체계에 대하여 -SK와 SV의 비교를 중심으로-, **ㅌ말법** 4, 연세대 한국어학당, 107-144쪽. (박병채(1990)에 재수록)
- 박병채(1990), **ㅌ고대국어의 음운비교연구법** 고려대출판부.
- 박창원(1996a), 고대국어의 치음, **ㅌ국어학법** 27, 국어학회, 99-130쪽.
- 박창원(1996b), ‘欲字初發聲’ 재론, **ㅌ기문 교수 정년퇴임기념노총법** 신구문화사, 287-312쪽. (박창원(1996c)에 재수록)

- 박창원(1996c), **ㅈ**중세국어 자음 연구법 한국문화사.
- 서영석(1981), 중세국어의 후음연구, **ㅈ**한국문학연구법3,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53-272쪽.
- 서정범(1964), 십오세기 국어의 표기법연구, **ㅈ**논문집법3, 경희대, 9-42쪽. (서정범(1975)에 재수록)
- 서정범(1975), **ㅈ**현실음의 국어사적연구법 범우사.
- 성백인(1978), 한국어와 만주어의 비교 연구(1), 알타이 조어의 어두 파열음 체계 재구에 관한 문제점, **ㅈ**언어학법3, 한국언어학회, 121-144쪽.
- 소신애(2008), 중세 국어 음절말 유음의 음가와 그 변화 -방언 자료와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ㅈ**국어학법53, 국어학회, 35-64쪽.
- 양정호(2008), 향가 해독과 자음 체계, **ㅈ**국어학법51, 국어학회, 339-364쪽.
- 우민섭(1988), **ㅈ**5세기 국어의 초성병서 연구법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우민섭(2000)에 재수록)
- 우민섭(2000), **ㅈ**중세국어음운연구법 전주대학교출판부.
- 유응호(1946), 조선어순경음에관한연구 -특히순경음「ㄹ」의음가급변천에관하여, **ㅈ**민족문화법2, 민족문화연구소, 36-69쪽.
- 유창돈(1958), 언문지 전고, **ㅈ**논문집법1, 경희대, 121-244쪽.
- 유창돈(1961), **ㅈ**국어변천사법 통문관.
- 이극로(1932), 훈민정음의 독특한 성음관찰, **ㅈ**한글법5, 한글학회, 390-393쪽.
- 이기문(1955), 어두 자음군의 생성 및 발달에 대하여, **ㅈ**진단학보법17, 진단학회, 187-258쪽.
- 이기문(1961), **ㅈ**국어사개설법 서민중서관.
- 이기문(1962), 중세국어의 특수 어간 교체에 대하여, **ㅈ**진단학보법23, 진단학회, 119-153쪽.
- 이기문(1972a), **ㅈ**국어사개설법개정판, 탑출판사.
- 이기문(1972b), **ㅈ**국어음운사연구법 탑출판사.
- 이기문(1998), **ㅈ**국어사개설법신정판, 태학사.
- 이동석(2000), **ㄹ**탈락 현상의 적용 환경과 발생 및 소멸 시기에 대하여, **ㅈ**한국어학법12, 한국어학회, 237-259쪽.
- 이동석(2004), 「계림유사」를 통해서 본 ‘ㄹ’계 합용병서와 ‘ㄹ’, **ㅈ**국어사연구법 4, 국어사학회, 235-253쪽.
- 이동석(2006), 「조선관역어」의 첨기자 ‘ㅁ’의 음가에 대하여, **ㅈ**국어사와 한자음법 박이정, 373-395쪽.
- 이동석(2008), 음운사와 어원, **ㅈ**한국어학법39, 한국어학회, 79-109쪽.
- 이동석(2010), ‘ㄹ’ 포함 어휘의 형태론적 분석, **ㅈ**국어사연구법11, 국어사학회, 221-249쪽.
- 이동석(2013a), ‘ㄹ’의 음가론, **ㅈ**국어사연구법17, 국어사학회, 71-118쪽.
- 이동석(2013b), ‘수비’의 이표기 연구, **ㅈ**한국어학법61, 한국어학회, 201-232쪽.
- 이동석(2014), 국어사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독서와 문법 II> 교과서를 중심으로-, **ㅈ**국어학법69, 국어학회, 283-329쪽.
- 이병선(1985a), 고대 입성운미 t의 r음화-고대국어 개음절 연구의 일환으로-, **ㅈ**어문논집법 24 · 25, 안암어문학회, 389-411쪽.
- 이병선(1985b), 고대국어 t의 파찰음화에 대하여, **ㅈ**국어학법14, 국어학회, 39-57쪽.
- 이상역(1987), 고대국어 이전의 성조와 유성자음의 출몰, **ㅈ**국어학법16, 국어학회, 261-275쪽.

- 이성구(1985), *훈민정음연구법* 동문사.
- 이승녕(1948), *조선어학개설*, *조선교육법2-7*, 조선교육연구회, 50-58쪽.
- 이승녕(1961), *중세국어문법 -15세기어를 주로 하여-법* 을유문화사.
- 이은정(1986), 8종성에서의 ‘-ㅅ’에 대하여, *한글법192*, 한글학회, 3-18쪽.
- 이진호(2011), *국어 음운사 연구를 위한 기본 개념*, *한글학연구법36*, 서울대 국문과, 49-74쪽.
- 이철수(1989) *평양잠경험찰요의 이두연구법* 인하대학교출판부.
- 장 석(2014), 문헌으로 본 日母 한자음의 변화, *한중인문학연구법45*, 한중인문학회, 343-366쪽.
- 장 석(2016a), Δ-병의 연쇄로 본 Δ의 음가, *구결연구법36*, 구결학회, 203-235쪽.
- 장 석(2016b),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Δ의 음운 자격, *민족문화연구법7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403-430쪽.
- 장향실(2003), 중세국어시기 고유어 표기에 쓰인 병의 음가에 대하여, *어문논집법48*, 민족어문학회, 65-91쪽. (장향실(2008)에 재수록)
- 장향실(2008), *특국어사 자료와 음운 연구법 보고서*.
- 정우영(1999), 15세기 국어 표기법의 성립과 개정에 관하여, *특국어문론집법8*, 동국대, 65-83쪽.
- 정인승(1940), 고본 훈민정음의 연구, *한글법제8권 9호*, 조선어학회, 3-16쪽.
- 정철주(1995), 고대 국어의 음절말 자음과 음절구조, *어문학법56*, 한국어문학회, 1-27쪽.
- 조규태(1998), 여린 비읍(병)에 대하여, *한글법240·241*, 한글학회, 89-124쪽. (조규태(2000)에 재수록)
- 조규태(2000), *번역하고 풀이한 훈민정음법* 한국문화사.
- 조운성(1988), *한국 한자음 표기에 쓰인 「Δ」에 관한 연구법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지춘수(1964), 종성팔자제한에 있어서 「ㄷ, ㅅ」 설정에 대한 고찰, *특국어문학법27*, 국어국문학회, 145-165쪽.
- 지춘수(1992), 중세국어 표기법의 전개와 검토, *특국어표기법의 전개와 검토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81쪽.
- 천소영(1983), 받침 후생론의 가능성 재고, *특문집법1*, 수원대, 89-113쪽.
- 차재은(2003), 15세기 우리말의 후음 관련 문제들, *한국어학법20*, 한국어학회, 241-263쪽.
- 최세화(1986), 입성과 ‘Δ-ㅅ’의 완급상대 소고, *특이원 김기동박사 회갑기념논문집법 교학사*, 747-757쪽. (최세화(1987)에 재수록)
- 최세화(1987), *특국어학논고법* 동국대학교출판부.
- 허 옹(1957), *특국어음운론법* 정음사.
- 小倉進平(1923), *國語及朝鮮語 發音概說법* 近澤印刷所出版部.
- 小倉進平(1953), 朝鮮語의 喉頭破裂音, *특어연구법22·23*, 日本言語学会, 1-20쪽.
- 前間恭作(1909), *韓語通법 丸善*. (특대한국문법대계법2부 13책, 1979, 탑출판사)
- 河野六郎(1935), *朝鮮方言學試攷-‘缺’語考-법* 東都書籍.
- Hyman, (1978), Historical Tonology. In V. A. Fromkin (Ed.), *Tone: a Linguistic Survey*, New York: Academic Press.
- Ramstedt, G. J. (1939), *A Korean Grammar*, Suomalais-ugrilainen Seura. (특대한국문법대계법2부 5책, 1979, 탑출판사)

■ 토 론

“국어 음운사의 연구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안병섭(고려대)

발표문을 잘 읽었습니다. 발표자는 쟁점 중심으로 음운사 연구를 정리하셨는데, 쟁점별 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 보았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연구 성과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이처럼 쟁점을 중심으로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음운사 연구는 국어사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진척된 것이 사실입니다. 성긴 국어사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연구가 진척된 것은 선배 학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표문을 읽고 나니 해명해야 할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느낍니다. 발표자께서도 이러한 생각에서 연구 성과의 정리보다는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비중을 두고 발표문을 작성하셨으리라 봅니다. 토론자도 몇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 점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1) 2.1 평음·경음·격음의 대립

경음과 유기음의 발달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계열의 생성 단계에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운 체계에서 한 계열의 발달은 한 시기에 계열 전면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된 일정한 발달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경음과 격음 계열의 발달 전 과정에 대한 연구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 드립니다. 경음 계열의 완성 단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ㅍ’가 중세국어 시기에 음운으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견해와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야 음운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2.2 유무성 대립

선생님께서 ‘ㅅ+이→수비’의 예와 ‘새우’의 어원 연구를 통해, 기저의 /p/가 [w]로 약화되거나 탈락되는 현상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표기로 ‘빙’이 사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곧 ‘빙’이 형태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표기이며 음가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중세국어 시기의 일부 문헌이 형태 중심의 표기를 채택하고 있고 소리 중심의 표기를 채택한 문헌에서도 형태 인식을 반영한 예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견해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 인식이 반영된 예들은 일부이고, 그조차 음운 중심이 아니라 문법 요소 중심입니다. 이에 비하면 ‘빙’을 형태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표기로 보기에는 ‘빙’이 음운 단위의 표기이며, 그 출현 환경을 일반화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리

중심의 표기가 절대적인 중세국어 시기에 형태 변화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선생님의 견해가 타당성을 인정 받으려면, 중세국어 시기에 형태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다른 예를 더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2.4 자음군

ㄴ계 합용병서와 ㅂ계 합용병서를 경음 표기자로 보는 것은 일음 일자 대응 관계를 보이는 훈민정음의 제자 체계와 어긋납니다. 훈민정음은 우리말뿐만 아니라 우리말에 없는 소리도 고려할 만큼 이상적으로 창제된 문자입니다. 훈민정음이 의도적으로 창제된 문자라는 점과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완성도가 뛰어난 문자 체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의 소리를 표기하는 데 여러 문자를 두었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ㄴ계 합용병서를 경음의 표기자로 보는 근거 가운데 하나인 ‘좁쌀’의 경우, ‘뫼쌀’<훈몽>, ‘조쌀 <구방>’의 예가 있으므로 음운 탈락으로 인한 비음절화가 형태 내부에서 먼저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2 ㄴ)의 예처럼 비음절화로 인한 음절 축약이 형태 경계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소리 중심의 표기 체계인 중세 국어의 특성상 문헌에서도 ‘뫼쌀’, ‘좁쌀’ 또는 ‘뫼쌀’, ‘좁쌀’의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조’가 중세국어 시기에 ‘쫄’의 형태임을 감안하면 종성 ‘ㅎ’의 소멸 이후 ‘ㄴ’의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설명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ㄴ계 합용병서나 ㅂ계 합용병서는 자음군의 표기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인 ‘잡쌀’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차돌, 차조’에서처럼 치경음과 경구개음 앞에서 ‘ㄴ’이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찰떡’처럼 ‘ㄴ’이 탈락하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이처럼 형태음소 현상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잡쌀’은 ‘-쌀’ 어근을 포함한 다른 단어들(좁쌀, 햅쌀, 멍쌀 등)로부터 유추된 형태로 보는 것도 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중세 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보이는 조음 위치 동화의 예는 자음군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 됩니다. ‘헌뻘>흠뻘’와 같은 조음 위치 동화는 ‘ㅂ’이 ‘ㄴ’의 음가를 지닌 자음군이어야만 그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국어 어휘사 연구의 현재와 미래

황선엽(서울대)

< 차례 >

- 0. 어휘사의 개념
- 1. 어휘사의 영역
- 2. 어휘사의 시기
- 3. 어휘사 연구 논저
- 4. 최근 어휘사 연구의 특징
- 5. 어휘사 연구의 과제

0. 어휘사의 개념

- 개념적: 단어들=어휘
- 실제적: 단어(들)=어휘
- ‘어휘사’의 어휘는 ‘단어(들)’의 의미로 쓰임
- ‘한국어 어휘사’는 한국어 어휘론의 한 분야이면서 한국어사의 한 분야

1. 어휘사의 영역

민현식(1995)에서 정리한 어휘론의 관점

- 語音別: 어휘의 발음, 음절, 음상에 따른 어휘음운론
- 語記別: 어휘의 표기 문제에 따른 어휘표기론
- 語法別: 문법범주에 따른 어휘론. 지시어, 호칭어, 시제어, 의문사, 수량어, 존대어 등
- 語種別: 한국어, 영어, 일본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 語詞別: 조어 방식이나 품사에 따른 어휘론. 합성어, 파생어, 명사어, 대명사어, 동사어 등
- 語類別: 의미 영역별 어휘론. 위상어(방언, 속어, 전문어 등), 색채어, 신체어, 친족어, 인명어, 관명어, 지명어, 수량어, 궁중어 등
- 語源別: 동일 어원에 따른 어휘족(단어족) 관련 어휘론
- 語義別: 의미 관계별 어휘론. 동의어(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동음어, 상위어, 하위어, 의미 변화의 방향별(상승, 타락, 확장, 축소)

* 어휘사의 영역: 이상의 관점을 통시적으로 또는 현대 이전 시기에 대해 공시적으로 연구한

것. 현대 국어에 대한 공시적 연구도 넓은 의미에서는 국어사의 영역이나 일반적인 처리에 따라 배제.

2. 어휘사의 시기

어휘사만을 대상으로 시기 구분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국어사 전체의 관점에서 시기를 구분한 후 어휘사를 논의함. 어휘사의 시기 구분은 김광해(1993ㄱ)과 김광해(1993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후 민현식(1995)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함.

- 1) 원시국어 어휘(형성기 국어): ~기원전 2세기. 1원 체계기(고유어)¹⁾
- 2) 전기 고대국어 어휘: 기원전 1세기~7세기(삼국시대). 2원 체계 형성기(고유어, 한자어)
- 3) 후기 고대국어 어휘: 7세기~9세기(통일신라, 발해시대) 2원 체계 확장기(고유어, 한자어)
- 4) 전기 중세국어 어휘: 10세기~13세기(고려 건국~고려 중기), 3원 체계 형성기(몽고어 차용)
- 5) 후기 중세국어 어휘: 14세기~16세기(고려 후기~조선 전기), 3원 체계 안정기(고유어, 한자어, 소수 외래어)
- 6) 근대국어 어휘: 17세기~1876년(조선후기), 3원 체계 확장기(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 7) 개화기 국어 어휘: 1876~1910(개항기), 3원 체계 변혁기(일본계 한자어, 서구 외래어 도입)
- 8) 전기 현대국어 어휘: 1910년~1945년(일제 침략기), 다원 체계 형성기
- 9) 후기 현대 국어 어휘: 해방~현재, 다원 체계 확장기

한국어 어휘사 연구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현대 국어에 대한 공시적 연구를 배제한다고 하면 이기문(1972)에 따르면 1895년 이전까지가 되고 민현식(1995)에 따르면 1910년 이전까지가 됨. 그러나 20년이 흐른 이제는 1910년~1945년까지의 어휘 연구도 어휘사의 범위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함. 여기서는 1945년 이전의 어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서 논의함. 다만 방언 어휘나 지명에 관한 논의는 최근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도 대부분 포함하였음.

3. 어휘사 연구 논저

- 어휘사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는 이기문(1991), 홍윤표(2014) 등에서 이루어졌으나 아직 음운이나 문법사만큼 체계를 갖추지 못함.
- 2009년 국어학회 창립 50주년 학술대회의 공동토론회에서 50년 간의 연구 성과를 ‘총론, 음운, 형태, 통사, 의미’로 나누어 고찰. 어휘사 부분은 형태 분야(장윤희(2010))의 조어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와 의미 분야(최경봉(2010))의 어휘 의미에 대한 어휘사(32편의 논문)에서 소략하게 다루어졌을 뿐 어휘사 분야의 논저를 포괄적으로 모아서 다룬 논의는 없음.
-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국어학연구논저목록(1971년-2003년) 47,545건 중에서 대략적으로 검색하여 어휘사 관련 논저를 뽑은 결과: 단행본 46권, 학위논문 29건, 일반 논문 569건으로 모두 644건.(누락 논저 다수, 정밀 조사시 1000여 건에 달할 듯)

1) 이 시기에도 차용어가 있었을 것이므로 완전한 1원 체계라고 하기는 어려움.

- 2003년 이후나 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목록 작성 중: 현재 약 200건 찾음.
- 문헌 해제, 문헌 소개, 문헌의 역주나 주해 등에 관한 논의는 거의 포함하지 않음.
- 語音別: 곽충구(2011), 도수희(2007ㄱ)
- 語記別: 김연주(2002ㄱ), 김연주(2002ㄴ)
- 語法別: 이동석(2014), 장윤희(2015)
- 語種別: 김무식(2007), 金亮鎭·余彩麗(2014), 이미향(2002)
- 語詞別: 김성남(2006), 서형국(2010), 석주연(2015)
- 語類別: 김남경(2010), 김연주(2014), 김중빈(2004)
- 語源別: 박부자(2010), 이기문(1998), 이동석(2010)
- 語義別: 김유범(2007), 남성우(2011), 송지혜(2014), 안예리(2011)

민현식(1995)의 분류 유형 별로 대표적인 논저들을 제시하면 위와 같음. 이들 외에 어휘사에 대한 이론적 논의, 어휘사 관련 문헌 자료에 대한 논의, 사전 편찬 문제와 관련한 논의, 어휘사 논저에 대한 서평과 같은 어휘사 연구사 관련 논의 등이 있음.

4. 최근 어휘사 연구의 특징

- 1996년 구결학회, 1997년 국어사자료학회(현 국어사학회), 한국지명학회 등의 출범으로 국어사 관련 학회지 증가
- 연구 대상 및 주제, 방법 등이 다양해짐.
- 차자표기(의궤, 고문서), 언간, 필사본 소설, 방각본 소설, 신소설, 1920-40년대의 소설, 대중가요 등으로 연구 대상 자료 확대
- 이전의 연구가 고유어 중심이었던 데에 반해 한자어나 차용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
- 특정 문헌이나 특정 분야(식물명, 어류명, 향약명)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통한 어휘사 연구
- 한 어휘에 대한 종합적(어원, 방언, 문집류 문헌) 고찰
- 다양한 종류의 사전편찬(필사본 고어대사전, 석독구결사전, 언간사전, 고소설사전)
- 근대국어 시기 물명류, 유해, 어휘집, 사전에 대한 관심 증가
- 개화기 어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 몽골어와 만주어 대한 계통적 논의보다 차용어에 대한 논의 증가

5. 어휘사 연구의 과제

- 자료의 전산화: 어휘 자료의 경우 입력되지 않은 자료가 많음. 기입력 자료도 자서류, 물명류, 유해류, 대역어 사전 등 문헌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밀한 전산 자료의 구축이 필요함.

예) 현재의 전산 입력 예

한불사전: 아암 額掩, 아오 弟, 아옴차, 아예 衙隸, 아역 衙役

광재물보: 太極 태극, 天 하늘, 日 히, 曦 히빛

- 학제간 연구의 필요: 식물명, 동물명, 복식명, 음식명, 전통 건축 관련 용어 등의 연구를 위해

이들 학문 분야와의 공동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 또한 유해류, 개화기 대역어 사전 등에 대한 연구를 위해 다양한 외국어(만주어, 몽골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라틴어 등) 전공자와의 연구도 필요함.

예) 신현철 외(2015), “우리나라 고전에 나오는 한자 식물명 ‘삼(杉)’의 분류학적 실체”, *특정신문화연구* 38-3.

이은령 외(2013), 『한불사전 연구』, 소명출판.

■ 참고 문헌

- 김광해(1993ㄱ), “국어사의 시대 구분과 국어 어휘사”, 안병희교수회갑기념논문집, 문학과 지성사.
- 김광해(1993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민현식(1995), “국어 어휘사의 시대 구분에 대하여”, *국어학* 25, 국어학회, pp.335-366.
-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어연구회편(1990),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송 민(2013), “漢字語에 대한 어휘사적 조명”, *국어학* 66, 국어학회, pp.3-40.
- 유창돈(1965), “명사사 연구-이조어 어휘사-”, *아세아연구* 1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pp.27-68.
- 유창돈(1971), *어휘사 연구*, 선명문화사.
-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 장윤희(2010), “《國語學》 50년-형태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어학* 57, 국어학회, pp.335-372.
- 최경봉(2010), “《國語學》 50년-의미 연구의 성과와 전망”, *국어학* 57, 국어학회, pp.421-468.
- 홍운표(2014), “국어 어휘사 연구 방법”, *국어사연구* 18호, 국어사학회, pp.7-43.

■ 최근의 어휘사 관련 논저 목록

- 곽충구(2011), “구개음화 규칙의 전파와 어휘 확산 - 조선족 육진방언의 경우”, 국어학 61, 국어학회, pp.3-40.
- 권인한(2012), “廣開土王陵碑文의 국어학적 연구 서설”, 구결연구 28, 구결학회, pp.51-97.
- 권재선(2002), “대구, 경산, 청도의 옛 지명 연구”, 지명학 7, 한국지명학회, pp.47-87.
- 김기혁(2007), “조선-일제 강점기 울릉도 지명의 변화”, 지명학 논문선, pp.415-448.
- 김남경(2010), “조선시대 의서에 나타난 병명에 대하여 - 구급방류를 중심으로 -”, 국어사연구 11, 국어사학회, pp.7-36.
- 김대식(2004), 국어 어휘사의 원리, 보고서.
- 김무림(2007), 「三國史記」복수 음독 지명 자료의 음운사적 과제, 지명학 논문선, 한국지명학회, pp.471-487.
- 김무식(2007), “16,7세기 국어 한자어의 비중과 그 특징 -순천김씨 및 현풍곽씨 한글편지를 대상으로-”, 어문론총 47, 한국문학언어학회.
- 김성남(2006), “근대국어의 인칭대명사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6, 국어사학회, pp.77-100.
- 김수현(2012), “‘저드랑이’의 어휘사”, 언어와정보사회 17,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 김양진(2008), “《고려사(高麗史)》속의 고려어(高麗語) 연구”, 국어학 52, 국어학회, pp.189-219.
- 김양진(2011), “『번역박통사』(上)의 명사류 난해어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3, 국어사학회, pp.239-266.
- 김양진(2012), “‘무단’계 동음이의어의 어휘사”, 한국언어문학 제81집, 한국언어문학회, pp.5-30.
- 김양진(2014), “지명 연구의 국어 어휘사적 의의”, 지명학 21, 지명학회, pp.79-121.
- 김양진(2015ㄱ), “‘착하다’의 어휘사”, 한국언어문학 제93집, 한국언어문학회, pp.33-54.
- 김양진(2015ㄴ), “『高麗史』속의 한자어”,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회, pp.239-285.
- 김양진·단명결(2013), “한·중 한자어 분류사 ‘건’(件)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사연구 17, 국어사학회, pp.337-371.
- 金亮鎭·余彩麗(2014), “《박통사(朴通事)》내(內) 난해(難解) 한어(漢語)의 어휘사적(語彙史的) 연구(研究)”, 중국언어연구 52, 한국중국어학회.
- 김연주(2002ㄱ), “영조의궤의 공장도구 표기 연구”, 언어과학연구 21, 한국언어과학회.
- 김연주(2002ㄴ), “영조의궤의 용기명 표기 해독”, 민족문화논총 2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연주(2004), “영건의 궤영건의궤류의 차자 표기 연구 -표기법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45, 한민족어문학회.
- 김연주(2006), “영건의궤(營建儀軌)류 차자표기 용자의 특성 연구”, 어문학 93, 어문학회, pp.1-35.
- 김연주(2007), “영건의궤류 차자표기의 형태론적 고찰”, 언어과학연구 41, 한국언어과학회.
- 김연주(2011), “규장각 소장 가례 관련 연향의궤(宴享儀軌)의 음식 관련 차자표기 연구”, 인문연구 63, pp.253-290.
- 김연주(2012),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규장각 소장 가례 관련 연향의궤(宴享儀軌)의 음식 관련 차자표기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64, 한국사상문화학회.
- 김연주(2014),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의궤의 복식 관련 어휘 연구 -규장각 소장 嘉禮 관련 의궤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73, 한국사상문화학회.
- 김완진(1998), “고려가요의 物名 : 국어학적 고찰”, 硏新문화연구법21-4, 한국학중앙연구원, pp.3-26.
- 김완진(2002), 사과참외와 참죽나무, 새국어생활 여름호, 국립국어원.
- 김유범(2007), “漢字語 ‘屍體’와 ‘死體’의 歷史的 考察”, 일본근대학연구 18, 한국일본근대학회, pp.15-25.
- 김윤희(2010), “한국 근대 新語연구(1920년~1936년) -일상·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11, 국어사학회, pp.37-67.
- 김은정·강순제(2007), “조선시대 어휘집을 중심으로 본 복식명칭의 동의 관계 분석”, 服飾법제57권 제5호(통권 114호), 한국복식학회.
- 김정태(2007), “傳來地名語와 方言과의 相關性 考察: 音韻現象을 중심으로”, 지명학 논문선, 한국지명학회, pp.539-557.
- 김중빈(2004), “魚譜類에 나타난 19C초의 수산물 어휘연구 - 嶺山魚譜(1814), 蘭湖魚牧志(1820), 物名考(1820) 수록 어휘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12.
- 김철준(2009), 류해서 어휘 사용 양상 연구, 역락.
- 김태곤(2008),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 김현주(2008), “‘또는’의 형성”, 국어사연구 8호, 국어사학회, pp.41-56.

- 남성우(2011), “『瘡疹方撮要』의 同義語 研究”, 국어사연구 13, 국어사학회, pp.7-57.
- 대전대보(2003), ‘채소’ 관련 어휘의 통시적 고찰,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수희(2007ㄱ), “지명어 음운론”, 지명학 13, 지명학회, pp.113-145.
- 도수희(2007ㄴ), “‘삼국유사’의 할주지명에 관한 해석 문제들”, 지명학 논문선, 한국지명학회, pp.207-225.
- 도수희(2009), “‘신도안’(新都內)과 ‘팻거리’(豆磨)에 대하여”, 지명학 15, 한국지명학회, pp.89-107.
- 리득춘(1988), 조선어 어휘사, 연변대학출판사.(1996년, 박이정에서 재간행)
- 박덕유(2007), “仁川地方 地名 由來語의 재검토”, 지명학 논문선, 한국지명학회, pp.521-538.
- 박병철(2004), “漢譯 地名語 ‘硯朴’과 ‘黃石’에 관한 研究”, 국어사연구 4, 국어사학회, pp.71-94.
- 박병철(2008), “朝鮮王朝實錄에 나오는 ‘釋’관련 어휘에 대한 研究”, 국어사연구 8, 국어사학회, pp.71-106.
- 박병철(2012), “『朝鮮王朝實錄』에 쓰인 韓國固有漢字 ‘串’에 관한 研究”, 국어사연구 15, 국어사학회, pp.149-175.
- 박병철(2010), “고유어 ‘소’와 對應되는 漢字‘灌·漸·淵’에 관한 研究”, 국어사연구 11, 국어사학회, pp.169-193.
- 박부자(2010), “‘어미’형과 ‘아비’형 친족어휘의 사적 고찰”, 국어사연구 11, 국어사학회, pp.69-119.
- 박부자(2014), “언간 자료의 어휘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 국어사연구 18, 국어사학회, pp.45-78.
- 박부자(2014), “복식명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정신문화연구』37-44, pp.7-40.
- 배영환(2010),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의 ‘문형 정보’ 기술에 대하여”, 한국사전학 16, 한국사전학회, pp.188-217.
- 백두현(2006), 『음식디미방 주해법 글누림』.
- 백두현(2013), 『주방문·정일당잡지 주해법 글누림』.
- 백두현(2014), “한글조리서: 전통 음식 문화를 담은 우리말의 보물 창고”, 『채국어생활법』 24-1, 국립국어원, pp.19-38.
- 백채원(2012), “부사 ‘같이’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사연구 14, 국어사학회, pp.167-204.
- 서수백(2014), “『字類註釋』의 자석(字釋) 연구 - 사전 미등재어를 대상으로”, 한민족어문학 66, 한민족어문학회, pp.5-30.
- 서은정(1992), 植物名에 대한 造語論의 考察 : 派生法과 合成法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서재극(1980), 중세 국어의 단어족 연구, 계명대출판부.
- 서형국(2010), “국어 관형사의 문법사 연구 시론”,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pp.199-231.
- 서형국(2015), “통시 국어사전의 국어사 정보”,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회, pp.287-323.
- 석주연(2015), “중세 국어 형용사 파생법의 연구 성과와 쟁점”,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회, pp.69-93.
- 성희제(2014), “한국 내륙지명어와 해안지명어의 대비 연구-충북 영동과 충남 태안의 후부지명소를 중심으로”, 地名學 21, 한국지명학회, pp.184-212.
- 손병태(1996), “植物性 鄉藥名 語彙 研究”, 한민족어문학 30, 한민족어문학회.
- 손희하(2014), “호남 지역 지명 연구 성과와 동향”, 지명학 제21집, 한국지명학회, pp.214-268.
- 송기중(2007), “近代 地名에 남은 訓讀 表記”, 지명학논문선, 한국지명학회, pp.335-366.
- 송정근(2013), “19세기 말 어휘 사용의 한 단면”,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4-2,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149-167.
- 송지혜(2014), “‘이상하다’의 가치 의미의 변화 연구”, 국어사연구 18, 국어사학회, pp.329-361.
- 신성철(2010), “옛말 사전의 의의와 과제 - 언간 어휘 사전의 체재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48, pp.89-114.
- 신중진(2012), “『研經齋全集』에 실린 <稻 벼> 穀物名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2, pp.83-118.
- 신중진(2013), “곡물명 수록 어휘 자료집의 계보와 그 어휘 목록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4, pp.67-95.
- 신현철 외(2015), “우리나라 고전에 나오는 한자 식물명 ‘삼(杉)’의 분류학적 실제”, 『정신문화연구』 38-3, pp.235-260.
- 심경호(1997), “조선후기 한자어휘분류집에 관하여”, 『조선후기 한자어휘 검색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pp.35-52.
- 심재기(1993), “어원 연구와 실증의 정신(이기문 지음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1991, 최승렬 지음 『한국어의 어원과 한국인의 사상』, 한샘출판사 1990)”, 창작과비평 79, 창작과비평사, pp.399-407.
- 신종원(2012), “울산 대왕암의 명칭과 유래”, 지명학 18, 한국지명학회, pp.215-243.

- 안예리(2011), “유어의 분석을 통한 어휘사 연구-1930년대 대중종합지 삼천리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209-235.
- 안예리(2015), “사라진 ‘2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유형”, 국어사연구 18, 국어사학회, pp.397-430.
- 안의정(2015), “계량적 접근에 의한 1930-40년대 대중가요 어휘 연구”, 어문논총, 63, 한국언어학회.
- 양인내(2008), 동·식물명 접두파생어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양정호(2015), “중세국어 명사 파생법의 연구 성과와 과제”,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회, pp.7-32.
- 여찬영(1991), “식물 명칭어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7,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여찬영(1997), “우리말 식물 명칭어의 짜임새 연구”, 우리말글 15, 우리말글학회.
- 여찬영(2001), “나무 명칭어 한자 자석 연구 : 떡갈나무류를 중심으로”, ㅅ어문학법74, 한국어문학회.
- 여찬영(2002), “아가위나무류 한자 자석 연구”, ㅅ어문학법77, 한국어문학회.
- 연규동(1996), ㅅ대국어 어휘집 연구법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연규동(2005), “‘힐후다’ 의미 연구”, 한국어 의미학 8, 한국어 의미학회, pp.49-71.
- 오오카와다이스케(2007), “육류 관련 어휘의 통시적 고찰”, 한국언어문화 제33집, 한국언어문화학회, pp.313-332.
- 옥영정(2014), “한글 의궤 문헌의 물명 기록과 가치”, ㅅ정신문화연구법37-4, 한국학중앙연구원.
- 옥영정(2015), “한글 의궤문헌의 주석 유형과 물명 기록연구: 『영년의궤』‘화성성역’의 註釋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20, 국어사학회, pp.253-299.
- 유경민(2010), “분류 어휘집의 ‘사람(人)’ 관련 표제항 연구”, 한국어의미학 32, 한국어의미학회, pp.169-191.
- 유경민(2014), “필사본 고소설 소재 四字 漢字語의 사전 처리를 위한 국어학적 연구 - 『필사본 고어대사전』 등 재항과의 대비를 겸하여 -”, 국어사연구 18, 국어사학회, pp.293-327.
- 유재영(1990), “ㅅ詩經諺解법 물명”, ㅅ어문연구법20, pp.189-205.
- 이강민(2015), “개화기 다언어(多言語) 학습서와 근대 한일 양국어”, 일본학보, 104, 한국일본학회, pp.51-72.
- 이건식(2011),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의 향명(鄉名) 표기(表記) 해독”, 진단학보 113, 진단학회.
- 이광호(2005), “현대 국어 부사 ‘골고루’의 어휘사”, 정신문화연구 28-3, 한국학중앙연구원, pp.291-309.
- 이광호(2010), 곡식류 어휘장의 분류 및 표기법 연구, 어문학 109, 한국어문학회.
- 이기문(1975), 금양잡록의 곡명에 대하여, 동양학 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이기문(1992),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 이기문(1998), 후추와 고추, 새국어생활 8-4, 국립국어원.
- 이덕희(2006ㄱ), “물보와 청관물명고의 사전적 특성”, ㅅ새국어교육법73, pp.256-283.
- 이덕희(2006ㄴ), “물명어휘집의 의미적 체계”, ㅅ우리말연구법19, pp.261-296.
- 이돈주(2007), “한국 지명 한자어의 통계와 분석”, 지명학 논문선, 한국지명학회, pp.285-313.
- 이동석(2002), “『鷄林類事』의 여성 명칭어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이동석(2004), “‘거집’에 대한 어휘사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4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이동석(2007ㄱ), “고어를 이용한 백석 시의 어휘 몇 가지에 대한 검토”, 우리어문연구 29, 우리어문학회.
- 이동석(2007ㄴ), “중세국어 ‘다삼’의 의미와 변천 연구”, 국어사연구 7, 국어사학회, pp.107-131.
- 이동석(2009), “중세국어 ‘우르다’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pp.211-237.
- 이동석(2010), “중세국어 어기 ‘번’의 단어 족 연구”, 한국어학 49, 한국어학회.
- 이동석(2015), “중세국어 부사 파생법의 연구 성과와 과제”,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회 pp.95-153.
- 이동석(2014), “중세국어 ‘거기’ 구성의 의미 기능과 문법화”, 국어사연구 19, 국어사학회, pp.171-201.
- 이미향(2002), “『松澗貳錄』에 나타난 고유어 연구”, ㅅ국어사연구법3, 국어사학회, pp.153-176.
- 이병근(1996), “‘질경이(車前草)’의 어휘사”, ㅅ李基文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법 신구문화사(이병근(2004) 어휘사에 재수록).
- 이병근(1997), “‘해바라기(向日葵)’의 語彙史”, ㅅ한약어문연구법2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이병근(2004) 어휘사에 재수록).
- 이병근(1998), “‘마름’의 어휘사”, ㅅ방언학과 국어학법 태학사(이병근(2004) 어휘사에 재수록).
- 이병근(2004), 어휘사, 태학사.
- 이병기(2010), “『易言』을 前後한 ‘기계’화 ‘제조’의 어휘사”, 국어국문학 156, 국어국문학회, pp.91-114.
- 이병기(2014), “구결 자료의 어휘”, 구결연구 33, 구결학회, pp.23-61.
- 이상보(1995), “ㅅ物名考법해제”, ㅅ고문연구법8, pp.311-315.
- 이상훈(2012), “중세한국어의 ‘현마’”, 국어사연구 15, 국어사학회, pp.295-319.
- 이선영(2004), “ㅅ음식디미방법과 ㅅ주방문법 어휘 연구”, ㅅ어문학법84, 어문학회, pp.123-150.

- 이승녕(1966), “詩歌에 나타난 植物名의 語彙論的 考察”, 『진단학보』29·30합집, 진단학회, 509-518.
- 이승명(2002), “중·근세 국어 부사 어휘의 변천”,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 이영희(2005), “게일(Gale)의 『한영자전』 분석적 연구”, 『국어사연구』 5, 국어사학회, pp.49-76.
원문보기 상세보기
- 이은규(2005), “『경민편(언해)』의 어휘 연구 - 쓰쿠바대본과 규장각본을 중심으로 -”, 『언어과학연구』 35, 한국언어과학회.
- 이은규(2009), “향약명 어휘의 변천 연구”, 『국어교육연구』45, 국어교육학회, pp.475-520.
- 이은규(2010), “구급방류 의서의 병명 번역 양상”, 『한국말글학』27, 한국말글학회, 77-119.
- 이은규(2011), “『구급신방』의 어휘 분석”, 『한국말글학』 28, pp.169-227.
- 이은규(2011), “『백병구급신방』의 어휘 연구”, 『민족문화논총』 4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253-278.
- 이은규(2014), “향약명 어휘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신문화연구』37-4, pp.95-133.
- 이은규(2015), “『본초정화(本草精華)』의 향약명 어휘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57, 국어교육학회, pp.195-222.
- 이지영(2014), “음식명 어휘 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신문화연구』37-4, pp.41-69.
- 이태영(2012), “전라방언 ‘겁나게’의 어휘사”, 『한국언어문학』 제83집, 한국언어학회, pp.69-90.
- 이화숙(2009ㄱ), “『경년진작정례의궤』의 어휘와 번역 양상”, 『국어교육연구』44, 국어교육학회, pp.321-352.
- 이화숙(2009ㄴ), 『조선시대 한글 의궤의 국어학적 연구: 『경년진작정례의궤』와 『경년의궤』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화숙(2011), “한글본 의궤의 어휘적 특징 - 『경년의궤』와 『경년진작정례의궤』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56, 언어과학회, pp.159-178.
- 임지룡(1989), “국어분류어휘집의 체계와 상관성”, 『국어학』19, pp.395-425.
- 장영길(2006), “『언해랍약증치방(諺解臘藥症治方)』의 희귀어휘 연구”,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 장윤희(2015), “중세국어 피·사동사 파생법 연구의 성과와 쟁점”,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회, pp.33-68.
- 장유승(2015), “조선후기 물명서의 편찬동기와 분류체계”, 『한국고전연구』30, pp.167-202.
- 장충덕(2005), 『한자에서 유래한 채소명 몇 고찰』, 『개신어문연구』 23, 개신어문학회.
- 장충덕(2007ㄱ), 『맨드라미』의 어휘사, 『새국어교육』 75, 한국국어교육학회.
- 장충덕(2007ㄴ), 『영경귀』 관련 어휘의 통시적 고찰, 『새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학회.
- 장충덕(2008), 『근대국어 식물 어휘의 조어 유형 고찰』, 『언어학연구』 13, 한국중원언어학회.
- 장충덕(2009), 『꽃 이름의 통시적 고찰』, 『언어학연구』 15, 한국중원언어학회.
- 전경목(2006), 『『속명유취』의 해제』, 『문헌과해석』34, pp.169-179.
- 전재호(1987), 『국어 어휘사 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전재호(1991), 『國語語彙史研究資料篇: 歷代文獻의 語彙 索引』, 홍문각.
- 정승철(2013), “고무래의 방언 분포와 방언형의 분화”, 『국어학』 67, 국어학회, pp.35-61.
- 정승혜(2013), “『東洋文庫 소장 物名括號와 茶山의 물명고 편찬에 관한 일고찰』”, 『한국어학』59, 한국어학회.
- 정승혜(2014), “물명(物名)류 자료의 종합적 고찰”, 『국어사연구』18, 국어사학회, pp.81-115.
- 정양완 외(1997), 『조선 후기 한자어휘 검색사전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은주(2009), “실학과 지식인의 물명에 대한 관심과 『物名類解』”, 『한국실학연구』17, pp.175-208.
- 조강봉(2007), “물줄기의 합류를 소재로 명명된 지명”, 『지명학 논문선』, 한국지명학회, pp.367-413.
- 조규태(2006), “지명의 한자어화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6, 국어사학회, pp.145-163.
- 조정아(2015), “왕실 인간의 물명과 단위명사 연구”, 『경신문화연구』38-2, pp.61-93.
- 조항범(2002), “돼지의 어휘사”, 『한국어 의미학』 11, 한국어 의미학회.
- 조항범(2007), “『地名 語源 辭典』 편찬을 위한 예비적 고찰”, 『지명학 논문선』, 한국지명학회, pp.489-508.
- 조항범(2013), “『눈썹』의 語源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7, 국어사학회, pp.219-242.
- 조항범(2014), “『거지』 관련 어휘의 어원과 의미”, 『우리말글』 61, 우리말글학회, pp.1-34.
- 조항범(2015), “『올케』 관련 어휘의 語源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20, 국어사학회, pp.339-369.
- 조효숙(2003), “여흥민씨묘 출토직물관 17세기 儀軌 직물명칭의 비교연구”, 『한국문화연구』6권 3호.
- 최경봉(2005), “『물명고(物名考)』의 온톨로지와 어휘론적 의의”, 『한국어어휘학』17, pp.21-42.
- 최미현(2005), “유사음으로 개칭된 신라 지명 표기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5, 국어사학회 pp.143-172.
- 한미경(2009), “조선시대 물고기 관계문헌에 대한 연구”, 『트지학연구』44.
- 한성우(2009), 『인천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연구총서 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한성우(2011), 『강화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연구총서 1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한영균(2009), “『文體 現代性 判別의 語彙的 準據와 그 變化 - 1890년대~1930년대 논설문의 한자어 사용 양상』

- 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23, 구결학회, pp.305-342.
- 함희진(2007), “합성동사와 합성형용사의 어휘사적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8, 한국어문학국제 학술포럼, pp.157-192.
- 허재영(2005), “한글 편지에 쓰인 어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글 268, 한글학회, pp.87-121.
- 허재영(2013), “근대어 사전 편찬을 위한 어휘 자료 기초 연구 -1910~1920년대의 어휘 자료를 대상으로-”, 국문학논집 22, pp.471-495.
- 홍윤표(1988), “十八, 九世紀의 한글 類書와 實學: 특히 事物名考類에 대하여”, 東洋學법제18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pp.475-492.
- 홍윤표(2000), “柳僖의 事物名攷, 語문연구법통권108호(28-4), pp.277-304.
- 홍윤표(2005), ‘개나리’의 어원, 새국어소식 81, 국립국어원.
- 홍윤표(2006), ‘진달래’의 어원, 심포 마침표 7-2, 국립국어원.
- 홍윤표(2007), “事物新書법해제”, 國語사연구법, pp.185-190.
- 홍윤표(2010), “事物名集법해제”, 國語사연구법1, pp.279-283.
- 홍윤표(2013), “事物名考법에 대한 고찰”, 國語단학보법118, pp.167-211.
- 홍윤표(2014), “국어 어휘사 연구 방법”, 국어사연구 18, 국어사학회, pp.7-43.
- 홍윤표(2014), “물명의 연구 방법과 과제”, 國語新문화연구법37-4, 한국학중앙연구원.
- 황문환(2007), “事物名고법해제”, 晉州柳氏 石坡柳僖全書법, 한국학중앙연구원.
- 황금연(2010), “‘於’의 훈 ‘늘’과 중세어 ‘늘다’의 의미 해석과 상관성”, 국어사연구 11, 국어사학회, pp.251-276.
- 황선엽(2001), 날로 먹는 상추, 문헌과해석 16, 문헌과해석사.
- 황선엽(2008), 금단의 꽃 양귀비, 문헌과해석 43호(2008년 여름호), 문헌과해석사.
- 황선엽(2009ㄱ), 명아주의 어휘사, 국어학 55, 국어학회.
- 황선엽(2009ㄴ), 강아지풀의 어휘사,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 황선엽(2010ㄱ), 고추와 후추, 한국어학회 여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황선엽(2010ㄴ), 쓸모 있는 가죽나무, 새로운 국어사 연구론, 경진.
- 황선엽(2014), “식물명 연구의 현황과 과제”, 國語新문화연구법37-4, 한국학중앙연구원.

■ 1971년-2003년까지 어휘사 연구논저(국립국어원 제공 연구 목록에서 추출)

<단행본>

- 강길운(1999), 한국어계통론 하권(어원어휘비교편), 형설출판사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2000), 고대국어의 어휘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국립국어연구원(2001), 20세기 전반기 어휘조사(1)-시 작품을 중심으로-,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02), 20세기 전반기 어휘조사(2),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3), 현진건의 20세기 전반기 단편소설 어휘 조사, 연구 사업 보고서(담당자 : 양명희)
- 김광해(1998),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대식(2001), 국어 어휘사의 원리, 보고서
- 김동소(2000), 朝鮮各景언해법어휘 색인, 대구가톨릭대 출판부
- 김동소(1990), 석보상절 어휘 색인, 대구가톨릭대
- 김병운(2000), 리조후반기 조선어 어휘변화에 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정대(1992), 경남방언의 언어지리적 성격-어법 어휘면을 중심으로 교육이론과 실천-, 경남대 교육문제연구소
- 김종택(1994), 국어 어휘론, 탑출판사
- 김종훈(2001), 국어어휘론연구, 한글터
- 김태곤(2002), 중세국어 다의어 어휘변천, 박이정
- 김태곤(1994), 중세국어 다의어와 어휘변천, 박이정
- 박병철(1997), 한국어 혼석 어휘 연구, 이회문화사
- 박영섭(1994),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 1(독립신문 편), 서광학술자료사
- 박영섭(1996),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 2(신소설 편), 서광학술자료사
- 박영섭(1997),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 3(교과서.신문편), 박이정
- 박영섭(2000),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 4(잡지편), 박이정

박영섭(1994), 개화기 국어 어휘 자료집 5(외래어편), 박이정
 박영섭(1995), 국어 한자어의 기원적 계보 연구-현용 한자어를 중심으로-, 솔터
 박영섭(1992), 국어한자어휘론, 박이정
 박영섭(2000), 어휘를 찾아서 개화기국어 어휘자료집, 솔터
 박영섭(1998), 초간본 두시언해 한자 대역어 연구, 박이정
 박영섭 편(1998), 초간본 두시언해 어휘자료집, 박이정
 박홍길(1997), 어휘 변화의 원인별 연구, 한국문화사
 박홍길(1993), 우리말 어휘 변천 연구, 세종출판사
 배대온(1997), 이두 어휘론, 형설출판사
 서상규(1997), 노걸대언해 어휘색인, 박이정
 서상규(1997), 몽어노걸대 어휘색인, 박이정
 서상규(1997), 번역노걸대 어휘색인, 박이정
 서상규(1997), 중간노걸대언해 어휘색인, 박이정
 서상규(1997), 청어노걸대 어휘색인, 박이정
 서상규(2000), 평안감영중간 노걸대언해 어휘색인, 박이정
 손용주(1999), 국어어휘론 연구방법, 문창사
 심재기(1998), 국어 어휘론 신강, 태학사
 심재기 편(1996),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이유기(1998), 염불보권문의 어휘, 동악어문학회
 임무출 역음(1997), 염상섭의 만세전.삼대 어휘 해석, 문창사
 임무출 역음(2001), 蔡萬植 어휘사전, 토담
 조남호(2001), 두시언해 어휘 색인 (CD 포함), 태학사
 조남호(2002), 두시언해 한자어 연구, 태학사
 조의성(1996), 월인석보 어휘색인, 박이정
 조항범(2003), 국어 친족어휘의 통시적 연구, 태학사
 홍사만(1994), 국어 어휘의미의 사적변천, 한국문화사

<학위논문>

곽재용(2001), 유해류 역학서의 '신체'부 어휘 연구, 경남대 대학원, 박사
 광정애(2000), '동문 유해'의 한국어 어휘연구, 대구가톨릭대, 석사
 권면주(1994), 국어 어휘군의 계통적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고유어의 한자어화를 중심으로-, 원광대 대학원, 박사
 권면주(1985), 훈몽자회 동훈자석 연구-하주를 중심으로-, 원광대 대학원, 석사
 金光祚(2000), 개화기의 어휘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김남경(2003), ㄷ-급간이방(언해)뻘 서지와 어휘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 대학원, 석사
 김성혜(1993), ㄷ동문유해뻘 ㄷ몽어유해뻘 국어어휘 비교연구, 덕성여대 대학원, 석사
 金娉珠(1994), <淸語老乞大> 어휘연구, 曉星女大, 석사
 김연주(1996), 영건외래류의 차자 표기 어휘 연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박사
 김주보(2003), 국어 어휘 소멸 현상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
 金炯哲(1988), 19세기말 국어의 문체.구문.어휘의 연구, 慶北大 大學院, 박사
 大川大輔(2003), '채소' 관련 어휘의 통시적 고찰, 충북대 대학원, 석사
 박상권(1999), <오문전비언해>의 어휘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 국어교, 석사
 박정순(1991), 국어의 비통사적 복합동사에 대한 어휘사적 연구서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
 손평효(1994), 「소학언해」의 어휘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손희하(2002), 새김 어휘 연구, 전남대, 박사
 신은수(2002), '똥-'의 어휘 의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
 오만(2003), 교토대학본「교린수지」의 어휘 연구, 경상대 대학원, 박사
 유형천(2003), 전남지역의 길쌈 어휘 연구, 순천대 대학원, 석사
 이선영(2002), <<내훈>>의 표기법과 어휘 연구, 대구가톨릭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
 이진호(1999), 개화기 국어 어휘 연구 - 신문 말뭉치의 고빈도 어휘 분석을 중심으로 -,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
 이철용(1993), 의약서 어휘의 국어사적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

정도세(1992), 개화기 교과서의 어휘연구-8.90년대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남대 대학원, 석사
 정주호(1991), 「임진장초」를 중심으로 한 전후기 이두 어휘 대비 연구, 한양대, 석사
 최동우(1995), 15세기 국어 어휘의 의미 구조 연구, 경남대, 박사
 李丁熙(1993), 訓蒙字會와 千字文 字釋 比較 研究, 成均館大, 석사
 추명호(1999), 중세국어 어휘지도 연구-고등학교 국어 및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15-16세기 글을 중심으로-,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
 황용주(1972), 쌍형어의 어휘사적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

<학술지 논문>

강근보(1975), 제주도 방언 어휘고 (1), 국문학보 4,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강근보(1993), 제주도 방언 어휘고 (2), 국문학보 7,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강영봉(1992), 제주도 방언의 몇 어휘, 제주문화연구, 제주문화
 강영봉(1986), 제주도 방언의 몽고어 차용어들(1), 淸원용준박사화갑기념 제주도언어민속논총법 제주문화
 강영봉(1995), 제주도 방언의 어명 연구, 논문집 23, 제주대
 강영봉(1991), 제주도 방언의 어휘론적 연구, 탐라문화 15,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강영봉(1986), 제주도 방언의 인체어, 경기어문학 9,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강영봉(1983), 제주도방언의 식물이름연구, 탐라문화 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강영봉(1996), 제주도방언의 후음, 탐라문화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강영봉(2003), 제주시 이름과 마을의 이름(1), 제주시 39, 제주시
 강영봉(2000), 濟州語 '비바리' 語彙에 대하여, 영주어문 5, 영주어문학회(제주)
 강영봉(1999), 제주어 몇 어휘에 대하여, 영주어문 2, 영주어문학회
 강영봉(2001), 제주어와 중세몽골어의 비교연구, 탐라문화 20,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강영봉(1999), 제주어의 주거생활 어휘, 영주어문 3, 영주어문학회
 강현규(2000), 반계수록의 「언어」에 나타난 중국어 어휘의 국어 어휘화 과정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8, 인하국어교육학회
 고정의(1992), 淸채물보법외 한글어휘에 대한 일고찰, 인문논총 19,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광재용(1992), 방언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몇 어휘-신체어를 중심으로-, 嶺南語文學 22, 嶺南語文學會
 광재용(1993), 유해류 계통의 분류 어휘집에 나타난 신체어(Ⅰ), 경남어문논집 5,
 광재용(1993), 유해류 계통의 분류어휘집에 나타난 신체어(Ⅱ), 영남어문학 24, 영남어문학회
 광재용(1994), 유해류 계통의 분류어휘집에 나타난 신체어(Ⅲ), 경남어문논집 6,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광재용(1995), 유해류 계통의 분류어휘집에 나타난 신체어(Ⅳ), 어문학 55, 한국어문학회
 광재용(1991), 유해류 역학서의 '신체'부 어휘 연구, 한글 228, 한글학회
 광재용(1997), 중세국어의 신체어, 경남어문논집 4,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광재용(1995), 진주시 수곡면의 땅이름에 대하여, 진주문화 14, 진주문화권연구소
 광충구(1998), 어휘의 의미 분화와 명칭의 분화-「지령이」와 「회충」의 단어지리학-, 淸원일어학논총법남학 이종철선생 회갑기념논총), 국학자료원
 광충구(2001), 육진 방언의 어휘, 淸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법심재기 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郭忠求(1997), 조선 후기 문헌의 함북방언 어휘, 淸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법이광호 교수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권면주(1999), 고유어 소실에 의한 어휘 고찰, 한국언어문학 39,
 권면주(1995), 어휘 소실의 일 고찰, 한국언어문집 43,
 권병로(1986), 고군산군도의 어휘 분화에 대한 일 고찰, 淸원형석박사회갑기념논총법
 기세관(2001), 나로도 방언의 어휘 자료, 남도문화연구 2, 순천대
 김경현(1984), 서양인의 기록에 나타나는 17세기 국어 어휘에 관하여, 人文科學 31,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김계근(1984), 북한지역의 방언④ : 평안도 방언의 어휘, 통일 34, 민족통일중앙협의회
 김계근(1993), 북한지역의 방언⑤ : 황해도 방언 어휘, 통일 35, 민족통일중앙협의회
 김공철(1989), 원시한일공통어휘연구-문헌어의 분석-, 일본학보 30,
 김공철(1992), 한·일어의 공통 어휘연구, 한글 203, 한글학회
 김공철(1993), 한·일 공통 어휘의 새로운 탐색, 중앙대 일본연구 7, 중앙대
 김광해(1997), 국어사의 시대 구분과 국어 어휘사, 淸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법안병희선생 회갑기념논총), 문학과지성사

- 김광해(1993), 국어어휘론의 지평, 말, 연세대 연세어학원
- 김광해(1998), 어휘론, 국어학 연감 1993, 국립국어연구원
- 김광해(1992), 어휘론·의미론·사전편찬학, 국어학 연감 1998, 국립국어연구원
- 김무봉(2000), 고어 사전 미수록 어휘에 대하여, 『정하김형수선생화갑기념논총』 형설출판사
- 김문오(2003), 『동의보감 탕액편법』소재 고유어 어휘의 조어법 연구, 언어과학연구 18, 언어과학회
- 김문오(2003), 경북 동해안 방언의 어휘적 특징(1), 동해안 지역의 방언과 구비문학 연구, 영남대 출판부
- 김문오·류시종(1981), [울릉도, 독도, 동해안 어민의 생존전략과 적응] 경북 동해안 방언의 어휘적 특성(1)-울진, 영덕, 포항, 경주 지역의 방언 어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총서 28, 영남대 민족문화연구
- 김문웅(1994), 가사(歌辭)어휘의 형태론적 고찰-송강가사를 中心으로-, 國語教育論志 8, 大邱敎大 國語科
- 김문창(1994), 『임꺽정』의 어휘세계(상), 말글생활 1, 말글사
- 김문창(2001), 『임꺽정』의 어휘세계(하), 말글생활 2, 말글사
- 김문창(2001), 임무출의 <김유정의 어휘사전>, 한글사랑 16, 한글재단
- 김미형(1999), 국어 대명사의 어휘사, 한국어 의미학 9, 한국어의미학회
- 김병균(2000), 『화음방언자의해법』 어휘 연구, 어문연구 2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병균(1989), 『화음방언자의해법』 어휘 연구, 어문연구 28-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상억(1999), 고려 속가어 어휘에 대하여, 어문논총 6.7,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상태(1995), 釋譜詳節 第六卷의 文體 研究-어휘의 계량을 중심으로, 語文論叢 14, 東西語文學會
- 김성렬(2000), 신소설 어휘 연구, 인문논총 6, 아주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승호(2000), 경상도 방언의 어휘 조사(1), 부산한글 19, 한글학회 부산지회
- 김승호(1995), 경상도 방언의 어휘 조사(2), 동남어문논집 11, 동남어문학회
- 김승호(1993), 계림유사의 『鴛鴦』 烏子蓋/烏子蓋뻬에 대하여, 어문학교육 17, 한국어문교육학회
- 김승호(1995), 어휘사 기술과 언어의 화석, 국어국문학 12, 동아대 국어국문학과
- 김영돈(1990), 해녀 집단 특수 어휘에 관한 연구, 『국어사회언어학논총』 국학자료원
- 김영돈(2003), 해녀집단의 특수어휘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21
- 김영만(2003), 국어사전과 어원·어휘사 연구, 한국사전학 2, 한국사전학회
- 김영만(1985), 국어사전의 한자어 처리에 대하여-일부 사전 편찬인의 잘못된 어원 의식-, 한자한문교육 10, 한국한자한문교육학
- 김영배(1985), Corean primer의 어휘(상): 한자어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8, 전남대
- 김영배(1987), Corean primer의 어휘(하): 고유어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4.5, 충남대
- 김영배(1977), 평안방언의 몇몇 어휘에 대하여, 논문집 24, 부산대
- 김영신(1976), 경남 방언의 어휘, 한글 159, 한글학회
- 김영신(1983), 구급방 언해의 어휘 고찰, 수련어문론집 4, 부산여대국어교육과
- 김영신(1982), 석보상절의 어휘 연구, 부산여대 논문집 15, 부산여대
- 김영일(1983), [農事直說]의 우리말 어휘표기, 부산교대신문 90, 부산교대
- 김영일(1999), 국어와 터키어의 어휘 비교를 위한 기초연구(I), 논문집 19, 부산교육대
- 김영일(2000), 소설 「임꺽정」에 나타나는 어휘의 특징, 어문학 67, 한국어문학회
- 김영일(1994), 튀르크어와 한국어의 어휘 비교 고찰, 한국학논집 27,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 김영일 역(1992), 알타이제어의 어휘 비교, 어문학교육 16, 한국어문교육학회
- 김영태(2001), 방언 어휘론, 『國語學研究百年史』 金仁수 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3, 一潮閣
- 김영태(1995), 어휘 연구의 현황과 전망, 『경남 방언 연구』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 김영태(2000), 창원지역어 희귀 어휘 연구, 경남지역연구, 경남대
- 김영태(2002), 창원지역어 희귀 어휘 연구(Ⅲ), 인문논총 13,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영환(1972), 고대와 중세의 어휘변천과정을 통하여 본 조선어의 단일성 문제,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 김용석(1995), 삼천포·승주·여천 지방의 어휘, 연세어문학 제3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웅배(2)201, 고금도 방언의 어휘자료, 도서문화 13,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 김웅배(1997), 금강도 방언의 어휘자료, 도서문화 17,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 김웅배(1991), 노화도 방언의 어휘 자료, 도서문화 15,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 김웅배(1982), 보길도 방언의 어휘 자료 (1), 도서문화 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 김웅배(1993), 서동요解讀의 한 考察, 木浦大學 論文集 4, 목포대
- 김웅배(1996), 소안도 방언의 어휘 자료, 도서문화 1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 김용배(1986), 신지도 방언의 어휘자료, 도서문화 1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 김용배(1983), 안좌도 방언의 어휘자료, 도서문화 4,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김용배(2)201, 巖泰島의 方言語彙, 도서문화 1,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김용배(1998), 압해도 방언의 어휘자료, 도서문화 1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 김용배(1998), 완도 방언의 어휘자료, 도서문화 16,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 김용배(1997), 완도 체도 방언의 어휘자료, 도서문화 16-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 김용배(1984), 유리왕대 '兜率歌'의 '兜率'攷,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성재 이돈주 선생 화갑기념, 태학사
- 김용배(1994), 조도 방언의 어휘자료, 도서문화 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김용배(1984), 조도방언의 어휘자료, 도서문화 12,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 김용배(1987), 조도방언의 특수어휘에 대한 고찰, 도서문화 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김용배(1991), 지도방언의 어휘자료, 도서문화 5, 목포대
- 김용배(2001), 청산도 방언의 어휘 자료(I, II), 도서문화 9, 목포대
- 김용배(2001), 탐진담 수물지역 방언의 어휘자료, 탐진담 수물지역의 역사와 문화, 목포대 박물관.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 김용배(1992), 탐진담 수물지역 지명자료, 탐진담 수물지역의 역사와 문화, 목포대 박물관.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 김용배(1985), 평일도 방언의 어휘 자료(II), 島嶼文化 10,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 김용배(1988), 하의.장산 방언의 어휘자료, 도서문화 3,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김용배(2000), 흑산도 방언의 어휘자료, 도서문화 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김의수(1998), 대우 표시 어휘의 史的인 연구, 한국어학 11, 한국어학회
- 金日(2000), 조선한문어휘에 대한 고찰, 조선어학논문집(중국조선어학회 편), 요녕민족출판사
- 金日(1990), 훈몽자회의 새김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46-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정우(2000), 15세기 불경 언해의 문체와 어휘, 팔리 대장경 우리말 옮김(논문모음) 1, 경전연구소(송광사)
- 김종택(1990), 고대국어 어휘형태의 내적 재구, 국어교육연구 32, 국어교육학회
- 김종택(1991), 국어 낱자 해임말(日稱語)의 조어 분석, 『틀메서재극박사화갑기념논문집』계명대 출판부
- 김종택(2000), 천자문, 유합, 훈몽자회의 어휘 분류 체계 대비, 어문학 52, 한국어문학회
- 김종학(1992), 고대 지명어휘 '忽'에 대하여, 지명학 3, 한국지명학회
- 김종학(1987), 향악 악재명 어휘의 변천 고, 어문논집 22, 중앙대 국어국문학회
- 김종훈(1997), 開化期 教科書語彙小考, 한실 이상보박사 회갑기념논총, 형설출판사
- 김종훈(1974), 개화기 국어어휘 소고, 어문논집 25, 중앙어문학회
- 김종훈(1989), 古代日本語에 차용된 韓國語의 語彙論的 考察, 論文集 19, 中央大學校
- 김종훈(1988), 나려 이두(羅麗吏讀)에 나타난 특수 어휘고, 제효 이용주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도서출판 한샘
- 김종훈(1995), 이두 어휘고, 정산 유목상박사 화갑기념논총,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연구원
- 김주보(1997), 국어 어휘소멸의 원인에 대한 연구(其二), 『국어국문학논총』법기국 강신항박사 정년퇴임기념, 태학사
- 김주보(1991), 동음충돌(homonimic clash)로 인한 어휘소멸 현상에 대한 연구, 성균어문연구 32,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 김주보(1977), 훈민정음 해례에 나타난 국어 어휘고, 반교어문연구 3,
- 김지용(1998), 국어를 발전시킨 선인들의 업적과 어휘 유산, 성봉 김성배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 김지형(1993), '새[鳥]' 명칭 어휘의 명명 원리-'새[鳥]' 명칭 어휘의 단어족 설정을 위한 시론-, 어원연구 1, 한국어원학회
- 김지형(1999), 語源研究에서의 單語族 設定에 對하여-'물(水)' 관련 어휘들의 單語族 設定을 中心으로-, 『韓國語國文學研究』의 새로운 摸索법 集文堂
- 김진규(1994), 『훈몽자회』법어휘의 국어학적 고찰-자모.목록.사어를 중심으로-, 한한샘주시경연구 12, 한글학회
- 김진규(1995), 『훈몽자회』법하권의 목록과 사어 고찰, 한글 224, 한글학회
- 김철남(1996), 국어 어휘화의 개념과 유형, 부산한글 14, 한글학회 부산지회
- 김철남(1988), 국어의 화석과 어휘화, 『국어학 연구의 오솔길』법우전 김형주 선생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김태곤(1993), 15세기 국어 다의어(多義語) 일고, 정산 유목상박사 화갑기념논총,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연구원
- 김태곤(1992), 17세기 국어의 다의어 연구(2), 『양순필박사화갑기념논총』법 학문사
- 金泰根(1995), 17世紀 國語의 多義語 研究(I), 논문집 35, 제주대
- 김태곤(2003), 18세기 국어의 다의어 연구, 국문학보 13,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 김태곤(2003), 「正俗諺解」에 나타난 어휘 변천 연구, 영주어문 6, 영주어문학회

- 김태곤(1981), 「정속언해」에 나타난 어휘변천 연구, 영주어문, 영주어문학
- 김태곤(1995), 《소학언해》의 국어학적 연구, 어문연구 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태곤(1994), 국어 어휘 변천 연구(2), 어문연구 8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태곤(1996), 국어 어휘의 변천 연구(1), 백록어문 10, 제주대 국어교육학회
- 김태곤(2000), 국어 어휘의 변천 연구(3), 백록어문 12, 백록어문학회
- 김태곤(1998), 국어 어휘의 변천 연구(6), 언어학연구, 제주언어학회
- 김태곤(1999), 국어 어휘의 변천연구(4), 백록어문 14, 백록어문학회
- 김태곤(1983), 국어 어휘의 변천연구(5), 백록어문 15, 백록어문학회
- 김태곤(1989), 朝鮮時代 親戚名稱考, 語文論集 17, 중앙대
- 김태곤(1995), 後期 中世國語의 多義語 一考, 백록어문 6,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 김태자(1995), 楮보상절법에 나타나는 어휘를 자료로 한 이조어의 특징(인문과학연구), 인문과학연구 1, 전주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택구(1989), 경남사천시 서포지역 방언과 중앙어와의 비교고찰 -어휘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 안양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해정(1992), 전북 위도 방언의 음운과 어휘, 인문논총 2, 전주우석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형철(1999), 楮경옥낭화전법 어휘 연구, 加羅文化 9, 慶南大 加羅文化研究所
- 김형철(1990), 개화기 국어 어휘, 楮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4법 국립국어연구원
- 김형철(1994), 개화기 문헌의 어휘 연구, 경남어문 23, 경남어문학회
- 김형철(1997), 개화기 신문의 어휘 연구, 어문논집 5, 경남대 국어교육과
- 김형철(1998), 개화기 어휘, 한글사랑 5, 한글사
- 김형철(1992), 개화기 유의어 연구, 楮언학과 국어학법정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 김형철(1997), 어휘론 연구사, 楮국어국문학 40년법 집문당
- 김혜숙(1986), 楮미타경언해법 어휘, 문법적 고찰, 동악어문논집 32, 동악어문학회
- 김희진(1989), 「계축일기」의 어휘시고(2), 봉죽헌 박봉배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봉죽헌 박봉배박사 회갑기념논문 집간행위원회
- 김희진(1988), 楮훈몽자회법 어휘교육에 관한 고찰(Ⅲ), 어문연구 1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희진(1990), 《훈몽자회》의 어휘 교육에 관한 고찰 (1), 어문연구 16-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김희진(1991), 《훈몽자회》의 어휘적 연구, 난정 남광우박사고회기념,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나경수 외(2003), 전남지역의 민속어휘자료 I, 한국민속학 24, 한국민속학회
- 남경란(2003), [울릉도, 독도, 동해안 어민의 생존전략과 적응] 경북 동해안 방언의 어휘적 특징(2)-울릉군 지역의 방언 어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총서 28, 영남대 민족문화연구
- 남경란(1997), 중세한국어 원시말뭉치를 이용한 한자와 변역어휘 용례의 전산화,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남성우(2001), 국어 어휘 의미의 역사적 변화, 한글사랑 5, 한글사
- 남성우(2001), 국어 어휘의 변화, 언어과학연구 20, 언어과학회
- 남성우(1998), 楮釋譜詳節법卷 二十四와 楮印釋譜법卷 二十五의 同義語 研究, 한국어문학연구 14,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 남성우(1997), 楮보상절법 권이십일과 楮법화경언해법 동의어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9,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 남성우(1996), 楮인석보법권11과 楮법화경언해법 동의어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8, 한국외대 한국어교육과
- 남성우(1998), 楮인석보법권13과 楮법화경 언해법 동의어 연구, 구결연구 1, 구결학회
- 남성우(1972), 楮인석보법권십이22와 楮법화경언해법 동의어 연구, 楮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법심재기 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남성우(1995), 國語類義考, 國文學論集 5·6호 (합본호), 단국대
- 남성우(1982), 국어의 어휘 변화, 국어생활 22, 국어연구소
- 남성우(1980), 國語의 意味變化 研究, 언어와 언어학 8,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 남성우(1981), 近代國語의 多義, 외대논문집 13, 한국외국어대
- 남성우(1998), 近代國語의 類義構造, 외대논문집 14, 한국외국어대
- 노명희(1973), 자연계 어휘의 변천사, 楮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법심재기 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류구상(2002), 어휘면으로 본 춘향전, 어문논집 14·15호 (합본호), 고려대국문과
- 리득춘(1994), 어휘사의 측면으로 본 우리 말 어휘발달의 몇 개 문제, 중국조선어문 119, 동북3성조선어문사업 협의소조 기관지

- 문금현(1998), 『雅言覺非』에 대한 어휘론적 고찰, 『국어학연구』 6(남천 박갑수선생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문금현(2001), 신체 어휘의 변천사,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6(심재기 선생 회갑기념논문총), 태학사
- 문병우(1990), 땅이름에 관한 연구, 『경상어문』 7, 경상대 국문과 경상어문학회
- 문부영(1982), 국어 친족어휘 연구, 『남정 남광우박사고회기념,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문효근(2001), 영동·영서 방언의 어휘적 비교 연구, 『인문과학』 46.47, 연세대학교 출판부
- 미즈노 슌페이(2002), 한국어 어휘의 어종(語種) 구성 변화에 관한 소고(小考)-『釋譜詳節』 6 원문과 역주문의 어종 구성을 중심으로-, 『계량언어학』 1, 계량언어학 집담
- 민현식(1986), 개화기 국어 어휘 연구 방법의 재검토, 『동양학』 3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민현식(1985), 개화기 국어의 어휘 (1), 『국어학 신연구』, 약천 김민수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민현식(1986), 개화기 국어의 어휘(2), 『국어교육』 5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민현식(1986), 개화기 국어의 어휘(3), 『국어교육』 5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민현식(1995), 개화기 국어의 어휘에 대하여, 『국어생활』 4, 국어연구소
- 민현식(1998), 국어 어휘사의 시대 구분에 대하여, 『국어학』 25, 국어학회
- 민현식(1994), 시간어의 어휘사,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6(심재기 선생 회갑기념논문총), 태학사
- 민현식(1979), 어휘사의 영역과 시대 구분, 『제21회 공동토론회 발표요지』, 국어학회
- 박갑수(1986), 이두 부사어휘 고, 『사대논총』 제19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박병철(1986), 『新增類書』의 漢字語 字釋研究, 『동천 조건상선생 고회기념논문총』, 간행위원회
- 박병철(1994), 『千字文』訓의 語彙變遷 研究, 『국어교육』 55.5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박병철(1995), '삼'계 지명에 관한 일 고찰, 『투리말 연구의 샘터』 6(연산 도수희선생 화갑기념논문총), 간행위원회
- 박병철(2000), '촌'계 지명의 어휘론적 고찰-단양 지역 지명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7, 인하대 사범대
- 박병철(1995), 『백련초해법동경대본』에 출현하는 한자 자료와 체언류 한자의 의미적 특징에 관한 연구, 『문강 송정현 선생 화갑기념논문총』 6(간행위원회)
- 박병철(1995), 『백련초해법자석』 어휘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국어사와 차자표기』 6(소곡 남풍현선생 회갑기념논문총), 태학사
- 박병철(1991), 『백련초해법자석』과 문석의 대비적 연구(1)-자석과 문석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12, 개신어문연구회
- 박병철(1997), 『丹陽地域의 地名研究』, 『湖西文化論叢』 6, 西原大 湖西文化研究所
- 박병철(1996), 동사류어 훈에 관한 통시적 고찰,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 6(성재 이돈주 선생 화갑기념), 태학사
- 박병철(2003), 복수 지명어의 대응 양상 연구, 『호서문화논총』 9.10, 서원대 호서문화연구소
- 박병철(1990), 제천 지역 고유지명어에 대응하는 한자지명어 연구, 『어문연구』 3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박병철(1986), 중세훈의 소멸과 변천에 대한 연구, 『남정 남광우박사고회기념,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박병철(1997), 천자문 훈의 어휘 변천 연구, 『국어교육』 5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박병철(1997), 청주지역 지명 속에 남아 있는 고어휘에 관하여(1)-질구지, 쇠내, 구루물, 짐대마루를 중심으로-, 『도당조항근선생화갑기념논문총』 6(보고사)
- 박병철(1992), 청주지역 지명 속에 남아 있는 고어휘에 관하여(2)-수릅재/수리재/모리재, 미루봉/고물개봉, 못뒤를 중심으로-, 『호서문화논총』 12, 서원대 호서문화연구소
- 박상규(1989), 제주 무가와 민요에 나타난 어휘의 성격고, 『현용준박사화갑기념 제주도언어민속논문총』 6(제주문화)
- 박상규(1989), 제주도지명에 나타난 한 어학적 양태고찰, 『제주도』 87, 제주도청
- 박상규(1986), 제주도지명에 나타난 한 어학적 요소에 관한 소고, 『제주도연구』 6, 제주도연구회
- 박상규(1998), 제주도지방에 나타난 알타이 어휘요소고-특히 지명과 마필명에 대하여-, 『제주도연구』 3, 제주도연구회
- 박성종(1999), 고대 국어 어휘,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편-법 국립국어연구원
- 박성종(1995), 구역인왕경 구결의 어휘, 『구결연구』 5, 구결학회
- 박성종(1996), 삼척시 미로면 방언 어휘, 『삼척시 미로 지역의 기층문화법 삼척문화원』
- 박성종(1997), 정선군 정선읍 및 신동읍 방언 어휘, 『한국상류 지역(정선읍·신동읍)의 기층문화』, 정선군청
- 박성종(1994), 차자표기의 어휘론, 『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 박성희(1995), 김유정 소설의 어휘 연구-농촌 배경 작품을 중심으로-, 『경남어문』 27,
- 박영섭(1994), 『開化期 新聞』에 나타난 語彙考(1), 『한국학연구소』 3, 강남대
- 박영섭(1996), 『開化期 新聞』에 나타난 語彙考(2), 『논문집』 25, 강남대
- 박영섭(1997), 개화기 잡지(소년·청춘)에 나타난 어휘연구(1), 『강남대 논문집』 27, 강남대
- 박영섭(1990), 개화기 잡지(소년·청춘)에 나타난 어휘연구(3), 『강남대 논문집』 28, 강남대

- 박영섭(1994), 국어 한자어의 기원적 계보 연구, 난정 남광우박사고희기념,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박영섭(1985), 獨立新聞에 나타난 語彙考, 한국학연구소 2, 강남대
- 박영섭(1984), 佛經에서 流入된 漢字語彙 研究, 인천전문대 논문집 5, 인천전문대
- 박영섭(1989), 俗談語攷, 인천전문대 논문집 4, 인천전문대
- 박영섭(1990), 新小說에 나타난 語彙攷(2)-國有語와 漢字語를 중심으로-, 강남대논문 19, 강남대
- 박영섭(1991), 新小說에 나타난 語彙攷(3)-新用語와 차용어를 중심으로-, 민제교수 회갑논문집,
- 박영섭(1991), 신소설에 나타난 어휘고(4), 강남대 논문집 20, 강남대
- 박영섭(1992), 新小說에 나타난 語彙攷(5)-사라진 漢字語를 中心으로-, 玄山金種墳博士華甲記念論文集 集文堂
- 박영섭(1992), 신소설에 나타난 語彙考(下), 논문집 23, 강남대
- 박영섭(1990), 신소설에 나타난 語彙分析考(上), 논문집 22, 강남대
- 박영섭(1998), 千字文 索引權-石峰 千字文을 중심으로-, 김상선교수 회갑기념논문집,
- 박영섭(1999), 초간본 두시연해에 나타난 한자 대역어 연구(1), 강남대 논문집 32, 강남대
- 박영섭(1988), 초간본 두시연해에 나타난 한자대역어 연구 (3), 인문과학논문집 7,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박영섭(1986), 韓國 漢字語에 대한 小考, 강남대논문 18,
- 박영섭(1992), 漢字 俗談語에 대한 小考, 성대문학 24, 성대
- 朴英燮(1994), 漢字 語彙 比較 分析 研究, 江南語大 7, 江南大 國語國文學科
- 박영섭(1992), 한자어 비교분석연구(II), 강남어문 8, 강남대 국어국문학과
- 박영섭(1988), 漢字語彙 比較 分析 研究(上), 강남어문 7, 강남대
- 박영섭(1976), 현대국어에 있어서 백화계 한자어에 대한 소고, 정산 유목상박사 화갑기념논총, 중앙대학교 중앙 문화연구원
- 박은용(1988), 계림유사의 <호알감>에 대하여, 국문학연구 제5호,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실
- 박은용(1971), 삼국유사에 수록된 고유어의 이표기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4,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 소
- 박은용(1989), 율놀이 의 '걸'에 대하여, 藏庵 池憲英 華甲記念論叢, 간행위원회
- 박은용(1990), 한한청문감(韓漢淸文鑑)어휘 색인, 국문학연구 12,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실
- 박은용(1998), 한한청문감(韓漢淸文鑑)어휘 색인, 국문학연구 13, 효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실
- 박재양(2001), 초목 기원 어휘의 어원-음운대응을 중심으로-, 어원연구 1, 한국어원학회
- 박재연(1998), 중국 번역소설과 역학서에 나타난 어휘에 대하여-낙선재 번역소설 필사본에 나타난 차용어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13,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
- 박종갑(1998), 울릉도 방언의 어휘론적 연구-북면 천부리의 언어를 중심으로-, 울릉도, 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 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박종갑(1999), 울릉도 지역의 방언에 대한 실태 조사(어휘편 I), 한민족어문학 33, 한민족어문학회
- 박종갑(1989), 울릉도 지역의 방언에 대한 실태조사(어휘편 II), 한민족어문학 34,
- 박지흥(1991), 부산방언의 성립과 그 어휘, 부산한글 8, 부산 한글학회
- 박태권(1982), '사성통해'(四聲通解) 속의 우리말 어휘, 東方學志 71.72, 연세대 국학연구원
- 박태남(2002), 송강, 노계의 시조 어휘고찰, 백영 정병옥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박홍길(1996), 국어 어휘 변천 자료 목록-소리 바뀜을 중심으로-, 낱말의 이해, 한국문화사
- 박홍길(1989), 국어 어휘사 연구 자료 목록, 동의어문논집 9, 동의대 국어국문학과
- 배대운(1977), 시조에 쓰인 어휘조사, 국어교육 29:30호 (합본호), 국국어교육학회
- 배대운(1988), 이두 명사 어휘고, 배달말 14, 배달말학회
- 배대운(1992), 이두 부사 어휘고, 배달말 13, 배달말학회
- 배대운(1982), 이두 용언 [승(是)-]계 어휘에 대하여, 배달말 17, 배달말학회
- 배대운(1998), 地名研究 들머리(1), 공포 조규설교수 화갑기념 국어학논총, 형설출판
- 백두현(2003), 영남 문헌어에 반영된 방언 어휘 연구, 국어학 32, 국어학회
- 변혜원(1977), 용비어천가뻘 어휘 연구(2)-고사(故事)에 나타난 정음표기 토박이말 땅 이름, 자하어문논집 18, 상명어문학회
- 부산방언연구회(1996), 부산방언 어휘집 (1) (2), 한글 제159호 부산특집호, 한글 학회
- 서상규(2001), 노걸대의 문맥어휘(KWIC) 색인의 작성과 고어 말뭉치의 구축, 연세대 한국어 사전 편찬실,
- 서상규(1991), 어휘사 연구와 국어정보화, 한국어학 14, 한국어학회
- 서상준(1976), 전남 지역의 민속 어휘 연구(1), 한국민속학 24, 한국민속학회
- 서재국(1990), 翻譯老乞大의 어휘, 韓國語文學叢書 朝鮮前期의 韓國語文會, 言語와文學

- 신경철(1990), 「물명고」의 식물명 어휘고, 국어학논총(선오당 김형기선생 팔질기념), 창학사
- 신경철(1994), 江原道 原州 地域語 研究, 논문집 9, 상지전문대
- 신경철(1990), 능엄경언해 주석문의 어휘 고찰, 국문학논집 14,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 신경철(1992), 능엄경언해의 자석(字釋) 고찰, 한국어학 신연구, 한신문화사
- 申景澈(1994), 度量衡 單位 名稱 考察, 홍익어문 10.11(南沙李觀洙博士還曆紀念論叢), 홍익대 국어교육과 홍익어문연구회
- 신경철(1987), 楞嚴經諺解 註釋文의 語彙考察, 국문학논집 14,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 신경철(1990), 物名考의 語彙 考察, 한국어언어문학 25, 한국어언어학회
- 신경철(1991), 法華經諺解의 字釋 考察, 어문논지 6.7, 충남대
- 신경철(1990), 釋譜詳節의 字釋 考察, 牛山語文學 1, 상지대 국문과
- 신경철(1992), 釋音同一刑 學釋研究, 어문연구 20, 어문연구회
- 申景澈(1993), 數名 語彙 考察 (1), 어문연구 23, 어문연구회
- 신경철(1995), 數名 語彙 考察 (2), 어문연구 24, 어문연구회
- 신경철(1978), 식생활 자석 어휘의 변천 고찰, 어문연구 26, 어문연구회
- 신경철(1991), 新增類合의 字釋研究, 韓國言語文學 16, 韓國言語文學會
- 신경철(1994), 釋譜詳節의 字釋 考察, 우산어문학 1, 尙志大國文科
- 신경철(1991), 원각경언해 주석문의 어휘 고찰, ㅌ국어학연구(남천 박갑수선생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신경철(1990), 원주 지역 지명의 후부어 어의에 대하여, 원주얼 3, 원주문화원
- 신경철(1992), 原州地域 地名의 前部語 語義에 대하여, 원주얼 2, 원주문화원
- 신경철(1995), 원주지역 한자어지명의 특성, 원주얼 4, 원주문화원
- 신경철(1996), 衣生活 자석어휘의 변천 고찰, 논문집 14, 상지전문대
- 신경철(2000), 住生活 자석 어휘의 변천 고찰, 한국어학, 한국어학회
- 심보경(1999), 일본 고대 武藏國 지명에 반영된 한국의 동물 지명 어휘 [馬(uma)]에 대하여, 지명학 4, 한국지명학회
- 심보경(2003), 일본 무장국에 반영된 삼국의 국호지명 표기 및 그 어원, 어문연구 27-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심보경(2003),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지명 어휘 데이터베이스의 한 모색, 한국어언어문학 51, 한국어언어학회
- 심보경(2001),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지명 어휘 데이터베이스의 한 모색, 한국어언어문화 51, 한국어언어학회
- 심보경(1997), 한일 양국 지명에 반영된 鶴(tsuru)계 지명의 현황 및 그 어원, 어문논집 29, 중앙어문학회
- 심재기(1991), 광개토태왕비문 속의 고구려 어휘, ㅌ어학논총(법정법진태대학교수계칠송수기념), 태학사
- 심재기(1990), 근대국어의 어휘 체계에 대하여, ㅌ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법정법진 태학 회갑기념 논총), 민음사
- 양태식(1989), 경남 방언의 어휘 연구, 경남어문 23, 경남어문학회
- 오종갑(1987), 운음언해 어휘 색인(1), 영남어문학 16, 한민족어문학회
- 오종갑·정홍(1999), 《종덕신편언해》의 어휘 색인, 국문학논집 1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오창명(1998), 고유어휘 연구-〈탐라영사례〉와 〈제주사례〉를 중심으로-, 탐라문화연구 20,
- 오창명(1998), 생각해 보아야 할 제주어 1-‘대산이’와 ‘마농’, 제주학 1, 제주학연구소
- 오창명(1999), 생각해 보아야 할 제주어 2-‘하늘레기’와 ‘두루에기·두레기’, 제주학 2, 제주학연구소
- 오창명(1997), 생각해 보아야 할 제주어 3-‘후루살이’와 ‘눈에눈이’, ‘국다귀’, 제주학 3, 제주학연구소
- 오창명(1997), 의례에 나타나는 차자표기 연구(1)-조선 후기 복식 어휘를 중심으로(1)-, 한국복식 15, 단국대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 오창명(1993), 제주도 마을과 산악 이름의 종합적 연구, 탐라문화 1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오창명(1993), 제주도 지명 연구사, 돌과 바람의 역사, 제주역사연구회
- 오창명(1999), 제주도방언의 감각어에 대한 고찰, 제주문화연구, 제주문화
- 오창명(1996), 제주도지명 표기와 해독, 설명의 문제점-기존의 지명자료집을 중심으로-, 지명학 2, 한국지명학회
- 오창명(1999), 제주도지명 표기의 연구-조선 후기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6,
- 오창명(1997), 제주도지명에 나타나는 옛 어휘-한반도 중남부계통의 몇 어휘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1, 영주어문학회
- 오창명(1994), 제주말[濟州語]에 남아 있는 중세·근대어(1), 국문학보 14,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 오창명(1997), 중세국어시기 부사류 이두의 연구-〈과거사목〉과 〈상정과거규식〉을 중심으로-, 백록어문 10, 제

주대

- 오창명(1998), 지명의 차자표기에 대한 해독-제주지역 '오름' 이름(山岳名)의 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17, 제주대
- 오창명(1989),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연구총서 3, 제주대 출판부
- 원훈의(1982), 江原道 方言 研究(6-1)-춘천 춘성군 방언의 어휘를 중심으로-, 관동향토문화연구 7, 춘천교대
- 원훈의(1988), 江原道 方言研究(4)-영서 남부방언의 어휘를 중심으로-, 관동향토문화연구 22, 춘천교대
- 원훈의(1973), 江原道 方言研究(5-2)-홍천군 방언의 어휘를 중심으로-, 관동향토문화연구 6, 춘천교대
- 유구상(1987), 어휘 면으로 본 <춘향전>, 어문논집 제14·15호 (합본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 이강로(1997), 한국 궁술(弓術)어휘의 연구, 한글과 한자의 만남, 신구문화사
- 이건식(2002), 중세국어 어휘 Database 구축을 위한 형태소 분석 도구의 개발에 대하여, 국문학논집 15,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 이광호(2000), 음식관련서의 분류체계와 어휘특성, 우리말연구, 우리말학회
- 이광호(2003), 음식디미방의 분류 체계와 어휘 특
- 이광호·조정아(1983), 조선시대 농서 어휘 연구, 우리말연구 13, 우리말학회
- 이근수(1985), 어휘상으로 본 고구려어와 일본 고대어, 홍익어문 2, 홍익어문학회
- 이기문(1982), 국어 어휘사의 한 측면, 역사언어학, 전예원
- 이남덕(1986), '가운데' 어원고, 북한 심어택선생 회갑기념논총, 형설출판사
- 이남덕(1983), 15세기 국어의 어두자음군계 어휘의 어원 연구, 세종학연구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남덕(1977), 색채 어휘의 어원, 이화어문논집 6, 한국어문학연구소
- 이남덕(1985), 韓日語 比較方法에 있어서의 同根派生語 研究에 대하여, 李崇寧 先生 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 탑출판사
- 이덕흥(1997), 가례언해(家禮諺解)에 나타난 어휘 형성 고, 어문연구 1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등룡(2000), 고대국어 어휘 자료 연구(1)-삼국사기 지명의 몇 예-, 성균어문연구 1, 성균관대 국어국문학회
- 이등룡(1990), 고대국어 자료 연구2, 성균어문연구 35, 성균관대 성균어문학회
- 이등룡(2000), 廣開土大王碑文에 쓰인 [煙]字의 語彙의 意味, 壁史 李佑成教授 停年退職紀念 論叢,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上), 創作과 批評社
- 이병근(2001), '노을(霞)'의 어휘사, 관악어문연구 25,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李秉根(2003), '바늘(針)'의 語彙史, 관악어문연구 26,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이병근(1999), '올가미'의 어휘사, 국어학 41, 국어학회
- 이병근(2000), '지느러미(奔水)'의 어휘사, 국어학 34, 국어학회
- 이병근(1988), 開化期 韓國에 受容된 日本漢字語의 變化, 韓國傳統文化와 九州, 九州大學 韓國研究 center
- 이병근(1997), 개화기의 어휘 정리와 사전 편찬, 주시경학보 1, 탑출판사
- 이병근(1992), 고양이(猫)의 어휘사, ㅌ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법성재 이돈주 선생 화갑기념, 태학사
- 李秉根(1994), 近代國語 時期의 語彙 整理와 辭典的 展開, 東洋學 22,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 이병근(1998), 근대국어 용언의 어휘문법적 특성-'알다/모르다'의 사전적 처리-, 동양학 24, 단국대
- 이병근(1996), 마름(菱仁)의 어휘사, ㅌ방언학과 국어학법정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 이병근(1997), 질경이의 어휘사, ㅌ기문 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총법 신구문화사
- 이병근(1989), 해바라기(向日葵)의 어휘사,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이상규(1998), 경북방언의 어휘에 대하여; 여성의 언어생활을 위한 예비적 고찰, 여성문제연구 17, 효성여대
- 이선영(2000), 음식명의 어휘사, ㅌ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법성재기 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이선영(1972), 내훈과 어제내훈의 어휘 연구, 언어학 8-1, 대한언어학회
- 이승녕(1980), 《동국신속삼강행실》에 대한 어휘론적 고찰, 국어국문학 제55~57호 (합본호), 국어국문학회
- 이승녕(1984), 응자명(鷹子名)에 관한 어휘의 고찰, 정신문화 통권 제7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승녕(1976), 이조초기 어류에 관한 어휘론적 고찰, 학술원논문집 23, 대한민국 학술원
- 이승명(2001), 후기 중세국어의 어휘론적 연구, 조선전기의 언어와 문학, 한국어문학회
- 이영희(2001), 계절의 <한영조던> 어휘 연구, 한국말글학 18, 한국말글학회
- 이은규(1992), ㅌ장수경언해법어 어휘 연구, 語文學 73, 韓國語文學會
- 이은규(2000), 삼국사기 열전의 대명사 연구(2), 한문학연구 8, 계명대 한문학회
- 이은정(1989), ㅌ륜행실도법어 어휘 고찰, 한국어의미학 6, 한국어의미학회
- 이익환(2003), 어휘의 의미 변천과 사전, 사전편찬학연구 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 이장희(2000), 안동권 방언 어휘의 분화 양상 고찰, 영남학 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

- 이태영(1984), '느물ㅎ, 느므새'의 어휘사 연구, 국어학 36, 국어학회
- 이학근(1991), 변역소학과 소학언해에 나타난 어휘의 비교, 새걸 박태권선생 회갑기념논총, 제일문화사
- 이호열(1998), 두시언해의 어휘 연구(1)-방위 관계 어휘를 중심으로-, 韓國言語文學 29, 韓國言語文學會
- 임소영(1991), 분류어휘집의 비교연구, 자하어문논집 13, 상명대 국어교육과
- 장세경(1990), 淸江齋景暉稿 후기 이두집의 어휘 대비, ㅅㄱ어어의 이해와 인식법갈음 김석득교수 회갑기념논총), 한국문화사
- 장세경(1992), 이두 어휘집들의 이두 어휘 대비연구, 겨레문화 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장세경(1991), 1930년대의 국어 연구-<한글>과 <正音>의 대비 연구-, 韓國學論集 21.22, 漢陽大 韓國學研究所
- 장세경(1988), 淸江齋景暉稿 후기 이두집의 어휘 대비, ㅅㄱ어어의 이해와 인식법갈음 김석득교수 회갑기념논총), 한국문화사
- 장세경(1981), <<일본서기>>에 실린 한국 인명 중 동일인 인명의 이표기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14,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장세경(1987), 두시언해에 반영된 방언고, 이병주선생 회갑기념논총,
- 장세경(1986), 삼국사기 인명중 동일인명의 이표기에 대한 연구, 인문논총 14, 한양대
- 장세경(1988),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동일인명의 이표기에 대한 연구, 인문논총 11, 한양대
- 장세경(1990), 삼국유사 인명중 동일인명의 이표기에 대한 연구, 인문논총 15, 한양대
- 장세경(1988), 이두 어휘집들의 이두 어휘 대비연구, 겨레문화 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장세경(1988), 일본서기에 실린 한국 인명중 동일인명의 이표기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14,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 장세경(1989), 일본서기의 한국 왕명표기자 연구, 애산학보 6, 애산학회
- 전성탁(1988), 강릉 방언의 어휘, 관동향토문화연구 7, 춘천교대
- 전재호(1988), '더블다' 관련 어휘의 의미에 관한 통시적 고찰, 국어학 17, 탑출판사
- 전재호(1984), 한자훈의 변천과 어휘론적 위상, 어문논총 22,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전철웅(2000), 변역노걸대와 노걸대 언해의 어휘 비교 연구, 개신어문연구 3, 충북대학교 개신어문연구회
- 전철웅(2000),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1), ㅅㄱ강 송정현 선생 화갑기념논총법 간행위원회
- 전철웅(2001),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2), 어문논총 9, 충북대 국제교육원
- 전철웅(1982), 충북방언의 어휘음운론 서설(3), 개신어문연구 18, 개신어문학회
- 정광(1997), [明治字典]의 국어어휘에 대하여, 德成女大 論文集 11, 德成女大
- 정길남(1991), 19세기 성서의 인척 명칭 고찰, 한국어교육 12, 한국어문교육학회
- 정길남(1993), '독립신문'의 친족 관계 어휘 사용에 관하여, 淸江齋景暉稿 紀念論文集 脈漢圖
- 정길남(2001), '오라비' 고찰, 한국어교육 9, 한국어문교육학회
- 정길남(1999), 신소설의 어휘 연구, 한국초등 교육 12-2, 서울교대 초등교육연구소
- 정승혜(2002), ㅅㄱ해신어법에 나타나는 한.일 양어의 상호 어휘 차용, 국어학 33, 국어학회
- 정우영(2002), <남명집언해>의 음운 표기법과 어휘, 불교어문논집 7, 한국불교어문학회
- 정우영(1998), 월인석보 권20의 어휘연구, 국어국문학 131, 국어국문학회
- 조남호(1997), ㅅㄱ시언해법의 어휘론적 검토, ㅅㄱ시와 두시언해 연구법 태학사
- 조남호(1998), 근대 국어 어휘, ㅅㄱ어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근대국어-법 국립국어연구원
- 조남호(1998), 내외 개념어의 변천사, ㅅㄱ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법심재기 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조남호(2003), 두시언해의 어휘론적 검토, ㅅㄱ시와 두시언해 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 조남호(1996), 두시언해의 어휘에 대한 계량적 연구, 계량언어학 2, 도서출판 박이정
- 조남호(2001), 중세 국어의 어휘, ㅅㄱ어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법 국립국어연구원
- 조성문(1982), 문경방언의 어휘.음운적 특징, 한민족문화연구 9, 한민족문화학회
- 조재운(2003), 여씨 향약 언해의 어휘 고
- 조항범(1999), '갓[妻]' 계열 어휘의 어원과 의미, 국어학 42, 국어학회
- 조항범(1999), '무심천' 관련 제명칭 고찰, 개신어문연구 16, 충북대 개신어문학회
- 조항범(2001), '전염'에 의한 의미 변화에 대하여, 인문학지 17,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 조항범(1989), '地名 語原 辭典' 편찬을 위한 예비적 고찰, 지명학 6, 한국지명학회
- 조항범(1984), 국어 어휘론 연구사, 국어학 19, 탑출판사
- 조항범(1991), 국어 유의어의 통시적 고찰, 국어연구 58.60, 국어연구회
- 조항범(1991), 국어 친족 호칭어 연구의 현황과 그 과제, ㅅㄱ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법김완진 선생 회갑기념논총), 민음사

- 조항범(1986), 國語 親族 呼稱語의 通時的 考察 5, 金英培先生回甲記念論叢법 경운출판사
- 조항범(1987), 국어 친족어의 통시적 고찰(I)-[親戚]을 뜻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동천 조건상선생 고회기념논총, 개신어문연구회
- 조항범(1987), 국어 친족호칭어의 통시적 고찰 (2), 동대어문 5, 동국대학교
- 조항범(1987), 국어 친족호칭어의 통시적 고찰 (3-1), 제산 최세화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제산 최세화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조항범(1988), 국어 친족호칭어의 통시적 고찰 (3-2), 관악어문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조항범(2000), 국어 친족호칭어의 통시적 고찰(IV)-[祖父],[祖母] 호칭어를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5.6,
- 조항범(1998), 단어 사용의 오류 양상에 대하여, 卍강 송정현 선생 화갑기념논문총법 간행위원회
- 조항범(1994), 동물 명칭의 어휘사, 卍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법심재기 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조항범(1991), 부여 지방의 지명, 새국어생활 4-1, 국립국어연구원
- 조항범(1994), 불교 용어의 형성 유형과 의미 변화, 불교문학연구집문 2,
- 조항범(2002), 어원 연구 數題 1, 卍우리말 연구의 샘터법연산 도수희선생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조항범(2002), 어원 탐구 : '아빠, 아버지'의 어원, 새국어생활 12-3, 국립국어연구원
- 조항범(1992), 어원 탐구 : '오빠'와 '누나'의 어원, 새국어생활 12-4, 국립국어연구원
- 조항범(1981), 어휘론, 국어학 연감 1992, 국립국어연구원
- 조항범(1998), 인간 국어 연구, 국어국문학논문집 11,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조항범(1998), 친족어휘의 통시적 의미론, 卍어미론 연구의 새방향법 박이정
- 조항범(1987), 형별 관련 욕설의 어원과 의
- 지춘수(1997), 어원 산고, 장태진박사 회갑기념국어국문학논총, 삼영사
- 지춘수(2000), 어휘변화의 한 양상, 卍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법성재 이돈주 선생 화갑기념, 태학
- 채영희(1998), 교린수지의 어휘와 용례연구, 비교한국학 7-1, 국제비교한국학회
- 최규일(1986), 제주방언과 창원지역어의 어휘 비교 연구, 卍방언학과 국어학법정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 최규일(2000), 한국어의 친족호칭 어휘 연구(1), 국어교육 5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최남희(2001), 고구려 표기 한자음 형성 기층과 그 어휘 연구, 한글 249, 한글학회
- 최남희(2002), 고구려어 표기 한자음 형성 과정과 그 어휘 연구, 한글 254, 한글학회
- 최남희(2003), 고구려어 표기 한자음 형성 배경과 그 어휘 연구, 한글 258, 한글학회
- 최남희(1996), 고구려어 표기 한자음 형성 자질과 그 어휘연구, 한글 262, 한글학회
- 최남희(1993), 고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우리말 형태 연구, 한말연구모임
- 최남희(2001), 고대 및 중세국어의 이름법 연구, 한중음운논총 1,
- 최남희(1983), 신라 지명 「毛火」의 어휘와 성운학적 고찰, 새얼어문논집 14, 새얼어문학회
- 최남희(1989), 현화가의 어휘 연
- 최문길(1991), 고려 시대의 어휘 연구, 어문논총 5,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최상진(1993), 국어한자어어휘 발달사연구(1), 논문집 1, 경희대 알타이어연구소
- 최상진(1994), 아연각비 어휘론의 현대적 평가, 卍국어국문학연구의 새로운 모색법 경희대 국문과
- 최상진(1993), 한국어 어두음 'ㄷ'계 어휘의 동원어 고찰, 경희어문학 14, 경희대
- 최상진(1994), 한국어 어두음 ㄷ 계 어휘의 동원어 고찰, 조선학 1, 중국 중앙민족대학 조선학연구소
- 최상진(2001), 훈민정음 음양론에 의한 어휘의미구조 분석, 국어국문학 111, 국어국문학회
- 최전승(2001), 국어 방언사에서 원순모음화 현상의 내적 발달과 개별 방언 어휘적 특질, 卍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법이광호 교수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최전승(1986), 원순모음화 현상의 내적 발달과 개별 방언 어휘적 특질, 卍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법이광호 교수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최중호(2001), 통영지역어의 어휘조사, 논문집 21, 통영수산전문대
- 최지훈(1986), 卍천자문법새김 어휘 연구-16세기 간행 「천자문」의 명사류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9, 한국어 의미학회
- 최창렬(1985), '시집살이' 문화어휘의 어원적 의미, 국어학 신연구, 약천 김민수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최창렬(1987), '가르치다'의 어원적 의미, 국어학논총(선오당 김형기선생 팔질기념), 창학사
- 최창렬(1986), '송곳'의 어원적 의미, 국어교육 5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최창렬(1989), '시집살이' 문화어휘의 어원적 의미, 국어학 신연구, 약천 김민수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최창렬(1986), 납향제(臘享祭)의 어원적 의미, 제효 이용주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도서출판 한샘

- 최창렬(1987), 논두렁과 마지기의 어원적의미, 어학 13,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 최창렬(1989), 도토리과 다람쥐의 어원적 의미, 장태진박사 회갑기념국어국문학논총, 삼영사
- 최창렬(1988), 복더위 계절식 이름의 어원적 의미, 강운호 교수 화갑기념논총, 강운호교수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최창렬(1986), 봄 계절식 이름의 어원적 의미, 선청어문 16.1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최창렬(1986), 시어의 비밀을 여는 어원정보, 소식 이기우선생 회갑기념논총, 전북대
- 최창렬(2001), 시집살이 문화어휘의 어원적의미, 약천 감민수교수 회갑기념 국어학신연구, 고려대
- 최창렬(1987), 아름다운 우리말 '고맙다'의 어원, 한글사랑 15, 한글재단
- 최창렬(1986), 아름다운 착각속에 문헌어원들, 어학 14,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 최창렬(1988), 어원 추적과 의미망, 일송 임경순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전남대
- 최창렬(1985), 어원수제-말속에 숨쉬고 있는 섭리자의 모습-, 태인 이귀선목사 회갑기념논문집, 서울여대
- 최창렬(1984), 우리말 '보름' 이름의 어원적 의미, 국어학 논총, 형설출판사
- 최창렬(1989), 우리말 계절풍 이름의 어원적 의미, 한글 183, 한글학회
- 최창렬(1984), 우리말 반상 어휘의 어원적 의미 (1), 한글 204, 한글학회
- 최창렬(1986), 우리말 색채어의 어원적 의미, 새걸 박태권선생 회갑기념논총, 제일문화사
- 최창렬(2001), 우리말 생명 관련 어휘의 어원적 의미, 국어교육 5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최창렬(1985), 우리말 속담의 장형한자화와 그 의미, ㅈ새 시대의 우리말 연구별최창렬 교수 정년 퇴임 논문집), 역락
- 최창렬(1986), 우리말 시간 계열어의 어원적 의미, 한글 188, 한글학회
- 최창렬(1985), 우리말 여성 이름의 어원적 의미, 봉죽헌 박봉배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봉죽헌 박봉배박사 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 최창렬(1989), 우리말 친족어의 어원적 의미, 국어교육 5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최창렬(1988), 초겨울 계절식 이름의 어원, 교육논총 9,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창렬(1989), 초여름 계절식이름의 어원적의미, 어학 15, 전북대 어학연구소
- 최창렬(1989), 칠석과 백중의 어원적 의미, 이정 정연찬선생 회갑기념논총, 탑출판사
- 최창렬(1985), 풍신제와 선농제의 민속과 어원, 어학 16, 전북대학교 어학연구소
- 최창렬(1984), 한국 어원학의 전망, 교육논총 5,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창렬(1985), 한국어 어원 탐색 시고, 어학 11, 전북대
- 최창렬(2002), 한자 귀화어의 어원적 의미, 어학 12, 전북대
- 최창렬 (1990), 아름다운 우리말 '고맙다'의 어원, 한국어의미학 11, 한국어의미학회
- 최창렬(1975), 표현언어와 서술자의 존재, 대구어문논총 8, 대구어문학회
- 최창렬(1994), Communication 理論과 意味共有, 한국언어문학 13, 한국언어문학회
- 최창렬(1992), '무릇.모름지기.메아리'의 어원, ㅈ국어학연구별남천 박갑수선생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최창렬(1994), '스물'과 '십'의 어원, ㅈ규창박사 정년기념 국어국문학논문집법 군산대
- 최창렬(1992), '흔' 계열 수이름의 어원, ㅈ우리말 연구의 샘터별연산 도수희선생 화갑기념논총), 충남대
- 최창렬(1994), '흔' 계열 수이름의 어원적 의미, ㅈ봉죽헌박봉배선생정년기념논문집법 교학사
- 최창렬(1973), 《흔》 계열 수 이름의 어원, ㅈ우리말 연구의 샘터별연산 도수희선생 화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최창렬(1979), 共感覺的 意味의 轉移, 한국언어문학 11, 한국언어학회
- 최창렬(1979), 國語 教材의 精選 構造化와 授業의 改善, 국어교육 3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최창렬(1976), 國語 動詞의 意味構造, 인문논총 7, 인문과학연구소(전북대학교)
- 최창렬(1992), 國語 透明語의 類型攷, 김형규교수정년기념논문집, 동간행위원회(서울대학교)
- 최창렬(1980), 국어수업의 단계, ㅈ난대이응백박사교회기념논문집광복후의국어교육법 서울대
- 최창렬(1980), 國語의 論理的 基底構造, 국어문학 21, 전북대국어학회
- 최창렬(1979), 動詞와 名詞의 意味關係, 一山 金俊榮 先生 華甲記念論叢, 형설출판사
- 최창렬(1978), 動詞의 語彙的 意味와 文法性, 논문집 21, 전북대
- 최창렬(1991), 選言의 疑問의 意味構造, 언어 3-1, 한국언어학회
- 최창렬(1991), 수를 세는 말의 어원, ㅈ국어의 이해와 인식별갈음 김석득교수 회갑기념논총), 연세대
- 최창렬(1991), 수를 셈하는 말의 어원, ㅈ국어의 이해와 인식별갈음 김석득교수 회갑기념논총), 한국문화사
- 최창렬(1998), 연의 이름과 어원, 어학 18, ㅈ北大 語學研究所
- 최창렬(1999), 우리말 속담 한자화의 다양성과 그 의미, ㅈ추상과 의미의 실재별이승명 박사 화갑 기념 논총), 박이정

- 최창열(1995), 우리말 속담의 단형한자화와 그 의미, 선청어문 27, 서울대 국어교육과
- 최창열(1997), 우리말 속담의 변이형과 의미, 한글 229, 한글학회
- 최창열(1995), 우리말 속담의 사언 속담으로의 한자화와 그 의미, 『어문학논총』 6(정년퇴임기념논문집), 태학사
- 최창열(1997), 우리말 속담의 어원과 의미, 새국어교육 51, 한국국어교육학회
- 최창열(1997), 우리말 속담의 육언 속담으로의 한자화와 그 의미, 국어교육 9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최창열(1997), 우리말 속담의 칠언 속담으로의 한자화와 그 의미, 새국어교육 54, 한국국어교육학회
- 최창열(1996), 우리말 속담의 팔언 속담으로의 한자화와 그 의미, 한글 235, 한글학회
- 최창열(1992), 우리말 속담의 한자속어화와 그 의미, 선청어문 24, 서울대 국어교육과
- 최창열(1994), 우리말의 어원과 국어 교육, 어학 19, 全北大 語學研究所
- 최창열(1992), 전래 순 우리말 사람 이름의 어원, 선청어문 22(제효 이용주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 崔昌烈(1974), 족두리와 남바위의 語源的 意味, 『韓國語學研究百年史』 2(백김민수 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2, 一潮閣
- 최창열(1995), 存在形容詞의 品詞 歸屬 誤謬의 分析, 국어문학 16, 전북대국어문학회
- 최창열(1980), 착각에 문헌 고사 유래 속담의 어원과 의미, 국어문학 30, 전북대 국어문학회
- 최학근(2000), 고려시대 몇 개의 어휘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84호, 국어국문학회
- 최형원(1987), 몽어노걸대 어휘소고, 알타이학보 10, 한국알타이학회
- 하동호(2002), 『동의보감』에 보인 국어 어휘고, 열мна 이용호박사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한동완(1982), 어휘 연구 50년, 국어학 연구 50년, 혜안
- 한사대학교 한국어문연구소(2000), 방언 어휘 자료, 한국어문논집 2, 한사대학교 출판부
- 홍사만(1998), 중세.근대국어 '어리다', '점다'의 의미분석, 언어과학연구 17, 언어과학학회
- 홍사만(2001), 중세.근대국어 어휘의미 연구(6)-「사랑하다」, 「생각하다」, 「너기다」의 의미-, 어문론총 6, 경북어문학회
- 홍사만(2003), 중세.근대국어 어휘의미 연구(8)-「짓다」, 「만들다」의 의미분석-, 언어과학연구 19, 언어과학회
- 홍사만(2003), 중세.근대국어 어휘의미 연구(9)-의존명사 {드}와 {줄}의 의미 분석-, 어문론총 38, 한국문학언어학회
- 홍사만(1996), 중세.근대국어 의존명사 「줄」의 분포와 의미, 영남학 3,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 홍사만(1996), 중세.근대어 {빛}과 {값}의 의미, 어문논총 30, 경북어문학회
- 홍사만(2002), 중세.근대어 「식식하다」의 의미, 언어연구 13, 대구언어학회
- 홍윤표(2002), 15세기~19세기 자료에 나타난 국어 어휘의 특성,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국립국어연구원
- 황금연(1997), 『딱지준절법』 어휘 표기 대한 일 고찰-차자 표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9, 한국언어학회
- 황금연(2002), 현대 한자 어휘의 기원에 대한 고찰, 『국어학 연구의 새 지평』 2(정년퇴임기념), 태학사
- 黃文煥(1979), 현대국어 관형사의 어휘사적 고찰, 『韓國文化』 29, 서울대

■ 토 론

“한국어 어휘사 연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문

김양진(경희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어휘사 연구는 음운사나 문법사에 비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음운이나 문법 항목에 비해 어휘의 체계가 훨씬 더 복잡한 것도 어휘사 연구가 체계를 잡지 못한 한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발표의 기초 자료가 되는 1,000여편의 논문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최근 어휘사 연구의 경향과 향후 어휘사 연구의 방향을 짚어 주셔서 앞으로 어휘사에 대한 연구가 가야할 길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토론자의 역할에 갈음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사족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선 꼼꼼하게 연구사를 정리해 주셨지만 최근 연구서 중에서 이기문 선생님께서 『한국어연구』에 연재하시는 “어원연구의 뒤편길” 시리즈나 이건식 선생의 한자 차자표기를 바탕으로 둔 차용 어사들의 역사에 대한 여러 편의 논의들, 차재은 선생의 호적 인명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도 우리말 어휘사 연구의 주요 논저로 포함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발표 중에 어휘사 연구에 관한 논문의 누락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지만 논저 목록을 조사하실 때, 어휘사 연구에 몰두해 오신 연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제로 논저 목록을 정리하시면 어떨까 합니다.(사실 이렇게 하려면 개인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과제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어휘사 연구의 주요 과제로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동식물학자들의 연구나 음식연구가, 건축가, 의복 연구가들의 연구 성과 속에 어휘사적 의의가 있는 연구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발굴하고 이러한 연구자들과 국어학자들과의 연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맺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 역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좀더 집단적이고 공동의 관심을 모아서 진행해야 할 과제이겠으나 이에 대해서도 어떤 지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어 어휘사적 기반의 사전편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들 사전편찬의 성과들과 개별적인 어휘사 연구들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얼마나 연계가 가능할지, 또 앞으로 어떠한 유형의 어휘사 관련 사전편찬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국어사 시대 구분과 20세기 전반기의 문법 변화

허재영(단국대)

< 차례 >

1. 서론
2. 국어사 시대 구분에서 20세기 전반기의 위상
3. 20세기 전반기의 문법 변화와 현대 국어
4. 결론

1. 서론

국어학이 국어 현상 전체를 대상으로 국어에 내재하는 법칙과 이론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개념이 정립된 이래, 국어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국어학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1900년대 유길준, 주시경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국어 문법’은 1920년대 이후로 ‘과학적 학문 방법론’과 결합하면서 국어의 규범화뿐만 아니라 국어에 내재하는 다양한 법칙과 이론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매우 기본적인 논의이지만 정열모(鄭烈模)는 1927년 동인지 『한글』(제1권 제2호 ~ 제3호)에서 ‘조선어 연구의 정체는 무엇?’이라는 논문을 통해 “국어학(國語學)은 국어(國語)의 현상(現象) 전체(全體)를 연구(研究)의 대상(對象)으로 하는 학문(學問)”이라고 정의한 뒤, 국어학 연구 방법으로 ‘역사적 방법’과 ‘비교 방법’이 있음을 천명하였다. 특히 그의 논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1900년대 이후 국어학이 국어의 규범화(철자법, 맞춤법 통일)를 목표로 하는 경향이 우세한 데 비해, 학문으로서의 국어학에 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1910년대 『학지광』에 안확이 ‘조선어 연구의 가치’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적어도 학문으로서의 ‘국어학’에 관한 논의는 동인지 『한글』이 발행되면서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어 연구에서 역사적 연구법을 주장하는 정열모(1927)와 마찬가지로 최현배의 ‘언어학상으로 본 조선어’도 주목할 만하다. 역시 동인지 『한글』 제1권 제2호 ~ 제4호에 수록된 이 논문은 언어의 ‘계통적 분류’, ‘형태적 분류’, ‘우리말의 계통’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점은 최현배의 최초 논문인 『동아일보』 1922년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22회에 걸쳐 연재한 ‘우리말과 글에 대하여’보다 훨씬 과학적이다.

이처럼 국어 연구에서 역사적 방법이 제기된 이해 국어사 연구는 한두 학자가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양적, 질적인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국어사 연구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다. 미시적 차원으로 특정 시대의 음운이나 음운 체계, 분석하기 어려운 문법 형태소나 그러한 형태소가 생성되는 과정,

어휘의 차용이나 표기상의 문제 등과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거시적 차원으로는 국어 음운, 어휘, 문법 변화에 대한 객관적 설명과 원리를 탐구하는 문제 등도 꾸준히 연구해야 할 대상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국어사 연구의 기반이 되는 '시대 구분'의 문제이다. 시대 구분은 역사 발전 법칙을 탐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귀납적으로 연구를 종합하여 기술해야 할 복합적인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구분에 민감한 역사학에서는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하고, 그 가운데 역사학에 적용되는 시간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전제로 시대를 구분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차하순(1994)에서는 시간에는 '연대적 시간', '역사적 시간', '역사학적 시간'의 세 가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연대적 시간'은 일정한 간격을 규칙적으로 경과하는 절대적 시간을 의미하며, '역사적 시간'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 시간을 말한다. 사회적 시간은 인간의 역사 발전 속도와 방향에 관계되는 시간이며, 역사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역사학자들이 역사 인식을 위해 구분한 시간이 '역사학적 시간'인 셈이다.

선행 연구에서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 일치하지 않고,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른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어사학에서도 모든 연구 성과가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학문의 분화와 전문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통설'이나 '일반설'이 형성되고, 그것이 마치 상식처럼 해당 분야의 학문 세계에 전수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현재 국어사학계에서 국어사의 시대 구분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이미 김종택(1985), 김상돈(1984) 등과 같이 비교적 오래 전부터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국어사 설정에서 가장 논란이 심한 '근대 국어'와 관련해서는 홍운표(1994, 1995), 정광(1992) 등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가운데 홍운표(1994, 1995)의 문제 의식은 기존의 국어사 시대구분이 '음운'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문법사'나 '어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이 점은 19세기 ~ 20세기의 문헌을 연구하는 국어사학자들이라면, 그 시기의 국어 현상이 1920년대 이후의 국어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쉽게 공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종선(2000)에서는 기존의 1895년 이후 현대 국어설을 세분하여 제1기(현대국어 형성기: 1894~1910), 제2기(우리말 공용어기: 1910-1945), 제3기(국어권 분단기: 1945 이후 -전기<국어 재정립기: 1945-1960년대 중반>, <후기(국어 안정적 발전기, 분단 심화기: 1960년대 후반 이후>))로 나누고 있다.

이처럼 시대를 세분하더라도 갑오경장 이후의 '현대 국어설'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어사의 시대 구분과 다른 학문 분야의 시대 구분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문제이다. 현상에서 기존의 현대 국어 기점과 관련한 논의는 역사학이나 문학사의 시대 구분과 일치하지 않으며, 김슬옹(201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어사 교육 분야의 경우 이로부터 파생되는 혼란이 적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는 국어사 연구에서 19세기 ~ 20세기 국어 연구를 객관하고 종합하는 데서 해결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권재일(2005)의 『20세기 초기 국어의 문법』(서울대출판부), 민현식(2008)의 '19세기 국어에 대한 종합적 검토' (『국어국문학』 149) 등과 같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허재영(2011)에서는 1880년대부터 1910년대를 기준으로 '근대 국어'를 재설정하고,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전 편찬을 제안한 적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적어도 1880년대부터 1910년 사이의 국어가 그 이전이나 이후와 큰 차이

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국어사 시대 구분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20세기 전반기의 문헌을 대상으로 ‘국어의 위상’을 논의한 뒤, 이 시기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2. 국어사 시대 구분에서 20세기 전반기의 위상

2.1. 국어사 시대 구분론의 쟁점

본래 ‘시대 구분’ 논의가 ‘역사 연구’로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한다면, 국어사의 시대 구분도 역사학의 시대 구분 논의부터 출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사 분야에서 시대 구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67년 ‘경제사학회’의 시대 구분 논쟁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사학회(1977)의 『한국사시대구분론』(을유문화사)에 실려 있다. 문학사에서도 1960년대부터 근대 문학 기점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었는데, 이 문제는 ‘이식문화론’, ‘전통단절론’을 극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사나 문학사 시대 구분 논쟁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차하순 외(1994)에서는 ‘시대 구분 이론과 실제’(차하순), ‘한국사 시대 구분의 여러 유형과 문제점’(이기동)과 함께 ‘농업 기술 발전’(이현혜), ‘고려·조선시대 지배 세력 변천’(이수건), ‘정치 발전’(홍승기) 등을 주제로 시대 구분의 문제점을 살피고 있다. 특히 차하순(1994)에서는 부록으로 로이 윌리스의 『서구 문명』(1987)이라는 책과 발터 발뱅크의 『과거와 현재의 문명』(1981) 등의 역사서에서 행한 시대 구분 사례를 제시하면서 시대 구분에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기동(1994)에서는 ‘한말 애국계몽운동 시기’, ‘일제 강점기’, ‘광복 이후’에 쓰인 한국사 개설서를 종합적으로 살피, 한국사에서 시대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개괄하고, ‘마르크스주의 경제사가’, ‘4.19 이후의 시대 구분론’, ‘1990년대 시대 구분 논쟁’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쟁의 역사를 통해 시대 구분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1) 시대 구분에서의 유의점¹⁾

- ㄱ.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을 당연한 것같이 전제로 삼을 수 없다.
- ㄴ. 역사적 사실들이 시간적, 공간적인 횡적 연관성을 가지도록 설명되어야 한다.
- ㄷ. 시대 구분에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ㄹ. 시대 구분 용어는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주어야 한다.
- ㅁ. 한국사의 이해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이해에도 기여해야 한다.
- ㅂ. 민족의 주체성뿐만 아니라 역사가 개인의 주체성이 필요하다.
- ㅅ. 역사학에서의 시대 구분은 한국사의 특수성과 세계사 속에서의 보편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유의점은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어사에서 ‘음운, 어휘, 문법,

1) 허재영(2008), 『국어의 변화와 국어사 탐색』, 소통, 47쪽.

국어생활' 등의 전반적인 차원을 고려할 때, 변화가 항상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절대적인 시대 구분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²⁾ 또한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 전 시대의 국어와 다음 시대의 국어에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일도 쉽지 않다. 특히 언해 자료의 경우 문헌의 보수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경우가 많다³⁾. 논리적 일관성이나 용어 사용 문제는 국어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도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국어사가 언어사의 일반 원리를 규명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기존의 국어사 시대 구분, 특히 근대 국어나 현대 국어 형성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쟁점(살펴야 할 문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시대 구분의 목적', '시대 구분의 기준',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쟁점을 좀 더 살펴보자.

[쟁점 1] 국어사 시대 구분의 목적은 무엇인가?

국어사에서 시대 구분의 목적만을 진지하게 논의한 사례를 찾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국어사를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려한다면, 시대 구분의 목적도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만은 아니다. 이기문(1961)에서는 “한 민족의 역사 전체에서 언어사는 그 일부”라고 전제하면서, “언어사 서술이 정치사나 문화사의 선입견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국어사 연구 방법으로 문헌 연구와 비교, 내적 재구, 방언학 등을 제시하고, 언어사의 외사(外史)로서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 또는 이주에 대해 다른 언어 사용자들과의 접촉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동” 등을 고려하는 연구와, “언어의 구조 자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 논하는” 내사(內史)가 있음을 제시하였다.⁴⁾ 또한 이기문(1998)에서는 “민족의 역사 전체에서 볼 때, 국어의 역사는 그 한 부분이 된다.”, “국어로 쓰인 고전 문학 작품을 올바르게 읽게 하는 길잡이가 된다.”, “현대 국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국어사 연구의 목적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⁵⁾ 이러한 태도는 국어사 연구가 국어 발전뿐만 아니라 국어 외사 연구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언어사에서 외사와 내사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외사로서의 국어사는 국어의 내적 구조 변화만을 문제 삼을 수 없다. 특히 국어사 문헌이 빈약한 시대일수록, 외사의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문헌이 다수 출현한 근대 이후의 국어사에서조차 외사의 영향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사 시대 구분을 하는(특히 '근대 국어'를 설정하는) 목적은 무엇인지를 좀 더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근대 국어 설정 문제에서 언어 내사만을 고려할 경우, 국어사는 국어 발전 현상과 원리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권재일(2005)에서 “특정한 어느 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공시태라 하고, 어떤 언어의 변천 상태를 통시태라 할 때, 모든 언어 현상은 항상 역사적 요인과 결합되어 있

2) 특히 국어사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문헌 고증법의 경우 해당 문헌의 유형에 따라 국어 변화의 정도가 크게 달라짐을 고려해야 한다.

3) 이 점에서 최근의 국어사 연구에서는 '구어 자료'와 '문어 자료'를 구분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어 자료'의 범위나 대상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이기문(1961),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제1장 서론.

5) 이기문(1998), 『(개정판)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제1장 서론.

다. 즉 공시적 언어 현상은 항상 다음 단계로 변화하는 시발점이 되어 동요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적 언어 상태는 새로이 생겨나는 요소와 없어져 가는 요소의 혼합체이며, 공시태는 과거를 반영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⁶⁾라는 진술은 언어 내사의 차원에서 국어사를 연구하는 것이 ‘과거를 반영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국어사학자들이 대부분 공유하는 태도이다. 더욱이 국어사 연구가 전문화될 수록 국어 외사보다 내사의 ‘변화 양상 기술’과 ‘발전 원리 탐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다. 이 점은 일반적인 문법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문법학이 언어 구조의 일반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인식이 고정되면서 이른바 ‘과학적(논리적, 법칙적) 설명’을 목표로 하는 이론 연구가 문법 연구의 궁극적 목표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어진다.

이 점에서 국어사 연구에서도 과학 이론으로서 문법학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언어 현상 전반에 관한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도 유용해 보인다. 예를 들어 1920년대 과학적 학문 담론이 널리 퍼지던 시기에 정열모(1927)가 동인 『한글』(제1권 제3호 ~ 제6호)에 ‘조선어 문법론’을 연재하면서 설명했던 ‘성음어(聲音語)와 문학어(文學語)’, ‘문법’, ‘어법(語法)과 자법(字法)’, ‘문어(文語)와 구어(口語)’ 등의 개념은 국어학 발달이 이루어진 현재의 시점에서조차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좀 더 살펴보자.

(2) 언어와 문법학⁷⁾

- ㄱ. 言語: 언어는 聲音을 記號로 한 思想 表示의 方法物이니 聲音은 言語의 外面이요, 思想은 言語의 內面이다.
- ㄴ. 聲音語와 文學語(문자어의 오식으로 보임): 입으로 짓거리는 소리를 귀로 듣는 말을 聲音語이라고 하고, 손으로 써서 눈으로 보는 말을 文字語이라 한다.
- ㄷ. 語法과 字法: 言語에는 聲音語일 적과 文字語일 적이 있으므로, 文法도 聲音語의 文法, 文字語의 文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文字語는 聲音語가 文字라는 假面을 쓰고 있는 것이므로 눈으로 보면 文字語이요, 입으로 읽으면 聲音語이라. 본시 同一한 것이니 두 것의 文法은 주장되는 點은 똑같은 것이다. 다만 文字語의 文法은 聲音語의 文法에, 文字로 言語를 나타내는 法則, 곧 字法(Orthography)이라는 것이 떨어다닐 뿐이다.
- ㄹ. 國語와 國文法: 어느 남다른 組織을 갖춘 文法으로 統一된 言語를 國語이라고 하고 그 文法을 國文法이라 한다.
- ㅁ. 文語와 口語: 우리말에서는 文語와 口語의 區別을 세우지 아니하는 것 같다. 그러나 近來 쓰는 新文章이 建設되기 前까지 써 오던 文體는 역시 文語이라 할 수 있다.
- ㅂ. 方言과 標準語: 方言 가운데 가장 勢力 있는 것이 標準語가 되는 것이니 어느 말이든지 대개 서울말이 標準語가 된다.
- ㅅ. 文法學: 文法學은 科學 中에 하나이니 言語의 構造上 法則을 研究하여 얻은 知識이다. (下略)

정열모(1927)에서 제시한 ‘성음어’는 ‘음성 언어’와 같은 개념이며, ‘문학어(문자어)’는 ‘문자 언어’의 개념이다. ‘어법’이 음성 언어와 관련한 법칙이라면 ‘자법’은 ‘철자법’, ‘맞춤법’ 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철자법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시대에 어법과 자법의 불일치는 언문일치를 가로막는 장애물 가운데 하나였다. ‘문법학’이 ‘언어의 구조상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개념에서도 ‘구어’와 ‘문어’를 구별한 점은 문법학뿐만 아니라 국어의 발전 과정을

6) 권재일(2005), 『20세기 초기 국어의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3쪽.

7) 정열모(1927), 『동인 한글』 제1권 제3호, 조선어연구회, 12-13쪽. 번호는 연구자가 붙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이처럼 문법학 정립 과정에서 국어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⁸⁾가 이루어지고, 현상을 기술하기에 적합한 개념을 정립하였듯이, 국어사 연구도 연구의 근본 목적인 ‘국어 발전 법칙 탐구’ 또는 ‘변화 양상 기술 및 미래 예측’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시대 구분’의 개념이나 내용, 국어사 연구 대상으로서 ‘구어’와 ‘문어’의 구별, ‘문어 자료의 보수성’ 등과 같은 것들은 이러한 개념 확립의 기본 요소가 될 것이다.

[쟁점 2] 국어사 시대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시대 구분 문제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국어 외사가 국어사 시대 구분에 작용함으로써 국어 발전 모습을 적절히 기술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한 비판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김종택(1985)에서는 ‘국어사 기술의 원천적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단일 국어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비판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이기문(1961, 1982 개정판)에서 주장한 ‘원시 부여어’와 ‘원시 한어’, 곧 남방계 한어와 북방계 한어가 합쳐져 고대 국어가 형성되었다는 이론을 비판하는 데 목표를 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대 구분상의 유의할 점을 적절히 검토하고 있다. 사실 이기문(1961, 1982)의 고대 국어 형성설은 국어의 내적 발전보다 고대 국가와 관련한 학설을 기반으로 한 점,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의 국어사 연구 경향을 답습했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다수의 학자가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북한의 국어학자 김수경(1989)에서 “오늘 우리말 력사 분야에서의 민족 분렬론이 주로 세 나라 시기의 고구려말을 문제 삼으면서 그와 관련시켜 여러 가지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⁹⁾라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같다.

여기서 고대 국어 형성 과정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김종택(1985)에서 제기한 시대 구분의 유의점 문제는 국어사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3) 시대 구분의 문제¹⁰⁾

(전략) 역사 기술에 있어서 시대 구분이 지닌 의미가 그 무엇보다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그 사이에 시대 구분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의미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이다. 가령 국문학사의 기술에서 19세기 말, 이른바 개화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두고 보면, 일반적으로 창가나 신체시가 나오는 그 시기를 신문학, 혹은 근대 문학이라 하여, 그 이전의 문학이나 현대문학과 대립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상례이다. (중략) 오늘의 국어사 기술은 마치 아동문학사의 기술 태도와 같이 천여 년 동안에 국어가 형성, 분화, 통일 발전의 과정을 모두 겪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니, 이보다 무리한 태도가 없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국어사의 기술은 정치사나 문화사의 시각에서 벗어나 민족사나 인류사와 보조를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진술은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사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김수경(1989)와 같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적어도 시대 구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충분히 짚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달

8) 장열모(1927)에서는 문법학의 유형을 ‘기술적 문법’과 ‘이론적 문법’으로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과학’의 성격을 간결하게 설명하였다.

9) 김수경(1989), 『세 나라 시기 언어 력사에 관한 남조선 학계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평양출판사, 8쪽.

10) 김종택(1985), 국어사 기술의 원천적 의문, 『국어교육연구』17, 국어교육학회, 1-2쪽.

리 말해 국어 발전 과정에서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대 구분을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등은 국어사 시대 구분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쟁점 3] 국어사에서 ‘근대 국어’는 어느 시기를 말하는가?

국어사 시대 구분의 목적이나 준거에 대한 논의는 근대 국어 설정에서 가장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홍운표(1994, 1995)의 시대 구분 비판은 기존의 국어사 시대 구분이 국어 변화의 층위(음운, 어휘, 문법)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데서 출발한다. 달리 말해 기존의 시대 구분이 주로 ‘음운 변화’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휘 변화나 문법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어휘사나 문법사 연구 성과를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른바 후기 중세국어 시기와 17세기 이후의 어휘 변화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 또는 문법 변화는 어떠한가, 1895년 이전의 어휘사와 그 이후의 어휘사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문법 변화의 경우는 어떠한가 등을 고려할 때, 국어사 시대 구분이 음운 변화만을 준거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음운 변화 자체로 볼 때에도 ‘구개음화’, ‘두음법칙’ 등의 음운 현상이 ‘근대성’의 표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음운 현상이 생겨난 원인은 무엇이며 1900년대 이후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등을 고려할 때, 17세기부터 갑오개혁 사이를 ‘근대 국어’로 지칭하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2.2. 20세기 전반기 국어의 위상

국어사 시대 구분론에서 ‘근대 국어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지속되어 왔다. 그 가운데 하나는 ‘근대’라는 용어보다 그 시기의 국어 현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근대’라는 용어 대신 ‘19세기’, ‘20세기’ 등과 같이 객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시기의 국어 현상을 기술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정광(1992)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어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근대 국어는 비록 시대 구분에 관한 몇 가지 서로 다른 이론(異論)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임진왜란 이후의 국어를 지칭하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라고 전제하면서, 기존의 근대 국어 연구 경향을 비판하고¹¹⁾, 근대 국어 표기법과 자료의 특징을 고려한 새로운 연구 방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각 시기별 문헌 자료의 정확한 고증과 분석, 시기별 ‘언문 자모’의 표기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근대 국어 문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 논문은 17세기나 1895년을 기준으로 한 근대 국어 시기 설정보다 해당 시기의 문헌 고증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결론짓는다.

이와는 다소 다른 차원에서 ‘근대 국어’를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주로 근대 문학 연구자들의 태도가 이에 해당하는데, 문혜윤(2008)의 『문학어와 근대』(소명)와 같이 문학 언어로서의 근대성에 주목하거나 고영근(1998)의 『한국어문운동과 근대화』(탑)처럼 근대 민족주의와 관련지어 ‘국

11) 정광(1992)에서는 ‘언어 자료의 문제’, ‘언어 인식의 문제’, ‘국어학의 편향성’, ‘극심한 표기법의 혼란’ 등이 근대 국어 연구 부진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어 의식' 형성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어 의식(근대 계몽기 빈번히 발표된 국문론 등)이 근대성의 표지인 '민족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학이나 문학사, 국어사의 접점을 고민하게 하는 데 적절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허재영(2011)에서 '국어사에서 근대 계몽기'를 설정하고, 이 시기 어휘사와 관련한 사전 편찬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맥락을 갖고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민현식(2008)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어사를 종단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기별 접근법'과 '시대 구분법'을 제시하고, 시대 구분법이 한계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19세기의 국어사를 별도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19세기 국어 자료'의 분포 및 이들 자료에 대한 연구사, 국어사에서 19세기의 위치¹²⁾, 19세기 국어의 표기와 음운(연철·중철·분철 의식, 자음 체계와 표기, 모음 체계와 표기), 19세기 국어의 문법(주로 이현희 1994, 2005, 2007을 근거로 정리하는 입장이었음), 19세기의 어휘(어휘 차용 양상, 언해 문화의 발전과 어휘 확장), 담화 소통 방식의 변화 등을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 태도는 '개화기', '19세기' 등의 연구에서도 더 찾아볼 수 있다. 신중진(2007)의 『개화기 국어의 명사 어휘 연구』(태학사), 석주연(2007)의 '개화기 초기 국어의 형태와 통사'(『우리말글』41, 우리말글학회) 등이나 백두현(1997)의 '19세기 국어의 음운사적 고찰'(『한국문화』20,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등과 같이 '개화기', '19세기'를 한정하여 음운, 어휘, 문법 등을 연구한 사례는 매우 많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구분이다. 시대별 구분법의 '근대 국어'가 역사학이나 문학사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듯이, '개화기', '19세기' 연구는 '20세기 초'의 국어와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시대별 구분법을 취한 연구나 세기별 연구법을 취한 연구에서도 그렇듯이, 19세기 말의 국어 연구에서는 『이언』, 『교린수지』(1880년대), 학부 편찬 국문(또는 국한문)교과서(1895년~1902년 사이)를 함께 언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 시기를 준거로 국어사 시대 구분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증명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근대 국어' 설정 과정에서 20세기 초의 국어가 갖는 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음운이나 표기, 문체 면에서 19세기 말과 동질성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문법 변화나 어휘 면에서는 달라진 점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내사의 '문법', '어휘' 차원이거나 '국어·국문 의식 형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근대 국어'라는 용어 사용이 적절할 수 있으며, '음운' 차원에서는 '현대 국어'로 인식할 수도 있다.

3. 20세기 전반기의 문법 변화와 현대 국어

3.1. 구어의 발견과 문법 변화

20세기 초의 국어에서 주목할 현상은 민중의식의 성장과 함께 '구어'가 발달한 점을 들 수 있다. '구어(口語, spoken language)'는 음성이라는 전달 매체(혹은 언어 형식)을 통해 의미를 전

12) 특히 19세기 후반기의 국어를 '개화기', '근대 계몽기' 등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1880년대 국어 변화에서 '문체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달하는 언어를 말한다.¹³⁾ 구어의 범위와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 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근대 계몽기에는 전통적으로 문자 형식으로 전달된 언어 가운데 구어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준구어’ 형식의 자료가 전시대에 비해 다량으로 산출된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국어에서도 구어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어’에는 문자 언어로서의 ‘국문’과 음성 언어(구어)로서의 ‘국어’가 존재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일상의 담화로서 ‘구어’에 대한 관심은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서에서 나타난다. 허재영(2011)에 따르면, 1890년대 언더우드나 게일의 문법서에는 ‘speaking in Ernmum’ 또는 ‘spoken language’라는 용어가 사용된다.¹⁴⁾ 선교사들의 회화서나 문법서에서 보수적인 문어보다 현실적인 구어를 중시하게 되면서, 실제 국어 생활에서 문어와 구어의 불일치를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게 된다. 1890년대 이후 국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수의 논설에서 ‘조선말’의 실체를 인식하고 국문 사용을 강조하는 의식은 그 당시 시대상황에 따른 국어의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4) 19세기 말 ~ 20세기 초 국문 논설에서의 ‘조선말’(구어)¹⁵⁾

- ㄱ. 나라에 국문이 잇서서 힘용하는 거시 사람의 입이 잇서서 말슴하는 것과 곱히니 말슴을 하되 어음이 분명치 못하면 남이 널으기를 반 병어리라 훌 쏘더러 제가 심각하야도 반 병어리오 국민이 잇스되 힘하기를 전일하지 못하면 그 나라 인민도 그 나라 국문을 귀중헌 줄을 모르리니…(하략) -지석영(1896), 국문론, 『대한독립협회보』제1호.
- ㄴ. (전략) 글조라 하는 거슨 단지 말과 일을 표하자는 거시라 말을 말노 표하는 거슨 다시 말하 잘 거시 업거니와 일을 표하즈면 그 일의 소연을 자세히 말노 이약을 하야야 될지라.(하략) -쥬상호, ‘국문론’ 『독립신문』 1897.4.22.
- ㄷ. 내가 월전에 국문을 인연하야 신문에 이약이하기를 국문이 한문보다는 미우 문리가 잇고 경계가 붉으며 편리하고 요긴할 쏘더러 영문보다도 더 편리하고 글조들의 음을 알아보기가 분명하고 쉬운 것을 말하엿거니와 …(중략) 『이제까지 조선 안에 조선말의 법식을 아는 사람도 업고 또 조선 말의 법식을 배우는 책도 만들지 아니하엿스니 엿지 붓그럽지 아니하리오. 다형히 근일에 학교에서 조선말의 경계를 궁구하고 공부하여 적이 분석한 사람들이 잇스니 …(하략) -쥬상호, ‘국문론’, 『독립신문』1897.9.25.

20세기 초 구어의 발견은 ‘근대 시민사회’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국비 유학생의 출현, 다수의 언론 매체 등장 등은 국어 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국어의 변화도 급속하게 일어난다. 전통적인 언어 예절뿐만 아니라 ‘말하기·듣기 방법과 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대중을 대상으로 한 웅변·연설법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5) 근대 계몽기 말하기·듣기 방법 및 태도 관련 교육 내용

- ㄱ. 『中等修身教科書』第十八課 言語: 言語는 己의 意思를 人의게 傳하는 樞機라. 其語調와 話柄의 態度로 由하야 人物의 一端을 表示하는 者인 故로 人은 恒常 此를 修鍊하야 應對할 際에 談話의 要領을 務得하던 發音을 明晰히 하고 語調를 簡單히 하며 且 狀態의 眞率을 著見하야

13) 구어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는 민현식(1994), 노대규(1996), 구현정·전영옥(2002), 김미형(2004), 지은희(2011) 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14) 허재영(2011), 근대 계몽기 언문일치의 본질과 국한문체의 유형, 『어문학』114, 한국어문학회, 441-467.

15) 허재영(2011) 앞의 논문.

聽者로 ㅎ야곰 甚히 感動의 心을 起케 ㅎ이 必要ㅎ지오, 若 發音이 促雜ㅎ고 語調가 澁晦ㅎ면 雖 其言語에 相當ㅎ 理由가 有ㅎ야도 畢竟은 聽者로 ㅎ야곰 其 頭緒를 未曉ㅎ지니 (中略) 言語는 口에서 一出ㅎ면 更收키 不能ㅎ니 人은 必 話柄을 擇ㅎ야 應接의 禮를 守ㅎ되 妄히 無用의 言을 弄ㅎ야 不測의 禍를 勿招ㅎ지어다.(下略)

ㄴ. 第十九課 言語(續): 談話ㅎ 際에 平生 審慎ㅎ 者는 虛妄의 言이니 大小事를 勿論ㅎ고 虛言을 發ㅎ는 人은 自信의 道를 失ㅎ 者ㅣ라. 故로 己의 價格을 墜ㅎ며 人의게 信用을 失ㅎ지오 且 人言을 輕信ㅎ야 事의 實否를 不究ㅎ고 即時 人의게 傳播ㅎ면 其 結果는 虛妄에 歸ㅎ지며, 且 他人의 秘密을 發ㅎ며 或 過失을 彰ㅎ며 又或 自己의 美事를 誇說함을 賤婢를 自表ㅎ는 者ㅣ라. (中略) 且 他人으로 接語ㅎ에 三愆의 戒가 有ㅎ니 人의 言이 未終ㅎ야서 可否를 不察ㅎ고 突然 妄議ㅎ야 誤失을 指摘ㅎ거나 或 言辭의 末을 釣ㅎ야 空然 詰問ㅎ거나 或 自己의 言을 聽케 ㅎ기 爲ㅎ야 獨自辯論ㅎ고 他人의 口를 勿開케 ㅎ는 等事ㅣ니 (下略)

ㄷ. 『初等修身書』第三章 雜著 第十二 言語: 言語는 人生의 最大ㅎ 無形樞機라. 此機關을 一發ㅎ이 吉凶과 榮辱이 卽地에 應ㅎ느니 言語를 發ㅎ 時에 十分 詳審치 아니ㅎ면 妄發의 弊가 無치 못ㅎ지며 又 語音이 低殘模糊ㅎ면 聽ㅎ는 者이 誤解ㅎ기 易ㅎ지오 高叫燥妄ㅎ면 聽ㅎ는 者이 衝突ㅎ기 易ㅎ지며 他人의 對話ㅎ이 可否를 察치 못ㅎ고 是非를 妄議ㅎ거나 人을 對ㅎ야 他人의 長短을 妄論ㅎ은 言語의 最忌ㅎ 者이니라.

언어 예절이나 말하기·듣기 방법에 관한 관심은 주로 ‘수신’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위의 (5ㄱ)에서는 담화를 할 때 ‘어조(語調)’와 ‘화병(話柄)’을 택하여 무용의 말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한 내용으로, ‘어조’는 말의 길이나 발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화병’은 담화의 근본을 이루는 화제 또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5ㄴ)에서는 ‘접어 삼건의 계’를 제시하였는데, ‘돌연 망의(突然妄議)’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며, ‘공연 힐문(空然詰問)’은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또한 ‘독자 변론(獨自辯論)’은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태도를 경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웅변과 처세술 또한 의사소통 양식과 국어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영우(1998)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웅변이나 연설, 토론 관련 이론이 도입된 것은 1908년 전후로 보인다. 이 시기 윤치호(1908)의 『의회통용규칙』(황성신문사 인쇄, 중앙서관 발매)은 헨리 로버트의 Pocet Manual of Rule of Order for Parliamentary(1876년 초판, 1896년 제4판)을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안국선(1907)의 『연설법방(演說法方)』(창신사)이 저술되기도 하였다. 전영우(1998: 27~30)에서는 안국선(1907)은 이 시기 일본에 수용된 구미 화법을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입한 것으로, 비교적 현대 이론에 근접한 연설법이라고 해석하고, ‘웅변가의 최초’, ‘웅변가가 되는 방법’, ‘연설자의 태도’, ‘연설 방식’, ‘연설과 감정’, ‘연설의 숙습’, ‘연설의 종결’ 등의 장별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설법이 도입된 것은 서구 학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계몽 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전영우(1998)에서 밝힌 것처럼 이 시기 ‘이상재,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안창호’ 등이 다양한 연설 및 토론 활동을 전개한 것은 협성회나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등의 계몽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¹⁶⁾ 연설이나 웅변은 본질적으로 화자 중심의 말하기이자 설득적 말하기에 해당한다. 자신들의 개화 의식을 민중에게 전파하기 위한 설득적인 말하기로 ‘웅변’과 ‘연설’ 또는 ‘토론’이라는 장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16) 협성회의 토론 주제는 『협성회회보』제1호(1896.11.3.) ~ 제14호(1898.4.16.), 『미일신문』1898.5.14.~7.2. 등에 실려 있다. 전영우(1998: 308~312)에서도 그 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 또한 독립협회의 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전영우(1998: 337~339)를 참고할 수 있다.

시기의 화법 연구는 화법의 본질인 ‘의사소통’보다는 ‘설득적인 성격’이 강조된 면이 있다¹⁷⁾.

이와 같이 20세기 초에는 국어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이 성립되어 있었다. 특히 언문 불일치의 불편, 대중 의식의 성장 등은 국어의 문법 변화의 사회·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2. 20세기 초 문법 변화 양상

문법 범주나 문법 형태소가 변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메커니즘과 방향이 존재하며, 변화의 속도는 언어 상황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 역사·비교 언어학자로 유명한 헤르만 파울(Hermann Paul, 1891)¹⁸⁾에서는 언어 발달의 본질을 관찰하면서 음변화나 조어법의 변화 등에 ‘유추(analogy)’, ‘언어 접촉과 오염(contamination)’, ‘신어 창조(original creation)’, ‘고립과 반응’, ‘새로운 집단의 형성’, ‘유추에 의해 형성된 기능 변화’, ‘어원적 연계에 따른 대치’ 등의 요인을 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메커니즘으로 설정하였다.

문법 형태소의 생성과 소멸, 기능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문법화(grammaticalization)에서도 ‘재분석과 유추’, ‘화용론적 추론’, ‘탈범주화’, ‘특수화’ 등을 문법화의 주된 원리로 제시하며, 문법 변화에 일정한 방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¹⁹⁾

20세기 국어의 문법 변화에서도 주목할 현상은 언문일치 의식에 따라 담화 상황을 반영한 문법 형태소의 쓰임이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범용 어미’의 확장이나 ‘보조사’의 문법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범용어미는 의향법에서 서술, 명령, 청유 등의 여러 범주에 두루 쓰이는 어미를 뜻한다.²⁰⁾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6) 범용 어미

- ㄱ. 글언디는 음악자사 흘일 무엇이나 안흔 일 발명흐엿스면 그만이지(李)-‘가담’, 耳長者, 『서북학회월보』제17호. 1909.
- ㄴ. 죄 글얼이가 잇나 第一 亡흔 자들은 京城內人들이니 兩班 常놈 勿論흐고 生活홀 줄 쏘혀 몰으로 잡혀 먹을까기 불일 못 보다가 來終에는 엇더케 흐라는지? -‘갑을문답’ 『서북학회월보』제16호. 1909.

이 예문에 나타난 ‘-지’는 서술과 명령에 모두 쓰인다. 허재영(2012)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어의 범용어미는 17세기의 문헌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물론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17) 근대 계몽기 ‘대인 관계 형성’ 또는 ‘의사소통’ 차원에서 ‘처세법(處世法)’을 소개한 서병길(1906-1907)의 논문과 이훈영(1907)의 ‘愉快한 處世法’은 흥미로운 논문에 해당한다. 두 논문은 체제와 내용이 유사한데, 서병길(1906-1907)은 『少年韓半島』창간호(1906.11)에 ‘交際上禮敬: 現今 文明各國通禮’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뒤, 제2호(1906.12.)부터 제6호(1907.4.)까지는 ‘交際新禮’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제4호(1907.2.)에 실린 ‘談話’는 화법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훈영(1907)은 『太極學報』제8호~제9호(1907.8.~9.)에 연재된 것으로 ‘人에게 對하는 法’, ‘言動上の 作法’, ‘人을 觀하는 法’, ‘交際上の 禁物’, ‘他人과 談話할 時’, ‘華盛頓의 座右銘’으로 구성되어 있다.

18) Hermann Paul, 1891, *Principles of the History of Language*,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H.A.Strong, M.A., LL.D. Translated from the Second Edition of the Original)

19) 문법화론에 대해서는 폴 하퍼·엘리자베스 트루곳, 김은일 외 역(1999), 『문법화』(한신문화사) 등 다수의 저서를 참고할 수 있다.

20) 권재일(2005: 23).

그 당시에 범용어미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지만 19세기 말의 문헌에서는 범용어미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교린수지』의 경우 ‘-거니, -거든, -고, -니, -소, -오, -지’ 등이 범용어미로 쓰이고 있다. 각각의 형태소가 범용어미로 쓰이게 되는 과정은 개별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범용어미는 문어적 표현보다는 화자와 청자가 담화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구어적 표현에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²¹⁾

구어적 상황을 반영하는 문법 변화 가운데 또 하나의 예로 보조사의 문법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형태 분석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국어 보조사 목록은 주시경(1910)의 경우 ‘까지, 나, 는, 도, 든지, 라도, 마다, 만, 야, 야말로’ 등 10여 개를 들고 있으나 최현배(1937)에서는 ‘나마, 밖에,부터, 서건, 커녕’ 등을 포함하여 25개에 이르는 목록을 제시한다. 허재영(2007)에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나타나는 보조로사 ‘긋치/갓치, 다려/더러, 보다/ 보담/보단, 버팀/부팀, 밖에/밖의, 뽐/쌈, 처로/체로, 헝고/하고, 한테’ 등이 문법화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기존의 언해 문헌과는 달리 구어적 성격이 강한 문헌에서 이러한 보조사가 폭넓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법 변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변화의 속도에 관한 문제이다. 어떤 문법 범주나 형태소는 생성과 소멸, 또는 기능 변화의 과정이 매우 지속적인 데 비해, 어떤 경우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예를 들어 높임의 조사 ‘요’는 1881년 호세코가 주해한 『교린수지』에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1896~1989년 사이의 『독립신문』에서도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신문에서는 ‘요’ 대신 ‘-지+오’의 형태만 찾을 수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판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열녀춘향수절가』(엄밀히 고증하면 이 방각본은 190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됨)에는 ‘되지요, 몰나요, 노와요, 그러치요’ 등과 같은 ‘요’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1907년 『대한유학생월보』 제3호 몽몽(夢夢) 작 ‘쓰러져 가는 답’인데, 이 작품에서는 서술법이나 의문법 등의 의향어미뿐만 아니라 체언 다음에도 ‘요’가 붙는다. 예를 들어 ‘저 길동아버디가요, 전에 가디고 나가시려고 벽당에 두신 모본딘 열필 보니시라구요.’는 오늘날의 국어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휴지(休止)에 해당하는 부분에 ‘요’를 붙인 것이다. 이처럼 높임의 조사 ‘요’는 1880년부터 1900년 사이에 분포가 급격히 넓어진 문법 형태소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 20세기 초와 1920년대 문법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세기 초의 국어 변화에서 주목할 사실은 1900년대와 1920년대 국어의 모습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문체상의 변화와 국어의 단문화 경향이다.

문법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문불일치의 국한문체에서 차츰 언문일치체가 발달하는 것은 주목할 일인데, 유길준(1907)의 『노동야학독본』의 “人[사람]은 天[하늘]과 地[지] 사이에

21) 허재영(2012), 국어의 범용 어미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80, 한국언어학회, 5-28. 이 논문에서는 국어 범용어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권재일(2005)에서 비롯되었으며, 언더우드(1893)에서도 범용어미의 존재가 언급된 바 있음을 밝히고, 19세기 말 ‘-소’, ‘-오’, ‘-지’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가장 靈[신령]하니라. 靈[신령]하다 흠은 엇지 謂[일흠]이뇨.”와 같이 문어의 ‘인, 천, 지, 령, 위’ 등과 구어의 ‘사람, 하늘, 짜, 신령, 일흠’이 병존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1920년대 이전의 경우 학술 문헌은 대부분 전자 형태로 쓰이다가 1920년대 이후 후자로 변화하는 사례가 많다. 물론 구어성이 강한 문헌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일관되지 않으나, 1920년대 이전의 소설에서도 간혹 언문 불일치의 국한문체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1920년대 국어의 단문화에 대해서는 최석재(2000)의 연구가 있다. 단문화란 이어진 문장을 몇 개의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최석재(2000)에서는 『누가복음』, 『천로역정』, 신문 자료 등을 대상으로 단문화 경향을 파악했는데, 단문화의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문화 현상을 문체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단문화 과정에도 문법 변화가 보인다. 예를 들어 중세 국어로부터 19세기 말까지 ‘연결어미 + 접속어’의 구조를 갖는 문장이 ‘문장 종결 + 접속어’로 변화하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접속어의 역할이 뚜렷해지면서 앞 문장이 종결되는 현상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보통 ‘연결어미 + 접속어’의 구조를 갖는 문장을 살펴보면 앞의 연결어미와 접속어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단문화가 발달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7) 연결어미 + 접속어 구조

- ㄱ. 진나라 이후에 비록 성하고 쇠하며 난호이고 합함이 여러 번 변하나 그러나 밧그로 근심하는 밧 자는 (이언 1-3: b)
- ㄴ. 법이론 거슨 여러 나라히 곳치 그 법을 핑하는 거시나, 그러나 명명이 허락하는 것과 가마니 허락하는 것과 심성으로 쇼스나는 법과 예스로이 하는 법이 (이언 1-6: a)

이와 같은 문장 구조는 1920년대 이후 ‘문장 종결 + 접속어’의 구조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연결어미와 접속어의 기능 중복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세기 초까지 문어 문헌에 많이 쓰인 서술성의 ‘-이라: -니라’의 대립이 ‘-다’로 대체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다. 보통 20세기 초까지의 문헌에서 ‘-이라’는 종결과 연결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음에 비해 ‘-니라’는 종결에만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95년 학부에서 편찬한 『지구약론(地球略論)』은 문답 형식의 교과서로 총 194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장은 질문에서 “~이뇨?” 형식의 의문문이 쓰이고, 대답에서 “~니라.” 형식의 서술문이 쓰인다. ‘-이라’와는 달리 ‘-니라’는 연결어미 형태로는 전혀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1920년대 이후에는 ‘-이라/니라’ 형식의 문장이 거의 쓰이지 않고, 대부분 ‘-다’로 종결되는 문장을 쓴다. 이는 문장의 단문화가 문체상의 문제라기보다 문법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문법 변화나 문체상의 변화가 뚜렷한 점을 고려한다면, 20세기 초의 국어사와 1920년대 이후의 국어사를 구분하여 문법을 기술하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 특히 국어의 규범이 통일된 1933년 이후에도 각종 신문에서 규범으로 정해진 ‘~읍니다.’ 형 문장 종결을 취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습니다.’를 섞어 쓰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언중의 문법 의식이 규범에 따라 전적으로 바뀌지 않음을 의미한다.

■ 참고 문헌

- 강진호·허재영(2010), 『조선어독본』1~5, 제이앤씨.
- 고영근(1998), 『한국 어문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 권재일(2005), 『20세기 초기 국어의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병걸(1932), 演說 練習法, 『農民』3-7, 38~42쪽.
- 김상돈(1984), 國語史의 時代區分論, 『논문집』2, 부산외국어대학, 457-472.
- 김슬옹(2011), 국어교육을 위한 근대국어 시대구분론, 『사회언어학』 19-2, 한국사회언어학회, 85-106.
- 김영민(2009), 「근대 계몽기 문체 연구」, 『동방학지』제148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91-428.
- 김종택(1985), 국어사 기술의 원천적 의문, 『국어교육연구』17, 국어교육학회, 1-12.
- 김창제(1917), 연설법 요령, 『청춘』제7호, 104~142쪽.
- 김형철(1997), 『개화기 국어 연구』, 경남대 출판부.
- 문혜윤(2008), 『문학어의 근대』, 소명출판.
- 민현식(2008), 19세기 국어에 대한 종합적 검토, 『국어국문학』149, 국어국문학회, 23-68.
- 박갑수 편저(1994), 『국어 문체론』, 대한교과서(주).
- 배수찬(2008),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 소명출판.
- 사이트 마레시 지음, 황호덕·임상석·류충희 옮김(2010), 『근대어의 탄생과 한문』, 현실문화.
- 서병길(1907), 交際新禮, 『少年韓半島』제4호, 소년한반도사. 40~41쪽.
- 송철의 외(2008), 『한국 근대 초기의 어휘』, 서울대학교출판부.
- 유길준(1895), 『서유견문』, 교순사(이한섭 편저(2000), 『서유견문』, 박이정).
- 유길준(1908), 『노동야학독본』, 경성일보사.(아세아문화사 개화기 교과서 총서 수록).
- 유동엽(2005), 화법 교육 연구사, 한국국어교육학회 편찬위원회 『국어교육론』2, 한국문화사, 263~292쪽.
- 이연숙 저, 고영진·임경화 역(2006), 『국어라는 사상: 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 소명출판.
- 이응호(1975), 『개화기의 한글 운동』, 성정사.
- 이현희(1994),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1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57-81쪽.
- 이현희(2007), 19세기 초기부터 20세기 초기까지의 한국어는 어떤 모습이었다, 『우리말글』41, 우리말글학회, 1-40쪽.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2011), 『근대 수신 교과서』1~3, 소명출판.
- 이훈영(1907), 愉快한 處世法, 『太極學報』제8호(1907.8.), 16~27쪽.(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8, 한국개화기학술지 수록).
- 이희승(1937), ‘思想 表現과 語感’, 『한글』제5권 제9호, 한글학회, 4~8쪽.
- 전영우(1998), 『신국어 화법론』, 태학사.
- 전은주(1999), 『말하기 듣기 교육론』, 박이정.
- 전은주(2005), 화법 교육 변천사, 한국국어교육학회 편찬위원회 『국어교육론』2, 한국문화사, 295~297쪽.
- 정 광(1992), 근대 국어 연구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연구 방법의 모색, 『어문논집』31, 안암어문학회, 99-116.

- 정길남(1997), 『개화기 교과서의 우리말 연구』, 박이정.
- 정승철·김동언·김형철·민현식·이현희(1999),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4: 개화기 국어』, 국립국어원.
- 정열모(1927), 조선어 문법론, 『동인한글』 제1권 제3호, 조선어연구회.
- 정열모(1927), 조선어 연구의 정체, 『동인한글』 제1권 제2~4호, 조선어연구회.
- 주시경(1906), 『유인 대한국어문법』(역대문법대계 1-07, 탑출판사).
- 최경봉(2010), 국어학사의 서술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근대국어학사의 서술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학』59, 국어학회, 153-184.
- 최석재(2000), 개화기 이후의 단문화의 과정,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3』, 박이정.
- 최현배(1927), 언어학상으로 본 조선어, 『동인한글』 제1권 제4호, 조선어연구회.
- 최현배(1984), 『우리말본』(열한번째 고침), 정음문화사.
- 폴 하퍼·엘리자베스 트루곳, 김은일 외(1999), 『문법화』, 한신문화사.
- 하동호 편(1985), 『국문론집성』(역대문법대계 3-06), 탑출판사.
- 학 부(1895), 『지구약론』, 학부.
- 한국학문헌연구소(1977), 『개화기 교과서 총서』1~20, 아세아문화사.
- 허웅(1981), 『언어학』, 샘문화사.
- 허재영(2007), 한국어 보조사의 문법화, 『한민족 문화 연구』22, 한민족문화학회, 59-79.
- 허재영(2008), 『국어의 변화와 국어사 탐색』, 소통.
- 허재영(2008), 높임의 조사 ‘요’의 문법화, 『한말연구』23, 한말연구학회, 473-493.
- 허재영(2010), 『근대 계몽기 어문 정책과 국어 교육』, 보고서.
- 허재영(2011), 「국어사에서 근대 계몽기의 설정과 사전 편찬의 필요성」, 『한국사전학』제17호, 한국사전학회, 267-288.
- 허재영(2011), 국어사에서 근대 계몽기의 설정과 사전 편찬의 필요성, 『한국사전학』17, 한국사전학회, 267-288.
- 허재영(2011), 근대 계몽기 언문일치의 본질과 국한문체의 유형, 『어문학』114, 한국어문학회, 441-467.
- 허재영(2012), 국어의 범용 어미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80, 한국언어문학회, 5-28.
- 허재영(2012), 비격식체 상대 높임 조사 ‘요’의 기능과 생성·변화 과정, 『한민족어문학』60, 한민족어문학회, 245-270.
- 허재영(2014), 로스의 코리안 프라이머(1877)와 코리안 스피치(1882)의 의향법 비교 연구, 『우리말연구』37, 우리말학회, 219-247.
- 혈 벗(1886~1992), 『스민필지』(출판사 불명).
- 현병주(2005), 『웅변전능 연설법 대방』, 경성 동양대학당.
- 홍운표(1994), 國語史의 時代區分, 『한국학연구』1, 단국대 한국학연구소, 131-142.
- 홍운표(1995), 國語史 時代區分의 問題點과 文法史의 측면에서 본 時代區, 『국어학』25, 457-472.
- 홍종선 외(2000),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1-3, 박이정.
- H.G.Underwood(1893: 4~5),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 Yokohama Seishi Bunsha.(역대문법대계 2-1, 탑출판사).
- Hermann Paul, 1891, Principles of the History of Language, London Longmans, Green and Co. (H.A.Strong, M.A., LL.D. Trasnslated from the Second Edition of the Original)
- J.Ross(1877), *Corean Primer*,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Shanghai.(역대문법대계 2-02, 탑출판사).
- J.Ross(1878), The Korean Language, *The China Review: Notes and Queries on the far East*. Vol VI. Hongkong.(역대문법대계 2-03, 탑출판사).
- J.S.Gale(1894), *Korean Grammatical Form*(辭課指南, 스과지남), Trilingual Press Seoul.(역대문법대계 2-14, 탑출판사).

■ 토 론

“국어사 시대 구분과 20세기 전반기의 문법 변화”에 대한 토론문

이승희(상명대)

국어사의 시대 구분의 문제는 국어사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지만, 시대 구분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다른 연구 주제와 비교할 때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나, 발표자의 지적처럼 “시대 구분은 역사 발전 법칙을 탐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귀납적으로 연구를 종합하여 기술해야 할 복합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먼저 현상을 연구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시대 구분의 문제로 되돌아가자는, 결과적으로는 문제 해결에서 우선 순위가 밀린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를 가장 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이 발표를 통해 다시금 고민할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간 학자들에 따라 개화기 국어 혹은 현대 국어로 다루어진 20세기 초, 1920년대 이전의 국어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 역시 의미가 깊다. 여기서는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자의 의무를 대신하고자 한다.

1. 발표문에서는 국어사 시대 구분의 세 가지 쟁점으로 ‘시대 구분의 목적’, ‘시대 구분의 기준’,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의 경계’를 제시되었는데, 앞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좀 더 명시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특히 ‘시대 구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비해 ‘시대 구분의 목적’은, 역사 연구에서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목적’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대 구분의 목적’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발표문의 지적을 새롭게 문제 의식을 환기할 기회가 되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시대 구분의 목적’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시대 구분의 목적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들려주셨으면 한다.

2. 또한 ‘시대 구분의 기준’과 관련해서, 기존에 국어의 언어 내적 변화(‘內史’), 그 중에서도 특히 ‘음운 변화’에 초점을 맞춘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음운과 형태, 통사, 어휘 등을 모두 함께 고려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회의가 드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국어사 문헌이 빈약한 시대일수록, 외사의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문헌이 다수 출현한 근대 이후의 국어사에서 외사의 영향을 배제하기는 힘들다.”라 지적하였듯이 언어 외적 상황(언어 인식, 언어 정책 등까지 포함)을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배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하고자 한다.

3. 20세기 초 국어의 문법 변화 중 두드러진 것으로 ‘범용 어미’의 확장과 ‘보조사’의 문법화를 들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나타나는 보조사로 ‘긋치/갓치, 다려/더러, 보다/보담/보단,

버팀/부팀, 밖에/밖의, 뽐/쌈, 처로/체로, 하고/하고, 한테'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보조사 '드려, 브터' 등은 이미 후기 중세국어에서도 상당히 문법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고되어 왔고, 'ㄱ티>긋치, 보다가>보담, 테로>체로>처로' 등도 최소한 19세기 이전에 이미 문법화가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이신지 듣고자 한다.

또한 결론에서 1920년대 이후 국어의 단문화가 발달한 것, 즉 '연결어미 + 접속어'의 구조를 갖는 문장이 '문장 종결 + 접속어'로 변화하는 경향에 대해 문체의 변화라기보다는 문법의 변화로 볼 것을 제안하였는데, 현대국어의 경우도 구어에서는 단문의 나열보다는 '연결어미+접속어', 혹은 연결어미만으로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발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는 '문체'의 변화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4. 끝으로, 2장 끝에서 “이 시기는 음운이나 표기, 문체 면에서 19세기 말과 동질성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문법 변화나 어휘 면에서는 달라진 점도 많다.”라고 기술한 바로 뒤에서 “그렇기 때문에 언어 내사의 ‘문법’, ‘어휘’ 차원이나 ‘국어·국문 의식 형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근대 국어’라는 용어 사용이 적절할 수 있으며, ‘음운’ 차원에서는 ‘현대 국어’로 인식할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은 오류로 보인다.

제4부 <제4 분과 자유발표>

신어 형성 방식 유형

김병건(건국대)

< 차례 >

1. 머리말
2. 이전 연구
3. 신어 형성 방식 유형
4. 맺음말

1. 머리말

1990년 초 통신언어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언어 질서는 PC의 보급, 스마트폰의 일상화를 거치면서 더는 몇몇의 일탈적 혹은 유희적 언어가 아니게 되었다. 통신언어가 기반이 된 초기의 신어는 컴퓨터 통신의 채팅방이나 몇몇 사이트의 게시판에서만 성행하던 유희의 성격이 강했으나, 현재에는 인터넷 환경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일상의 언어로 번져있다. ‘헐’, ‘남사친’, ‘냥무룩’ 등과 같은 말들이 일상 언어 환경에서도 빈번히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몇몇 TV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말이나 자막을 통해 노출됨으로써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신어들은 합성어·파생어로 대표되는 국어의 조어법적 전통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면이 있다. 예를 들어, ‘냥무룩’을 합성어로 봐야하는지, 파생어로 봐야하는지, 또는 단일어로 봐야하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냥무룩’은 합성·파생이 아닌 새로운 조어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년 동안 구어 환경에서 대학 2~3학년생들에게서 사용이 관찰된 신어를 대상으로 형태론적 단어 형성 방식의 유형(=조어법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신어의 만들어진 시기, 사전 등재 가능성 등은 고려하지 않았고, 글말에서만 관찰되는 ‘ㅇㅈ’, ‘ㄴㄴ’, ‘ㅈㄴㄱㄷ’ 등의 두문자어(acronyms)와 ‘강(←그냥), 글구(←그리고), 깃사(←기숙사), 겜(←game), 렐(←level)’과 같은 음운론적 축약에 의한 준말은 제외했다. 그리고 수집된 신어가 개인어일 가능성을 고려해 5회 이상 관찰된 것, 인터넷 등에서 사용이 확인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대상이 된 신어는 모두 1,030여 개이다.

2. 이전 연구

신어 관련 연구 주제에는 신어의 사전 등재 요건이라든지, 신어의 생성 원리라든지, 신어의 정착 등과 관련된 연구들도 있지만 신어의 조어법적 유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문금현(1999)에서는 ‘체계적인 방식, 재활용의 방식, 산발적인 방식’ 크게 세 가지의 생성 방식에 따라 신어를 유형 분류하고, ‘체계적인 방식’을 다시 ‘기존 형태에 접사 결합’(파생법), ‘기존 형태의 합성’(합성법), ‘기존 형태의 변형’으로 나누었다. 합성법·파생법에서 벗어난 신어를 처리한 ‘기존 형태의 변형’은 ‘기존 단어 일부의 대체, 기존 형태의 축약(준말과 약어), 기존 형태의 역전’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체계에 따르면 ‘광우병(←광견병), 눈가심(←입가심), 차계부(←가계부)’는 기존 단어 일부의 대체, ‘고딩’은 준말, ‘따, 명퇴, 코디’는 약어, ‘짜가(←가짜)’는 기존 형태의 역전이 된다.

문금현(1999)는 ‘기레기’, ‘웃프다’, ‘귀차니스트’와 같이 합성법·파생법으로 설명하기 힘든 신어들을 새롭게 분류하길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문금현(1999)의 체계는 ‘기존 형태의 합성’인 합성어와 ‘기존 형태의 변형>축약>약어’ 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문금현(1999:311)에서는 “기존에 합성어나 구로 존재했던 것이 절단 현상에 의해 축약된 것만 ‘약어’로 보고, 기존에 합성어의 형성이 선행되지 않고 생겨난 것들은 ‘형태손상형 합성어’로 처리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설명대로라면 ‘장실’(←화장실)도 약어이고 ‘전차스’(←전자파 차단 스티커)도 약어이고, ‘악플’(←악성 리플)도 약어가 된다. 이 셋의 조어 방식엔 분명 차이가 있는 듯 보인다. 또, ‘몰래바이트, 라볶이’를 합성법의 테두리에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된 말”(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합성어의 정의에 따라 ‘바이트’, ‘라’, ‘볶이’를 실질 형태소라고 봐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은섭(2007), 전명미·최동주(2007), 김정아·김예니·이수진(2013), 이수진·김예니(2014) 등에서도 전통적 조어법인 합성법·파생법을 기본으로 신어 형성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설명했듯 합성법·파생법이라는 틀은 기존의 조어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신어를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한편 이은섭(2007)에서는 ‘기레기, 가싶남, 귀차니스트’ 등의 구성요소들인 ‘기’, ‘레기’, ‘가’, ‘싶’, ‘남’, ‘귀찬’, ‘이스트’를 어근 또는 의사어근(‘단어 형성 과정에서 어근이라고 보기 힘든 형식들이 어근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 원형식의 의미를 유지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으로 보고 합성어로 처리하고 있다.

최근엔 ‘기레기’, ‘웃프다’, ‘귀차니스트’와 같은 신어들에 대해 박용찬(2008), 노명희(2010), 이호승(2011), 이선영(2016) 등에서 ‘두음절어’, ‘절단어’, ‘혼성어’ 등으로 설명이 시도되고 있다. 박용찬(2008)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에서 각각의 일부분을 취하여 형성된 단어인 ‘취집’(취업+시집)과 같은 ‘혼성어’와 ‘아점’(아침+점심)과 같은 ‘두음절어’를 구분했고, 노명희(2010:262~263)에서는 단어의 일부가 잘리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형성하는 ‘절단어’와 함께, “두음절어는 원래의 단어나 구가 갖는 의미와 줄어든 형식의 의미가 같은 반면, 혼성어는 기본적으로 ‘레캥스, 라볶이’ 등과 같이 두 단어의 특성을 모두 가진 새로운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며 ‘두음절어’와 ‘혼성어’를 구분했는데, 앞 단어의 앞부분과 뒤 단어의 앞부분이 결합된 ‘아점’과 같은 단어를 ‘두음절어’로 보았다. 하지만 이호승(2011)에서는 ‘절단어’와 ‘혼성어’로 구분하고, ‘아점’과 ‘점저’와 같은 단어들도 ‘아침 겸 점심’, ‘점심 겸 저녁’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두음절어’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선영(2016)에서는 ‘두음절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약칭어’를 설정하고, ‘혼성어’와 구별했다. 이 둘의 구별은 노명희(2010)과는 달리 결합하는 성분의 위치가 아니다. ‘엄빠’(엄마와 아빠)와 같은 ‘약칭어’는 원말이 존재하며, 원상태로의 복귀가 가능하며, 의미가 투명한 데 반해

‘할빠’(아빠 역할을 하는 할아버지)와 같은 ‘혼성어’는 원말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상태로의 복귀가 불가능하며, 의미가 불투명하다(그 구성성분이 무엇인지 알아도 의미를 알기 어렵다)고 했다. 정리하면, 논의의 핵심은 ‘두음절어’(또는 ‘약칭어’)와 ‘혼성어’를 구분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이다. 더불어, ‘절단어’를 설정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설정한다면 그 특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것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3. 신어 형성 방식 유형

조사된 신어의 형성 방식 유형은 ‘신생어(coinings), 절단어(clipped words), 혼성어(blends), 합성어(compound words), 파생어(derivatives)’ 5가지이다.¹⁾

3.1. 신생어(coinings)

‘신생어’는 새로운 물품이나 개념의 표현 필요성 등으로 최근에 새로이 만들어진 단어이다. 진정한 신생어는, 고유어의 경우, 합성법·파생법 등 다른 조어법으로 만들어지는 단어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드물게 나타난다.

(1) ㄱ. 헐

- ㄴ. 음야, 주루, 츄릅, 파오후 / 샴방
- ㄷ. 와방
- ㄹ. 짜지다, 찢다 / 뺨세다, 뺨치다
- ㅁ. 찢파

(2) ㄱ. 우양, 눈누난나, 어익후²⁾

- ㄴ. 텅기다, 뺨가다, 흐뭇하다³⁾
- ㄷ. 고나리, 오나전⁴⁾
- ㄹ. 멍멍미⁵⁾ / 똥똥니, 뺨신, 언냐, 옥희, 제길순, 조넨, 주작⁶⁾
- ㅁ. 노오오력, 썰, 짱⁷⁾

(3) ㄱ. 낚다, 돋다, 뺨다, 지리다⁸⁾

1) 이하 신어의 뜻풀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 네이버 『오픈사전』, 신어 사용자에게 취재한 내용 등을 참고로 했다.

2) ‘우양’은 느낌씨인 ‘우아’에 원말보다 귀엽거나 친근한 느낌을 주는 ‘ㅇ’을 합친 것이고, ‘눈누난나’는 ‘룰루랄라’를 혀 짹은 소리로 발음한 것이다. ‘어익후’는 ‘어이쿠’를 비슷하지만 다르게 발음한 것이다.

3) ‘텅기다’는 ‘텅기다’와 같은 뜻으로 오타가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뺨가다’는 ‘뺨가다’와 같은 뜻으로 ‘뺨>뺨’의 변형이다. ‘흐뭇하다’는 ‘흐뭇하다’의 변형으로, 음절의 첫 자음을 서로 바꾼 것이다. 이 말은 특히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거나 야한 생각을 할 때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한다.

4) ‘고나리’는 ‘관리’의 오타였지만 ‘가르치려 들고 잔소리하는 것’을 뜻하게 된 것이고, ‘오나전’은 ‘완전’의 오타였지만 ‘완전’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5) 털을 전부 네모나게 자른 ‘멍멍이’.

6) 각각 ‘똥똥이, 뺨신, 언니, 오케이, 제기랄, 존나, 조작’의 변형이다. 같은 뜻을 가진다.

7) ‘노오오력’은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뜻하고, ‘썰’은 견해, 주의, 학설, 통설 따위를 이르는 말인 ‘설(說)’에서 변형되어 ‘의견이나 생각, 이야기, 경험담’을 뜻하게 되었다. ‘짱’은 어떤 조직체나 부서 단위의 우두머리의 의미인 ‘장(長)’의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최고’의 뜻을 가진다.

8) ‘낚다’는 낚시에서 미끼로 고기를 잡듯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를 뜻하고, ‘돋다’는 소름이 돋듯 재미, 감성 등이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뺨다’는 입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웃음을 참지 못해 뺨어내는 경우처럼 재미있다

ㄴ. 갑, 잉여, 조공, 잠수, 낚시, 사이다, 고구마, 궁예, 노가리, 북어⁹⁾

(2)는 원형태에서 변형되어 만들어진 신어이고, (3)은 원의미에서 확장되어 만들어진 신어이다. 이들은 기존의 형태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신생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고유어에서 진정한 신생어는 (1)뿐이다.

(1ㄱ)은 감탄사, (1ㄴ)은 흥내말, (1ㄷ)은 부사, (1ㄹ)은 용언이다. (1ㄱ)의 ‘헐’은 매우 놀라거나 어이가 없을 때 내는 감탄사이고, (1ㄴ)은 흥내말들로, ‘음야’(지루하고 졸릴 때 내는 소리), ‘주루’(눈물이 흐르는 소리), ‘츄릅’(군침이 도는 소리), ‘파오후’(똥똥한 사람의 호흡 소리)는 소리흥내말, ‘샤방’(‘반짝’과 같은 뜻)은 꼴흥내말이다. (1ㄷ)의 ‘와방’(매우, 굉장히, ...)은 부사이다. (1ㄹ)은 모두 용언이다. (1ㄹ)의 ‘짜지다’(꺼지다, 구석에 조용이 있다)는 ‘짜’와 ‘지-’로 형태 분석을 할 수 있는 듯 보이지만, ‘값지다, 기름지다, 세모지다, 멋지다’의 ‘지-’¹⁰⁾와 ‘짜지다’의 ‘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분석은 유효하지 않다. ‘절다’(대단하다, 굉장하다)도 ‘절다’(소금기 등이 배어들다)와의 관련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신생어로 보고자 한다. ‘빡세다’(힘들다), ‘빡치다’(화나다)도 형태 분석의 가능성이 있지만 분석의 근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빡세-’, ‘빡치-’를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가지는 신생어로 분류한다. ‘짜지다, 절다’는 근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나, ‘빡세다, 빡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림말로 올라있지는 않지만,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은어, 비속어 등으로 쓰이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¹¹⁾ (1ㄴ)은 ‘덜떨어진 사람’이란 뜻이다.¹²⁾

차용으로 인한 신생어들은 그 수가 많다.¹³⁾

(4) ㄱ. 걸크러쉬(girl crush), 그루밍(grooming), 뉴비(newbie), , 덕페이스(duck face), 레알(real), 마초(macho), 머글(muggle), 먼치킨(munchkin), 미러링(mirroring), 붐업(boom up), 블링 블링(bling-bling), 셸피(selfie), 씬스틸러(scene stealer), 웰빙(well-being), 치트(cheat), 캐리(carry), 클래스(class), 웨이크(fake), 프레너미(frememy), 트래션(trashion), 친디아(chindia), 노모포비아(nomophobia), 옴로(YOLO), 님비(NIMBY)

ㄴ. 간지(かんじ), 기모띠(氣持ち), 닌겐(にんげん), 츠데레(つんでれ), 사스가(さすが), 세क्स(セックス)

ㄷ. 브금(BGM)

ㄹ. 야매(←야미), 난희골혜(なあにこれ), 오덕후(おたく)

는 것이고, ‘지리다’는 어떤 사람이나 현상이 오줌을 약간 쌀 정도로 대단하다는 뜻이다.

9) 차례나 등급을 매길 때 첫째를 이르는 말인 ‘갑’은 ‘최고’를 뜻하는 말로, 쓰고 난 후 남은 것을 ‘잉여’는 ‘쓸모없는 것’을 뜻하는 말로, 종속국이 종주국에 때를 맞추어 예물을 바치던 일을 뜻하는 ‘조공’은 ‘팬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때마다 갖다 주는 선물’을 뜻하는 말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잠수’와 ‘낚시’도 원행위와 비슷한 행위라는 데에 착안한 신어이다. ‘사이다’와 ‘고구마’는 각각 ‘사이다를 마신 것 같이 시원한 일’,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일 또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궁예’는 ‘미래 예측’을 뜻하는 데 미래를 예측하곤 했던 한 TV 드라마의 등장인물의 이름에서 온 것이다. ‘노가리’와 ‘북어’는 사회적 약자인 직장인이나 취업준비생의 상황을 작거나 매 맞는 생선에 빗댄 표현이다.

10)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성질이 있음’ 또는 ‘그런 모양임’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이다.(『표준국어대사전』)

11) 이는 글쓴이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12) 『우리말샘』에 따르면 ‘찐따’는 ‘절름발이’의 전복 방언이다. 그리고 네이버 『오픈사전』에 따르면 본래는 ‘다리병신’의 의미였는데 6·25 이후 지뢰를 밟고 다리가 잘린 사람들을 명칭하게 지뢰나 밟았다는 의미로 쓰이면서 오늘날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어 ‘ちんぱ’에서 왔다는 설도 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신생어 중 하나로 처리한다.

13) 전명미·최동주(2007:53)에서도 차용으로 신어가 많이 만들어짐을 지적한 바 있다.

(4)는 차용으로 인한 신생어들이다. (4ㄱ,ㄷ)은 영어 차용어¹⁴⁾, (4ㄴ,ㄹ)은 일본어 차용어이다. (4ㄱ,ㄴ)은 원 뜻을 그대로 유지한 차용 신생어이지만, (4ㄷ,ㄹ)은 그 뜻은 원 뜻과 같지만 형태가 달라진 차용 신생어이다. 예를 들어 ‘브금’은 ‘배경음악’이라는 뜻은 같지만, 이를 영어식으로 ‘비지엠’이라 말하지 않는다. (4ㄹ)의 ‘야매’(비합법적인 방법의 일)는 암거래를 뜻하는 일본어 ‘야미’를, ‘난희골혜’(뽀야 이거)는 일본어 ‘なあにこれ’를, ‘오덕후’는 일본어 ‘おたく’를 우리 식으로 바꾼 것이다.

외국어에서 형태만을 차용하고 우리식 의미를 가지게 된 것들도 있다.

- (5) ㄱ. 더럽(the love), 레벨업(level up), 레전드(legend), 루저(loser), 버로우(burrow), 뽐뿌(pump), 실드(shield), 어그로(aggro), 오크(Orc), 트롤(Troll), 포스(force)
 ㄴ. 원츄(←want you), 버터페이스(←but the face)

(5ㄱ)의 ‘더럽’은 ‘아주 좋은 것이나 좋을 때’를 말하고, ‘레벨업’은 ‘지위나 상황, 품질 등이 좋아짐’을, ‘레전드’는 ‘최고’를, ‘루저’는 ‘말이나 행동, 외모가 볼품없고 능력과 재력도 부족하여 어디를 가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버로우’는 ‘자취를 감추는 것’을, ‘뽐뿌’는 ‘구매의 욕구가 일어남’을, ‘실드’는 ‘특정인을 옹호하는 것’을, ‘어그로’는 ‘관심과 시선을 짜증나게 끄는 것’을 뜻한다. ‘오크’는 ‘못생긴 사람’, ‘트롤’은 ‘고의적으로 공격적이거나 불쾌한 내용을 올려 반감을 사고 모임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사람’, ‘포스’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강력한 기운’을 의미한다. (5ㄴ)은 단어 이상의 단위가 차용되어 하나의 단어로 받아들여진 경우이다. ‘원츄’는 ‘훌륭하다, 대단하다, 최고다’ 정도의 의미이며, ‘버터페이스’는 ‘학벌, 집안, 능력 등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나 외모가 아쉬운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듯 차용 과정에서 원 뜻과는 달라져 신생어가 되기도 한다.

3.2. 절단어(clipped words)

‘절단어’는 이미 존재하는 단어의 음절을 생략하여 만든 것이다.(Denham & Lobeck 2010:201, 이호승 2011)

- (6) ㄱ. 깎(←아깎다), 즐(←즐겁다), 휠(←휠씬), 오덕(←오덕후(←おたく)), 덕후(←오덕후), 뉴페(←뉴페이스(new face)), 리플(←리플라이(reply)), 케미(←케미스트리(chemistry)), 드립(←애드립(ad lib)), 렐(←레벨(level)), 템(←아이템(item)), 스포(←스포일러(spoiler)), 캐릭(←캐릭터(character)), 디스(←디스리스펙트(disrespect)), 포텐(←포텐셜(potential)), 크리(←크리티컬(critical))
 ㄴ. 짤없다(←알짤없다)¹⁵⁾, 뒷담(←뒷담화)
 ㄷ. 따(←따돌림), 비공(←비공감), 비추(←비추천), 용실(←미용실), 장실(←화장실), 재접(←재접속), 급질(←급질문), 독강(←독강의), 반삭(←반삭밭), 담탱(←담탱이)

14) 영어 차용어 중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신생어로, ‘골드파파(gold papa), 비주얼쇼크(visual shock)’처럼 영어에서 왔지만 우리 식으로 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합성어·파생어·혼성어 등으로 분류했다.

영어 차용어로 분류된 것들은 영어 형태론으로 보면 구, 합성어, 파생어, 혼성어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차용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형태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생어로 분류한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이다.

15) ‘봐 줄 수 없거나 하는 수 없다.’

ㄹ. 들보(←들보잡), 빼박(←빼박캔트), 솔까(←솔까말), 호갱(←호갱님), 완얼(←패완얼), 짤(←짤방)

(6)에서 보듯, 조사된 신어에서 절단어는 다양한 유형의 단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6ㄱ)은 단일어, (6ㄴ)은 합성어, (6ㄷ)은 파생어, (6ㄹ)은 혼성어를 바탕으로 절단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절단어는 합성어·파생어·혼성어 등의 성분이 되기도 한다.(후술) 절단어들은 절단 이전의 원말과 같은 뜻을 유지하며 단독으로 문장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성과정에서 만들어진 절단형과 구분된다.

(7) ㄱ. 그 사람은 덕후야.

ㄴ. 그 사람은 오덕이야.

ㄷ. *그 사람은 덕이야. ; *덕(←오덕←오덕후(←おたく))

ㄹ. 그 사람은 낭덕이야. ; 낭덕(낭(←고양이)+(오)덕 또는 덕(후))

(7ㄱ) ‘덕후’와 (7ㄴ) ‘오덕’은 단독으로 문장성분이 될 수 있지만, (7ㄷ)의 ‘덕’은 (7ㄹ)처럼 혼성어 조어에는 가능해도 단독으로 문장성분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오덕후’와 관련 있는 ‘오덕’, ‘덕후’, ‘덕’ 중 절단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오덕’과 ‘덕후’이다.

3.3. 혼성어(blends)

‘혼성어’¹⁶⁾는 ‘라(면)+(떡)볶이→라볶이’¹⁷⁾와 같이 두 단어의 일부분을 합해서 형성된 단어를 말한다.(Denham & Lobeck 2010:197, 박용찬 2008, 이호승 2011) 혼성어는 우리말에서는 드물게 보이던 조어의 방식으로, 고유어에서도 ‘불고기백반→불백’이 되듯 가능은 했으나 굉장히 드물었고, ‘한국은행(韓國銀行)→한은(韓銀), 대한민국(大韓民國)→한국(韓國)’과 같이 주로 한자어에서 관찰되었다. 혼성 방식의 조어는 1980~90년의 유행어인 ‘옥떨메’(←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못생긴 사람을 놀리는 말로 쓰였다) 등 간간이 관찰되다가 근래에는 굉장히 활발한 조어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박용찬(2008)에서도 최근 들어 혼성어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했으며, 이수진·김예니(2014:241)의 2002·2003년과 2012·2013년의 신어를 비교한 ‘조어법에 따른 분류’ <표>에서도 혼성어가 점점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본 연구에서도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혼성어는 조사된 신어의 다수를 차지하는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신어 1030여 개 중 411개나 된다. 이는 그만큼 혼성 방식의 조어가 활발하다는 증거이다.

혼성어가 되는 밑말은 (8)~(10)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구, 명사구, 문장 등 다양하며, 그 어종

16) 이를 김영근·구본관(2008:251~252)에서는 ‘약어화’라고 했고, 이관규(1999:190~191)에서는 ‘어두 음절 축약 현상’이라고 했다. ‘축약’이라는 용어는 이 방식을 지칭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다. ‘축약’은 이어지는 두 성분이 합쳐져 제3의 성분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약어(略語)’(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표제어를 원말로 하여 각 단어에서 주로 한 음절씩 뽑아 만든 어휘)라는 용어는 이 조어방식을 잘 설명해주는 듯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혼성어’라 지칭하겠다.

17) 혼성어 형성의 밑말을 보일 때, 혼성어 형성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은 본문의 예에서와 같이 소괄호로 표시한다.

18) 이수진·김예니(2014)에서는 ‘두 어근이 앞이나 뒷부분이 줄어든 형태로 합성된 경우’는 ‘혼성’, ‘이미 일정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 구나 문장 단위에서 단어들의 첫음절만이 결합한 형태나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형태’는 ‘축약’이라 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혼성어’와 조금 차이가 있으나, 혼성어의 조어가 늘어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물로는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하다. 먼저 다양한 밑말로 만들어지는 혼성어의 유형을 보도록 하자.¹⁹⁾

(8) 동사구

- ㄱ. [ac형] 부먹(←부(어서) 먹(다)), 직찍(←직(접) 찍(다)), 출튀(←출(석하고) 튀(다))
- ㄴ. [ad형] 옷프다(←옷(기면서) (슬)프다), 문송(←문(과라서) (죄)송)
- ㄷ. [ace형]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다)), 말잇못(←말(을) 잇(지) 못(하다))
- ㄹ. [acf형] 초멘나사이(←초(면에) 멘(션(mention)해서) (ごめん)なさい)
- ㅁ. [aceg형] 할많하얌(←할 (말은) 많(지만) 하(지) 얌(는다)), 어덕행덕(←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9) 명사구

- ㄱ. [ac형] 귀척(←귀(여운) 척), 애캐(←애(정하는) 캐(릭터))
- ㄴ. [ad형] 개저씨(←개(넘없는) (아)저씨), 먹부심(←먹(는 데 대한) (자)부심), 득템(←득(한) (아)템)
- ㄷ. [ace형] 가싶남(←가(지고) 싶(은) 남(자)), 위꼴사(←위(가) 꼴(리는) 사(진)), 이얼싸(←이(기적) 인) 얼(굴) 싸(이즈))

(10) 문장

- ㄱ. [ac형] 맴찢(←맴²⁰⁾(이) 찢(어진다)), 심멧(←심(장이) 멧(을) 듯하다)), 닥저(←닥(치고) 저(장해) 라)), 닥벼로우(←닥(치고) 벼로우(해라)),
- ㄴ. [ad형] 현망진창(←현(실은) (영)망진창)
- ㄷ. [ace형] 덕계못(←덕(후는) 계(를) 타지) 못(한다)), 현모양처(←현(재) 모양(이) 처(량하다)), 인구론(←인(문계의) 구(십퍼센트가) 논(다))
- ㄹ. [aceg형] 낱끼빠빠(←낱 (데)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명사의 연쇄 구성도 밑말로 쓰인다. 이 구성 속 명사는 최대 4개까지(명사-명사-명사-명사) 이어질 수 있다.

19) 노명희(2010)에서는 혼성어 형성 시 두 단어가 절단되는 부분에 따라 (1)과 같이 나누었다.

- (1) ㄱ. AB+CD→AD형 개그맨+아나운서→개그운서
 ㄴ. AB+CD→ABD형 김치+할리우드→김치우드
 ㄷ. AB+CD→ACD형 컴퓨터+도사→컴도사
 ㄹ. AB+CD→BD형 아줌마+신데렐라→줌마렐라

이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1)에 AC형과 BC형, BCD형, ABC형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사친’과 같이 ‘AB+CD+EF’의 구조를 가지는 유형도 있고, 구나 문장이 혼성어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혼성어 유형은 (1)보다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유형 분류는 ‘까방권(←까(임) 방(지)권), 취준생(←취(업) 준(비)생), 고답이(←고(구마) 답(답)이)’처럼 처리하기 힘든 말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노명희(2010)의 표시 형식을 빌려 아래와 같이 표기토록 하겠다.

<표> 혼성어 유형 표시 방식

나테이박
aceg형

나성범	테임즈	이호준	박석민
ab	cd	ef	gh
나	테	이	박
a	c	e	g

20) ‘마음’의 준말.

(11) 명사-명사

- ㄱ. [ac형] 감튀(←감(자) 튀(김)), 여소(←여(자) 소(개)), 개취(←개(인) 취(향)), 본캐(←본(래) 캐(릭터))
- ㄴ. [ad형] 악플(악(성) (리)플), 황사능(←황(사) (방)사능)
- ㄷ. [bd형] 벽세권(←(햄)벽 (역)세권), 사축(←(회)사 (가)축)

(12) 명사-명사-명사

- [ace형]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 주장미(←주(요) 장(면) 미(리보기)), 무방위(←무(플) 방(지) 위(원회))

(13) 명사-명사-명사-명사

- [aceg형] 찐찌버거(←찐(따) 찌(질이) 버(러지) 거(지))

혼성어 조어를 위한 절단 부분 선택에 대한 원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수로 경향성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

유형 말말	ac형	ad형	bd형	ace형	acf형	ade형	aceg형	기타 ²¹⁾	합계
동사구	39	4	0	10	1	0	5	16	75
명사구	25	5	0	35	2	1	0	14	82
문장	12	1	0	12	0	0	5	7	37
명사-명사	106	39	2	27	0	0	5	38	217
합계	182	49	2	84	3	1	15	75	411

<표1>에 따르면, 혼성어는 말말이 되는 단어 또는 어절의 앞부분을 선택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ac형이 ad형보다, ad형이 bd형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며, ace형이 acf형이나 ade형보다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사구, 명사구, 문장과 같은 통사적 구성을 말말로 만들어진 혼성어와 명사 연쇄 구성을 말말로 만들어진 혼성어는 그 수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어절에서 선택된 음절의 결합으로 형성된 혼성어를 합성어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선택된 음절이 어근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감튀’의 ‘감’이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²²⁾ 그리고, 혼성어는 절단과 합성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지지만 절단어는 절단만을, 합성어는 합성만을 그 방식으로 가진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혼성어’를 조어법의 새로운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혼성 방식으로 조어진 신어는 말말의 의미만을 띠는 경우와 제3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8)~(13)은 대부분 말말의 의미만을 띠는 경우이고, (14)는 제3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경우이다.²³⁾

(14) ㄱ. [명사구 ac형] 다굴(←다(함께) 굴(파기))

21) ‘기타’는 이 유형으로 분류하기 힘든 것들 말한다.

22) 반면, ‘절단어’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어근으로 인정할 수 있다.

23) 박용찬(2008), 노명희(2010)에서처럼 결합하는 성분의 위치를 기준으로 ‘ac형은 두음절어, 그외는 혼성어’라고 보기도 한다. (14)에서 보듯, ad형뿐만 아니라 ac형, ace형도 제3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음절어’와 ‘혼성어’의 대립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두음절어’라는 용어도 수정되어야 할 듯한데, ac형, ace형 등만 특별한 이름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ㄴ. [명사-명사 ad형] 커퀴벌레(←커(플) (바)퀴벌레), 나일리지(←나(이) (마)일리지), 덕통사고(←덕(후) (교)통사고), 서류가슴(←서(류) (오)르가슴), 셸기꾼(←셸(카) (사)기꾼), 오저씨(←오(빠) (아)저씨), 치깅스(←치(마) (레)깅스), 호갱님(←호(구) (고)객님), 기레기(←기(자) (쓰)레기), 잘생뽀(←잘생(김) (예)뽀)
- ㄷ. [명사-명사 bd형] 벽세권(←(햄)벽 (역)세권), 사축(←(회)사 (가)축)
- ㄹ. [명사-명사-명사 ace형]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 데꿀멍(←데(굴데굴) 꿀(꿀) 멍(멍)), 지여인(←지(방대) 여(인) 인(문계))

그렇다면, 제3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14)를 보면, 동사구, 명사구, 문장과 같은 통사적 구성을 밑말로 가지는 혼성어 중 제3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다굴’이 유일하다.²⁴⁾ 통사적 구성은 제3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나아가, 통사적 구성은 그 결합에 ‘계층적(hierarchy)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명사 연쇄 구성에서도 통사적 구성과 같이 계층적 결합 관계를 가지는 것은 제3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11)과 (12)에서 제3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ac형과 ace형을 다시 가져와 계층적 결합 관계를 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자.

- (15) ㄱ. [ac형] 감튀(←감(자) 튀(김)), 여소(←여(자) 소(개)), 개취(←개(인) 취(향)), 본캐(←본(래) 캐(릭터))
- ㄴ. [ace형]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 주장미(←주(요) 장(면) 미(리보기)), 무방위(←무(플) 방(지) 위(원회))

‘감튀’는 ‘감자인 튀김’을 말하고, ‘여소’는 ‘여자를 소개하다’, ‘개취’는 ‘개인의 취향’, ‘본캐’는 ‘본래의 캐릭터’를 말한다. ‘남사친’은 ‘남자이자 사람인 친구’, ‘주장미’는 ‘주요 장면을 미리보기’, ‘무방위’는 ‘무플을 방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모두 제일 뒤 성분이 머리(Head)가 되는 계층적 결합 관계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감자 튀김’은 ‘튀김’인데 그 종류는 ‘감자’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남사친’은 ‘친구’인데 그 세부 사항은 ‘남자’와 ‘사람’이라는 말이 된다. 반면 제3의 의미를 가지는 혼성어는 ‘평면적(flat) 결합 관계’를 가진다. ‘데꿀멍’의 ‘데굴데굴 꿀꿀 멍멍’은 서로 계층적으로 결합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이들 말과는 관계없이 엉뚱하게도 ‘헛소리’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서류가슴’의 ‘서류’와 ‘오르가슴’도 서로 계층적으로 관련을 지을 수 없다. 그럼으로써 ‘서류에 합격한 것만으로 느끼는 기쁨이 대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혼성어’를 ‘계층적 혼성어’(제3의 의미를 가지지 않음)와 ‘평면적 혼성어’(제3의 의미를 가짐)로 세분하고자 한다. 혼성어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 혼성어 외의 다른 범주를 설정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서이다. 그 이유는 첫째 절단과 합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혼성을 조어 방식으로 가지는 한 부류의 단어들을 묶음으로써 비슷한 범주인 절단어나 합성어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약어’라든지 ‘약칭어’라든지 ‘줄임말’이라든지 등의 이름을 가지게 되면 음운론적 축약으로 인한 ‘준말’과 혼동이 올 수도 있고, 둘 간의 공통 조어 방식이라는 관계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24) 이 말은 <포트리스>라는 게임에서 한 사람을 집중 공격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에서 출발해 지금은 특정인에 대한 다수의 집중적인 공격을 의미하게 되었다. <포트리스>의 게임 캐릭터는 대포로, 서로 포를 쏘 공격하는 게임이다. 포를 쏘면 땅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한곳에 집중적으로 포를 쏘 동굴 등을 만드는 행위를 ‘굴파기’라고 했다. ‘다함께 굴파기’는 그래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포를 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3.4. 합성어(compound words)

합성 방식으로도 다양한 신어들이 만들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몇 개의 예를 들어보이면 (16)과 같다.

- (16) ㄱ. 대략난감, 동공지진, 모두까기인형, 반박불가, 선택장애, 잉여인간, 개냥이, 인생사진(인생 짤, 인생샷)
 ㄴ. 하드캐리(hard carry), 골드파파(gold papa), 스펙푸어(spec poor)²⁵⁾ / 낫닝겐(notにんげん)
 ㄷ. 멘탈붕괴(mental崩壊), 디지털단식(digital斷食), 라떼요인(latte要因), 열정페이(熱情pay) / 모찌피부(もち皮膚)
 ㄹ. 최애멤버, 샴방미소, 엄빠주의, 존예보스, 즐겜, 셸프디스, 엄마크리, 케미갑
 ㄹ. 아웃오브안중(out of 안중(眼中)), 막내온탑(막내 on top)

신어 합성어의 밑말은 (16ㄱ) ‘대략난감’ 등과 같이 우리말뿐 아니라, (16ㄴ) ‘하드캐리’ 등과 같이 외국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낫닝겐’과 같이 영어와 일본어가 합쳐진 것이 밑말이 되기도 한다. (16ㄴ)의 밑말은 외국어이지만, 영어 사용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현재의 우리 현실을 표현하는 우리의 말이기 때문에 신어로 인정될 수 있다. (16ㄷ) ‘멘탈붕괴’, ‘모찌피부’에서처럼 외국어와 우리말이 합쳐져 만들어지기도 하며 이 유형에서도 밑말의 어종은 영어, 일본어이다. (16ㄹ)처럼 신어들이 다시 합성어 형성에 참여하기도 한다. ‘샴방’ 같은 ‘신생어’, ‘최애, 엄빠, 존예’ 같은 ‘혼성어’, ‘크리, 즐, 케미, 디스’ 같은 ‘절단어’가 합성어 형성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겜’과 같은 준말도 합성어 형성의 밑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16ㄹ)은 합성어로 볼 수 없다. 이는 일종의 말장난으로 ‘아웃오브안중’은 ‘안중에 없다’를, ‘막내온탑’은 ‘막내가 최고다’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특정 부분을 영어로 대체한 것이다. 이는 ‘빠도 박도 못한다’를 재미나게 바꾼 ‘빠박캔트’(빠(도) 박(도) can't)와 같은 맥락이다.

3.5. 파생어(derivatives)

신어 파생어들은 기존의 파생접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

<표 2> 기존의 접사 결합형

	접사	용례
용언	~거리다	오글거리다, 촌촌(つんつん)거리다
	~지다	고급지다

25) ‘푸어’는 영어의 time-poor, car-poor, house-poor 등의 ‘poor’에서 온 것이다. 영어에서 poor는 ‘~로 인한 어려움/부족함’을 나타낸다. Wikipedia에 따르면 time-poor는 바쁜 일로 인해서 시간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신문·방송 등에서 이 말을 받아들여 비슷한 상황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베이비푸어, 웨딩푸어, 메디컬푸어, 학자금푸어’ 등이 이즈음에 만들어진 말들이다. 하지만 이후 만들어진 ‘스펙푸어, 솔로푸어’ 등에서는 우리식으로 변형되는데, 여기에서 ‘푸어’는 ‘가난한 사람’이다. ‘스펙푸어’는 ‘스펙을 열심히 쌓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가난한 취업준비생’을 말하고, ‘솔로푸어’는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 어쩔 수 없이 홀로 사는 저소득 나홀로 가구’를 말한다.

	~하다	애정하다, 심쿵하다, 떨하다, 캐리(carry)하다, 아스트랄(astral)하다, 모찌모찌(もちもち)하다
	~이~	까이다, 낚이다
체언	~국(國)	감자국, 불곰국, 천조국
	~꾼	사랑꾼, 어그로꾼
	~남(男)	된장남, 반품남, 신생아남, 짐승남, 철벽남, 품절남, 비글(beagle)남, 찌질남, 촌데레(つんてれ)남, 초식(草食)남
	~녀(女)	간장녀, 건어물녀, 김치녀, 된장녀, 반품녀, 신생아녀, 품절녀, 베이글녀, 비글녀, 홀릭(-holic)녀
	~맹(盲)	통맹
	~배(輩)	대인배
	~병(病)	중2병, 관심병, 대2병
	~심(心)	팬심
	~이	귀요미, 냥이, 멍이, 딸딸이, 찌질이, 쿼터이, 까비, 명록이, 범생이, 다구리, 얼큰이, 폰팔이
	~자(者)	종결자, 고나리자, 관심병자, 수포자
	~전(戰)	개전
	~족(族)	돌고래족, 면장족, 빨대족, 엄지족, 점오배족, 혼자족, 에스족, 갤러리족, 그루밍족, 나오머족, 나토족, 나포츠족, 네스팅족, 노마드족, 노무족, 니트족, 다운쉬프트족, 런치투어족, 리터루족, 셸피족, 쇼루밍족, 슬로비족, 어반그래니족, 에스컬레이터족, 오피스브런치족, 워런치족, 캥거루족, 코쿤족, 코피스족, 쿼터족, 포미족, 프리터족, 요우커(遊客)족, 커우커우(捩捩)족, 노노족, 노케미족, 황혼유아족, 수그리족, 고공족, 독강족, 펌킨족, 혼밥족
	~주(酒)	소원주
	~질	갑질, 궁예질, 염장질, 을질, 친목질, 랜선회초리질
	~파(派)	부먹파, 짝먹파
	개/개~	개이득, 개피, 개초딩, 개드립, 개공감
	극(極)~	극딜, 극혐오(→극혐)
	무(無)~	무개념
	불~	불수능
	생(生)~	생얼
선(先)~	선반모	
시(媳)~	시월드	

파생어 형성에는 합성어에서와 같이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외국어와 절단어, 혼성어, 합성어 등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한된 자료라는 한계는 있겠지만, 파생접사 ‘~족’이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것 또한 특징이다.

기존의 파생접사 외에 새롭게 만들어진 파생접사로 신어 파생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파생접사로 인정되기 위해 가져야 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지만, 무엇보다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아야

하며, 문법적 의미가 아닌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만 추상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불체포 특권’에서 ‘불’, ‘체포’, ‘특권’ 중 ‘불’만이 파생접사인 이유는 셋 중 이것만이 홀로 쓰일 수 없으며(*그것은 불(不)이다.), ‘아님, 아니함, 어긋남’이라는 문법적 의미가 아닌 어휘적 의미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돼지맘, 앵그리맘, 캣맘, 타이거맘’의 ‘맘’(mam), ‘개털맨, 짱짱맨’의 ‘맨’(man), ‘애잔보스’의 ‘보스’(boss), ‘갠톡, 개인톡, 단체톡’의 ‘톡’, ‘상남자, 상오빠’의 ‘상’(上), ‘급식충, 노력충, 뉴비충, 롤충, 맘충, 무뇌충, 설명충, 진지충’의 ‘충’(蟲), ‘과즙미’의 ‘미’(美), ‘과즙상’의 ‘상’(像), ‘몸짱’의 ‘짱’은 파생접사가 아니다. ‘돼지맘 ~ 몸짱’은 합성어로 보아야 한다.

혼성어로 만들어진 신어들은 원말을 추적해 보지 않으면 구성성분 중 하나가 접사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말로의 복기(復棋)가 가능하고, 비슷한 패턴의 다른 단어들 발견된다면 파생접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7) ㄱ. 플(←play) ㄱ 갠플 : 갠(←개인) 플(레이)
 - └ 팀플 : 팀 플(레이)
 - └ 솔플 : 솔로(solo) 플(레이)
- ㄴ. 존/졸(←존나/졸라) ㄱ 존맛 : 존(나) 맛(있다)
 - └ 존망 : 존(나) 망(했다)
 - └ 졸예 : 졸(라) 예(쁘다)
 - └ 졸귀 : 졸(라) 귀(엽다)
- ㄷ. 남(男) ㄱ 짝남 : 짝(사랑하는) 남(자)
 - └ 훈남 : 훈(훈한) 남(자)
 - └ 혼남 : 혼(한) 남(자)
- ㄹ. 녀(女) ㄱ 직녀 : 직(장) 여(성)
 - └ 짝녀 : 짝(사랑하는) 여(자)
 - └ 훈녀 : 훈(훈한) 여(자)
 - └ 화떡녀 : 화(장) 떡(칠한) 여(자)

(17ㄷ)의 ‘남’과 (17ㄹ)의 ‘녀’는 같은 형태의 파생접사도 있다. 하지만, ‘된장남’처럼 ‘명사+-남’인 파생어와 ‘짝남’은 단어의 구성방식에 분명 차이가 있다. 새롭게 파생접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을 보자.

<표 3> 신생 접사 결합형

	접사	용례
체언	~러(←~er)	과금러, 프로불참러, 프로불편러, 혼밥러, 존잘러
	~이언(←~ian)	훈바비언
	~이즘(←~ism)	귀차니즘, 언니즘
	~돌(←idol)	짐승돌, 효도돌
	노(no)~	노답, 노잼, 노관심
	~탱(이)	담탱이 / 바보탱이, 잡탱이, 맛탱이, 졸맛탱(구리)
	광(光)~	광삭제(→광삭), 광클릭(→광클), 광탈락(→광탈)

꿀(허니)~	꿀성대, 꿀잼, 허니잼
빨~	빨글, 빨짓
핵~	핵꿀잼, 핵노답, 핵노잼

첫번째는 ‘과금러’(과금+~러), ‘혼바비언’(혼밥+~이언) 등과 같이 명사에 붙어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해주는 ‘~러’와 ‘~이언’이다. 영어의 접미사 ‘-er’, ‘-ian’에서 차용한 것이다. ‘귀차니즘’(귀찬←귀찮다)+이즘의 ‘~이즘’도 영어의 ‘-ism’을 차용한 것이다. ‘아이돌’에서 시작된 ‘~돌’은, 박동근(2012:37~38)에 따르면, ‘아이돌(idol) [우상] ⇒ 아이돌 [십대 가수] ⇒ 아이 [幼] + ~돌’의 역형성(backformation)의 과정을 거쳐 파생접사로 굳어졌다. ‘노~’는 ‘~이 없다’ 정도의 뜻을 가진다.²⁶⁾

‘광~’은 ‘빠르게’, ‘핵~’은 ‘대단히’, ‘꿀~’은 ‘굉장히’, ‘빨~’은 ‘쓸데없는’ 정도의 뜻을 가진다. 이들은 홀로 쓰이지 않으며, 원말의 의미를 유지하지 않고 추상화된 것으로 미루어 파생접사임에 틀림이 없다. ‘~탱(이)’는 사전에 등재된 접사는 아니다. 아마 ‘영감탱이, 볼탱이, 아귀탱이’의 ‘-탱이’에서 시작된 듯 보인다. ‘영감탱이’는 ‘영감쟁이’와 같은 말로서, ‘나이 든 남편이나 늙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이다. 처음 ‘담탱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낮잡는 의미를 띠고 있었으나, ‘바보탱이, 잡탱이, 맛탱이’ 등으로 확장 사용되면서는 사람/물건 등에 ‘친근함’을 더하는 정도로 바뀌게 되었다. ‘졸맛탱’은 ‘정말 굉장히 맛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4. 맺음말

- 생략

26) 이들 영어에서 온 새로운 파생접사의 생명력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언어 문화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 참고 문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김일환(2014), 신어의 생성과 정착 -신문의 신어 명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24, 98-125쪽.
- 김정아·김예니·이수진(2013), 신어의 [+사람] 어휘의 형태·의미적 특성 -2002, 2003, 2004, 2005, 2012년 신어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58, 51-76쪽.
- 김해연(2008), 한국어 줄임말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사회언어학』 16(2), 169-192쪽.
- 남기심·고영근(1993), 『개정판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노명희(2010), 혼성어(混成語)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 58, 255-281쪽.
- 문금현(1999), 현대국어 신어(新語)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33, 295-325쪽.
- 박동근(2003), 통신언어의 생성 방식에 따른 생산성 연구, 『한말연구』 12, 41-59쪽.
- 박동근(2012), [X-남], [X-녀]류 통신언어의 어휘 형성과 사회적 가치 해석, 『사회언어학』 20(1), 27-56쪽.
- 박용찬(2008),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관한 일고찰 -우리말 속의 혼성어를 찾아서-, 『형태론』 10(1), 111-128쪽.
- 양명희·박미은(2015), 형식 삭감과 단어형성법, 『우리말글』 64, 1-25쪽.
- 윤경선(2013), 소셜미디어 트위터(Twitter)로 살펴본 신어 형성, 『한국어 의미학』 42, 537-555쪽.
- 이관규(1999), 『학교문법론』, 월인.
- 이선영(2016ㄱ), 신어에서의 약칭어와 혼성어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1, 269-291쪽.
- 이선영(2016ㄴ), 신어에서의 일음절 절단어에 대하여, 『우리말글』 70, 49-71쪽.
- 이수진·김예니(2014), 2013년 신어의 추출 방법론과 형태·의미적 특성, 『한국사전학』 23, 232-262쪽.
- 이은섭(2007), 형식이 삭감된 단위의 형태론적 정체성, 『형태론』 9(1), 93-113쪽.
- 이주영·김정남(2014), 형태 축소를 통한 한국어 신어 형성 연구 -문자화된 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형태론』 16(1), 46-66쪽.
- 이호승(2011), 절단어와 혼성어에 관련된 몇 문제, 『개신어문연구』 33, 79-103쪽.
- 전명미·최동주(2007), 신어의 단어 형성법 연구 -2002·2003·2004 신어를 대상으로, 『한민족어문학』 50, 37-70쪽.
- Denham, K. & A. Lobeck. 2010. *Linguistics for Everyone*. Wadsworth.

■ 토 론

“신어 형성 방식 유형”에 대한 토론편

윤혜영(한라대)

이 논문에서는 구어 환경에서 2~3학년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신어를 대상으로, 형태론적 단어 형성 방식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줄임말의 차원을 벗어나 그 뜻을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신어들이 쏟아져 나와 일상 언어로 쓰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신어 가 형성되는 방식을 풀어내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아 항상 그들과 소통하려 하는 입장에서,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신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은 국어 선생인 저에게는 늘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듯하여, 그들의 살아있는 언어 문화를 경험하는 데 한계가 있어 더욱 반가웠습니다.

조어법에 대한 공부가 많아 선생님의 논의를 잘못 해석할 수 있기에, 논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이 논문에서 지칭하는 ‘신어’의 개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대상이 ‘2~3학년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신어’인데, 그 단어의 면면을 보면 은어와 비속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어’라고 지칭하는 그 단어들의 생명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어’에 대한 개념 내지는 범위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생어’에 대하여 ‘새로운 물품이나 개념의 표현 필요성 등으로 최근에 새로이 만들어진 단어이다’라고 기술한 것과는 달리, (10)의 ‘찐따’를 신생어라고 보기에는 사용시기가 너무 오래되어 보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던 단어이기에 ‘최근에 새로이 만들어진 단어’라는 설명에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각주 12)에서 부연 설명한 것과 같이 ‘절름발이’ 등의 방언에서 의미가 변한 것이라면 더군다나 ‘신어’, ‘신생어’로 처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각주 14)에서 언급한 영어 차용어와 관련하여 ‘신생어’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소학>, <소학언해> 비교 연구

정수현(건국대)

<차 례 >

1. 서론
2. <번역소학>, <소학언해> 비교
3. 결론

1. 서론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 대한 연구는 각 문헌 개별에 관한 연구나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대비를 통한 연구들이 상당수 진행되었다. <번역소학>과 <소학언해>는 16세기에 두 번 언해된 문헌이기 때문에 <노걸대>류와 <박통사>류와 함께 이 두 문헌의 대비를 통한 연구는 음운, 어휘적 측면, 형태, 통사적 측면, 번역의 측면과 같이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번역의 태도, 즉 의역과 직역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특징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서 의역과 직역의 번역 태도의 차이는 여러 층위에서의 언어 실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두 문헌의 저본이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번역소학>은 의역의 형태를 취하여 문헌을 접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쉬운 표현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소학언해>는 구결의 그대로를 살려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번역소학>보다도 몇 십 년 후에 간행이 된 <소학언해>에서 15세기 언어의 흔적을 더 찾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¹⁾ 그렇다고 하여도 70년 차이를 둔 당시의 언어 현실을 엿볼 수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번역소학>과 <소학언해>를 비교, 대조한 선행 연구들은 구결의 번역과 관련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현희(1988)은 번역문에서의 형태, 통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두 문헌의 대비를 하고 있다. 남성우(1997)은 <번역소학> 권6과 <소학언해> 권5를 대비하여 구결과 언해문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번역의 순서에 따른 차이, 어휘, 문법적 차이에 대해 논하였다. 허재영(1998)은 음운, 표기상의 차이, 형태론적 차이, 문장 구성, 문법 범주의 실현 방법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으며 허재영(2002)과 박형우(2004)에서는 부정문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현진(2015)도 역시 번역 대비를 통한 연구였다.

아직 본 연구의 진행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미흡하여 연구의 방향과 결론이 어디에 있게

1) <번역소학>의 저본은 <소학집성(小學集成)>, <소학언해>의 저본은 <소학집설(小學集說)> 혹은 <소학집주(小學集註)>로 알려져 있다.

될지는 확신할 수는 없으나 이 연구를 설계할 때의 목표로 삼은 것은 <번역소학>, <소학언해>, 그리고 <어제소학언해>와 <내훈>에 이르는 중복 부분들의 자료들을 분석하여 통사적 차이를 기술하는 일이었다. 아직도 문헌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인지라 이 발표에서는 통사적 차이를 기술하지 못하고 두 문헌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특징적이라고 파악되는 차이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번역소학>과 <소학언해>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번역소학	소학언해
6	5:1ㄱ~5:34ㄴ
7	5:35ㄱ~5:82ㄱ
8	5:82ㄱ~5:121ㄱ
9	6:1ㄱ~6:101ㄱ
10	6:101ㄴ~6:133ㄱ

이 발표에서는 <번역소학>과 <소학언해>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인 <번역소학> 권6, 7, 8, 9, 10과 <소학언해> 권5, 6을 대상으로 삼아 두 문헌 사이의 차이 가운데 연구 소재로 다루어 볼 만하다고 판단되는 차이 몇 가지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2. <번역소학>, <소학언해> 비교

이 장에서는 <번역소학>과 <소학언해> 두 문헌을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부분인 <번역소학> 권6, 7, 8, 9, 10과 <소학언해> 권5, 6를 대비하여 형태 혹은 통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차이를 살펴보겠다.²⁾

2.1. 선어말어미 ‘-오-’의 소멸

선어말어미 ‘-오-’는 명사구 내포문 구성에 쓰이는 형태소로 15세기 문헌에서 매우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선어말어미 ‘-오-’는 명사화 구성에서 가장 오래 남아 있다가 16세기 이후부터 소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두 문헌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명사화 구성에서 선어말어미 ‘-오-’가 소멸한 예시]

- (1) 다룬 디 움기디 아니호물 점점 가히 비홀 거시오<번소 6:9>
 움기디 아니흠을 점점 可히 비홀 거시오<소언 5:9>
- (2) 쯤 고툼을 썬리디 아니호면 顔子이 원일 다시 아니호물 점점 가히 비호리라<번소 6:9>
 쯤 고툼을 썬리디 아니호면 顔子의 허물 다시 아니흠을 점점 可히 비호리라<소언 5:9>
- (3) 내이 막숨 요동 아니호미 쯤 가히 孟子 곧호리라<번소 6:10>
 내의 막숨 요동 아니흠이 쯤 可히써 孟子 곧호리라<소언 5:9>

2) 이하 문헌을 예시에서 <번역소학>은 <번소>로, <소학언해>는 <소언>으로 표기한다.

- (4) 君子이 ings덕은 安정호모로 모뎨 닛고 검박호모로<번소 6:16>
 君子的 hing실은 安정흙으로뻬 뎨을 닛고 검박흙으로뻬<소언 5:15>
- (5) 세속이 다 위와토펨물 즐겨<번소 6:25>
 온 세상이 위와토펨을 도히 너겨<소언 5:23>
- (6) 세속이 다 호긱과 톨 뻬류뎨물 둥히 너겨<번소 6:25>
 온 세상이 든니뎨 놨 뻬리뎨물 重히 너겨<소언 5:23>

(1)부터 (6)까지의 예시는 ‘-오--+口’ 구성으로 나타났던 구문에서 ‘-오-’가 소멸하여 ‘-口’로만 실현된 구문들이다. 15세기에 명사구 내포문에 필수적으로 개재하던 ‘-오-’는 16세기에 많이 쇠퇴하는 양상을 보인다.

[관형화 구성에서 선어말어미 ‘-오-’가 소멸한 예시]

- (7) 열은 섬골 절츠 긱출 일 대개로 닛어 아츨 나조호로<번소 6:7>
 열은 섬길 절츠 긱칠 일을 닛어 히여곰 아츨 나죄로<소언 5:7>
- (8) 어닉 이성신 현신의 ㅎ시논 이리뎨 어닉 7장 어리니의 ㅎ논 이린고ㅎ야<번소 6:8>
 어닉 이성인 현인의 ㅎ시논 바 일이며 어닉 이 7장 어리니의 ㅎ논 바 일인고ㅎ야<소언 5:8>
- (9) 저뎨 비흙 사르미 모로매 뎨져 ㅎ을 배라<번소 6:8>
 접어서 비흙 이 맛당히 뎨져 ㅎ 배니라<소언 5:8>
- (10) 무드뎨 ㅎ정ㅎ논 노르시레엿 긱르스로 노롬만 곤디 뎨흔 주를 알뎨<번소 6:10>
 뎨으며 ㅎ정ㅎ논 ㅎ롬이 ㅎ만 곤디 뎨흔 줄을 알오<소언 5:9>
- (11) 이내이 기 아첸논 배니<번소 6:13>
 이내의 크게 아쳐ㅎ논 배니<소언 5:12>

(7)부터 (11)까지의 예시는 <번역소학>에서 ‘-오--+ㄴ/ㄹ’의 구성에서 ‘-오-’가 소멸하여 ‘-ㄴ/ㄹ’으로만 실현된 구문들이다. 이 발표의 대상이 되는 두 문헌은 각각 1518년, 1588년에 간행되어 같은 세기 안의 문헌이지만 두 문헌 사이의 시간의 격차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의 소멸로 인한 두 문헌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선어말어미 ‘-오-’의 소멸로 인한 언어 변화의 모습을 살피고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무리가 있다.

한편 <번역소학>에서는 관형화 구성으로 나타났던 구문이 <소학언해>에서는 명사화 구성으로 나타난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는 <번역소학>은 언중들에게 쉽게 보급하기 위해 언어 현실을 상당히 반영하였기 때문에, 즉 앞선 연구들의 견해에 따르면 의역을 하였기 때문에 번역상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학언해>는 오히려 <번역소학>에 비해 구결을 그대로 번역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어쩌면 <번역소학>의 문체가 16세기의 언어 현실을 더욱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다음 (12), (13)은 관형화 구성이 명사화 구성으로 교체된 예시이다. 이런 차이는 중세 국어의 언어 변화의 방향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수현(2011)에서는 언어 변화의 방향성에 관해 논한 바가 있는데 선어말어미 ‘-오-’가 소멸하면서 점차 서술문화되어 가는 것으로 파악했었다. 이러한 예시는 이 주장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소학언해>의 번역상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관형화 구성이 명사화 구성으로 교체된 예시]

(12) 제 모미 흐마 아논 이리 저고디<번소 6:18>

몸이 이뒀 알음이 적고<소언 5:17>

(13) 측훈 이레<번소 10:20>

측훈욘애<소언 6:119>

위의 대비 예시가 아니더라도 <소학언해>에 비해 <번역소학>에는 관형화 구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당시의 언어 현실에 가깝게 번역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6세기 초에도 관형화 구성이 많이 쓰였으며 또한 관형화 구성에서 선어말어미 ‘-오-’가 15세기에 비해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번역소학>에서는 명사화 구성이었던 것이 <소학언해>에서 다른 어미로 실현된 예시이다.

[명사화 구성이 어미로 교체된 예시]

(14) 오직 노르셋 말흐요물 즐기고 넷 도리 스랑호물 아니하야<번소 6:19>

오직 희롱엿 말을 즐기고 넷 도리 싱각디 아니하야<소언 5:17>

(15) 너희 수을 즐기디 마로물 警戒 흐노니<번소 6:23>

너를 술 즐기디 말란 경계 흐노니<소언 5:22>

(16) 어름을 불오디 떠딜가 저훈 기티 흐노니<번소 6:27>

어름을 불욘애 오직 떠러딜가 두려 흐노니<소언 5:25>

위의 예시들만 놓고 보자면 명사화 구성이 접속문화, 서술문화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두 문헌 사이만 놓고 이런 통사 변화를 논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번역의 차이로 인해 오히려 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소학언해>에서 명사형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번역소학>의 관형화 구성이 <소학언해>에서 명사형으로 나타난 예시]

(17) 쁘들 불꿀 주리 업고 안정티 아니면 먼디 닐위을 주리 업스니라<번소 6:16>

쁘을 불킴이 업고 안정티 아니면며 먼디 닐웁이 업스리라<소언 5:15>

(18) 지조를 녀플 주리 업고<변소 6:16>
지조를 넙핍이 업고<소언 5:15>

(19) 풍속을 정제호려 흐논 거시니<변소 9:67, 68>
風俗을 정제호려 흠이니<소언 6:62>

이러한 예시들은 앞서 살핀 관형화 구성이 명사화 구성으로 교체된 예시와 같은 맥락에서, 즉 언어 현실보다는 구결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었던 탓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어미가 명사형으로 나타난 예시]

(20) 몹고 조티 아니면<변소 6:16>
몹고 조흠이 아니면<소언 5:15>

(21) 안정티 아니면<변소 6:16>
안정흠이 아니면<소언 5:15>

(20), (21)과 같이 어미가 명사형으로 나타난 예시도 있는데 이러한 교체의 이유도 같은 맥락 일 것이다.

<번역소학>에서는 ‘-오디’로 나타나던 구문이 명사화 구성으로 나타나는 예시도 있다.

[‘-오디’로 나타나던 구문이 명사화 구성으로 나타나는 예시]

(22) 버들 디접호디 버디게 능히 느 죽디 아니호고<변소 6:3>
번을 디접흠애논 能히 번의게 느리디 묻호고<소언 5:3>

(23) 저픈 뜯들 머거 기픈 못과 열운 어르물 불오디 떠딜 가져흠 ㄱ티 호노니<변소 6:27>
저픔을 뜯어 기픈 못과 다뭇 열운 어름을 불옴애 오직 떠러딜 가두려 호노니<소언 5:25>

(24) 제 모물 가져 돈노디 단정하며 식식하며<변소 6:34>
몸 가져 돈님을 단정하며 식식하며<소언 5:32>

(25) 어딘 사름 믹오디 원슈 ㄱ티 호고<변소 6:31>
어딘 사름 믹기를 원슈 ㄱ티 하며<소언 5:28>

‘-오디’의 ‘-오-’가 선어말어미 ‘-오-’와 동일 형태소라는 것은 알려져 있다. 따라서 명사구 내포문에 관여한 선어말어미 ‘-오-’가 소멸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미 어미화하는 과정 안에 있는 연결어미에 있는 ‘-오-’도 함께 소멸해 가는 것이다.

2.2. ‘-기’의 빈도 증가

<번역소학> 권6부터 권10까지에서 ‘-기’는 그 수가 많지 않다.³⁾ 그렇지만 <소학언해>에서는 그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다음의 예시와 같이 <번역소학>에서 ‘-오--+--ㅁ’, ‘-ㅁ’으로 실현되던 것이 ‘-기’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오--+--ㅁ’, ‘-ㅁ’으로 실현되던 것이 ‘-기’로 실현되는 예시]

- (26) 그 네흔 속절업시 노로물 즐기며<번소 6:19>
그 넬재는 놀기를 승상하야<소언 5:18>
- (27) 글 비호문 님금씩 통성하며 어버이를 효도흠물 비호는 이리니<번소 9:8>
學하기는 써 통성과 다뭇 효도하기를 비호는 배니<소언 6:7>
- (28) 자내 몸 받티유를 아래 하양 고을 掌書記서 벼슬 하여 이신 적기티 하더니<번소 10:30>
스스로 보양하기를 河陽掌書記서 적기티 하더니<소언 6:128>
- (29) 늪우조미 어려오니라<번소 6:19>
늪웃기 어려우니라<소언 5:18>
- (30) 꺾俗의 고딤 어려움과 어린 놈 알에 흠 어려오미 이러홀서<번소 7:17>
풍속의 變기 어려움과 어린 놈의 알외기 어려움이 이에 니를서<소언 5:50>
- (31) 샤치예 드루문 쉽고 샤치하다가 검박애 드루문 어려우니<번소 10:31>
샤치한 디 들기는 쉽고 샤치로 말미암아 검박한 디 들기는 어려우니<소언 6:129>

(29)부터 (31)까지의 예시는 모두 ‘어렵다’, ‘쉽다’ 앞에서 ‘-기’가 쓰인 것인데 이는 현대국어의 용법과 같은 것이다.⁴⁾ 앞서 언급했듯이 <번역소학>이 보급을 이유로 언어 현실을 상당히 반

3) 예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아버지 셉기며 제스하기를 었디 노모로 하라 하리오<번소 7:6>
- 우리 지빅 스승이며 화랑이며 부작하기를 말스매도 아니하요문<번소 7:23>
- 내 몸 가지기를 알리라<번소 7:27>
- 겨지븐 집 안해서 음식하기를 전주하야<번소 7:36>
- 조식 위하야 벼슬하기를 소청하며<번소 7:37>
- 식식고 정제히 하며 거름거리며 끓드디기를 모로매 안서히 상심하야 하며<번소 8:16>
- 일하기를 모로매 처서미 기장 싱각하며 말하기를 모로매<번소 8:17>
- 아버지 효양하기를 모르논 사르문 넷 사르미 아버지 썩들 몬져<번소 8:25>
- 글 비호기를 모로매 일과하논 법을 엄정히 세오<번소 8:34>
- 다룬 디 쓰기를 아니하노라<번소 8:39>
- 글 날기를 그치디 아니하더라<번소 9:78>
- 그 거상하음애 슬허하기를 심히 하더니<번소 9:84>
- 先生이 슈고로이 받 가온대 살오 벼슬하며 녹 특기를 즐겨 아니하노니<번소 9:91>
- 제 글하기를 일우디 문호모로<번소 9:103>

4) ‘어렵다, 쉽다’ 앞에서 변화 없는 경우도 있다.

- 세유미 어려오문<번소 6:20>
- 세움애 어려움은<소언 5:19>
- 오래 이쇼미 어려오니<번소 6:27>
- 오래 이쇼미 어려오니<소언 5:25>

영하여 번역된 사실로 보았을 때, 그럼에도 <번역소학>에서 ‘-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번역소학> 간행 당시에는 ‘-기’의 쓰임이 많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역으로 <소학언해>는 구결문을 그대로 직역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로 대체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16세기 말에는 ‘-기’의 쓰임 매우 확대된 것으로 짐작 가능하다.

다음은 (32)부터 (36)까지는 <소학언해>에서 ‘-기’로 나타나는 구문이 <번역소학>과 대비하였을 때 <번역소학>에서는 어미로 실현된 예시들이 있다.

[어미가 ‘-기’로 나타난 예시]

- (32) 또 엷디 차마 술 먹고 풍류^{호야} 즐겨 호료<번소 7:23>
또 엷디 차마 술 장만코 풍뉴 7초와 써 즐기기를 호리오<소언 5:56>
- (33) 仲由는 허므를 즐겨 듣논디라<번소 8:4>
仲由는 허믈 듣기를 갖거 호논디라<소언 5:85>
- (34) 넷 사름의 온공^{호고} 검박^{호며} 존절^{호야} 쓰며<번소 8:26>
그 넷 사름의 온공^{호고} 검박^{호야} 쓰기를 존절^{호며}<소언 5:105>
- (35) 덩고 비 오는 저기도 뫼스^와 저므도록 셔셔 안즈라 아니^호거시든<번소 9:2>
덩고 비올 제라두 뫼셔 셧기를 날이 못도록 호야 命^{호야} 안즈라 아니커든<소언 6:2>
- (36) 두 귀를 버히고 상해 曹爽의게 의거^{호여} 사터니<번소 9:60>
두 귀를 버히고 살기를 상네 爽의게 의지^호얏더니<소언 6:56>

이러한 예시들을 대조하여 분석할 때에 원문, 한자어 구성을 어떤 구조로 파악하였는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원문과의 대조도 중요한 일이다. 다만 언해의 대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6세기 초의 문헌인 <번역소학>에서는 서술절로 나타났던 구문이 16세기 말에는 ‘-기’를 통해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예시들은 앞서 살핀 다른 ‘-기’의 예시들과 마찬가지로 ‘-기’의 쓰임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

다음은 <번역소학>에서는 관형화 구성을 나타난 구문이 <소학언해>에서는 ‘-기’로 실현된 예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소학>에서는 관형화 구성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언어 현실을 더욱 반영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관형화 구성이 ‘-기’로 나타난 예시]

- (37) 이제 사름이 다 형데 스랑홀 주를 아디 몬^호놋다<번소 7:43>
이젯 사름이 해 兄弟 스랑키를 아디 몬^호놋다<소언 5:74>

-
- 날위요미 어려우니라<번소 6:28>
 - 날위욘이 어려우니라<소언 5:26>
 - 누미게 미더 울어로미 어려우니라<번소 8:36>
 - 다룬 사름의게 울어롬이 어려우니라<소언 5:114>
 - 몸소 둔뉴미 어려울시<번소 9:92>
 - 스스로 장만홈이 어려울시<소언 6:85>

2.3. ‘-르시’의 교체

<번역소학>과 <소학언해> 사이에는 어미의 교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차이가 ‘-르시’에 있다.

[‘-르시’가 다른 어미로 교체되는 예시]

- (38) 이 시저레논 學問을 講論 아니홀시<변소 6:3>
이제 세상에 혹문을 강논티 아니하야<소언 5:2>
- (39) 오직 일즉 子弟의 ㅎ을 이룰 ㅎ디 아니홀시<변소 6:3>
오직 일즉 子弟의 일을 ㅎ디 아니흠을 위헌디라<소언 5:3>
- (40) 다드룬 디마다 기러 갈시니라<변소 6:4>
다든 바를 조차 길물 위흠이니라<소언 5:4>
- (41) 關雎 ㄱ툐 거슨 지블 正히요매 시작일시<변소 6:7>
關雎 ㄱ툐 類는 집을 正히 흠애 비르숨이라<소언 5:7>
- (42) 어버식 이비 내 입두곤 똥홀시니라<변소 7:43>
어버의 입이 내 입에서 重흠으로빼오<소언 5:74>

(38), (39)와 같이 다른 어미로 교체되거나 (39), (40) 등과 같이 명사형 어미로 교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번역소학>의 ‘-르시’도 <소학언해>에서 명사형 어미로 나타나는 경우 비슷한 양상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인다.⁵⁾

[‘-르시’의 교체]

- (43) 일란 브려 덜란 브리고 일란 홀시 이 저문 비흠 사르미 모로매 문져 ㅎ을 배라<변소 6:8>
이를 브려 더를 더디고 이를 取흠이 이 점어서 비흠 이 맞당히 문져 홀 배니라<소언 5:8>
- (44) 날을 주를 분별 아니홀시라<변소 6:18>
사름의 말을 분별 아니흠이니라<소언 5:16>
- (45) 사르미 비흠 이쇼물 아쳐러홀시라<변소 6:18>
눔이 비흠 이심을 아쳐흐느니라<소언 5:17>

<번역소학>의 ‘-르시’가 <소학언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 (46) 이렐시 어디니는 ㅅ이라 날오미오<변소 6:29>
이예 어디롬이란 거슨 ㅅ흠을 날오미오<소언 5:27>

5) ‘-르시’는 더 이상 <소학언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현희(1986), 이현희(1988)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르시’와 ‘-르시’가 상관성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르시’는 ‘-르+스+이’로, ‘-르시’는 ‘-르+스+이’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스’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현희(1988)에서는 이러한 교체 현상의 이유를 ‘스’의 쇠퇴 내지 소멸에서 찾고 있다. ‘-르시’가 <소학언해>에서 기능이 바뀌게 되어 다른 어미들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았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소학언해> 이후의 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는 변화인데 이 역시 이 두 문헌만 대비해서는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소학언해>에서는 <번역소학>보다 명사화 구성이 많이 쓰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학언해>에서는 더 이상 ‘-르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쇠퇴된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하나의 형태소가 쇠퇴하거나 소멸하는 현상은 언어 변화의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나의 형태소의 기능이 쇠퇴하게 되면서 통사적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어말어미 ‘-오-’의 소멸로 인해 관형화 구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같이 한 형태소의 기능의 쇠퇴와 소멸은 통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르시’가 쇠퇴하게 되면서 어떤 형태로 실현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두 문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른 문헌들과의 비교도 필요하며 구결과 언해 부분의 비교가 필요하기도 하다.

2.4. ‘-고’와 ‘-아/어’의 교체

<번역소학>과 <소학언해> 두 문헌 사이에서는 ‘-고’와 ‘-아/어’가 서로 교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고’로 나타났던 구문이 ‘-아/어’로, ‘-아/어’로 나타났던 구문이 ‘-고’로 서로 교체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계량화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빈도는 거의 비슷한 듯 보인다.

- (47) 어버의 거상에 우제와 졸곡제 흐고는 사오나온 밥과 물만 먹고<변소 7:11>
부모의 거상에 이뫼 우제와 졸곡제 흐야는 사오나온 밥과 물만 먹고<소언 5:44>
- (48) 모로매 그 모해 이를 다흐고 날오디<변소 10:21>
반드시 그 모해 일을 다흐야 곁오디<소언 6:120>
- (49) 萬石君이 朝服 납고 보고 일흠 부르디 아니흐며<변소 9:83>
萬石君이 반드시 朝服 납어 보고 일흠 블으디 아니흐며<소언 6:77>
- (50) 普明 兄弟 머리를 짜해 두드리고 밧긔 가 다시 칭각혀지라<변소 9:69>
普明의 兄弟 머리를 두드리 밧긔 가 다시 칭각혀지라<소언 6:64>
- (51) 머글 사름을 헤아려 받 갈며 니블 사름을 헤아려 누에 치더니<변소 9:27>
입을 헤고 받 갈며 몸을 헤고 누에 치더니<소언 6:25>
- (52) 우숨 우서 말스물 친친히 히디 묻게 히더라<변소 10:12, 13>
우움 웃고 말숨 히기를 관곡히야 흐뭇히게 아니히더라<소언 6:112>

(47)부터 (50)까지는 <번역소학>에서 ‘-고’가 ‘-아/어’로 나타난 예들이고 (51)과 (52)는 ‘-아/어’가 ‘-고’로 나타난 예들이다.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연결하거나 앞뒤의 사실 사이에 계기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앞 절의 동작이 그대로 뒤 절에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

내는 어미이다.⁶⁾ ‘-아/어’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데에 쓰이거나 시간의 선후 관계, 방법, 근거 등을 나타내는 어미이다.⁷⁾ 현대국어에서는 ‘-고’와 ‘-아/어’의 쓰임이 각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번역소학>과 <소학언해> 두 문헌 사이에서는 이 둘의 교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에서의 연결 어미 ‘-고’와 ‘-아/어’의 용법에 큰 차이가 있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적어도 16세기 이전에는 ‘-아/어’가 계기적이고 동시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데에 쓰였고 ‘-고’의 용법 역시도 근대국어로 오면서 계기적 성격 등과 같이 현대국어에서의 ‘-고’의 용법을 갖게 되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5. 그 밖의 것

진행 중인 연구이므로 여기에 기술하는 차이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 둔다. 예를 들어 부정문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문헌의 부정문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장형 부정문의 비율이 다르다. 허재영(2002), 박형우(2004)는 부정문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에 기대지 않더라도 <소학언해>에서는 <번역소학>보다도 장형부정문이 훨씬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을 볼 수 있다. <번역소학>에서는 단형부정문이 많이 축소된 것이다. 단형부정문에서 장형부정문으로의 변화는 통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부정문의 비교]

(53) 혼자 부귀를 누리고 아스물 어엿비 아니 너기면<변소 7:49>
만일 혼자 富貴를 누리고 권당을 근심티 아니하면<소언 5:80>

(54) 그 몸을 아름답게 하면 엇디 넷 사르미게 몬 미츠리오<변소 8:24>
그 몸을 아름답게 하면 엇디 넷사름의게 마히 밋디 몬 흐리오<소언 5:103>

(55) 내 몬 도라와도 네 내 어미를 효양홀다<변소 9:55>
내 도라오디 몬 홀디라도 네 즐겨 내 어미를 효양홀다<소언 6:50>

(56) 고기 몬 먹게 헛디시니 내 닛디 몬 흐노라<변소 9:103>
고기 먹음을 허티 아니 헛디시니 내 敢히 닛디 몬 흐노라<소언 6:96>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문에서의 통시적 연구에 이 두 문헌은 매우 가치가 있어 보인다. 부정문에서의 특징적인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관련한 내용을 모두 아직 검토하지 못한

6)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http://stdweb2.korean.go.kr>)

- 오고 가는 정(대등한 연결)
- 할머니께서는 상한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계기적 관계)
- 언니는 오늘 새 옷을 입고 출근했다.(앞 절의 동작의 지속)

7)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http://stdweb2.korean.go.kr>)

- 밥을 물에 말아 먹다.(선후 관계)
- 물건이 너무 좋아 샀다.(까닭)
- 고양이가 쥐를 잡아 버렸다.(용언의 연결)

탓에 이 발표문에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못하였다.

다음의 예시의 유형은 <번역소학>에서는 명사화소로 나타났던 것이 ‘-디’ 구성으로 바뀌어 나타난 유형이다. 다음과 같은 유형은 통사적으로 차이가 생긴 것이다. NP 구성에서 VP 구성으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57) 사르미 아롬뎃 유무를 여서 보미 아니홀디니라<변소 8:22>
사람의 스스유무를 여어 보디 아닐 거시며<소언 5:101>

(58) 도로 보내디 아니호미 올티 아니호니라<변소 8:22>
도로 보내디 아니티 아닐 거시며<소언 5:101>

(59) 브리며 머그며 호미 올티 아니호니라<변소 8:23>
브리며 호디 아닐 거시며<소언 5:102>

(60) 스키로 편안코 리호 디를 골히요미 올티 아니호니라<변소 8:23>
스스로 便코 利호 디를 골히디 아닐 거시며<소언 5:102>

다음과 같이 명사 뒤에 ‘호디’와 쓰여 ‘-디’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

(61) 므슴을 줍가디여 힘서 hinghaya 벼슬 아니호고<변소 10:27>
므음을 줍가 힘 써 行haya 다시 벼슬호디 아니호고<소언 6:125>

다음과 같이 어미 사이에서 교체가 일어나거나 격조사가 달리 나타난 경우도 있다.

(62) 혹 도죽 피haya 수물 짜홀 gruchumoro 어미와 아드리 다 어려운 저기 도히 디내니라<변소 9:20>
或 병난 避홀 짜홀 gruchini 드디여 시러곰 다 환난에 보전호니라<소언 6:18>

(63)의 예문이 특이하다. <번역소학>에서 목적격 조사로 실현되었던 것이 주격 조사로 실현되었다.

(63) 썩리 남진 shyomul 받드시 공경하며 받드시 조심호리라...며느리 식어버시 shyomul 받드시
며느리의 도리로 호리라<변소 7:34>
썩이 남진 shyomi 받드시 공경하며...며느리 식어버이 shyomi 받드시 며느리의 도리를 잡아 호
느니라<소언 5:66>

(64)와 같이 부사형이 명사화하여 나타난 경우도 있다.

(64) kuhi 도올디라도<변소 7:33>
kuhomul 어들디라도<소언 5:65>

3. 결론

이 연구의 목표에 아직 다다르지 못하여 이 발표에서는 다루지는 못하였으나 본론을 통해 살펴본 몇 가지의 차이 이외에도 <번역소학>, <소학언해>에서는 어미의 차이도 보인다.⁸⁾ 어미의 차이도 또한 연구할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소학언해>의 번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민편언해>, <선가귀감언해>, <논어언해>, <대학언해>, <맹자언해>, <중용언해> 등과 대조해 보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서론에서도 알렸듯이 <어제소학언해>와 <내훈>까지도 이후의 연구의 대상으로 꾸준히 삼아 차이를 기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변화의 이유의 설명까지도 고찰해 볼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참고 문헌

- 남성우(1997), 『『翻譯小學』卷六과 『小學諺解』卷五의 翻譯』, 『구결연구』 2, pp.327-471.
박형우(2003), 「한국어 부정문의 변천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박형우(2004),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 나타난 부정문의 비교 연구」, 『한민족어문학』 44, pp.5-28.
이현희(1986), 「중세국어 내적화법의 성격」, 『한신논문집』 3, 한신대학교 출판부, pp.191-228.
이현희(1988), 「소학의 언해에 대한 비교연구」, 『한신논문집』 5, 한신대학교 출판부, pp.205-248.
조현진(2015), 「번역 대비를 통한 『번역소학(翻譯小學)』과 『소학언해(小學諺解)』의 의역(意譯)과 직역(直譯)」, 『언어와 언어학』 67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pp.149-176.
허재영(1998), 「번역소학과 소학언해 비교 연구」, 『국어교육』 97,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pp.205-234.
허재영(2002), 『부정문의 통시적 연구』, 역락.

8) 죠개 구우라 혀여닐 滌이 正色혀여<변소 7:14>
죠개 구으라 혀대 滌이 正色혀고<소언 5:47>

■ 토 론

“<번역소학>, <소학언해> 비교 연구”에 대한 토론문

안신혜(용인송담대)

이 논문은 <번역소학>과 <소학언해>를 대비하여 특징적인 차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번역소학과 소학언해는 70년의 시간을 두고 같은 원문을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여 책으로 편찬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번역소학의 경우는 읽는 사람들이 접하기 쉽도록 의역에 중점을 둔 방식이고 소학언해의 경우는 구결을 그대로 살려 번역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나온 소학언해에서 오히려 통상적인 언어 변화의 방향에 역행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2.1에서 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번역소학에서 관형화 구성으로 나타나던 문장이 소학언해에서 명사화 구성으로 바뀌는 것은 선어말어미 ‘-오-’가 소멸하면서 서술문화 되어 간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소학언해가 구결 그대로를 살려 번역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또 번역소학의 명사화 구성이 소학언해에서 어떤 어미로 교체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소학에서 ‘-오- + -ㅁ’, ‘-ㅁ’ 구성이 ‘-기’ 구성으로 교체되어 나타난 것, 그리고 번역소학에서 어미로 실현된 것들이 소학언해에서 ‘-기’로 교체된 것들을 통해 당시 ‘-기’ 구성의 확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의 언어 변화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연구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묻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2.3에서 번역소학의 ‘-르시’가 소학언해에서는 명사형 ‘-ㅁ’으로 교체되거나 혹은 다른 어미들로 교체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 예시를 보이고 있는데 혹시 교체되는 모든 어미의 예를 여기에 제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르시’가 다른 어미들이 아닌 그 어미들로 교체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르시’와 ‘-르시’가 다른 어미로 교체되는 이유로 ‘-르시’는 ‘-르+스+이’로, ‘-르시’는 ‘-르+스+ㅣ’로 분석이 가능한데 이는 모두 ‘스’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의 쇠퇴 때문에 ‘-르시’와 ‘-르시’ 구성이 ‘스’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어미로 바뀌었던 것인데 ‘스’와 같은 원시추상명사였던 ‘ㄷ’이 포함된 어미의 경우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2.5에서는 단형부정문이 장형부정문으로 교체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바뀌었는지 정도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2.5 그 밖의 것에서 여러 가지 교체된 형태들이 보이는 데에 비해 예시가 적은데 실제 문헌에서는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났던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부족한 토론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현대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의 총체적 접근과 분석

- 연구 배경과 방법, 목록화를 중심으로 -

고경민(단국대)

< 차례 >

1. 들어가며
2. 연구의 배경과 연구 방법
3. 근현대 일본인의 한국어 학습서
4. 결론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근현대¹⁾(근대계몽기-일제강점기) 시기 일본인 대상으로 간행된 한국어 학습서를²⁾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근대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어 학습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는 근대와 일제강점기의 한국어 학습서를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 시기 한국어 학습서의 시대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는 것이 연수의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연구 대상과 배경, 방법, 그리고 한국어 학습서의 목록화 작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근현대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 학습서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두 단계의 과정으로 계획되었다. ‘자료 조사 및 구축’ 단계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 목록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이하 DB) 구축하고, ‘자료

1) 이 연구의 범위가 되는 ‘근현대’에서의 ‘근대’ 연구자의 기준이나 외부 요건에 의거해 정확한 연대나 시기 명칭에 차이가 있다.(한국경제사학회 1975 참조) 근대계몽기에 대해 고미숙(1999)은 새로운 인식론의 대두라는 측면에서 1894년부터 1910년으로 시기를 잡았다. 홍인숙(2007)은 개항을 기점으로 1890~1910년을 근대계몽기로 보았으며, 허재영(2011,2013)은 계몽사상에 초점을 맞춰 1880~1910년까지를 근대계몽기로 보았다. 또한 현대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 역시 규정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근현대’라는 용어의 사용은 해당 시기에 편찬된 한국어 학습서가 시기별로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 두 시기에 걸쳐 연장선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두 시기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학습서와 교재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본 연구에서 차용하는 학습서의 개념은 일반적인 교재의 개념을 대부분 포괄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어교재에 대한 정의 가운데 조항록(2003:250)에서 기술한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그 무엇을 가르친다고 할 때 교재는 ‘그 무엇’을 담아내는 총체적인 도구”라는 개념과 민현식(2005:5)에서 “누가, 무엇을 가르치는 행위에서 ‘무엇’을 담고 있는 총체물”이라는 개념에서의 ‘교사가 가르치는 행위에 필요한 것’과 근현대에 편찬된 학습서들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현대의 한국어교재’가 아닌 ‘근현대 한국어 학습서’라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 및 해석' 단계에서는 구축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맥락과 시대적 특성을 고려한 통시적 기술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근대에서 일제강점기로의 전환에서 발생한 시대적 상황과 교재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간행 목적이나 주요 학습 대상에 따라 교재의 내용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는 이 가운데 1단계에 해당하는 전수 조사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한국어 학습서의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 학습서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외국인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학습서나 외국인 선교사가 간행한 한국어 학습서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서는 비교적 '선교' 목적이란 것이 분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근대와 강점기 교재의 목적에 큰 변화가 없다. 반면에 200여 권에 달하는 일본인 대상의 학습서는 다양한 편찬 배경과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서를 살피는 과정은 가장 치열하고 굴곡진 50년의 통시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하였다.

2. 연구의 배경과 연구 방법

2.1. 연구의 배경

일본인에 의한 최초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기록은 일본 헤이안 초기의 역사서인 속일본기(續日本紀)에서 살펴볼 수 있다. 761년 미노와 무사시 지역의 소년들에게 신라어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편찬된 일본어 학습서인 '첩해신어(1676, 捷解新語)나 '인어대방(1790, 隣語大方)'이 일본에서는 거꾸로 한국어 학습서로 이용되었다는 내용을 봐도 근대 이전에는 근대 이후와는 다른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헤아릴 수 있다. 개항 이후 이러한 관계의 본질적인 목적과 내용이 바뀌고, 한국어 연구에 대한 입장 역시 바뀌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는 지난 수 세기를 합한 것 이상의 한국어 관련 서적과 연구가 이루어졌다.³⁾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갖고 출발하였다.

첫째, 근대 및 일제강점기 일본의 지식인들에 의한 한국어 연구 및 한국어 학습서 편찬을 살피는 일은 당시 일본제국주의의 실상이나 식민지의 언어정책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언어교육과 권력, 정책 등의 파생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의 한국어교육(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조선어교육)의 역할 및 존속 이유를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근대와 일제강점기 한국어의 어휘 및 문법, 표기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한일어의 접촉과 수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일제강점기 이후의 현대 일본인 대상 한국어교재, 한국어교육과의 관련성, 발전 정도, 목적이나 내용의 변천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3) 근대의 일본인의 한국어 학습 이유를 단순히 침략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일제강점기의 한국어 학습을 통치수단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당대의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아니다. 조선어장려정책 등의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강제 학습이 이루어지던 때에도 실제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학습자 및 학습서를 찾아볼 수 있다. 야마다(2012:207)에서는 이를 ① 생활상의 필요 ② 제도적인 강제 ③ 개인적인 이익 ④ 내선융화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제도적·정치적 목적 이외의 한국어 학습과 학습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2.2. 기존 연구 검토

연구와 관련한 국내의 주요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근대계몽기의 한국어교육’, ‘근대계몽기의 한국어 학습서’, ‘일제강점기의 한국어교육’, ‘일제강점기의 한국어 학습서’,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 전반의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주요 논의와 특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저자	연도	제목	대분야	특징
김혜정	2003	"일제 강점기 '朝鮮語 敎育'의 意圖와 性格"	일제강점기 한국어 교육	일제강점기 조선어교육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석
이지영	2004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 연구, 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사적 고찰"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 전반의 특징	한국어교육사의 시기 구분 및 사적 흐름에 대한 고찰
전형식	2007	"일본인의 한국어 연구에 대한 고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 전반의 특징	목록 제시 및 서지사항 확보
정근식	2007	"구한말 일본인의 조선어교육과 통역경찰의 형성"	근대계몽기 한국어 교육	통역의 관점에서 시기적 특징 포착
오대환	2009	"식민지 시기 일본인을 위한 조선어교육 연구"	일제강점기 한국어 교육	국어교육 차원에서의 한국어교육 관점
편무진	2009	"일본 명치시대의 한국어학습서에 보이는 한국어 가나(仮名) 표기에 관한 고찰"	근대계몽기 학습서	학습서의 개별적 분석을 통한 특징 기술
강남욱	2009	"근대 초기 한국어 교재의 역동적 정착 과정"	근대계몽기 학습서	시기적 특징 및 교재의 편찬 배경, 체계, 내용에 대한 포괄적 기술
박기영	2009	"개화기 한국어 학습서 『日韓會話』에 대한 일고찰"	근대계몽기 학습서	해당 학습서의 교재 목적과 내용, 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
고명균	2010	"근대 조선어 학습서 '隣語大方' 연구"	근대계몽기 학습서	인어대방의 교재사적 위치와 교육적 가치에 대해 기술
李康民	2010	"1894年刊 『朝鮮語學獨案內』에 대하여"	근대계몽기 학습서	일본어학의 관점에서 해당 교재의 편찬 배경과 저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
정승혜	2011	"오구라문고(小倉文庫) 所藏 韓國語 學習書에 대한 一考察"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 전반의 특징	문헌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및 저자에 대한 정보 제공
오현아, 박민신	2012	"일제 강점기 일본인 대상 조선어 교재 분석 연구를 위한 시론"	일제강점기 한국어 학습서	교재 분석의 관점과 기초적 점검 사항 기술
성윤아	2012	"근대 일본에서의 조선어회화 학습 열기"	근대계몽기 한국어 교육	근대 한국어교육의 배경 및 일본인 한국어 교육의 특징 기술
허재영	2012	"한국어 학습서 『교린수지』의 분류항과 어휘 선정 배열 연구"	근대계몽기 학습서	해당 학습서의 내용적 특성 및 어휘 선정에 대한 체계적 분석
石塚壽子	2013	"개화기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 연구"	근대계몽기 학습서	특정 교재 중심의 분석

고예진	2013	"19세기 서양인의 한국어 교재 연구"	근대계몽기 학습서	서양인 연구자의 관점 기술
박진완	2013	구한말 일본인에 의한 조선어 교육 방식 연구 -초량어학소(草梁語學所) 『복문록(復文錄)』의 분석을 통해-	근대계몽기 한국어 교육	시대적 특징 포착과 교육 기관에 대한 기술
고경민	2013	"근대 태동기 한국어 교재의 회화문 분석"	근대계몽기 학습서	특정 교재 중심의 회화 주제 및 체계 분석
최영철, 허재영	2014	"근대 계몽기 일본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학습서의 변화"	근대계몽기 학습서	시기적 변천 과정과 학습자의 배경에 대한 고찰
김정숙, 최호철	2015	"20세기 초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회화 학습서 연구"	근대계몽기 학습서	교재 분석 항목 및 주제별 회화 항목 기술
윤영민	2015	"개화기 한일 양국어 학습서의 특징 연구 -문법 관련 기술 양상을 중심으로-"	근대계몽기 학습서	문법을 중심으로 양국의 학습서 비교

그동안 이 시기의 한국어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일본어학을 전공하는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국어교육 차원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일본인의 한국어 및 한국어 학습서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었음에도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연구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서 선행 연구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선행 연구의 문제점 및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 학습서의 목록과 관련한 부분이다. 한국어 학습서 목록이 다수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의 목록화 작업은 일본인 연구자인 야마다(2004)의 목록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실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연구가 상당수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한국어 학습서의 소재가 대부분 일본인 점을 감안할 때 일부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야마다(2004)에서 제시한 학습서 목록과 그에 해당하는 실질적 자료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사용되는 점은 중대한 문제이며, 이는 반드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자료의 취합 및 DB 구축에 대한 사항이다. 현재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 학습서 연구는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자가 아닌 일본어학과 국어학 관련 연구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연구자들에 의해 발굴된 자료들이 취합되지 않은 채 학문별로 산개해 있어 정확한 수치 및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를 통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통합 DB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취합된 자료의 분석 및 해석에 대한 부분이다.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엄연히 ‘교재론’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고, 해당 분야를 통해 교재의 역사를 비롯해 체계, 형식, 내용, 평가, 개발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근대와 일제강점기의 학습서를 살피는 일 역시 ‘교재론’의 차원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단순한 서지 사항을 살피거나 부분적인 번역만으로는 해당 학습서의 교육적 가치나 활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본 연구는 ‘한국어교재론’의 관점에서 조사·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넷째, 연구의 관점에 대한 문제이다. 그동안의 선행 연구는 한국어교육사 혹은 한국어교재사의 관점이 아닌 국어사, 음운사, 일본어사 차원에서의 연구가 활발했으며, 각 학문 분야의 영역 안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맞지만 자연스럽게 일

본어문학이나 일본어교육의 차원에서는 일어 표기의 문제나 저자의 배경, 관련 기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국어학의 입장에서는 표기나 문체, 어휘가 논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교재론에 입각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2.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각 단계별 목표를 정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두 단계 가운데 ‘자료 조사 및 구축’ 단계가 아래의 1단계에 해당하며, 2단계와 3단계가 ‘자료 분석 및 해석’ 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 -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 자료의 분류 기준과 체계 설계

① 1차 자료 선별

전체 분석 대상이 되는 학습서의 서지 자료 확인과 선행 연구자들이 선정 목록 검토를 통해 분석 자료 선별

② 관련 연구 검토

선별된 자료와 관련한 선행 연구(국어학, 국어교육, 일본어문학, 일본어교육, 사회학, 교육학) 정리와 연구 자료 정리

③ 원문 자료 수집

선별된 자료 정보와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학습서의 원문 자료 수집 (국내외 도서관 및 대학기관 소장여부 확인)

④ 분류 체계 수립

수집한 자료의 일관성 있고, 상세한 분류를 위해 목적별, 유형별, 시기별, 영역별로 1차 분류하고, 여기에 학습서의 내용, 대상에 따라 세분화한다.

2단계 - 근현대 한국어학습 자료의 분석과 입력⁴⁾

① 자료의 분석

해당 시기의 실증적 자료를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변천에 무게를 두어 심도 있게 분석한다. 교재의 분석은 김정숙(2012:91)⁵⁾을 참조하되 연대기적 상호관련성에 주목한 분석을 실시한다.

② 자료의 입력

첫 번째 단계에서 마련한 분류 체계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1차 데이터를 입력한다. 데이터의 입력은 더블린코어의 메타데이터⁶⁾ 기준안을 참조하여 입력하고,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3단계 - 실증적 자료의 통시적 기술과 맥락을 고려한 해석 과정

4) 해당 시기 한국어 학습서의 의미와 가치를 자료의 계량화 작업을 통해 일정 부분 가늠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규명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자료를 선별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5) 첫째, 교재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둘째, 문법부와 한국어 회화부의 관계가 어떠한가? 셋째, 회화부의 내용은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가? 넷째, 회화부의 의미 제시 방식은 어떠한가? 다섯째, 회화부의 텍스트 유형은 어떠한가? 여섯째, 누구와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회화부가 구성되었는가?

6) 자원의 속성을 기술하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 할 수 있는데 더블린코어를 이용한 방법은 그 가운데 15개의 기본적인 데이터요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세부 내용은 제목, 저자, 주제, 특징, 출판지, 날짜, 자료 유형, 파일 형식, 식별 기호, 출처, 언어, 관련 자원, 범위, 이용 조건, 기여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①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자료 해석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료를 재해석함으로써 자료의 연구사적 의의를 새롭게 발굴하고, 사료적 가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해석 단계를 시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근대와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특성과 교재의 편찬 목적, 배경 등을 분명히 밝히고, 해당 시기 교재의 특징을 포착한다.

② 통시적 기술

실증적 자료와 재해석된 내용을 토대로 근대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편찬된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 학습서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별 상호관계를 규명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근대에 편찬된 학습서가 일제강점기에 어떤 방식으로 변용되었으며, 교재 전체의 발달사 측면에서 어떤 위치와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한다.

3. 근현대 일본인의 한국어 학습서

3.1. 시기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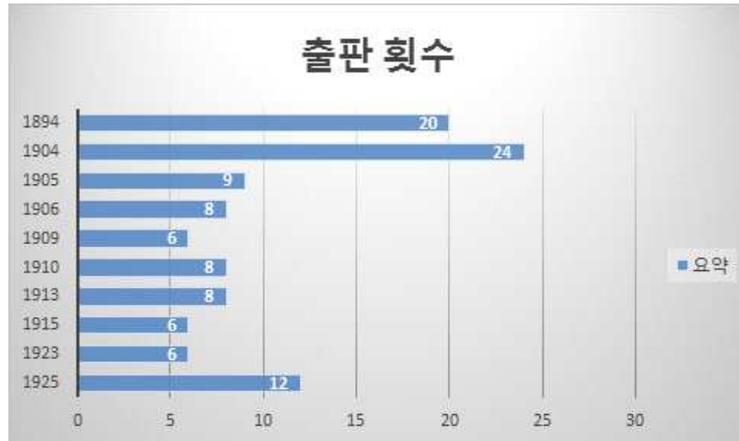
외무성이 이즈하라(嚴原)의 동본원사파·광청사(東本願寺派·光淸寺)에 「한어학소」(韓語學所)를 설치한 것은 1872년 10월로, 이것이 일본에서 설치한 최초의 한국어 교육기관이었다.⁷⁾ 이즈하라의 「한어학소」는 곧이어 1873년 10월에 부산에 있던 「초량공관」(草梁公館)내의 「첨관옥」(僉官屋)으로 이전하여 외무성 「초량관어학소」(草梁館語學所)로 개칭되었다. 이후 1880년 9월에 문부성 관할의 동경외국어학교에 조선어학과가 설치됨에 따라 부산 「초량관어학소」가 폐지되고, 「초량관어학소」의 교수와 학생은 외무성에서 문무성으로 이관되는 형식으로 동경외국어학교 「조선어학과」로 합류하게 된다. 이후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어(조선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듯이, 1905년에 창립된 야마구치(山口)고등상업학교와 나가사키(長崎)고등상업학교에서 한어교육이 실시되었다. 한용진(2009)에서는 1894년 8월의 시점에 일본은 한국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의 의지가 확립되었다 보기 어려우며, 비록 오도리(大鳥圭介) 공사의 「5개조 내정개혁방안강령」(1894.7.3)이나 오카쿠라(岡倉由三郎)의 「朝鮮國民教育新案」(1894.8.31) 등이 발표되었지만, 당시 일본에서도 한국 교육 개혁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준비가 미리부터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술한 바 있다.⁸⁾

국내의 일본인 거류지 안에 설립된 공립소학교는 1877년에 부산에서 시작되어, 1885년에 인천, 1888년에 원산, 1889년에 경성에서 각각 개교하였다. 1878년 1월에 釜山大谷派本願寺 奥村翰番(오쿠무라)가 창립한 「선어학사」(鮮語學舍), 1880년 7월에 당시의 부산초대영사 곤도(近藤眞鋤)가 세운 「희재학교」(喜齋學校), 1881년 3월에 인가된 「수재학교」(修齋學校) 등에는 한어과가 설치되어 약 2년간 한국어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수재학교」는 1889년에 「부산공립학교」로

7) 성윤아(2015:142)에서는 이 때 설립된 한어학소 설치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이는 세습이었던 쓰시마통사 제도가 전국규모로 통역사를 선발하는 체계적인 한어교육(韓語教育)의 시행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는 근대적인 외교의 시작을 의미했다.”

8) 정근식(2007:11)에서는 이 시기의 한국어 학습의 목적에 따른 시대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한국어 학습의 목적이 변질되어 메이지정부가 한국침략을 준비하는 시기(1872-80), 관과민의 서로 다른 목적의 한국어 학습이 병존하는 시기(1880-94),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인의 한국어학습이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변화되면서 일본어의 공용어화가 강화되는 시기(1894-1911)로 구분하였다

개칭하면서 ‘한어속성과’를 설치하여 한국어교육을 재개, 1892년 4월에는 ‘조선어과’로 거듭나게 된다.9)



<그림 1> 연도별 한국어 학습서 출판 횟수 (상위 10)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는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 학습서가 편찬된 양으로 볼 때 두 번째로 많은 편찬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1904년의 편찬이 러일 전쟁 등 교육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이 시기는 교육 기관의 설립에 영향을 받고, 한국어에 대한 ‘교린’이나 ‘선린’의 관점에서 다양한 교재가 편찬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김혜정(2003:446)에서는 공교육 상에서 교과 교육으로서의 조선어 교육의 역할, 조선어과 교육의 존속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근대적 문식성 획득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일본어 학습을 위한 매개 언어 혹은 교수학습 언어로서의 효용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10)

근현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조선어)가 교육된 기관은 15개가 확인되었으며11), 연구 대상이 되는 근대와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 학습서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은 시기적

9)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에게 있어 한국어 학습은 단순한 ‘교린’이나 ‘선린’의 목적이 아닌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며,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 상당히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제점숙(2012:200)에서는 언어를 통한 조선인과의 섞임은 이렇게 외국어 학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의 절실함은 뒤에 조선어를 배운 사람들에게 의해 조선어 학습서 간행까지 이어졌다고 살핀 바 있다. 예를 들어 우라세교정증보(浦瀬裕校訂増補)의 교린수지, 언어대방은 1881년 간행되었고, 우라세교정증보의 재간(再刊)교린수지와 호세코 교정(宝迫繁勝校訂) 교린수지는 1883년 부산에서 간행되었다. 이들 책에는 조선의 문화와 생활을 알 수 있도록 전통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살렸으며, 한글 읽기에 일본어 가나는 붙이지 않았다. 대신 어휘 부분에 한자와 한글을 병행하였다.

10) 1901년 동경외국어학교의 한어학과에 교수로 부임한 가나자와는 일본인이 조선에서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에 앞서 조선어를 공부해야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石川遼子(2001, 정근식 2007 재인용)에 실린 가나자와의 1905년 기고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장래에는 통역관 양성을 위해 조선어를 교수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고, 그 외에 직접 조선의 행정, 사법, 교육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문과 대학을 시작으로 각종 고등전문학교에서 전문 학술 수련과 함께 조선어를 수련할 필요가 있다”

11) 야마다(2014)에 따르면, 19세기 후반부터 1945년까지 일본인들이 조선어를 습득하는 전문적 교육기관은 적어도 15개가 확인되며, 이 중에서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은 대마도 이즈하라에 있었던 한어학소이다. 아래의 표는 주요 교육 기관을 정리한 것이다.

명칭	위상	설치연도	폐지연도	졸업자수
한어학소	전문	1872	1873	35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근대계몽기	1. 청일전쟁 등 외부의 주요 사건과 관련하여 교재 편찬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교린', '선린'의 관점에서 간행된 교재의 목적이 정확히 어떤 시기, 어떤 형태로 변화하였는지 포착해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1. 일제강점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관점의 학습서 편찬이 정책과 시대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어문교육이나 학문의 유통 과정이 이 시기 한국어교육과 한국어 학습서 편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3.2. 한국어 학습서 목록화 연구

근현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학습서의 자료 정리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본인 연구자인 스에마쓰(1970)와 사쿠라이(1974)¹²⁾, 야마다(1998)¹³⁾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 학습서 목록과 관련해 정리한 연구로 연구자가 제시한 목록이 있거나 부분적으로 기술한 연구는 아래와 같다.¹⁴⁾

연구자	시기	작업 내용	참고 사항
야마다 간토	1998, 2004	133종(1998년 조사자료) 138종(1880~1945)	미확인 학습서까지 포함하면 183종 (1998년은 178종)
전형식	2006	139종(1876~1945)	사전 15, 어휘 19, 문법 8, 회화서 97, 사전 2종, 어휘 3종, 문법 2종, 18종이 다른 연구자의 목록과 겹치지 않음.

초량관 어학소	전문	1873	1880	4
동경외국어학교 조선어학과	전문	1880	1886	29
외무성파견관비유학생	전문	1891	1908	9
고등상업-동경고상	제2외국어	1894	1916	
낙천굴(熊本縣파견조선어유학생)	전문	1896	1906	31
고상부속외국어학교 조선어과	전문	1897	1927	130
山口고상	제2외국어	1905	1922	
長崎고상	제2외국어	1905	1922	
동양협회전문 조선어학과(척식대)	전문	1907	1920	304
천리외어조선어부(천리어학전문)	전문	1925	1944	65
경성고보부설임시교원양성소(경성사범)	필수	1913	1943	
사범학교(조선)	필수	1922	1943	
관립고등전문(조선)	필수	1922	1938	
경성제대	전문	1926	1945	2

12) 전체 63권에 대한 서지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13) 현재 관련 연구자들이 가장 참조를 많이 하고 있는 목록으로 확인이 가능한 133종과 미확인된 45종을 목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단 목록화된 내용에 정확한 교재 사용 대상은 알 수 없으며, 편찬 목적도 세분화되지 않았다.

14) 현재까지 영인된 사항을 살펴보면 역대문법대계에 수록된 것이 19종이며, 이 외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어 교육자료」로 4종이 영인되었다.

성윤아	2008	27종(1881~1895)	성윤아(2015:140)에서는 1881년에서 1926년 사이에 편찬된 학습서를 102종으로 기술
성윤아	2010	48종(1900~1912)	
이강민	2015	79종(1880-1926)	메이지 전기와 후기, 다이쇼기로 구분. 각 학습서의 편찬 배경 기술

근대와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의 목록화 관련 연구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시기나 학습서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 아닌 조사된 학습서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그림 2의 DB 구축 예시 참고)

둘째, 편찬 배경이나 어휘, 문장, 문법 등 일부 연구의 관점이 아닌 총체적인 교재론의 시각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 <그림 2>는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DB를 구축하고 있는 예이다.

순번	발행년	제목	저자	발행처	발행지	출판 언어	교육 대상	교육 목적 (유형)	단원 구성	본문 배열	전체 단원	교재 수준	분량	소장처	특징
1	1880	韓語入門	宝迫斐勝	著者蔵版, 浅江村(山口県)	일본	한일	특정 대상 아님	문법서	어휘-문법-문장	세로, 좌우	12단원	입문	148	일본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	정관사와 부정관사 개념 도입. 품사에 대한 기술이 많음. 마지막에 한국어 번역 수록.
2	1881	日韓音譯通話	宝迫斐勝	著者蔵版, 浅江村(山口県)	일본	한일	특정 대상 아님	회화서	본문-번역-발음	세로, 좌우	21단원	입문	116	일본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	한국어 문장에 일본어 대역과 가타카나로 발음을 표기. 한국어의 발음을 비롯해 존칭표현, 방언에 대해서도 기술. 하편에서는 상어삼등지별(常語三等之別)이라 해서 上等, 中等, 下等으로 나뉜 文을 실고 있으며, 명령어(命令語), 정문어(井文語)에서는 명령문을 회화 형식으로 기술
3	1881	交隣須知	雨森芳洲	外務省蔵版, 東京	일본	한일	특정 대상 아님	회화서	문장	세로, 좌우	68개의 주제	입문	464	서울대 중앙도서관, 나가사키 대학 도서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등	중보본, 비중보본, 간본의 형태로 전하고 있으며, 일본(江戸明治)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회화식 예해문례사전(例解文例事典)의 형태임.

<그림 2> DB 구축 예시

이와 같은 DB 구축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근현대 일본인 대상의 한국어 학습서에 대한 목록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당시의 학습서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DB 구축에 앞서 몇 가지 기준으로 정리된 이 시기의 학습서 목록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근현대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 목록은 앞서 제시한 선행 연구자의 목록을 비교·대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중복되는 학습서를 제외하고, 출처가 명확한 목록을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목록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상권과 하권이 나뉘어 있으나 1책으로 이루어진 학습서는 한 종으로 분류하였다. 예) 한어입문, 일한 선린통화

둘째, 학습서의 주된 대상이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 학습자인 경우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서는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야마다(1998)의 목록에 포함되었던 교재 가운데 몇 권을 제외하였다. 예) 보통학교 조선어급한문독본, 여자고등조선어독본,

조선어독본 등¹⁵⁾

셋째, 다수의 한국어 학습 내용과 글이 연재되었던 ‘월간잡지 조선어’는 한 종의 학습서로 분류하였다.

넷째, 회화와 문법 내용이 담긴 학습서 외에 어휘를 대조하고 있는 어휘집이나 어휘를 풀이한 사전류도 목록에 포함하였다. 예) 동문신사전, 일어류해, 조선어사전 등

이러한 기준을 통해 추려진 목록은 전체 207종이며, 현재까지 DB 구축을 위해 100종의 원문 파일이 확보되었고,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아래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인명과 지명에 있어 각기 다른 한자음으로 인해 한국어로 표기할 때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이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증이 필요하다. 예) 寶迫繁勝 호세코 시게가스, 호세코 시게카츠

둘째, 선행 연구자의 목록에는 있지만 원문이 확보되지 않아 실제 내용이 한국어 학습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학습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예) 朝鮮醫 語類集 (어휘 대조집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 仮名行商手引 등

번호	목록출처	제목	저자	출판지	출판사	연도
1	야마다(1998,2004)	한어입문(상, 하)	호세코 시게카츠	야마구치		1880
2	야마다(1998,2004)	교린수지	아메노모리 호슈	도쿄	외무성	1881
3	야마다(1998,2004)	일한선린통화(상, 하)	호세코 시게카츠	야마구치		1881
4	야마다(1998,2004)	정정 언어대방	우라세 히로시	구마모토	외무성	1882
5	야마다(1998,2004)	화한회화독학	다케다 신타로	일본	알 수 없음	1882
6	야마다(1998,2004)	교린수지	아메노모리 호슈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시라이시 나오조	1883
7	야마다(1998,2004)	재간 교린수지	아메노모리 호슈	도쿄	외무성	1883
8	야마다(1998,2004)	상어첩해	나카노 고타로			1890
9	야마다(1998,2004)	가명행상수인	나카노 고타로			1891
10	야마다(1998,2004)	일한영삼국대화	아카미네 세이치로	오사카	오카시마보문관	1892
11	야마다(1998,2004)	병요조선어	근위보병 제1여단	도쿄	명법당	1894
12	야마다(1998,2004)	속성독학조선일본회화편	금옥당	일본	총서각	1894
13	야마다(1998,2004)	신찬조선회화	홍상현	도쿄	박문관	1894
14	야마다(1998,2004)	실용조선어정편	나카지마 겐키치	도쿄	상무학교편집부	1894
15	야마다(1998,2004)	여행필용일한청대화자재	다치카와 요시츄구	도쿄	봉림관	1894
16	야마다(1998,2004)	일청한대조병요어집	아이자와 도미조			1894
17	야마다(1998,2004)	일청한대화편람 : 선전 칙어입	다구치 후미하루	센다이	다구치 후미하루	1894
18	야마다(1998,2004)	일청한삼국대조회화편	마츠모토 니키치	오사카	나카무라 종미당	1894
19	야마다(1998,2004)	일청한삼국통화	천연	도쿄	훈지당	1894
20	야마다(1998,2004)	일청한삼국회화	사카이 하치고로	도쿄	송영당	1894
21	야마다(1998,2004)	일한대역선린통화 : 조 선회화편	오오카와 미치히사	도쿄	청화당	1894
22	야마다(1998,2004)	일한청회화 : 독습속성	요시노 사노스케	오사카	명승당	1894
23	야마다(1998,2004)	일한회화	참모본부	도쿄	참모본부	1894
24	야마다(1998,2004)	조선국해상용어집	다무라 미야타	도쿄	수교사	1894

15) 이 시기 보통학교용 교과서 목록과 내용은 허재영(2009)를 참고하였다.

번호	목록출처	제목	저자	출판지	출판사	연도
25	야마다(1998,2004)	조선속어조학 전	마츠에 다케지로	가나자와	마츠에헌당	1894
26	야마다(1998,2004)	조선어학독안내	마츠오카 가오루	일본	아오야마 세이키치	1894
27	야마다(1998,2004)	조선의 어류집	스즈키 유조	도쿄	해군군의회	1894
28	야마다(1998,2004)	조선통어독안내	이케다 간시로	가가와 사카데	이케다 간시로	1894
29	성 윤 아 (2 0 0 8 . 2010)	조선회화편	오오카와 미치츠구	도쿄		1894
30	성 윤 아 (2 0 0 8 . 2010)	종군필휴조선독안내	구리바야시 츠구히코	구마모토	시모무라 유키사다	1894
31	전형식(2006)	단어 연어 일화조건	이 봉 윤 · 사 카 이 마스터로			1895
32	야마다(1998,2004)	대일본국민필요 하. 부 언 삼국어대략	사이토 가즈히라	미야기	센다이	1895
33	야마다(1998,2004)	일청한어독계고	한학산인	도쿄	동경당서방	1895
34	성 윤 아 (2 0 0 8 . 2010)	일한통화	고쿠부 쇼타로·고쿠부 구니오	나가사키 사지키바라	고쿠부 다케미	1895
35	야마다(1998,2004)	실지응용조선어독학서 4판	유미바 시게요시, 나이토 다케시	도쿄	철학서원	1900
36	전형식(2006)	일청한 삼국천자문	아라나미 헤이지로	도쿄	철학서원	1900
37	야마다(1998,2004)	조선어독습	마츠오카 가오루	도쿄	오카자키야	1901
38	야마다(1998,2004)	실용한어학	시마이 히로시	부산	성지당	1902
39	성 윤 아 (2 0 0 8 . 2010)	일한통화첩경	다무라 겐고	경성	다무라 겐고	1903
40	야마다(1998,2004)	교정 교린수지	마에마 교사쿠·후지 조칸	경성	히라다 상점	1904
41	전형식(2006)	대역 일로청한회화	요네무라 카츠조	도쿄	계문사	1904
42	전형식(2006)	만한토어안내 : 수진실용	히라야마 하루히사	도쿄	박문관	1904
43	전형식(2006)	사국회화 : 일영대조지나조선	가와베 시세키	도쿄	세야마 순성당	1904
44	야마다(1998,2004)	실지응용일한회화독습	가츠모토 에이지	오사카	차츰려광당	1904
45	성 윤 아 (2 0 0 8 . 2010)	유진실용만한토어안내	히라타 하루히사	도쿄	박문관	1904
46	야마다(1998,2004)	이로하히키 조선어안내	하야시아마 마츠요시	오사카	위업당서방	1904
47	야마다(1998,2004)	일로청한실용회화	이케무라 츠루요시	도쿄	청한어학교	1904
48	야마다(1998,2004)	일로청한회화	코스카 이치로	오사카	우간정화당	1904
49	야마다(1998,2004)	일로청한회화자재법	다케치 에이	도쿄	일본관	1904
50	전형식(2006)	일한영삼국회화대전	기타 다카하루·이시카와 토우겐	도쿄	마에카와 서점	1904
51	야마다(1998,2004)	일한청회화자재	통문서원	도쿄	현빈동	1904
52	성 윤 아 (2 0 0 8 . 2010)	일한통화증정	고쿠부 구니오	나가사키	고쿠부 다케미	1904
53	야마다(1998,2004)	일한회화	하타 타케하야	오사카	다나카 송영당	1904
54	전형식(2006)	일한회화	사카이 하지고로	도쿄	아오키 송산당	1904
55	야마다(1998,2004)	일한회화독습	야마모토 하루조	도쿄	동운당	1904
56	야마다(1998,2004)	일한회화삼십일간속성	가나시마 다이사이, 이진풍	도쿄	아오키송산당	1904

번호	목록출처	제목	저자	출판지	출판사	연도
57	야마다(1998,2004)	최신일한회화안내	송산당편집국	오사카	아오키송산당	1904
58	성 윤 아 (2 0 0 8 . 2010)	최신조선이주안내(일용 일한어 및 회화)	야마모토 구라타 로	도쿄	민우사	1904
59	성 윤 아 (2 0 0 8 . 2010)	한국농사안내(부 : 한어 회화)	아오야기 츠나타 로	도쿄	아오키송산당	1904
60	야마다(1998,2004)	한어 혼자 졸업 일주간 속성 : 일명 도한자의 지 팡이	아베 마사시	오카야마	가와카미 인쇄부	1904
61	성 윤 아 (2 0 0 8 . 2010)	한어독습통신지 제1편	대한기업조사국통 신부	도쿄	대한기업조사국 동경출장소	1904
62	전형식(2006)	한어연구 제1편	린코우 야스치 카·임선규	도쿄	청한어학교편집 부	1904
63	야마다(1998,2004)	한어회화	무라카미 미츠오	도쿄	대일본도서	1904
64	전형식(2006)	독학 한어대성	이토 이키치	도쿄	마루젠 주식회사	1905
65	야마다(1998,2004)	동어초계 : 한역중간	태동동문국	도쿄	태동동문국	1905
66	야마다(1998,2004)	실용일한회화독학	시마이 히로시	도쿄	성지당	1905
67	야마다(1998,2004)	일청한회화	구리모토 나가모토	도쿄	히후미관	1905
68	야마다(1998,2004)	일한신회화 : 대역	히로노 간잔·가 나시마 다이사이	오사카	이시즈카 서포	1905
69	성 윤 아 (2 0 0 8 . 2010)	일한청영로오국단어회화 편	호리이 도모타로	오사카	나쿠라소문관	1905
70	성 윤 아 (2 0 0 8 . 2010)	일한회화첩경 : 대화	가나시마 다이스 이·히로노 간잔	오사카	이시즈카 이오조	1905
71	야마다(1998,2004)	한어교과서	가나시마 다이스 이·히로노 간잔	오사카	아오키송산당	1905
72	야마다(1998,2004)	한어독습지	후지토 게이타· 다나카 요시유키	도쿄	대한기업조사국	1905
73	성 윤 아 (2 0 0 8 . 2010)	독습신안일한대화	일어잡지사	경성	일어잡지사	1906
74	성 윤 아 (2 0 0 8 . 2010)	실용한어학	시마이 히로시	도쿄	성지당	1906
75	야마다(1998,2004)	육십일간졸업일한회화독 수	류 기 영·다 카 기 츠네지로	오사카	적선관	1906
76	야마다(1998,2004)	일한언어합벽	가나시마 다이사이	오사카	아오키 송산당	1906
77	성 윤 아 (2 0 0 8 . 2010)	일한한일 신회화	시마이 히로시	도쿄	아오키 송산당	1906
78	야마다(1998,2004)	일한회화사전	일어잡지사	경성	일어잡지사	1906
79	야마다(1998,2004)	한어	안영중	나가사키	호여호서점	1906
80	야마다(1998,2004)	한어정규	곤도 신이치	도쿄	문구당	1906
81	야마다(1998,2004)	일한이로하사전	가키하라 지로	도쿄	동방협회	1907
82	야마다(1998,2004)	조선어독계고	가와베 시세키	오사카	이노우에 일서당	1907
83	전형식(2006)	일어회화	시마이 히로시			1908
84	성 윤 아 (2 0 0 8 . 2010)	일한통화	고쿠부 구니오	나가사키	고쿠부 다케미	1908
85	야마다(1998,2004)	독습일한척순	정운복	경성	일한서	1909
86	야마다(1998,2004)	동문신사전	한자통일회	도쿄	태동동문국	1909
87	전형식(2006)	문법주석 한어연구법	야쿠시지 치로우	경성	오가사와라 나 가시게·반선서옥·	1909

번호	목록출처	제목	저자	출판지	출판사	연도
					용산인쇄국·성문관	
88	야마다(1998,2004)	일한영신회화	정운복	경성	일한서방	1909
89	야마다(1998,2004)	한어문전	다카하시 도오루	도쿄	박문관	1909
90	야마다(1998,2004)	한어통	마에마 코사쿠	도쿄	마루젠	1909
91	야마다(1998,2004)	신안한어간 전	사사야마 아키라	경성	히리다 상점	1910
92	야마다(1998,2004)	일한·한일언어집 전	이다 킨에이·조의연	도쿄	일한교우회출판소	1910
93	전형식(2006)	일한대조 몽고회화	참모본부			1910
94	성 윤 아 (2 0 0 8 . 2010)	일한회화	하타 다케하야	오사카	다나카송영당	1910
95	성 윤 아 (2 0 0 8 . 2010)	일한회화	하타 다케하야	오사카		1910
96	야마다(1998,2004)	조선국 진해만 부근 날 말의 이끔	모토다 쇼조·김정숙	히로시마	마스다형제출판소	1910
97	야마다(1998,2004)	한어오십일간독수	시마이 히로시	도쿄	아오키 송산당	1910
98	야마다(1998,2004)	한어학대전	츄다 후사키치	오사카	아오키 송산당	1910
99	성 윤 아 (2 0 0 8 . 2010)	독학한어대성	이토 이키치	도쿄	마루젠	1911
100	성 윤 아 (2 0 0 8 . 2010)	조선어회화독습	야마모토 하루조	오사카	구영당서점	1911
101	야마다(1998,2004)	포켓 일선회화	후지 케이타·무라카미 유키치	경성	일한서방	1911
102	야마다(1998,2004)	국원수지일선회화	한규복·하야시다 도라오	경성	조선총독부봉토지근국	1912
103	야마다(1998,2004)	선어자재(이로하자전 불 입)	사사야마 아키라			1912
104	야마다(1998,2004)	신찬정칙일선회화	사이토 조스케	경성	일한서방	1912
105	야마다(1998,2004)	일선대자전	박중화	경성		1912
106	전형식(2006)	일어류해	가나자와 조사부로	도쿄	삼성당	1912
107	야마다(1998,2004)	국어선어척설통해	오노 츠나카타	경성	일한인쇄	1913
108	야마다(1998,2004)	일선쌍해경찰용어	정규봉		오사카야호서점	1913
109	야마다(1998,2004)	일선체신회화	조선제부 체신국	경성	조선총독부체신국	1913
110	야마다(1998,2004)	조선부동산용어략해	총독부관방토목국	경성		1913
111	야마다(1998,2004)	조선어숙어해제	야마노이 린지	대구	저동서재	1913
112	야마다(1998,2004)	조선어회화독습	야마모토 하루조	경성·오사카	구영당	1913
113	전형식(2006)	조선지명어휘	가나자와 조사부 로·고토 분지로	도쿄	도쿄제국대학	1913
114	전형식(2006)	학생필휴 국어작문편람	사카가미 츠나요시	경성		1913
115	야마다(1998,2004)	자해석일선대간독	선우일	경성		1914
116	야마다(1998,2004)	국조대역중등과강의록	조선잡지사		조선잡지사	1915
117	전형식(2006)	동문신자전	한자통일회	도쿄	대일본도서	1915
118	전형식(2006)	조선어회화	니시무라 신타 로·야마모토 마사 노부	경성	경성일보사 대리부	1915
119	전형식(2006)	포켓 조선어학 첩경	사토 로쿠토	경성	암송당	1915
120	야마다(1998,2004)	포켓조선어독학	유미바 시게요시	경성	일한서방	1915
121	야마다(1998,2004)	포켓조선어학첩경	사이토 엔도	경성	암송당	1915
122	야마다(1998,2004)	일선대조서간문	미조구치 기이치			1917

번호	목록출처	제목	저자	출판지	출판사	연도
123	야마다(1998,2004)	일선회화 정통 전	니시무라 신타로	경성	경성일보사 대리부	1917
124	야마다(1998,2004)	조선어강의록	조선어강습회	대구		1917
125	야마다(1998,2004)	조선어법 및 회화서	오쿠야마 센조	경성	조선총독부	1917
126	야마다(1998,2004)	한선문신옥편	홍순비	경성		1917
127	야마다(1998,2004)	선어계제	신조 노부사다	경성	오사카야호서점	1918
128	야마다(1998,2004)	조선어오십일간독수	시마이 히로시	경성	다나카 송영당	1918
129	야마다(1998,2004)	조선어의 선생	최재허	도쿄	오사카야호서점	1918
130	야마다(1998,2004)	포켓일선어회화	후지토 게이타	경성	오사카야호서점	1918
131	야마다(1998,2004)	선역국어대사전	후나오가 겐지	경성·도쿄	오사카야호서점	1919
132	전형식(2006)	조역국어대사전	후나오가 겐지	도쿄	오사카야호서점	1919
133	야마다(1998,2004)	일선사전 : 실용분위	이구치 야스오	도쿄	정미출판사	1920
134	전형식(2006)	조선어사전	조총편	경성	대화상회인쇄	1920
135	야마다(1998,2004)	신신조선어회화	야마모토 마사노부	도쿄	오사카야호서점	1921
136	야마다(1998,2004)	조선에서의 축우사역용어	조선총독부근업린장	경성		1922
137	야마다(1998,2004)	대역조선어회화첩경	가네시마 지사부로	오사카	이시즈카 서포	1923
138	야마다(1998,2004)	독습실용최신일선척독	박준표	경성		1923
139	야마다(1998,2004)	응용자재조선어법상해	노기주	경성	박문서관	1923
140	야마다(1998,2004)	일본인의 조선어독학 전	박중화	경성	진흥서관	1923
141	야마다(1998,2004)	일선회중신자전	박운보	경성		1923
142	야마다(1998,2004)	조선어연구	야마모토 마사노부	도쿄	오사카야호서점	1923
143	야마다(1998,2004)	실용선일사전	유석우	오사카부 노무라촌	공호학회	1924
144	야마다(1998,2004)	조선문조선어강의록	다수	경성	조선어연구회	1924
145	야마다(1998,2004)	보통학교조선어사전	심의린	경성		1925
146	전형식(2006)	신편 조선어법 및 회화서	조선총독부	경성	조선서적	1925
147	야마다(1998,2004)	월간잡지조선어	조선어연구회	경성		1925
148	야마다(1998,2004)	일선화영신자전		경성	박문서관	1925
149	야마다(1998,2004)	일어 및 조선어 독습 연해	황여주	경성	박문서관	1925
150	야마다(1998,2004)	조선문조선어강의록합본	조선어연구회	경성		1925
151	야마다(1998,2004)	조선어장려시험문제해	이시이 시게츠클구	경성	조선인쇄	1925
152	야마다(1998,2004)	주역조선어독본 전	가미사가 타이조	경성	조선경찰신문사	1925
153	야마다(1998,2004)	최신일선대사전	송완식	경성		1925
154	야마다(1998,2004)	최신조선어회화사전	야마모토 마사노부	경성	조선인쇄	1925
155	야마다(1998,2004)	한일선신옥편		경성	박문서관	1925
156	야마다(1998,2004)	회중일선신자전		경성	박문서관	1925
157	야마다(1998,2004)	속수조선어자통	송헌상	경성	덕흥서림	1926
158	야마다(1998,2004)	일선신옥편	박승빈			1926
159	야마다(1998,2004)	일선해화사전	우용근	마츠모토	공제회총본부	1926
160	야마다(1998,2004)	조선어 발음 및 문법	이완응	경성	조선어연구회	1926
161	야마다(1998,2004)	현행조선어법	정국채	광주	미야타대광당	1926
162	전형식(2006)	제삼종조선어 수험자필 휴	이완응·이토 우 자부로			1927
163	전형식(2006)	무선생속수 국어자통	영창서관	경성		1928
164	야마다(1998,2004)	어법회화조선어대성	오쿠야마 센조	경성	조선교육회	1928
165	야마다(1998,2004)	조선어사전	조선총독부	경성	조선총독부	1928
166	야마다(1998,2004)	삼개월 졸업 일선어 신 회화	가나시마 타이스 이·히로노 간잔	오사카	근대문예사	1929

번호	목록출처	제목	저자	출판지	출판사	연도
167	전형식(2006)	서양인이 수집했던 이 른 시대의 조선 낱말 『조선지나문화의 연구』	오구라 신페이	도쿄	경성제국대학법 문학회	1929
168	야마다(1998,2004)	어법회화조선어대성	오쿠야마 센조	경성	일한서방	1929
169	야마다(1998,2004)	일선단어대역집	조선어연구회	경성	조선어연구회	1929
170	야마다(1998,2004)	하루 한 시간 한 해 줄 업 경찰관조선어교과서	이린당·이완응	경성	조선어연구회	1929
171	야마다(1998,2004)	선화신사전	조선어연구회	경성	조선어연구회	1930
172	야마다(1998,2004)	조선어시험문제병역문집	이토 보사부로	경성	조선어연구회	1930
173	야마다(1998,2004)	신경경찰관필휴조선어	이토 다이키치	경성	조선경찰협회	1931
174	야마다(1998,2004)	중등조선어강좌	조선어연구회	경성		1931
175	야마다(1998,2004)	한일선시문신독본	황응두			1931
176	야마다(1998,2004)	대역일선회화독수	가나시마 지사부로	오사카	근대문예사	1932
177	야마다(1998,2004)	삼개월 졸업 일선어 신 회화	히로노 에이지 로·가나시마 지사 부로	오사카	교인사	1932
178	야마다(1998,2004)	보통학교조선어독본권일 역해	이토 보사부로	경성	조선어연구회	1933
179	야마다(1998,2004)	알기 쉬운 조선어회화	조선어연구회	경성	조선어연구회	1933
180	전형식(2006)	변체조선어회화 : 경찰 관필휴	고바야시 교타로	오카자키		1935
181	야마다(1998,2004)	일선회화제일보	가나시마 다이스이	오사카	근대문예사	1935
182	야마다(1998,2004)	한일선신옥편	노익형			1935
183	야마다(1998,2004)	사범교육조선어대학	심의린	경성		1936
184	야마다(1998,2004)	삼개월 졸업 일선어 신 회화	김답수·히로노 간 잔	경성		1936
185	야마다(1998,2004)	조선어교과서권이	오사카부누카베타 이고등경찰과	오사카		1936
186	야마다(1998,2004)	조선어시험문제집	조선어연구회	오사카	조선어연구회	1936
187	야마다(1998,2004)	대역일선회화독수	가나시마 지사부로	오사카	교인사	1937
188	야마다(1998,2004)	만선화일신사전	이명철			1937
189	야마다(1998,2004)	신수일한선대사전	송완식	경성	영창서관	1937
190	야마다(1998,2004)	실용선화대사전	송완식	경성	영창서관	1938
191	전형식(2006)	조선어에서 검양어·존경 법의 조동사 『동양문고 논총』 26	오구라 신페이	도쿄	동양문고	1938
192	야마다(1998,2004)	일선회화삼십일간속성	가나시마 다이스 이·이진풍	오사카	햇토리문귀당	1941
193	야마다(1998,2004)	협화보조독본 전	호리 데이지로	도쿄	동아공론사	1941
194	야마다(1998,2004)	내선신옥편	오오야마 하루나가	경성	영창서관	1942
195	야마다(1998,2004)	실용내선대사전	오오야마 하루나가	경성	영창서관	1943
196	야마다(1998,2004)	조선어교과서	총독부경찰관강습소	경성	총독부경찰관강 습소	1943
197	야마다(1998,2004)	모범선화사전	미즈하라 사토시	경성		1944
198	야마다(1998,2004)	대일본실업학회상과제2 기강의 조선어	홍상현	도쿄	대일본실업학회	1896-18 97
199	전형식(2006)	내선신옥편	영창서관편집부			
200	전형식(2006)	실용 내선대사전	오오야마 지스이			

번호	목록출처	제목	저자	출판지	출판사	연도
201	성 윤 아 (2 0 0 8 , 2010)	일선회화	조선총독부		1912	
202	야마다(1998,2004)	조선어독본	조선금융조합연합회	경성	조선금융조합연합회	
203	야마다(1998,2004)	조선어수험자필휴		경성	조선어연구회	
204	야마다(1998,2004)	조선어체신회화		경성	조선어연구회	
205	야마다(1998,2004)	철도전용조선어자습서		경성	조선어연구회	
206	전형식(2006)	한일선대사전	조선도서주식회사편			
207	전형식(2006)	한조문 신옥편	현공림			

4. 결론

- 생략

■ 참고 문헌

- 강남옥(2009), 「근대 초기 한국어 교재의 역동적 정착 과정」, 『경신문화연구』 32, 한국학중앙연구원, 193-222.
- 강진호(2006), 「근대 교육의 정착과 피식민지 주체」, 『상허학보』, 상허학회, 153-183.
- 具良根(1976), 「明治日本の韓語教育と韓國への留學生派遣」, 『韓법』 5-12, 韓國研究院.
- 고경민(2010), 「근대계몽기 한국어 학습서의 품사분류 체계와 기준」, 『새로운 국어사 연구』 10, 경진, 서울, 경진.
- 고경민(2011), 「고대와 중세 한국어 교육의 원류에 대한 소고 -사서와 역관을 대상으로 한 문헌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36-544.
- 고경민(2011), 「근대계몽기 한국어 학습서의 문법기술에 대한 고찰」,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1, 한국문법교육학회, 25-35.
- 고경민(2012), 「한국어 교재 변천사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고경민(2013), 「근대 태동기 한국어 교재의 회화문 분석」, 『우리말교육현장연구』 7, 우리말교육현장학회, 133-160.
- 고경민(2013), 「논문 : 국외 한국어 교재의 변천사 연구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33, 한말연구학회, 5-36.
- 고경민(2014), 「한국어교재의 유형별 분류에 대한 고찰」, 『우리말교육현장연구』 8,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75-298.
- 고명균(2010), 「근대 조선어 학습서 『隣語大方』 연구」, 『언어와 문화』 6,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18.

- 고미숙(1999), 「근대계몽기, 그 생성과 변이의 공간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민족문학사연구』 14, 민족문학사학회, 105-132.
- 고영진 외(2012), 「식민지 시기 전후의 언어문제」, 서울, 소명출판.
- 고예진 (2013), 「19세기 서양인의 한국어 교재 연구」, 부산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 金周弼(2013), 「조선어 교재로서의 『隣語大方』과 일본어 교재로서의 『隣語大方』」, 『韓語文研究』 4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7-66.
- 김정숙(2012), 「19세기 말의 한국어 학습서 연구」, 『이중언어학』 49, 이중언어학회, 87-109.
- 김정숙·최호철(2015), 「20세기 초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회화 학습서 연구」, 『어문논집』 74, 민족어문학회, 133-157.
- 김주필·이민아(2014), 「일본 外務省藏版 19세기 말 조선어 교재의 언어 사용 양상과 특징」, 『언어학』 70, 한국언어학회, 45-69.
- 김지연(2009), 「대한제국『官報』에 수용된 일본어 어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金惠貞(2003), 「일제 강점기 '朝鮮語 教育'의 意圖와 性格」, 『韓語文研究』 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31-455.
-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 『국어교육연구』 Vol.7 No.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60.
- 민현식 외(2005), 『한국어 교육론 1법 한국문화사』.
- 박기영(2009), 「개화기 한국어 학습서 『日韓會話』에 대한 일고찰」, 『세계한국어문학』 1, 세계한국어문학회, 35-56.
- 박기영(2012), 「일제 식민지 사기의 한국어 회화서 『일선(日鮮) 해신회화(海信會話)』와 『조선어 요신회화(朝鮮語邀信會話)』에 대한 일고찰」, 『한문연구』 6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4.
- 박진완(2002), 「연구논문 : 「첩해신어」 대역문을 통해 본 근대 한국어 변천의 특성」, 『한국어학』 16, 한국언어학회, 285-305.
- 박진완(2013), 「제5분과 : 개인발표 3 : 구한말 일본인에 의한 조선어 교육 방식 연구 -초량어학소(草梁語學所) 『복문록(復文錄)』의 분석을 통해」,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43-355.
- 박혜진(2014), 「독립신문에 나타난 일본어 어휘 연구」, 高麗大學校 大學院, 국내박사학위논문.
- 樓井義之(1974), 「日本人の 朝鮮語學研究」, 『韓語』 7-8, 韓國研究院.
- 樓井義之(1979), 『朝鮮解研究』 明治大正編 龍溪書舍.
- 서민정(2013), 「개인논문 : 20C 전반기 한국어문 변화에 영향을 준 외부적 요인 -문화 소통의 관점에서」, 『우리말연구』 33, 우리말학회, 113-137.
- 石塚令子(2013), 「개화기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 연구」, 高麗大學校 大學院, 국내박사학위논문.
- 성윤아(2009), 「明治前期における朝鮮語? 話書の特徴とその日本語」, 『일본문화연구』 31, 동아시아일본학회, 73-86.

- 성윤아(2012), 「근대 일본에서의 조선어회화 학습 열기」, 『아시아문화연구법』 25,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67-91.
- 성윤아(2015), 「근대 일본인의 조선어회화 학습서『實用日韓會話獨學』에 대한 고찰」, 『日本語文學』 65, 한국일본어문학회, 59-78.
- 성윤아(2015), 「근대 조선어회화 학습서『일한선린통어』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법』 55, 동아시아일본학회, 139-161.
- 성희경(2004), 「『朝鮮偉國字彙』의 日本語와 日本漢字音의 表記에 대하여」, 『일본어문학』 26, 일본어문학회, 131-148.
- 末松保和編(1970) 「朝鮮研究文獻目錄 單行書篇」, 東京大學東洋學文獻館 センター
- 山田寛人(1998), 「朝鮮語學習書·辭書 から 見た日本人と朝鮮語-1880年 ~1945年」, 『朝鮮學報』 39, 천리대학조선학회, 53-83.
- 山田寛人(2004), 『殖民地朝鮮における朝鮮語獎勵政策』 不二出版.
- 여태천(2011), 「조선어 인식과 근대 민족시론의 형성」, 『批評文學』 -, 韓國批評文學會, 177-209.
- 오대환(2009), 「식민지 시기 일본인을 위한 조선어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오새내(2013), 「일제강점기 일본인 경찰, 관리 대상 조선어 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경찰관전용 조선어교범』의 내용 분석」, 『語文論集』 54, 중앙어문학회, 231-255.
- 오현아·박민신(2012), 「일제 강점기 일본인 대상 조선어 교재 분석 연구를 위한 시론」, 『한국언어문화학』 9,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99-219.
- 유동석·차윤정(2004), 「조선어 학습서에 나타난 국어사적 특징과 일본어 간섭 현상」, 『우리말연구』 14, 우리말학회, 47-83.
- 윤영민(2015), 「개화기 한일 양국어 학습서의 특징 연구 -문법 관련 기술 양상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23,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171-201.
- 李康民(1999), 「言語資料로서의 『韓語訓蒙』」, 『日本學報』 43, 韓國日本學會, 123-137.
- 李康民(2003), 「1893年刊 『日韓通話』의 日本語」, 『日本語文學』 17, 韓國日本語文學會, 145-165.
- 李康民(2006), 「메이지(明治)期 參謀本部の 韓國語 學習書」,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6, 한국일본어문학회, 167-175.
- 李康民(2010), 「1894年刊 『朝鮮語學獨案内』에 대하여」, 『日本學報』 82, 韓國日本學會, 69-79.
- 이강민 (2015), 「근대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 서울, 역락.
- 이길원(2013), 「아메노모리호슈(雨森芳洲)의 언어관과 국제교류」, 『石堂論叢』 57,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研究院, 109-137.
- 이명희(2005), 「『交隣須知』考察」, 『일본학논집』 19, 일본학연구회, 99-116.
- 이소영·고경민(2011),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작품의 적합성 판단과 기준」,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 우리말교육현장학회, 85-118.
- 이응호(1982), 「19세기 중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 연구」, 『明大論文集』 13, 명지대학교, 7-62.

- 이지선·류수열(2014), 「근대적 시간관을 통해 본 <조선어독본>의 교재사적 위상」, 『국어교육법 147』, 한국어교육학회(구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139-167.
- 이지영(2004), 「주제2 : 근현대 민족어문교육 기초 연구 ; 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사적 고찰」, 『국어교육연구법1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03-541.
- 李賢熙(2007), 「19세기 초기부터 20세기 초기까지의 한국어는 어떤 모습이었나」, 『우리말 글법 41』, 우리말글학회, 1-40.
- 전형식(2007), 「일본인의 한국어 연구에 대한 고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日本學報법72』, 韓國日本學會, 113-125.
- 정근식(2007), 「구한말 일본인의 조선어교육과 통역경찰의 형성」, 『한국문학연구법3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7-55.
- 정승혜(2011), 「오구라문고(小倉文庫) 所藏 韓國語 學習書에 대한 一考察」, 『韓語文研究법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3-72.
- 齊藤良子(2009), 「日本人韓國語學習者の韓國語學習に對する好意が學習ビリーフと學習ストラテジーに與える影響について」, 『동북아 문화연구법18』, 동북아시아문화학회, 405-422.
- 제점숙(2013), 「구한말 부산지역 조선어, 일본어 교육의 전개 -이문화 “장(場)”으로서의 교육 공간」, 『일본근대학연구법39』, 한국일본근대학회, 193-213.
- 조향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한국어 교육법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49-278.
- 조향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의 기본 원리와 실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법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23-250.
- 차윤정(2004), 「논문 : 근대 조선어 학습서에 나타난 오류 표현과 원인 분석 -『전일도인(全一道人)』, 『강화(講話)』, 『표민대화(漂民對話)』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법1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77-294.
- 채영희(2000), 「交隣須知의 語彙와 用例 研究 - 京都大 所藏本 卷1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법200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31-147.
- 최영철·허재영(2014), 「근대 계몽기 일본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학습서의 변화」, 『韓語文論集법57』, 중앙어문학회, 453-477.
- 편무진(2009), 「일본 명치시대의 한국어학습서에 보이는 한국어 가나(仮名) 표기에 관한 고찰」, 『日本文化學報법43』, 한국일본문화학회, 83-104.
- 편무진(2011), 「『交隣須知』筆写本과 刊行本の 한국어 어휘의 비교」, 『日本文化學報법49』, 한국일본문화학회, 119-133.
- 한용진(2009), 「갑오개혁기 일본인의 한국교육 개혁안 고찰」, 『教育問題研究법33』,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77-97.
- 허경진·유춘동(2013), 「일반논문 : 애스턴(Aston)의 조선어 학습서 『Corean Tales』의 성격과 특성」, 『文科學법98』,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33-53.
- 허재영(2010), 『근대 계몽기 어문 정책과 국어 교육법 서울, 보고서』.
- 허재영(2010), 『통감시대 어문 교육과 교과서 침탈의 역사법 광명, 경진』.
- 허재영(2012), 「논문 : 한국어 교육사의 관점에서 본 교린수지(交隣須知)와 사과지남(辭課指南)

- 비교 연구」, **특한말연구**31, 한말연구학회, 361-383.
- 허재영(2012), 「한국어 학습서 『교린수지』의 분류항과 어휘 선정,배열 연구」, **특한국어 의미학**38, 한국어의미학회, 193-214.
- 허재영(2013), **특한국 근대의 학문론과 어문 교육법** 서울, 지식과교양.
- 홍인숙(2007), 「근대계몽기 女性談論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토 론

“근현대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의 총체적 접근과 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승환(상명대)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나 목표, 내용과 방법 등의 변화와 발전이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사 연구는 당시의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더 나아가 교육내용을 비롯한 구성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재사 연구 가운데 근현대 일본인 대상 한국어 교재 분석을 시도한 것은 본 연구의 배경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하는 한국어 교재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언어교육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재해석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09년도에 발간된 『국내외 한국어 교재 백서』에 따르면 국외의 한국어 교재 대부분이 한국과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서 발간되었으며, 전체 교재의 약 55%가 일본에서 발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도 이전의 교재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 자료가 확인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으나 대부분이 목록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이를 취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 것은 향후 한국어 교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어보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과 이해가 필요한 몇 부분을 서지를 통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연구의 제목을 보면 ‘근현대 일본인 대상 한국어 학습서의 총체적 접근과 분석’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아닌 ‘학습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재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교육의 재료나 교수-학습 자료’를 말하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자께서는 서두에서 ‘학습서의 개념이 일반적인 교재의 개념을 대부분 포괄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교재’가 아닌 ‘학습서’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이번 발표는 연구가 최종적으로 진행된 이후가 아닌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이나 제목에서 밝힌 ‘총체적 접근과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어 학습서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제시하신 목록이 교재 연구사적 측면에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앞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DB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목록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연구의 방향과 예상되는 결과를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부 <제5 분과 자유발표>

한국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법 모색

-순환교수법을 중심으로-

정대현(협성대)

< 차례 >

1. 서론 : 연구의 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향후 연구 방향

1. 연구의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능력은 모국어 화자의 모어 듣기 능력에 비해서 텍스트의 내용의 이해 정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의 차이는 학습자의 정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좌절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Granham, 2006). 모국어를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에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듣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는 한국어 교육이 직면한 과제이다. 이는 곧 학습자의 듣기 이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듣기 교육 방법론의 개발로 수렴된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 듣기 이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박인애(2011), 정선화(2014)에 의하면 한국어 듣기 교육에 관한 연구는 양적인 측면으로 볼 때 80여 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듣기 교육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이는 다른 연구 분야(읽기, 쓰기, 말하기 등)에 비하여 한국어 듣기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앞으로 한국어 듣기와 관련한 연구를 충분하게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듣기 교육에 관한 관심의 부족은 체계적인 듣기 교육 방법론의 부족으로 이어진다(DeKeyser, 2007). 여기에서 체계적인 듣기 교육 방법이란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인데, 이 전략은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에 더 나아가 그 교수 형태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듣기 전략을 일회적으로 교수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상위인지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구어 텍스트를 해석하는 다양한 전략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Berne, 2004; Mendelsohn, 1994; Vandergrift, 2004).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듣기 교육 방법론으로 체계적인 교수 형태인 순환 교수법을 제안하고, 이 교수 방법의 이론으로 상위인지 역할과 활성화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순환교수법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가설 가운데 첫 번째 가설에 대해서 탐색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듣기 능력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그간 제 2 언어 학습자의 언어 수행 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는 결과적으로 학습자가 듣기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였는지를 측정함으로써 듣기의 생산성¹⁾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Goh, 2002).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같은 교수 형태는 제 2 언어 듣기의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반소연, 2010). 또한 듣기 전 활동에 관한 연구는 시청각 도구가 듣기 수행 능력에 유익하였다고 보고한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본격적으로 듣기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학습자를 맥락화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학습자가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아서 제 2 언어 이해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점도 언급한다. 한편 다른 맥락의 선행연구 결과, 즉 표제를 활용한 제 2 언어 듣기 교수 방법도 유익하다고 보고한다(Markham, Peter, & McCarthy, 2001). 이 교수 방법에는 그림 지원과 디지털 스토리(Verdugo & Belmonte, 2007), 주석 달기(Jones & Plass, 2002)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발화 속도를 조절하기(Zhao, 1997), 구어 텍스트 반복적으로 읽기(Elkafaihi, 2005; Jensen & Vinther, 2003; Zhao, 1997), 제 2 언어 자막 제공하기(Stewart & Pertusa, 2004), 운율적인 요소 활용하기(Harley, 2000)와 같은 교수 방법이 유익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제 2 언어 학습자가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단서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 2 언어 교육에서 듣기 전략을 교수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이진주, 1997; 오선경, 2006; 김은정, 2002; 최은지, 2005). 교수 전략은 학습자의 듣기 능력 향상에 핵심적인 요소로, 예를 들어서 듣기 전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하는 것, 추측과 추론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과 같다. 제 2 언어 청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듣기 전략을 사용하도록 학습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제안하는 듣기 전략 교수 방법은 교수 전략을 교수한 당시에 한하여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Carrier, 2003; Thompson & Rubin, 1996).

교수 전략과 관련한 증거들이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릴 수가 없다(Chamot, 1995; Field, 2001). 또한 주목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는 숙련된 청자들은 한두 가지 전략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략을 다양하게 관련지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Murphy, 1985, Vandergrift, 2003a), 어떤 한 개인의 전략을 다른 학습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듣기 능력 개선으로 이어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Field, 2001). 이러한 내용은 이미 읽기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증명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연구자들은 복수의 전략 활용과 상

1) 예를 들면 듣기 내용과 관련한 특정 변인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인지 전략 활용이 듣기 교수 전략을 개별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교수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하게 되었다(Grabe, 2004).

높은 듣기 능력을 가진 청자 집단과 낮은 듣기 능력을 가진 청자 집단을 한 집단으로 묶어서 비계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6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 이들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듣기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상위인지 전략을 중심으로 한 인지 전략, 과제 중심 교수, 학습자 중심의 성격의 교수법을 연결함으로써 듣기 능력을 개선하는 데 유익하였다. 마지막으로 Field (2001)에서 제안한 순환교수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Vandergrift (2004), Cross (2009)에서는 전략적인 교수 방법을 추가하여 교수한 집단에서 차이를 보인지 않았다. Cross는 두 집단은 일상생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듣기를 순환교수법을 사용하여 교수하였을 때 주목할 만한 듣기 능력 향상이 이루어졌다. 듣기 수업을 할 때 인지 과정과 상위인지 과정을 조율하는 것은 제 2 언어 듣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돕는 데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2.2 상위인지와 학습의 관계

상위인지는 인지 과정에 대한 지식이면서 인지 과정을 감시하고 조율하고 통합하는 능력이다(Flavell, 1976). 상위인지 지식은 어떤 인지 활동을 수행하면서 거치는 상호작용 요소(과제, 사람, 전략)들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구성된다(Flavell, 1979); 상위인지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은 상위인지 지식 그 자체만큼 중요하다(Nelson, 1996; Sternberg, 1998). 상위인지 지식을 적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학습자들이 공유하는 심리적인 특징이다.; 실제로 상위인지는 학습 수행 능력을 평가할 때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Veenman & Spaans, 2005; Veenman, Van Hout-Walters, & Afflerbach, 2006).

실제로, Vandergrift, Goh, Mareschal, and Tafaghodtari(2006)에서 수행한 메타인지 의식 듣기 설문지(Metacognitive Awareness Listening Questionnaire , MALQ)를 통한 타당도 테스트 결과, 듣기 성취도 평가에서 약 13%차이를 보였다. 즉 메타인지 지식을 상당한 정도로 소유한 학습자와 상위인지 지식을 응용하는 재능을 가진 학습자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능숙하였고, 그들이 학습한 것을 강화하고 연습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듣기에 관한 학습자의 상위인지 의식 상승을 지지하는 몇몇 학자들이 있었지만, 언어와 상위인지 지식의 관계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일기(Goh, 1997), 설문지(Goh, 2000; Zhang & Goh, 2006), 과정 중심 토론(Goh & Taib, 2006; Vandergrift, 2002; 2003b)과 같은 교수 방법 등은 학습자에게 중요한 정보(듣는 과정에서 이해를 방해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의식)를 제공한다.

그리고 듣기 과제는 학습자가 내용을 예측하고,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은 상위인지 지식을 발전시키도록 도울 수 있다. 여기에서 상위인지 지식은 학습자가 듣기 과정을 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내용을 증명하는 연구(Vandergrift, 2002, 2003b)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듣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학습 동기가 강화되었으며, 자신감과 전략적 지식을 갖추는 데 유익하였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내용은 덜 숙련된 청자에게 특히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Goh와 Taib, 2006). Mareschal (2007)은 낮은 숙달도와 높은 숙달도를 가진 두 집단을 8주 동안 듣

기 교수법으로 교수한 후에, 학습자가 듣기 과정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듣기 설문지²⁾에서 추출한 데이터에 의하면, 듣기 훈련이 학습자의 듣기 통제 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략 사용, 상위인지 지식, 듣기 내용 이해 정도에 유익하였다고 보고한다. 특히 이러한 영향력은 숙련도가 낮은 그룹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마지막으로 Cross (2009b)는 동일한 순환교수법을 사용하여서 영어를 제 2 언어로 학습하는 고급 수준의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위인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료 협력 대화, 일기 목록, 인터뷰 프로토콜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상위인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적 대화를 사용하였다. 특히 전략 의식, 내용 이해 의식, 텍스트 의식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듣기 과정, 즉 정규 듣기 활동을 통하여 언어 학습을 체계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상위인지 과정에서 의식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제 2 언어 듣기와 학습자의 동기를 강화와 상위인지 발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찰이 여전히 필요하다(Berne, 2004; Vandergrift, 2004).

이 연구에서는 특정한 교수 접근 방법을 제 2 언어 듣기에 사용할 때에 일어나는 효과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 전략적 듣기 능력의 발전에 초점을 두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듣기 전략을 단회적이고 개인적으로 교수하지 않고, 학습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듣기 연습을 하는 동안에 복수의 전략을 사용하도록 설계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은 제 2 언어 듣기에서 상위인지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접근법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위인지 과정을 관찰할 필요가 있고 이에 더하여 이것에 상응하는 단계별 교수법이 필요하다. <그림 1>에 연구 가설을 제시하였다.:

1. 실험 처치를 받은 집단은 듣기 이해 능력 검증 사후 테스트에서 통제 집단보다 우월할 것이다.
2. 실험 집단에 속한 숙달도가 덜 발달한 학습자는 듣기 이해 능력 성취도가 우월할 것이다. 특히 실험 집단에서 덜 능숙한 학습자는 이해 능력 성취도 측면에서 다른 세 집단(숙련도가 더 높은 파트너, 통제 집단의 숙련도가 높은 청자와 숙련도가 낮은 청자)보다 더 월등한 성취를 거둘 것이다.
3. 실험 집단의 덜 숙련된 학습자를 MALQ로 측정하였을 때, 듣기 상위인지 의식에서 괄목할만한 진보를 드러낼 것이다.

단계별 교수 내용	상위인지 과정
사전 듣기: 계획 및 예측 단계	
1. 학습자에게 듣기 화제와 테스트 유형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정보를 기초로 학습자는 앞으로 들을 정보 유형과 예측 가능한 단어를 예상해 본다.	계획하기 주의력 집중
첫 번째 듣기: 첫 번째 확인 단계	

2) 듣기 설문지의 내용은 듣기 회상 프로토콜, 일기, 구술하기, 개방형 설문 등이 있다.

<p>2. 학습자가 첫 번째 가설을 확인하고, 수정하고 부가적인 정보를 이해한다.</p> <p>3. 학습자 자신이 동료들과 함께 이해한 것을 비교하고, 요구한 것을 수정하고, 아직 해결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주의력을 집중해야 할 요소를 결정한다.</p>	<p>2. 선택적 주의력, 감시하고 평가하기</p> <p>3.내용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선택적 주의력 사용하기</p>
<p>두 번째 듣기: 두 번째 확인 단계</p>	
<p>4. 학습자 초기에 제시한 내용과 맞는지를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다.</p> <p>5. 모든 교실 구성원이 텍스트에서 제시하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재구성하는 데 참여해야 하고 이를 최대한 자세한 부분까지 토론하도록 유도한다. 학습자가 어떻게 텍스트의 특정한 단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숙고하게 한다.</p>	<p>4. 선택적 주의력, 감시하고 평가하기</p> <p>5.내용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선택적 주의력 사용하기</p>
<p>세 번째 듣기: 최종 확인 단계(부록 4)</p>	
<p>6. 학습자는 집단 토론을 통하여 초기 단계에서 해석할 수 없었던 단어나 문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 부분을 듣는다.</p> <p>숙고 단계</p> <p>7. 초기 단계에서 사용한 전략에 대한 토론을 기초로 어떠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다음 듣기 활동에 듣기 전략을 활용할지를 숙고한다. (Vandergrift, 2010에서 수정함)</p>	<p>6. 선택적 주의력, 감시하고 평가하기</p> <p>7.내용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선택적 주의력 사용하기</p>

<그림 1> 순환교수법에 따른 수업 단계

3. 연구 방법

3.1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대학에서 제 2 언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을 듣는 유학생으로, 모두 3개 반 80명을 대상으로 피험자를 선발하였다. 80명의 학습자 가운데 토픽 성적을 기준으로 중급에 해당하는 학습자 50명, 고급에 해당하는 학습자 30명을 선발하였다³⁾. 이들 가운데 토픽 성적이 없는 경우(13명)와 토픽 41회와 47회 응시자(2명)는 피험자 선발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65명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서 듣기 실력이 중급에 해당하는 학습자 20명, 고급에 해당하는 학습자 15명을 실험 집단에 배정하고, 나머지 30명을 대상으로 중급 20명, 고급 10명을 통제 집단에 배정하였다.

피험자에게는 그들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은 단지 한국어 듣기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모임이라는 점만을 공지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두 개의 집단을 통제함으로써 외부 변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각 집단에 적합하게

3) 41회 토픽을 응시했던 학생은 이 연구의 피험자에서 제외하였다.

개발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험 처치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였다.

3.2 연구도구

듣기 성취도 평가는 사후 1차 평가에서는 제41회 토픽을 사용하였고, 사후 2차 평가에서는 제47회 시험 문제를 사용하였다(부록 2, 3). 모든 평가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재편집하였는데 토픽 I, II 듣기 평가지를 사용하되 각 평가지에서 초급, 중급, 고급에 해당하는 시험 문제를 발췌하였다(22문항). 구체적인 세부 평가항목에는 (ㄱ) 질문을 듣고 선택하는 문제(1급), (ㄴ) 짧은 대화 등을 듣고 적절한 답을 선택하는 문제(2급), (ㄷ) 2~3명의 대화를 듣고 답을 고르는 문제(3급), (ㄹ) 광고 등을 듣고 답을 선택하는 문제(4급), (ㅁ) 라디오 인터뷰, 대담 등을 듣고 답을 고르는 문제(5급).

피험자들에게는 처음 두 개의 하위 테스트를 1회씩만 들려주었고, 나머지 문항들은 2회씩 들려주었다. 듣기 문항 유형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ㄱ) 맥락에 적절한 문항을 선택하는 능력(첫 번째 부분) (ㄴ) 일상 대화를 처리하는 능력으로, 일상 대화는 언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텍스트의 내용을 바탕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두 번째에서 세 번째 부분). 모든 테스트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이다.

실험 집단은 6주 동안 1회 교과서에 제시하는 텍스트를 듣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듣기 수업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였다.:

- 학습자들은 건강에 관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건강에 관한 화제는 모두 세 부분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그 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숙고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빈칸을 둔다.
- 화제에 관한 지식, 텍스트에서 제시하는 내용, 학습자가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하여 교환하는 정보 등을 기반으로 “예측하기” 부분을 채우도록 한다. 학습자는 자신들이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기억하게 한다. 예측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반이 다같이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두 번째에서는 짝활동으로 진행하고, 세 번째에서는 본인 스스로 예측한다.
- 학습자는 예측 단계를 마친 후에 본문을 한 번 듣게 한다. 학습자가 본문을 들은 후, 본인이 예측한 내용이 들은 내용이 일치하는 단어 혹은 정보에 표시한다. 이에 더 나아가 학습자는 그들이 이해한 또 다른 정보를 기록한다.
- 이 시점에서 학습자는 예측한 내용과 그들이 이해한 또 다른 내용을 비교한다. 그리고 학습자는 혼란을 일으킨 내용, 동의하지 않는 부분, 논리적으로 가능한 내용 등에 대해서 토론한다. 그리고 두 번째 듣기를 수행하면서 주의력을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본문에서 어느 부분인지를 확신한다.
- 학습자가 두 번째로 본문을 들을 때, 처음 들었을 때 듣기 어려웠던 부분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게 한다. 그리고 학습자 건강에 관한 정보로 시작할 때 교사는 반에서 건강에 대한 토론을 수행하게 하고, 학습자가 이해한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들이 이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공유하게 한다.
- 세 번째 듣기를 수행할 때, 학습자는 그들이 듣기 초기에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한다.

- 마지막으로, 모든 학습자는 듣기 활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 이때 학습자가 다음 번에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듣기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 통제 집단은 세 번에 걸쳐서 실험 집단과 동일한 본문을 듣는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듣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실험 집단과 유사하게, 통제 집단의 학습자는 텍스트를 듣게 하면서 자신이 들은 부분을 빈 칸에 기록하게 한다.
- 통제 집단에서 학습자는 예측 활동을 수행하지도 않으며 친구와 교감할 수 있는 토론하기, 예측하기, 점검하기와 같은 활동도 하지 않는다.
- 세 번째 듣기 활동을 수행한 후에, 교사는 텍스트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한다. 그러나 듣기 전략에 관한 내용이나 숙고하는 단계를 갖지는 않는다.

4. 연구 결과

이 연구의 첫 번째는 상위인지 교수가 제 2 언어 듣기 수행 능력에서 중요한 차이를 드러내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험 처치를 받은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사후 측정값이 월등하게 높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에 더하여 실험 집단에 속한 학습자 가운데 듣기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가 듣기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보다 듣기 수행 능력의 향상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첫 번째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변인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공산 분산분석(SPSS ANCOVA GLM) 측정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인은 집단(실험/통제)과 듣기 능력의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의 듣기 능력에서 시작하는 시점에서 드러나는 어떤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한국어 듣기 사전 테스트 점수를 공변량으로 분석하였다.

<표 1> 교수 처치 역할과 듣기 능력의 수준에 따른 듣기 성취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조정하기 전 평균		조정한 후 평균	
집단	N	M	SD	M	SE
실험 중급	20	17.95	1.09	17.947	.327
실험 고급	15	19.60	0.98	19.605	.422
합계	35	18.77	1.03	18.78	0.37
통제 중급	20	14.2	1.28	14.198	.289
통제 고급	10	17.6	1.26	17.603	.418
합계	30	15.90	1.27	15.90	0.35

피험자 집단의 사전 테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일원변량분산의 F값의 유의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산분석(ANCOVA)을 사용하여 데이터 세트 값이 통계적 가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오차 분산 값이 균질함을 보여주는 Levene 검정 결과 데이터 분산 값에 동질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 사후 듣기 테스트의 오차 분석 값은 모든 피험자 집단에서 동일하였다(F =

.293; $p = .830$). 그리고 참여자 사이에 나타나는 효과를 검정한 결과 독립변인, 집단과 한국어 숙달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표 1>에 참여자 수, 집단별 듣기 수행 성적의 평균, 표준편차를 기술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 듣기 성적 점수의 평균값은 각각 18.78과 15.90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이 연구에서 첫 번째 가정이 옳았음을 나타낸다. <표 2>에는 집단 사이의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밝혔다($F = 69.023$, $\eta^2 = 92.955$, $p < .001$). 이러한 수치는 상위인지 교수가 한국어 듣기 교수에서 집단 사이에 성취 능력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교수 처치를 받은 집단이 듣기 수준에 따라 보이는 듣기 성취도의 공변량 분석

종류	df	유의확률	F	η^2
듣기 수준에 따른 집단	3	.000	69.023	92.955

** $pp < .001$.

<표 2>에 의하면 집단과 듣기 능력 수준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중요한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 듣기에서 처치의 효과와 듣기 능력의 수준이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단일한 효과는 어떠한 지를 조사해 보는 것이 된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듣기 수행 능력은 한국어 듣기 능력의 수준(중급과 고급)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 집단(상위 인지 교수를 받은 학습자)에서 중급 학습자들은 통제 그룹의 중급 학습자보다 우월한 성취를 이루었다($p = .00$). 이에 더하여 실험 집단의 중급 학습자는 실험 집단의 고급 학습자보다 더 나은 진보를 이루었다. 그러나 실험 집단의 고급 학습자 평균값은 실험 집단의 중급 학습자보다 더 높았다.

첫 번째 가설 분석 결과 상위인지 교수를 받은 집단의 성적이 사후 테스트에서 통제 집단보다 월등하였다. 그리고 집단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실험 집단의 중급 학습자의 성취도가 통제 집단의 중급에 비하여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5. 향후 연구 방향

이 연구에서는 제 2 언어 듣기 이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수 방법론으로 순환교수법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로 볼 때 이 교수법은 학습자의 듣기 이해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학습자가 상위인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연구 방향은 두 번째 가설과 세 번째 가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연구 가설에 의하면 중급 학습자가 상위인지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성공적인 교수법 처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 2 언어 듣기에서 비명시적인 지식의 습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비명시적인 지식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획득되고 또한 일련의 의사결정 행위를 수행하면서 획득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김은정(2002),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전략 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인애(2011), 한국어 듣기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언어학 연구. (19). 97-118.
- 반소연(2010), 일반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시험의 듣기 텍스트 연구 :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선경(2006), 대학 수학 목적의 한국어 듣기 교육 방안 연구 : 강의 담화의 특질과 듣기 전략 적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진주(1997), 과제해결 중심의 듣기 수업 구성 방안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대현(2016), 한국어 듣기에서 상위인지 의식에 대한 연구, *토크말연구* 40권. 147-176.
- 정선화(2014), 한국어 듣기교육 연구의 통시적 고찰, *국어문론집* 58. 517-553.
- 최은지(2005), 광초점 듣기 전략 교수-학습과 협초점 듣기 전략 교수-학습의 효과 비교 :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Graham, S., & Macaro, E.(2008). Strategy instruction in listening for lower-intermediate learners of French. *Language Learning*, 58, 747-783.
- Vandergrift, L.(2003a). Orchestrating strategy use: Towards a model of the skilled L2 listener. *Language Learning*, 53, 461-494.
- Vandergrift, L.(2003b). From prediction to reflection: Guiding students through the process of L2 listening.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9, 425-440.
- Vandergrift, L.(2004). Learning to listen or listening to learn.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4, 3-25.

■ 토 론

“한국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방법 모색”에 대한 토론문

강남옥(경인교대)

정대현 선생님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학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선생님의 원고와 발표를 통해 연구자로서 진취적인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의 다른 연구에서도 그러하셨듯이, 선생님의 연구는 흥미로웠고 또 제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었습니다. 좋은 발표에 토론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발표문을 받고 토론문을 준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 못하여서 제가 선생님의 논의를 제대로 짚고 토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큼니다. 또 오늘 발표문에 이어 연구 가설로 제시해 주신 두 번째, 세 번째 가설에 대한 검증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의 발표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연속 연구의 첫 단계로 마련된 것이라 이론적 전제와 문제 제기를 전개해 주신 목직한 내용에 대해 토론자로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를 통해 여러 이론적인 고찰 과정을 보여주셨고, 저 역시 같은 문제의식과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최근에 지도를 한 논문 중 하나가 선생님의 연구와 주제와 과정은 상당히 다르지만 문제의식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듣기 과정에서 유의미한 교수 처리를 하게 되면 동일 담화나 비슷한 주제의 이해(청해, 독해) 능력의 향상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듣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저 역시 확인한 바 있으며, 그렇기에 더 선생님의 전반적인 연구 기조에 많은 부분 공감했습니다.

듣기에 대한 연구는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듣기의 과정과 결과가 ‘들은 사람’ 본인에게 강하게 귀속되어 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려면 말하거나 쓰기처럼 언어 산출물을 통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점에서 최대한 의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 연구자의 점점 사항들이 많고, 그것이 듣기 연구를 주저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도 말하기.쓰기 연구 이상으로 듣기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며, 현장에서 각자 해결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좋은 교수 방안을 함께 이론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대현 선생님의 연구 취지 자체에 동의하기에 저의 토론 질의 사항은 주로 실험의 설계와 관련된 좁은 부분에 머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발표 원고를 읽으며 다음의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여쭙어 보고 싶었습니다.

첫째, 65명 집단에 대해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중급과 고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지엽적이므로 사전 테스트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 사전 테스트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집단을 중급과 고급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것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실험 집단에게 들려 준 듣기 자료에 대한 설명이 모호합니다. 6주 동안 1회 교과서 텍스트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 한 번, 동일한 주제(건강)에 국한된 것은 아니겠지요? 6주 동안 주 1회인지, 또 6주 사이에 총 1회인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6주 사이에 1회라면 굳이 6주라는 기간을 설정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셋째, 실험 중 건강에 관한 두 사람의 대화의 화제를 세 부분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자료 텍스트가 교재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원래 그렇게 한 것인지, 실험 설계상 그렇게 만든 것인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험을 세 부분의 화제로 설계하셨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실험 집단에게는 순환교수법 이외에 다양한 처치와 배려, 학습자가 스스로 듣기 자료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고 반대로 통제 집단에게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정도로 학습자에게 별도 시간을 주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들은 부분에 대해 적어 보도록 한 설계는 연구자가 통제 집단의 청해 정도를 확인하는 장치로 생각했습니다.) 교수법에 대한 변인이라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듣기 자료에 대해 반응하고 해석해 보려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제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점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섯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후 평가에 대해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평가용으로 쓰신 TOPIK I, II라면 1~2급과 3~6급 사이는 확인이 되나 어떤 듣기 문제가 몇 급 문제에 해당하는지는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략의 정답률을 보아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에서는 사후 평가 문항인 (㉠), (㉡), (㉢), (㉣), (㉤)에 등급을 표시해 두셨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이지요? 또 하위 테스트를 처음 두 개는 1회를 들려 준 후 나머지는 2회씩 들려준 이유, 듣기 문항 유형에 답을 듣기 평가 내용으로서 (㉠), (㉡), (㉢)을 선정한 이유 등 여러 면에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토론자로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연구가 의미 있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글 맞춤법 교육 방안 연구

-딕토글로스(Dictogloss) 활동을 바탕으로-

배현대(경기대)

<차 례>

1. 머리말
2.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글 맞춤법 오류
3.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글 맞춤법 교육 방안
4. 맺음말

1. 머리말

1.1. 연구 목적 및 방법

현재 한국어 교육의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위주의 교육과정과 교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개정된 TOPIK에서는 문법 영역의 평가가 없어서 문법 영역에 대한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표현력 신장을 위한 기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문법 학습은 불필요하거나 부차적인 학습 영역이 아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은 문법 능력이며, 또한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언어 숙달도 또한 향상될 수 있다.

민현식(2008:8)에 따르면 한글에 의한 맞춤법 교육이 ‘표기법 교육’의 가장 핵심이고 ‘한글 맞춤법(1988)’규정에 대한 교육도 그 안에 포함된다. 즉, ‘문법 교육 > 규범 교육 > 표기법 교육 > 맞춤법 교육’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문법 능력의 기본이 되는 한글 맞춤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관규(2012)에 의하면 한글 맞춤법은 글을 통해서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한글 맞춤법이 한국어 교육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나 교수 학습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현식(2008)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한글 맞춤법은 작문 수정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글 맞춤법의 원리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교육 현실을 반영하면서 한글 맞춤법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적 대안으로 딕토글로스(Dictogloss)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사를 검토한 후, 이론적 배경으로 딕토글로스에 대해 살펴보고, 한글 맞춤법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오류 실태를 살

피고, 디토클로스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의 실재를 구성하여 보도록 하겠다.

1.2. 선행연구

1.2.1.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글 맞춤법 관련 선행 연구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글 맞춤법 교육 연구로는 민현식(2000), 이소영(2003), 이동은(2007), 강희숙(2009), 조성민(2010), 전경숙(2011) 등이 있다.

민현식(2000)은 국어정서법의 범주를 단어 표기의 문제에만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문장, 글의 개념으로 넓게 포함하여야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정서법 내용, 한글 맞춤법 혼동 유형, 국어 표기 규범의 문제, 그리고 한국어 교육용 교재에 나타난 정서법 오류의 실제 등을 정리하였다.

이소영(2003)은 영어권과 중국어권 학습자의 작문 자료들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잘못된 표기를 급별, 언어권별로 분석하였다.

이동은(2007)은 북미 지역 재외동포 청소년 교포학습자의 글쓰기 자료들에서 나타난 철자 오류의 예를 통해 학습자들의 오류 유형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희숙(2009)는 중국인 학습자의 글쓰기 자료에 나타난 오류들을 분석하여 모국어와 목표어의 특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논하였고 결국 맞춤법 오류는 학습 단계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경숙(2011)은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 중급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를 분석하여 한글 맞춤법 표기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오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점으로 디토클로스를 제시하였다.

1.2.2. 디토클로스 관련 선행 연구

한국어교육에서 디토클로스와 관련된 연구로는 이은경(2008), 김수은(2009), 김은혜(2010), 손해숙(2011), 최문석(2012), 최준철(2014) 등이 있다.

이은경(2008)은 의존명사 구성 표현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학습자가 의존명사의 의미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의 제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력 강화와 디토클로스를 도입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김수은(2009)은 디토클로스가 모둠학습과 재구성 쓰기를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시킨다는 가설 하에 실험 연구 대상과 절차, 도구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 평가', '실험 수업', '사후 평가'의 3단계로 나누어 검증한 실험 연구이다. 결과적으로 디토클로스를 활용한 학습자들의 이해도, 정확성, 문법 어휘 영역 모두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김은혜(2010)은 초·중급과 고급을 나누어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전체 받아쓰기, 문장 받아쓰기, 내용을 재구성하는 받아쓰기,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는 대화 글 받아 적고 상황 요약하기와 문단 듣고 모둠별로 들은 내용을 재구성하도록 하는 교실 활동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의미 재구성에 초점을 둔 받아쓰기는 의사소통적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과 구성적 반응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최문석(2012)는 딕토글로스 활동을 통한 입출력 강화 듣기 모형 수업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딕토글로스 활동이 학습자의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확인하였으며 학습자들의 만족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최준철(2014)에서는 딕토글로스를 교실 수업에 적용하여 T-unit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문법 능력과 글쓰기 능력을 나타내는 글의 성숙도를 양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품사나 어순, 구조상 오류를 총 단어수와 연관 지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하급 수준의 학생들에게 딕토글로스는 문장 복잡성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하였지만 정확성에는 매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급 수준의 학생들은 문장의 복잡성도 크게 향상하였으며, 오류의 수도 크게 감소하였다. 상급 수준의 학생들은 많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2.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글 맞춤법 오류 현상

2.1. 제1항

- 1) 그 사람 두리(둘이)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에 대해 반대를 받았습니다.
- 2) 그녀는 아직도 동자기(동작이) 서툴러서 그녀는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관한 오류이다.

2.2. 제16항

- 1) 아무리 힘들어도 잘 참어야 해요.
- 2)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쌓였던 눈이 녹어 가요.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ㄱ, ㄴ’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는에 관한 오류이다.

2.3. 제18항

- 1) 요즘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 2) 그의 성적은 오리(올라) 갔다.

1)은 제18항 4. 어간의 끝 ‘ㄴ, ㅡ’가 줄어질 적에 관한 오류이고, 2)는 제18항 9. 어간의 끝음절 ‘르’의 ‘ㅡ’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에 관한 오류이다.

2.4. 제30항

- 1) 겨울이 오면서 나무잎(나뭇잎)이 떨어지는군요.
- 2) 오래동안(오랫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3). 친구와 어제밤(어젯밤)에 만나서 컴퓨터게임을 했어요.

제30항 사시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는 관한 오류이다.

2.5. 제35항

1) 밤에 혼자 공포영화를 보았는데(봤는데) 소름이 끼쳤다.

제35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ㅏ/ㅑ, 왔/왔’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관한 오류이다.

2.6. 제36항

- 1)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감기 걸리었어요(걸렸어요).
- 2) 그 사람은 제 친구 동생여서(이어서) 도움을 많이 줘야 합니다.
- 3)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어서(아니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1)은 제 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ㅑ’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관한 오류이다. 2)와 3)의 용례는 오히려 맞춤법의 준말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이다. 제36항에는 모음 ‘ㅣ’와 ‘-어’가 결합하면 ‘ㅑ’로 줄어든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동사에 어미가 결합할 때에만 적용된다. 2)의 ‘동생이어서’는 ‘명사+서술격조사+연결 어미’의 결합 형태이므로 ‘동생+이다+-어서’로 볼 수 있고, 3)은 ‘형용사 어간+-어서’의 결합 형태이므로 ‘아니+-어서->아니어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말을 사용한다.

3.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글 맞춤법 교육 방안

3.1. 디토클로스¹⁾의 특징 및 수업 절차

3.1.1. 디토클로스의 특징 및 효과

디토클로스는 받아쓰기라고 하는 ‘Dictation’과 주석이나 주해로 해석되는 ‘gloss’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교사가 불러주는 단어나 문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활동이 아니라 받아쓴 것을 새롭게 해석해서 재구성한다는 의미이다.

즉 일반적으로 받아쓰기라고 하면 학습자가 들은 어휘나 문장을 정확한 얼마나 정확한 철자로 쓰는가에 대한 평가가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디토클로스는 하나의 텍스트를 듣고 그 텍스트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재구성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디토클로스 활동은 모둠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인 받아쓰기는 학습자 혼

1) 전경숙(2011: 38쪽): 외국어교육에서 디토클로스는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교실 활동 기법 중 하나로 학습자가 짧은 텍스트를 듣고 익숙한 단어를 메모 형식으로 받아 적은 후에 이를 바탕으로 소그룹 토의를 거쳐 짧은 텍스트로 재구성해내는 수업 활동이다.

자서 하는 활동이라면 디토글로스는 받아쓰기 후 모둠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지문의 내용을 듣고 들은 어휘나 문장을 메모한 후 모둠 안에서 서로 교환하여 주어진 단서들을 가지고 하나의 지문을 완성한다. 이때 일반적인 받아쓰기는 들은 어휘나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대로 썼는가를 평가하지만 디토글로스는 들은 지문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한 글 안에서 쓰인 어휘나 문법이 얼마나 정확한가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스스로 전략을 구사하게 되고 다른 학습자에게서 그 전략을 배울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철자법과 문법의 정확성에 집중하게 된다. 마치 주어진 단서들을 조합하여 정답을 맞춰 나가는 추리게임과 같은 활동으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기존의 일방적 교수 형태의 문법 수업에 비하여 디토글로스는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교수 방안이다.

그리고 활동 중심의 통합 수업을 지향하는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디토글로스는 개인 활동에서 시작하여 반 전체 활동으로 까지 확장 시킬 수 있는 활동이며,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네 기능을 모두 학습할 수 있는 기능 통합적 교수 방안이다.

디토글로스 기법은 교사 입장에서도 다음의 장점이 있다. 먼저 수업에 디토글로스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교사는 학습자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어휘 및 문법적 요소에서 이미 습득한 것과 아직 완전한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교수에 반영하여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들이 수업 중에 전개하는 상호작용, 의미교섭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학습자가 어떠한 영역(어휘, 문법, 철자, 담화 등)에 집중하고 관심을 보이는지를 파악하여 교수, 학습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곧 교수와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²⁾

3.1.2. 디토글로스의 수업 절차

디토글로스의 유형 분류와 수업 절차와 관련된 김정효(2009)와 전경숙(2011)의 자료를 참고하여 본고에서 제시할 디토글로스의 수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도입 단계

도입 단계는 학습자들이 듣기 전 단계로 일반적인 한국어 수업의 도입단계에서 나타나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단계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교사는 듣기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주제를 통해 학습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어휘를 미리 지도하는 등의 활동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활동이 없다면 학습자들이 듣기 활동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이나 의욕과 관련하여 학습량 조절을 통하여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 단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수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교사는 지문 내용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듣기 전 관련 내용과 어휘를 얼마큼 노출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2) 개인 활동 단계

2) 전경숙(2011: 41쪽)

받아쓰기 활동 단계이다. 일반적인 받아쓰기 활동과 같지만 어휘나 구 단위로 끊어서 읽지 않고 문장 단위로 읽는다. 또한 문장과 문장 사이에 휴지를 두어 학습자들이 생각하고 메모할 시간을 주도록 한다. 읽기 속도나 휴지의 정도는 급별로 차이를 두게 된다.

읽기는 대체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로 하며 첫 번째 듣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다음 듣기 과정부터 자세한 내용에 집중하고 메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들리는 단어는 모두 쓸 수 있도록 하며 그 중에서 중심 어휘가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시간도 부여한다.

3) 모둠 활동 단계

개인별 받아쓰기 활동이 끝나면 3~4명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각자 적은 단어를 통하여 전체 지문을 완성하도록 한다. 모둠별로 학생들은 서로가 적은 단어들을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이때 학생들이 완성하는 지문은 듣기 자료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닌 토론을 통한 재구성이란 것을 상기하고 학생들이 주어진 어휘들 중 토론을 통해 핵심 어휘를 결정하고 어휘들을 통해 논리적 문법적으로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학습 목표와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 교사는 직접 나서서 오류를 수정해 준다. 하지만 문법적 오류의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학생들과 함께 오류 수정을 하도록 한다.

4) 공유 단계

공유 단계는 모둠별로 완성한 지문을 전체 학생들이 공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해 토론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될 것이고 개인의 생각을 공유하는 단계에서 모둠의 생각을 공유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각 모둠별 지문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전체 학생들의 문법적 지식이 총동원될 것이다. 이를 통해 문법적 지식이 일방적 교수의 방법이 아닌 토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기존의 문법 학습과 구별되는 점이다.

5) 마무리 단계

학생들 간의 토론과 피드백이 끝나면 교사는 학생들이 완성하고 수정한 지문의 문법 내용들에서 나타난 오류 항목들을 수정하고 설명한다. 그 다음 단계로 원 지문을 공개하고 중요 문법 항목을 설명한다. 이 단계를 통해 학생들은 문법 지식과 관련된 학습뿐 아니라 자신들이 재구성한 지문과 원 지문을 비교하면서 글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스스로 습득하게 된다.

3.2. 디토크로스를 활용한 수업의 실제

이번 절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수업 절차에 따라 실제 수업 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수업 대상과 목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총 4차시 수업으로 1차시는 50분 수업으로 구성된다.

3.2.1. 학습 대상과 수업 구성

디토크로스를 활용한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문법적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 간에 원활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업 구성은 일반적인 한국어 수업 구성과 마찬가지로 50분 4차시 수업으로 구성될 것이며 교사의 개입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기존의 일방적인 문법 교수 수업과는 차별화를 둔다. 수업의 진행 방법은 ‘교사→ 학생→ 모둠→ 전체 학생→ 교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수업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수업 내용

급 / 영역	4급	날짜	2017. 02. 10.(금)
단 원 명	1과 한국의 패션 문화		
본시 수업목표	1. 한국의 패션 문화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다. 2. 패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표현과 문법	1. V-(으)ㄴ에 따라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 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2. 제 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ㅑ’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3. N의 경우 4. 무엇보다도 / 누구보다도 / 어디보다도 5. 옷이 날개다		
과제	1. 한국의 패션 문화에 대한 글을 읽거나 영상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 2. 한국 사람들의 패션에 대해 표현하기		
자료 및 준비물	듣기 mp3, 그림 자료(옷이 날개다)		

3.2.2. 실제 수업 절차

1) 도입 단계

교사는 수업하기에 앞서 오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한다. 디토크로스를 활용한 수업이 낯선 학습자들을 위해 수업 진행 방식, 활동 중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해 준다.

이 수업은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하여 글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휘나 문법의 시각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반드시 말로써 설명을 끝내지 않고 그림을 사용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다른 색을 사용한 판서를 하여 학습자들이 올바른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올바른 표기 다음에는 올바른 발음을 함께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 지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휘나 문법 지식을 미리 가르친다. 이때 교수 내용은 그날의 지문 난이도와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조절한다. 내용이 너무 쉬울 경우 학습자들이 원 지문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쉽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개인 활동 단계

<표 2> 원 지문

한국 사람들은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한국의 사계절은 더 많은 옷을 요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특히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경우 계절이 바뀔에 따라, 유행이 바뀔에 따라 옷을 새로 장만하기 마련이다. 옷이 날개란 말이 있듯이 한국 사람들에게 옷은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한 옷차림은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 어쩌면 한국에서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나를 보여주는 개성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옷차림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문은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로 선택한다. 학습자들이 평소에 관심이 많은 주제로 할 경우 더욱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고 토의도 활발해 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패션에 대한 주제로 지문을 작성하였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지문을 읽어주게 된다. 이때 처음 읽을 때는 원어민의 평균 발화 속도로 읽어서 학생들이 원어민의 발화 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내용만을 파악하는 수준에 목표를 둘 수도 있고 내용 난이도가 높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천천히 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총 두 번을 읽는 것을 규칙으로 하지만 난이도가 높을 경우 세 번을 읽을 수도 있다.

이때 공통적인 규칙은 처음 읽을 때는 학습자들이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이후 듣기부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을 유도한다. 학습자들은 두 번째 듣기에서 들리는 단어들과 문장을 메모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의 필기 속도를 보면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휴지를 둔다.

듣기가 끝난 후 학습자들에게 각자 생각하는 중요 어휘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한다. 이로써 다음 활동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

3) 모둠 활동 단계

개인 받아쓰기 활동이 끝나면 모둠 활동을 위한 모둠을 짠다. 교사는 수업 전에 모둠을 미리 짜놓는데 이때 모둠은 최소 세 명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두 명으로 짤 활동을 할 경우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실력이 우수한 학생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이다. 또한 모국어가 서로 다른 학생으로 짜면 제일 이상적이지만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 수준이 조금씩 다른 학습자들로 구성한다. 이렇게 짠 모둠은 모둠 활동을 시작하면서 알려준다. 모둠을 미리 알려줄 경우 학생들이 서로의 분량을 짜거나 과업을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둠별로 앉은 후에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방금 들은 지문과 똑같은 지문을 쓰는 것이 학습 목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알려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원 지문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글의 내용만이 아닌 정확한 문법과 정확한 철자로 글 쓰기 할 것을 상기 시키고 모둠별로 그에 대한 토의도 할 것을 알려준다.

모둠 활동을 위한 준비 과정이 끝나면 학습자들은 모둠별로 자신이 메모한 어휘나 문장을 서로 공유하여 완전한 문장을 완성해 나가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지문을 완성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문법적 오류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주제나 학습목표와 벗어나고 있는 모둠이 있다면

그에 대한 오류만 수정해 주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글 전체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으며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철자로 쓰는지를 학습자들끼리 확인하고 수정하며 경쟁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4) 공유 단계

모둠별로 완성한 지문들을 가지고 전체 학생들이 함께 토의를 하게 된다. 개인 과업에서 소규모 토의로 소규모 토의에서 대규모 토의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단계이다. 이때 모둠별 완성 지문은 복사해서 각 모둠별로 나누어 주고 그에 대한 모둠별 토의 후 전체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빔 프로젝트나 판서로 전체 학생들이 함께 볼 수도 있지만 모둠별 토의를 한 번 거친다면 더 자세하고 다양한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둠별이 아닌 개인에게 맡길 경우에는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겨 편중된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둠별 결과물들은 모둠별 지문 하나씩을 볼 수도 있고, 한 문장씩 모든 모듬의 문장을 비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교를 할 때에는 학습자들이 문장을 직접 읽어가면서 비교하여 발음 학습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발음 오류에 대한 수정을 그때그때 해주고 지문에 나타난 오류 수정은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자들 스스로 철자, 문법 등에 대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마무리 단계

마지막으로 교사의 개입으로 이 수업을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학생들끼리 오류를 수정한 결과물에서 수정되지 않은 오류들이 있다면 교사가 다시 정확하게 수정을 해주고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준다. 이 단계에서 제시되는 오류들은 개인과 모듬 활동을 거치면서 스스로 인지하고 쓰고 수정한 어휘와 문법들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들의 과업에서 나타난 오류 수정이 끝난 후 원 지문을 공개하고 학습한다. 원 지문 공개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작성한 내용과 비교하면서 그에 대한 전략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그날 학습 목표와 내용을 학습자들이 기존의 문법 학습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디토글로스 활동을 바탕으로 한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글 맞춤법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듣기와 쓰기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지 못하며 현장에서 활용할만한 교수 방안도 마땅치 않다. 이에 대해 디토글로스는 듣기와 쓰기 기능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 중심의 수업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교수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본고에서 제시된 방안은 아직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실제 수업을 통한 결과물을 더해 더욱 보완된 연구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참고 문헌

- 강희숙(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맞춤법 오류 연구, 『한민족어문학』54, 한민족어문학회. 249-276쪽.
- 김수은(2009), 딕토글로스 수업이 한국어의 이해와 산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은혜(2010), 받아쓰기 평가의 활용 방안-한국어 학습자의 의미 재구성 능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37, 국어교육학회.
- 김인규(2009),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듣고 받아 적어 재구성하기(dictogloss)’적용 방안 연구, 『태국어교육』82, 한국국어교육학회.
- 김정효(2009), 받아쓰기와 Dictogloss를 이용한 듣기 수업이 고등학교 학습자의 영어 듣기 능력과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2000), 한국어 교육에서의 정서법 교육에 대하여, 『한국어교육』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8), 한글 맞춤법 교육의 체계화 방안 -문법 교육과 맞춤법 교육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론(試論)-, 『국어교육연구』2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7-75쪽.
- 박유나(2010), 한국어 학습자의 형태 집중 양상 연구-딕토글로스와 직소 과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해숙(2011), 딕토글로스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 학습 방안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관규(2012), 한글 맞춤법의 성격과 원리, 『한말연구』30, 한말연구학회. 137-158쪽.
- 이동은(2007), 한국어 학습자의 철자 오류와 개선 방안-북미지역 청소년 교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학』35, 한국어학회.
- 이소영(2003), 한국어 학습자의 표기 오류 실태 연구-영어권,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23, 이중언어학회.
- 이은경(2008), 한국어 의존명사구성 표현 교육의 연구:관형사형 어미 제약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2011),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한글 맞춤법 교육 방안 연구: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문석(2012), 딕토글로스 중심 수업이 한국어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중급 단계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23-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91-417쪽.
- 최준철(2014), 딕토글로스가 고등학생들의 문법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토 론

“중급 수준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글 맞춤법 교육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신희성(고려대)

먼저 문법교육 전공자로서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교육을 불필요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발표자 선생님의 문제의식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합니다. 더하여 토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말연구학회와 발표문을 통해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어 교육 연구에 대한 부족한 식견 탓에 발표문을 오독하지는 않았을까 염려스러우나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1. 1.2절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글 맞춤법’과 ‘딕토글로스’로 나누어 선행 연구를 살피고 있습니다. 발표문이 한국어 교육에서 딕토글로스를 활용해 한글 맞춤법을 교육할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선행 연구의 범위는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발표문과, 보다 정확히는 발표자 선생님께서 주장하려는 바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기존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한글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딕토글로스의 어떠한 측면이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셨는지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장에서는 실제 언어 실태를 일종의 데이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 자료를 누가 언제 생산한 것이며, 어떤 과정으로 수집된 것인지 등을 알 수 없습니다. 실제 학습자들의 언어 자료는 언어교육 연구에 있어 가치가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급 수준 한국어 학습자들의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급 수준에서는 어떤 유형의 맞춤법을 어려워하고 많이 틀리는지에 대한 경향성이라든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지에 대한 양적이고 질적인 분석이 더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교육 방안의 설계가 더 짜임새 있어질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는 <표1>에서 제시된 내용 중 왜 하필 제19항과 제36항이 교육 내용으로 선정된 것인지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3. 발표문을 읽고 이해하기로 딕토글로스는 그 특성상 이미 자체로 어느 정도 철자법 교육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정 단어들의 철자법(형태)을 가르치는 것과 ‘한글 맞춤법’ 자체가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또 다를 것입니다. ‘한글 맞춤법’을 실제 언어 쓰임 속에서 가르치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며, 이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으나 연구의 제목이 ‘한글 맞춤법 교육 방안’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발표문에서 ‘한글 맞춤법’ 자체의 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혹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글 맞춤법을 교육할 때 해당 조항의 지식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신지요. 그렇다면 정말 그러한지,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보다 엄정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문법교육 전공자임에도 ‘한글 맞춤법’ 조항 자체를 한국어 교육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지에는 설불리 판단하기 어렵고, 물음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언어 실태를 살피면서 이론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하느라 고생하셨을 발표자에게 다시 한 번 마음으로 박수를 드리며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한 언어 지원 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

-중국, 일본, 독일, 호주, 한국 대학을 중심으로-

정서영(상명대)

< 차 례 >

1. 서론
2. 국외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언어 지원 프로그램
3. 북한 어문 규범의 사잇소리 표기법과 발음법 변천 양상
4. 맺음말: 요약과 제언

1. 서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 중국의 경제 발전과 중국인 학습자의 국내 유입, 한류의 열풍으로 인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 정부가 ‘스터디 코리아(Study Korea)’를 선언하며 정책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에 나섰다. 외국인 유학생의 단기간에 걸친 양적 팽창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무엇보다 유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 능력 자질에 논란의 문제가 되면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국내 한국어 학습자의 중심이 한국 내 대학 수학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는 만큼, 이들에 대한 특별 교육과정과 적용이 절대적 요구된다. 또한 국내 대학에 진학한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 능력의 문제가 되면서 한국어 교육은 빠른 시간 안에 유학생의 한국어 언어 능력 및 대학 수학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국내 대학에 진학한 후에 대학 수학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실시는 더욱 필요해졌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기관에서의 학문 목적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교육기관은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며,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명칭, 등급, 수업 시간, 수업 내용 등의 과정의 성격과 특징을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 학문 목적 언어교육에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설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육한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긴 몇몇 국가의 자국에 유학을 하고 대학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을 위해서 언어지원 프로그램 및 언어 지원제도를 어떻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국내 유학생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학문 목적 유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2. 국외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언어 지원 프로그램

세계화의 급속한 발전하면서 학업으로 인한 유학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외국인 유학생 수는 80만 명(1975년), 130만 명(1995년), 280만 명(2005년), 370만 명(2009년), 450만 명(2012년) 2000년 이후 고등학교 기관에 등록된 유학생 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7%가 증가하였다. 전통적 유학생 유치 강국인 미국¹⁾,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및 호주가 전 세계 유학생들의 50%이상을 유치하고 있다(이주헌 2015).

각 나라별로 외국 유학생의 자국의 대학 진학을 위한 어떤 제도적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고 유학생에게 요구하는 언어 숙달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국외의 유학생의 대학 입학 사례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1 중국

중국은 각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 선발 기준이 대학마다 다르다. 외국 유학생이 중국 대학을 진학하는 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유학생 입학시험²⁾을 통한 대학 진학이다. 북경대학교, 칭화대학교, 복단대학교 등 중국내에서 명문 종합대학에서 시행하는 방식이다. 전공에 따라 수학, 영어, 한어(중국어) 시험을 보며 시험 결과에 따라 입학여부가 결정된다. 두 번째는 본과 입학 전 예비반(예과)에 입학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다. 예과반은 대학의 기초교양과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예과반에서 학습한 후에 성적과 생활점수가 합격이 되면 대학 진학 합격여부를 알 수 있다. 예과반은 일반적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세 번째는 HSK 급수를 통한 대학입학이다. 각 대학별로 설정한 HSK 급수 및 점수 기준에 맞을 경우 입학이 가능한 방식이며 가장 보편된 방식이다. 문과, 이과, 대외한어과(對外漢語學科)의 입학기준이 차이가 난다. 이외에 중국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중국어 능력이 비교적 낮아 진학하기 수월하고 대학졸업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학과가 있다. 대외한어과에 진학하는 경우이다. 대외한어과는 '외국인을

1) 2012년 유학 국가별 고등교육 외국인 학생 분포 자료에 의하면 G20 국가가 전 세계 82%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고, 75%의 외국인 학생은 OECD 회원국에서 재학 중이다. 미국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전체의 16%로 가장 많고, 영국이 13%, 독일 6%, 프랑스 6%, 호주 6% 캐나다 5% 순이다.

2) 2015년 입학 기준

전형	대학	과목
외국인 입학 시험	북경대학	문과/이과 총점 400점 = 어문 150점 / 영어 100점 / 수학 150점
	칭화대학	문과: 기초어문(고대:현대) 100점 / 작문 80점 / 일반상식(20점) / 영어 100점 = 총 300점 이과: 수학100점 / 영어 100점 / 물리 100점 / 화학50점 = 총350점 - 구HSK 6급 / 신HSK5급 증서
	복단대학	문과: 어문 150점 / 영어150점 / 수학150 = 300점 이과: 어문 150점 / 영어150점 / 수학150점 이과종합(물리, 화학, 생물 - 150점) = 총 600점 대외한어과: HSK 3급 이상이거나 한 학기 중국대학 연수 수료자
중국어 전형	북경 사범대학	문과: HSK 5급 혹은 신HSK 5급 180점 이상 이과:/대외한어전공: HSK 3급 혹은 신HSK 4급 180점 이상
	절강대학	문과/법학과: HSK5급 혹은 신HSK5급 이공/경상: HSK3급 혹은 신HSK4급 대외한어전공: HSK3급 혹은 신HSK4급

위한 중국어과'로 중국어를 중심으로 배우며 3학년 때 학교에 따라 국제전공, 경제전공, 언어문화전공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입학조건은 학교마다 다른지만 중국인과 함께 배우는 본과 진학이 5~6급 수준이라면 대외한국어학과는 HSK 3~4급 수준이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HSK 급수를 갖추고 있으며 2~3학년 편입도 가능하다. 다음은 북경대학교의 예비반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북경대학교 예비반 운영 목적:

북경대학교 유학생 예과반은 북경대학교 우월한 교육 자원 배경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데 목적으로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예과반은 80~100여 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북경대학교에서 본과 과정을 원하는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 유학생대상으로 1년~2년 기간의 예과 양성과정을 제공한다. 학생의 지식 폭과 학술 시야를 넓혀 학생들의 독자적 사고력과 자율적 학습능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 둔다. 언어능력 및 전공 배경지식 면에서 학생들이 앞으로 본과 진학에 튼튼한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최선으로 한다.

북경대학교 예비반 수업 설계

- 중국어수업(20교시/주): 필수과목. 매 학기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중국어 정독, 회화, 읽기 및 쓰기, 듣고 말하기, 전공 한어/ 중국어종합 등 중국어 수업 과정
- 수학수업(4교시/주): 선수과목. 기초 수학 수업 및 고등 수학 수업 두 가지를 개설한다. 학생들이 선택한 양성 방안에 따라 반을 나눈다.
- 중국사회의 이해수업(2교시/주): 선수과목.

이 외에 북경대학교 본과 전공의 수학에 대한 요구에 따라 'N반(수학이 없음) . E반(+기초수학이 있음) . S반(고등수학이 있음)' 3가지 개성화 양성방안으로 나눈다. 학생들이 예과반 신청시 본인의 수학 능력과 향후 본과의 전공 목표에 근거하여 대응되는 양성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2.2 독일

독일학술교류처(DAAD)³⁾에서 제공하는 독일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독일 유학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이다. 독일 대학에서 학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학력, 독일어, 예술적 재능(음악.미술대)로 구분된다.

독일 사람들은 대학에 입학하려면 13년의 학교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졸업 시험인 아비투어(Abitur)를 치루며 우리나라와 같은 통합적인 대학입시는 따로 없다. 외국인의 경우 각기 자기 나라의 학제대로 공부를 해 온 상태에서 독일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독일교육부는 외국인들을 위해 각 출신 국가별로 학력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에 응시하여 총점의 62% 이상 (400점 만점의 경우 248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독일 내 모든 대학 모든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3) 독일학술교류처 홈페이지(<http://www.daad.or.kr/>)와 대학예비자과정 독일 홈페이지 (<http://www.studienkollegs.de/>)에서 정리하였다. 독일학술교류처 DAAD는 학생과 학자들의 국제학술교류를 지원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관이며 독일의 대학과 학생 단체를 대표하며 독일 대학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정부의 문화 및 교육정책 개발정책 결정에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DAAD 서울사무소가 있다.

독일 교육부는 위의 두 가지 요건만을 명시하고 있고 그 외의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결정권을 일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학교에서는 수능에서 최소 점수인 62%를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4년제 대학교에서 1년 이상 혹은 전문대학 등의 여타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학업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입학할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자신이 12년 동안의 학교 교육을 받은 나라에서 대학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기초 수학능력평가를 62% 점수 이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로 진행되는 대학교육을 따라가기에는 학업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한다. 위의 학력조건이 미달되는 지원자들은 입학자격시험페스트스텔룽스프뤼퉁(Feststellungsprüfung)을 치러야 하고 합격하면 대학입학 학력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이 시험 응시를 준비하려면, 입학할 희망하는 대학과 연계된 스튜디엔콜렉(Studienkolleg)이라는 기관에서 총 1년 과정인 대학 예비자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좋다. 페스트스텔룽스프뤼퉁(Feststellungsprüfung)은 그 졸업시험인데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시험 응시를 신청할 수는 있다. 또한 독일어로 보는 시험이므로 이 시험에 합격할 경우에는 따로 대입독일어능력시험 데에스하(DSH)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모든 스튜디엔콜렉(Studienkolleg)은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받아들이고 스튜디엔콜렉(Studienkolleg) 중에는 언어능력만 테스트하는 곳도 있고 희망 계열의 과목들을 시험 과목에 포함시키는 곳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며 독일어 능력이 적어도 중급 제엠펜퍼(ZMP시험 합격 정도)는 되어야 한다.

독일은 대학예비자 과정 스튜디엔콜렉(Studienkolleg)은 독일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학생의 대학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인 페스트스텔룽스프뤼퉁(Feststellungsprüfung)을 준비하는 1년 과정의 학교이다. 한국에서 1년 이상 대학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혹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생들이 독일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할 때는 스튜디엔콜렉(Studienkolleg)⁴⁾을 다녀야 한다.

스튜디엔콜렉(Studienkolleg)의 입학 자격은 입학허가 신청자격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유자이며 중급2(B2)⁵⁾의 독일어 능력 소유자이다. 입학시험은 중급2에 해당하는 독일어 문법, 작문, 듣기 그리고 회화 시험으로 진행된다.

전공 공부 팩스티디움(Fachstudium)은 입학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전공하고 싶은 학과목에 따라 아래의 5개(공학과정, T : 의학과정, M : 경제사회과학, W : 인문과정, G: 어문학과정, S) 준비과정으로 나뉘어 수업을 듣게 된다. 교사들은 교수와 강사로 구성되어 있고 수업은 중고등학교의 성격이다. 아래는 전공별 필수과목이다. 교사들은 교수와 강사로 구성되어 있고 수업은 중고등학교의 성격이다.

- * 인문학과정(G과정): 인문계열 및 독어독문학 지원자에게 해당되는 과정
독일어, 역사, 독문학, 영어, 불어, 라틴어, 수학, 지리/사회
- * 공학과정(T과정): 수학, 자연과학, 공학 계열 지원자에게 해당되는 과정

4) Studienkolleg은 대학교(Universitat)와 전문대학(Fachhochschule)의 입학을 위한 과정으로 두 종류 (Studienkolleg fur Studierende an der Universitat 와 Studienkolleg fur Studierende an der Fachhochschule)로 나누어져 있다.

5) 독일어 B2/DSH1 -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복합적인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의 전문 토론도 이해한다. 쌍방 간에 큰 노력이 없이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폭 넓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시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의 장단점을 제시할 수 있다.

독일어, 수학, 물리, 화학, 지학, 공업, 설계

* 의학과정(M과정): 의학, 생물, 약학 등의 전공을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해당되는 과정

독일어, 생물, 화학, 수학, 물리, 라틴어, 컴퓨터

* 경제사회과학과정(W과정): 경영, 사회학 분야의 지원자에게 해당되는 과정

독일어, 수학, 경제학, 경영학, 역사/지리/사회, 영어, 통계학

* 어문학과정(S과정)과정: 언어학 분야의 지원자에게 해당되는 과정

독일어, 역사, 제2외국어, 제3외국어 혹은 지리/사회/독문학 중 선택

(가) 베를린대학교 대학예비자과정

베를린대학교 경제사회과학 과정은 8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1주당 30시간의 수업을 한다. 1~2 학기를 이수한 후 졸업시험 페스트스텔룽스프뤼퐁(Feststellungsprüfung)을 봐야 한다. 이 과정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중급이상의 독일어 실력(B1-B2)이 요구되며 독일어로 고등학교 수준의 수업이다.

<표 1> 베를린 대학교 대학예비자과정 경제사회과학 W 과정 시간표

요일 시간	월요일 (Montag)	화요일 (Dienstag)	수요일 (Mittwoch)	목요일 (Donnerstag)	금요일 (Freitag)
08:15 09:45	독일어 (Deutsch)	기초수학 (Elementar mathematik)	영어 (Englisch)	경제학 (VWL)	독일어 (Deutsch)
10:00 11:30	분식수학 (Mathe Analysis)	경제학 (VWL)	독일어 (Deutsch)	분식수학 (Mathe Analysis)	경제경영학 (BWL)
Pause					
12:15 13:45	경제사 (Wirtschafts geschichte)	독일어 (Deutsch)	경제학 (VWL)	전산학 (informatik)	영어학 (Englisch)
14:00 15:30	독일어 (Deutsch)				

2.3 호주

호주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은 각 주 별로 6학년 7학년까지 Parimry School과 12학년까지의 Secondary School로 나눈다. Secondary School은 10학년까지의 중등부(Junior) 의무교육과 대학 진학을 위한 11~12학년 고등부(Senior)로 구분되며 대학 과정은 3년이다. 호주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칠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Year 12에서 한국 대학교의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대학교양과정(대학예비수업)을 받는다. 대학교 진학 시에는 바로 전공 수업에 들어가게 된다.

호주와 학제가 맞는 않는 국가는 졸업학력이 1년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부

족한 1년의 학업기간을 호주나 영국의 대학교에서는 요구하게 되는데 대학예비과정(Foundation Year Program)을 거쳐서 대학입학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호주 파운데이션 과정은 영어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과정이 아니라 유학생들이 학력이 부족할 경우 들어야 하는 대학기 초예비과정이다. 또한 대학예비과정은 일정한 고등학교의 학력조건이 있으며 이 학력조건은 나 라마다⁶⁾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호주 대학의 외국인 입학 조건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한국의 4학년 대학 1학년 이수자 전문대 졸업자이며 영어 수준은 IELTS 6.5점이다.

(가) 모나쉬 대학교

모나쉬대학교 대학예비과정((Foundation)은 학부 전공 입학에 위한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 한 과정이다. 유학생의 최종학력 때의 성적과 아이엘츠(IELTS) 점수에 따라 대학예비과정이 다 르게 제공된다.

<표 2> 모나쉬 대학교 대학예비과정((Foundation) 프로그램

Standard (일반과정)	Intensive (속성과정)	Extended (연장과정)
12개월	9개월	18개월
고등학교 성적 (국가별 다름)	고등학교 성적 (국가별 다름)	고등학교 성적 (국가별 다름)
IELTS 5.5 (each band 5.0이상)	IELTS 6.0 (each band 5.5이상)	IELTS 5.0 (each band 5.0이상)
1~2학 1학기: 영어1개 (단원 영어, 생물학, 회계, 수학, 지리학 - 각 1단원) 2학기: 영어 교재 (단원 영어, 생물학, 회계, 수학, 세계화 - 각 2단원)	1~2학기 1학기: 영어1개+ 2과목 2학기: 영어2개+ 4과목 (수학 2과목, 화학 또는 회계)	1~3학기 1학기:영어2개+3과목 2학기:영어2개+3과목 3학기:영어2개+3과목 (기초 수학, 학습 연구,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모나쉬 대학교 디플로마 과정은 우리나라 학위의 전문대학교 과정을 마친 전문학사 학위 정 도의 수준이다. 부족한 영어와 선수과목(8개)를 이수하면 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며 전 문교육과정을 마친 수료과정이 발급된다. 모나쉬 대학은 인문 디플로마, 비즈니스 디플로마, 공 학 디플로마, 예술 및 디자인 디플로마 4개의 과정이 있으며 인문.사회계열과 비즈니스계열의 1 학년 교과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다음은 모나쉬대학교(Monash University)에서 제시하고 국가별 입학 기준이다.

		Intensive 과정	Standard 과정	Extended 과정
한국	고등학교 2학년	75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고등학교 3학년	65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이상
중국	고등학교 2학년	75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고등학교 3학년	65점 이상	65점 이상	65점 이상

<표 3> 모나쉬 대학교 디플로마 과정 인문.사회계열 전공 기초 과목

인문 계열	Part 1	1학기-미디어(매스미디어와 현대사회)A, 초급 저널리즘, 인문학 의사소통, 자료 분석, 2학기-미디어(매스미디어와 현대사회)B, 국제 비즈니스 의사소통, 초급 심리학, 현대 사회론
비즈니스 계열	Part 1	1학기-비즈니스 회계, 경영 입문, 자료 분석, 경제 입문 2학기-마케팅 입문, 법 입문, 문화 간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수학 입문.

2.4 프랑스

프랑스 대학교 입학은 자국에서 고등교육을 이수 중인 모든 외국인 학생들은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프랑스 고등교육 과정에 입학/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학위를 취득해야만 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했음을 공식 승인 받게 되며 고등교육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는 고등교육 과정의 첫 번째 학위이기도 하며 한국에 경우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합격증에 준한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프랑스어와 프랑스 거주 경험이 없이는 대학에 입학하기 어렵지만 외국인이 자국에서 대학에 합격한 후에 프랑스로의 편입학은 비교적 수월하여 프랑스 유학은 신입 입학보다는 대학1~2학년으로 편입학 유학이 비교적 많다. 프랑스 대학은 학부에 편입한 학부생을 위한 1~2학년 외국어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다.

외국인이 프랑스 국립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2월 경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붙어 시험에 응시한다. 한국에서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등록한 자에 한하여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DELF(Diplôme d'Etudes en Langue Française) B2 이상의 어학성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윤희원.민병곤(2012:397)은 파리 3대학의 편입학 학생들을 위해 유료로 제공되는 프랑스어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파리 3대학은 대학 입학 후에 단순 언어 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부족한 어학실력과 대학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학 1학년 수준으로서의 과정과 대학 2학년의 수준의 과정으로 나뉘어 어학 공부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수강하도록 되어 있다. 자세한 수업 소개는 <표 3>와 같다.

<표 3> 프랑스 1학년 과정 DUEF1 과 DUEF2 비교⁷⁾

	DUEF 1	DUEF 2
연간 시수	400시간(16시간×25주) • 공통과목 4강좌 × 2시간 • 선택과목 4강좌 × 2시간	450시간(18시간×25주) • 공통과목 5강좌 × 2시간 • 선택과목 4강좌 × 2시간
대상	DELFB2	DELFB2/C1 이상

7) 윤희원.민병곤(2012: 397) 재인용.

수준	프랑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프랑스 관련 지식과 실기 능력을 본 대학 1학년 수료 수준에 달하도록 교육	프랑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프랑스 관련 지식과 실기 능력을 본 대학 2학년 수료 수준에 달하도록 교육
내용	-공통과목: 프랑스어 연구, 화법, 작문과 자료 분석, 프랑스와 프랑스인의 역사	-1학기 공통 과목: 프랑스어 문법과 사용, 담화 분석, 서사적 텍스트 읽기, 시적 텍스트 읽기, 프랑스 문화사 -2과목 공통 과목: 프랑스어 문법과 사용(계속), 프랑스어의 이해, 영화의 서사, 희곡의 이해, 프랑스 문화사(계속)
평가	학기 중 수시평가 및 매 학기말 종합평가	

3. 국내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언어 지원 프로그램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2016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 사항’에 실린 157개 대학 대부분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자에게 입학할 허용하고 있고 예.체능과 이공계열은 2급 이상자에게 입학할 허용하고 있으며 졸업하기 전까지 4급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5급 이상 언어능력을 요구하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의예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과 단 두 곳이다.

3.1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한 국내 학문 목적 한국어의 교육과정 현황⁸⁾을 알아보기 위해서 2015년 국내 대학의 500명 이상 규모의 30개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1차로 한국어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 운영여부를 알아본 후 2차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교육 내용을 알아보았다. 조사 방법은 기관 설문 조사 및 전화 인터뷰, 학술지 자료를 참고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의 교과 운영을 살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어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

일반 목적 한국어 (1급~6급)	학문 목적 한국어		
	최고급반(7급)	특별반	학문 목적반
경기대학교, 건국대학교	가천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8) 2015년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한국어연수과정 포함). 출처‘대학알리미’
가천대학교(656명), 건국대학교(1,785명), 경기대학교(530명), 경북대학교(899명), 경희대학교(3,144명), 계명대학교(947명), 고려대학교(3,336명), 국민대학교(1,621명), 동국대학교(1,751명), 부산대학교(948명) 상명대학교(1,177명), 서강대학교(1,002명), 서울대학교(1,356명), 선문대학교(907명), 성균관대학교(2,387명), 세종대학교(707명), 연세대학교(3,093명), 영남대학교(590명), 우송대학교(1,218명), 이화여자대학교(1,248명), 인하대학교(804명), 전남대학교(605명), 전북대학교(550명), 중앙대학교(1,454명), 충남대학교(977명), 충북대학교(802명), 한국외국어대학교(1,042명), 한양대학교(2,056명), 호남대학교(666명), 홍익대학교(694명)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⁹⁾ , 세종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송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호남대학교, 홍익대학교	상명대학교 선문대학교 ¹⁰⁾ 전남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강대학교
--	--	----------	-------

국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단 한 곳뿐이다. 서강대학교는 3급 이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문 목적 글쓰기 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대부분의 대학은 학문 목적 교육보다는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의 6급 연장선상의 교육으로 최고급반(7급)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연구반), 상명대학교(대학예비반), 선문대학교(심화반), 전남대학교(작문반, 발표반) 가천대학교(최고급반), 한양대학교(심화반)로 조사되었다. 이 과정은 학문 목적을 위한 교육과정보다 학생들의 국내 대학 입학 전까지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기관이 한시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몇몇 대학은 학생의 수요나 요구가 있으면 한시적으로 최고급(7급)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대학의 특성상 특화된 학문 목적 한국어를 운영하고 있는 두 대학이 있는데, 한 곳은 고려대학교의 3급.4급.5급의 특별 수업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 번역 과정과 한국어 통역 과정이다.

일반 목적의 정규 한국어 교육과정은 주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간 학습을 목표로 운영되는 집중과정으로 보통 초급(1.2단계), 중급(3.4단계), 고급(5.6단계)의 6단계 수준별로 학급이 구성되며 1년에 4학기 운영되고 있다. 한 학기는 10주에 200시간으로 하루 4시간 수업을 하고 있으며 수업 설계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 기능을 통합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은 1회의 한국문화체험을 통해 한국문화 교육을 하고 있다. 아래 <표 5>는 일반적으로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이다.

<표 5>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일반 목적 한국어과정
과정명칭	한국어 정규과정
등급	1급~6급
학기운영	1년 4학기제
수업시간	일일 4시간×5일×10주
사용교재	통합교재

9)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한국어 과정은 한 학기 200시간을 기준으로 학기 운영을 1년 4학기제(한 학기 10주)와 1년 6학기제(한 학기 8주)를 운영하고 있다.

10) 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육 홈페이지에는 한 학기 15주 300시간과 계절 학기 8주 160시간을 운영한다고 소개되어 있지만 2016년부터 한 학기 10주 20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과목구성	통합교재
학습목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1일 수업설계	1교시 09:00 ~ 09:50 어휘 2교시 10:00 ~ 10:50 문법 3교시 11:10 ~ 12:00 본문 4교시 12:10 ~ 13:00 활동
특징	한국문화체험

다음은 연세대학교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이다. 연세대학교는 2010년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의 학부예비과정을 개설하였다. 학부예비과정은 대학 입학 전 과정으로 1학기 250시간 4등급(초급, 중급1, 중급2, 고급)으로 1년 과정을 운영하였다. 이후 2011년 대학한국어과정으로 개명하고 등급은 5단계로 조정하였다. 1학기 7주, 6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교양교과목 강의의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교양서적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대학한국어과정의 학문 목적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6> 연세대학교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등급	5등급(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교육기관	1년 6학기제				
필수과목 수업 시간 수	7주(200시간)				
선택과목	과목	한국어능력시험준비특강			
선택과목	시수	10시간(의무)			
수업일	주5일 수업(월요일~금요일)				
수업시간	1일 6시간				
	시간	초급1,2	중급1	중급2	고급
	1교시	어휘-문법			
	2교시				
	3교시	어휘-문법/읽기	어휘/문법/읽기(생활, 강의)	문화/읽기(강의)	
	4교시	읽기(생활)	읽기(생활, 강의)		읽기(강의)
	5교시	말하기/듣기 쓰기(생활)/토픽준비반	말하기/듣기 쓰기(생활, 강의)/토픽준비반	말하기/듣기쓰기(강의) 토픽준비반	
6교시					

위의 조사한 30개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 한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주목해서 볼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수업이다. 대부분 대학이 특별반 과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입학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¹¹⁾을 획득해야 하고 졸업을 위해서는 4급을 획득해야 하기

11) 최근 한국어교육기관에는 고급반 개설이 중급반에 비해서 개설되는 반이 많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3.4급에서 대학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4급을 수료한 후에는 이미 많은 학생이 대학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고급반

때문이다. 국내 대학에 성공적인 유학을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유학생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사항이다. 한국어교육기관 또한 이런 학생들의 요구와 국내 대학의 입시 환경으로 인해, 한국어 정규과정 이외에 특별한 형태로 한국어능력시험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의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중 한국어 숙달도가 낮은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한송화(2010)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어 숙달도가 낮은 유학생은 국내 대학 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학점과 연계한 교양 선택이나 필수외국어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한국어 언어 능력의 부족 상태에서 국내 대학 입학 후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 휴학이나 자퇴하지 않도록 대학수학기초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유학생은 국내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한국어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한국어교육기관은 소속 대학의 학부와 연계하여 입학 예정인 예비 신입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숙달도 향상과 전공 기초 지식 배양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 결론

국외 몇몇 국가의 자국에 유학생을 위한 입학과정과 언어숙달도 향상시키는 위한 학문 목적 언어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국가는 일부 국가이지만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오랜 경험으로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증가하는 학생들의 대학 입학이라는 목적이 분명할 때 몇몇 국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국외 국가는 자국의 유학생을 위해 비교적 높은 자국어 실력을 요구하였다. 언어 숙달도를 살펴보면 각 나라별 유학생에게 요구하는 언어 시험을 유럽공통참조기준과 비교하면 B2~C1에 해당하는 것으로 'B2는 원어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 없이도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C1은 사회생활과 직업생활,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에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비교적 높은 언어능력을 필요하였다. 또한 독일과 호주는 초.중.고 학제가 다른 경우의 유학생에게는 대학예비과정을 통해 부족한 1년의 학제를 보완하도록 하고 입고 입학 기준을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언어학습이외에 대학예비과정은 중국, 호주, 독일에서 모두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입학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별 기초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고 호주는 학제가 다른 국가 유학생에게는 부족한 1년을 대학예비과정을 통해 12학제를 맞추도록 하였다. 독일은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에게 5개 과정의 전공별로 분류하며 전공 기초 과목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프랑스는 외국인에게도 자국민과 같은 외국인 중등교육과정의 학위 취득 시험을 보도록 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의 프랑스 입학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유학생이 본국 대학에 진학하여 1~2학년을 마친 후 프랑스 대학에 편입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유학은 편입이 비교적 많다. 프랑스는 대학은 유학생이 대학 입학 한 후에 부족한 언어를 학습하고 전공과목의 기초 학력을 향상할 수 있는 언어 지원 프로그램과 대학 수학 기초 학력 향상

이 중급반에 비해서 적게 개설된다고 한다.

을 위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DUEF 1, DUEF 2 과정의 수학 기초 학력을 위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살펴보면 전공에 따른 기초 학력을 위한 수업보다는 프랑스 문화를 이해하는 과목이 집중되어 있다.

외국 유학생들만을 위한 전용 학과가 설치하고 있는 중국은 '대외한어과'로 이 학과는 유학생들을 위한 전공학과로 중국어와 중국문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만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대외한어과(對外漢語學科)에 진학하는 경우이다. 대외한어과는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과'로 중국어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보통 중국인과 함께 배우는 본과 진학이 5~6급 수준이라면 대외한국어학과는 HSK 3~4급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비교적 쉽게 입학과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유학 전담 기구(독일(www.daad.or.kr) 영국(www.educationuk.org), 일본(www.ejute.com))가 있는 국가는 유학을 위한 제반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유학 준비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안내뿐만 아니라 어학 과정 소개, 대학에 진학을 위한 전공 및 대학 소개를 볼 수 있으며 대학생활과 유학생들의 커뮤니티까지 언어권별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에 유학생을 오고자 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대학별 전공 소개와 유학 절차 및 포털 안내를 위한 유학 전담 기구의 설치에 대해 논의해 볼만 하다.

■ 참고 문헌

- 권은영(2013), 외국인 유학생 교양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교양교육연구 7(2), 한국교양교육학회, p373-398.
- 김중선 외(2010),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 전략 및 지원·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방안, 최종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 백성준(2015),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개선 방향, THE HRD REVIEW, 8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66-79.
- 이주현 외(2015), 국제교육서비스 산업으로서 유학생 유치 연구, 최종보고서. 교육부.
- 윤희원·민병곤(2012), 해외 대학의 비모어 화자 대학(원)생을 위한 언어 지원 사례 연구-프랑스 파리 3대학, 7대학과 영국 서리 대학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389-413.
- 조항록(2005), 국내 한국어 교육 발달 과정과 특징, 한국어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249-275.
- 조항록(2008), 한국어교육 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어 교육 1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1-25.

▣ 토 론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한 언어 지원 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소영(건국대)

한국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의 수가 늘어나면서 유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및 학습 능력의 자질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학습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 비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역사가 오래 된 중국, 독일, 호주, 프랑스의 언어지원 프로그램 및 언어 지원 제도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에서 유학을 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 이 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목적과 학문목적 과정이 수업 시간이나 학기 운영 등을 제외하고 수업 내용에서의 차이점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어휘나 문법, 읽기, 쓰기 수업 등은 일반목적이나 학문목적 모두 비슷한 교재와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두 목적을 구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한국어교육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나아가야 하는 문제겠지만 이 논문을 준비하시면서 연구자께서 생각하신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한 바람직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은 어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최근 한국의 일부 대학교의 경우 토픽 자격증이 없는 유학생들도 입학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학 교육 과정을 수학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행 대학교 입학 자격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어교육을 하면서 늘 고민하던 문제들을 이 논문을 통해 학회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연구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